

1969년 9월 25일 인쇄  
1969년 10월 1일 발행

# 공군

<제 112호>

공군 20 돌 기념특집

1969

## 축 한국공군 「팬텀」기 인수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음속 2.5배) 최신에 「팬텀」기 인수식이 8월 29일 OO기지에서 임국방부장관 임석 리에 내외귀빈과 공군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임충식 국방부 장관



김성룡 공군참모총장이 인수서에 서명

「공군」 제 112 호 <창군 20돌 기념 특집>

<권 두 언> . . . . . 정훈감 신찬  
국방과 군인의 사명 . . . . . <중앙일보 논설위원> 양홍모(8)  
영공방위에 이상 없다 . . . . . <공군작전사령관> 윤용렬(17)

공군을 지휘하면서 <역대 총장편>  
공군독립의 전야 . . . . . <초대 및 3대 참모총장> 김정렬(22)  
지휘관의 책임 . . . . . <5대 참모총장> 김창규(29)  
전통과 기풍 . . . . . <7대 참모총장> 장성환(34)  
군과 단결 . . . . . <8대 참모총장> 박원석(44)

「인화단결」이 필승의 요체 . . . . . <전 공군참모차장> 오점석(48)  
우리공군의 어제와 오늘 . . . . . <공군작전참모부장> 장성태(53)

—공동제목·나의 공군시절 <예비역 인사칼럼>

고걸 살고죽어 . . . . . <초대 공군정훈감> 김기완(57)  
레디스 앤 젠트맨! 땡큐 . . . . . <3대 공군정훈감> 이종승(59)  
도중하차 . . . . . <4대 공군정훈감> 주정호(64)  
김참모장과 나 . . . . . <성대교수> 김경수(66)  
후보생 어깨에 소령 계급장이 . . . . . <영남대 교수> 유희렬(68)  
희목한 조직생활이 그리워 . . . . . <국회의원> 박두선(69)  
노인장교 파티도 열고 . . . . . <누가병원장> 박병태(70)  
형제 느낌땀이 . . . . . <광통사역원> 김철호(73)  
영똥하게 기합을 . . . . . <서울대 교수> 이만갑(74)  
분만을 군배 . . . . . <전 부총리> 박중훈(76)  
3분내로 선착순 집합 . . . . . <주한미군대사관> 한인섭(77)  
인사참모는 오래살까야 . . . . . <일신산업 전무이사> 유경린(80)  
지성의 소치 . . . . . <고대 교수> 현승중(82)  
강릉비행장의 어느날 . . . . . <한국규격협회 전무> 노중신(84)  
사천출장기 . . . . . <의사> 이동기(86)  
잊어지지 않는 B대령 . . . . . <한찬산업 Co> 민병찬(87)  
네가 참모총장이야! . . . . . <대한일보사 전무> 한갑수(89)  
남자에게 지지 않으리 . . . . . <미지항공사> 김경오(92)  
처음의 에어쇼 . . . . . <한국나일론 전무이사> 이태현(93)  
별표와 배신자 . . . . . <중앙교육공무원> 김재원(95)

6·25 동란과 공군의 분투 . . . . . <공대총장> 박제호(97)  
필승의 신념 . . . . . <공군준장> 배상호(104)  
전승의 요인은 정신무장 . . . . . <서울신문사 전무이사> 윤일균(121)  
한국전쟁 출격회고 . . . . . <공군준장> 임순혁(124)  
애기(愛機)에 대한 경례 . . . . . <공군준장> 김영환(132)

공군성년20주년을 축하합니다<국민에게 바친 공군의 일상>

「팬텀」기 소리 듣고과요! . . . . . <배우> 윤정희(137)  
하늘의 파수꾼이여 힘차게 성장하라! . . . . . <탤런트> 이순재(139)  
우주공군 되길 . . . . . <아나> 박중세(142)  
잠자리가 달나라로 . . . . . <가수> 최영희(144)  
공군엔 무조건 호감 . . . . . <아나> 김민자(146)  
비행기와 과일꽃을 동경 . . . . . <탤런트> 김민자(149)  
지성적인 미모의 대표 「공군」 . . . . . <가수> 조영남(152)

●진중기●

1인 3역의 곡예사 . . . 소령 이종욱(59) 나는 일선 정비사 . . . 상사 하병삼(66)  
관제사의 멋 . . . . 소령 최홍선(55) 나의 생활에 만족 . . . 하사 서영석(70)  
검은 머플러 . . . . 중위 최도영(63) 청년의 기상은 국가의 위력 상병 김진수(72)

비행생활유감

F-86F 초 단독비행 . . . . . 소위 박윤교(175)  
F-86F 초 단독 비행 . . . . . 소위 차옥환(178)  
UH-19 비행생활 . . . . . 중위 김중태(182)

기상예보자의 아내 . . . . . 이화자(184)

군중코너  
양심과 신앙 . . . . . 김두식(186)  
양심과 정의 . . . . . 김헌기(189)  
화인맞은 양심 . . . . . 최원진(193)  
소리없는 양심 . . . . . 이준학(196)  
양심의 소재 . . . . . 이영렬(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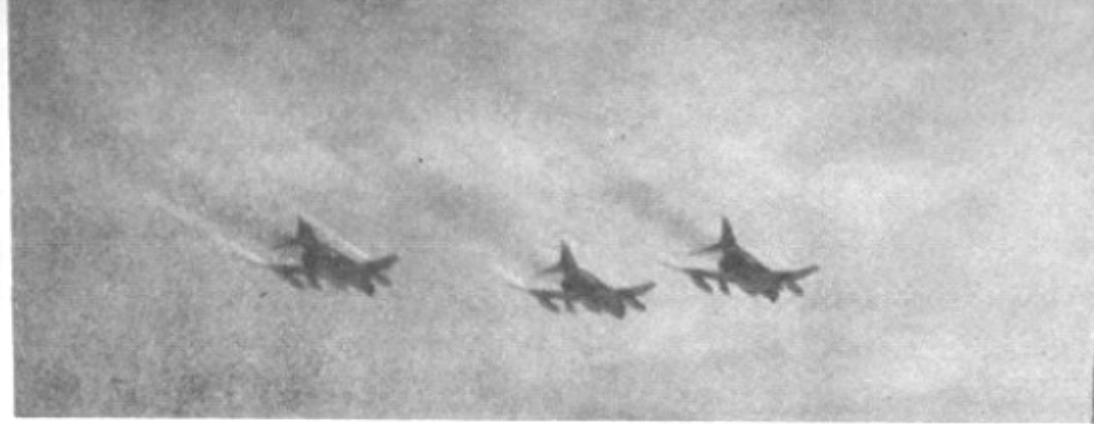
암흑을 뚫고 ② . . . . . <시사통신 상무> 이상욱(199)  
<단편> 은사(恩師) . . . . . 김병로(214)



「팬텀」기 인수식 광경.



인수한「팬텀」기.



「팬텀」기 편대가 영공을 누비고 있다.



「팬텀」기가 공군 OO기지에 최초로 착륙하는 역사적인 순간



「팬텀」기 조종사들이 환영을 받으며 기념촬영

## 국민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  
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  
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  
아 창조와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 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  
통을 이어받아 명량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  
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  
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  
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 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 자주국방의 전위 팬텀공군

1969년 9월 23일  
대통령 박정희

### 군인의 길

-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  
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 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써 싸움터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  
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 셋. 우리는 술선수범하여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  
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 넷.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기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
- 다섯.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서 예절을 지키며, 공과 사를 가리어 단결을  
굳게 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 여섯.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검소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 시설을 애호하  
고 군수 물자를 선용한다.
-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여,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  
민을 위한 참된 역군이 된다.

# 공군

〈제 112 호: 1969 년 제 5 호〉  
— 공군 20돌 기념 특집 —

<비매품: 무단전재금>  
발행인: 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공군대령 신찬  
인쇄처: 공군교재창  
인쇄인: 공군대령 김복구  
편집실: TEL. 206-3251, 69-3511



##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적 공산계열에서는 이와 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서 이용코자 할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온갖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영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전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 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 훈 감 실

## 「팬텀」 공군

정훈감 공군대령 신 찬

공군은 「팬텀」 신예기를 보유케 되어 우리 국방력 증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창군 20년. 수대의 L4 연락기는 세계 최강의 「팬텀」기를 비롯한 수백 대의 신예기로 늘어났으며 60킬로의 시속은 3,000킬로의 초음속권으로 뛰어 올랐다.

5천「피이트」의 높이와 120「마일」안에 머물었던 좁다란 활동무대는 9만「피이트」의 고도와 2 천 여「마일」의 폭으로 넓혀졌다.

그 밖에 전천후비행, 갖가지 무장과 정확한 폭격술 등의 훌륭한 공중기동성도 오늘의 성장을 기록해준다. 우리의 성장은 비단 항공기뿐만이 아니다. 물 셀 틈 없는 「레이다」 방공망, 정밀한 「제트」정비, 10여개의 전술공군기지, 항공의학을 비롯한 우주과학의 연구발전,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안전, 치밀한 기술교육과 드높은 사기유지 등 어느 모로나 「성년공군」의 어엿한 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해방의 혼란 속에서 창군되어, 미처 정돈할 틈도 없이 6·25의 매정한 시련에 부딪쳤지만, 우리의 끈끈한 투지와 값진 희생은 전란 중의 온갖 어려움을 극복케 했다.

또 휴전 후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밀어닥친 「제트화」의 일대과업도 우리의 애국 정열로 이겨낼 수 있었으며 뒤이은 장거리 공수비행과 각종 후방지원체제의 독자적 운영은 우리의 끈질긴 인내의 수확임에 틀림없다.

한때 우리는 미 수원국 중에서 F5A 신예기를 최초

로 운용했으며, 오늘은 세계 최신에 「팬텀」기를 보유하고 「막강공군」의 전열을 다듬고 있다.

우리 공군은 빈손으로 태어나, 20년의 신고간난(新古艱難)을 겪는 동안, 탁월한 군사지도자들의 영명한 판단과 격려에 순종했으며 자유우방의 아낌없는 뒷받침에 힘입고 노력했다. 조국하늘에서 먼저 숨져간 선배의 교훈을 이어 받음으로써 그 거룩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의 「성년공군」이 되기까지의 피어린 우리의 발자취이다. 그 가시 밭 속에서도 50년의 군용항공기 역사를 20년으로 단축시켜 세계 막강의 「팬텀공군」으로 결실 맺었으니 약간의 자랑과 기쁨도 함께 교차된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강력한 북괴공군력과 대치하고 있다. 침략야욕에 날뛰는 그들은 우리의 허점을 호시탐탐 살피고 있다. 어느 때고 이쪽의 약점만 잡아 쿼다면, 그들의 교활하고 잔인한 본성을 한꺼번에 드러내서 우리의 등을 칠 것이 뻔한 노릇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중무휴, 불철주야로 이 간악한 적들의 전쟁기도를 감시하고 분쇄하려는 것이다. 지금은 「팬텀공군」이 된 기쁨에 도취 하고 말 때가 아니다. 우리의 사명도 「팬텀공군」이 되면서부터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었음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팬텀공군」은 실로 우리 공군사에 새 줄을 그을 만큼 획기적인 전진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새로운 전진의 과업을 맡을 일꾼이 바로 우리 이다.

어느 때 보다도 우리의 배가된 의지와 용기, 그리고 인내가 요구된다. 역사적 전기를 맞이했을 때 혼연히 그 속세 뛰어 들어 온갖 정열과 노력을 쏟아 놓은 것이 창공인 이 갖추어야 할 자세인 것이다. 또 이것이 바로 국민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자세이기도하다.



## 공군 창설 20주년에 즈음하여



공군 참모총장  
공군 대장 김성룡

친애하는 공군장병 및 문관 여러분!

오늘 공군 창설 제20주년에 즈음하여 뜻 깊은 이날을 경축함에 앞서 일찍이 공군 창건에 희생적 노력으로 심혈을 기울이신 선배, 동지 여러분의 값진 공헌에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조국의 영공방위를 위해서 각기 맡은바 임무관수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전장병 그리고 자유수호의 역군으로 이역만리 월남전선에서 선전분투하고 있는 지원단 장병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20년 전 우리 공군은 낡고 빈약한 경비행기로 출발하여 온갖 풍상을 겪어가며, 조국의 하늘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높은 뜻과 고귀한 희생으로 이제 막강의 위용과 무적의 실력을

자랑하는 「팬텀」 정예공군으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이는 창군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바쳐 본분을 다한 선배, 동지

들의 애국충정과, 군을 내 몸같이 아끼고 키워주신 국민들의 끊임없는 후원의 보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창군 당시의 그 벅찬 감격은 되새기면서,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기 위 해 명예로운 멸공대열에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들의 열성 적인 분발과 노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치하와 격려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흘린 피와 땀의 대가가 고무적안 내 일을 기약한다는 굳은 신념과 밝은 희망으로, 그간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알찬 업적을 이룩하였으며, 전력증강과 전투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기초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였음을 장병 여러분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창설 20주년을 맞아 성년에 정어든 우리들은 양적증대에서 질적 향상에 역점을 두어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민족중흥의 성업달성을 위해 민주군대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다함으로써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의 대열에서 선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이제 격동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는 지난날의 값진 희생과 고귀한 업적을 이어 받고, 숭고한 우리의 이념과 슬기로운 오늘의 지혜를 발판 삼아 앞날의 역사 속에 보람찬 발자취를 남겨 야 할 무거운 사명과 과업이 부과되어 있음을 다시금 명심하고,

우리의 인내와 의지로써 과감하게 이를 떠맡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이 보다 힘찬 내일의 전진을 위한 반성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을 강조하며,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험난한 장애라도 이를 과감히 극복해 나가는 투철한 정신으로, 각자의 능력을 십이분 발휘하여 우리가 맡은 대임완수에 더욱 정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1969. 10. 1.



## 공군 창설 20주년에 즈음하여

해군참모총장 해군대장 장지수



20년 전 공군이 전신인 육군항공대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군으로 새 출발 한 날이기도 하며 이 땅에 처음으로 3군이 정립하여 국군의 면모를 새롭게 한 날이기도 한 오늘을 맞이하여, 그간 1,000여명의 병력과 20대의 경비행기로부터 시작하여 팬텀기를 보유하는 오늘의 공군으로 육성 발전시켜온 하늘의 선각자 제헌을 비롯한 공군 전 장병의 노고와 공헌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와 아울러 축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1차 대전 초기에 군사력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의 공군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한 이래 전략병기로서 전쟁역력에 기여하게 된 현급에 이르기까지의 50여 년간 공군은 실로 전쟁의 양상, 전략개념, 국가의 운명과 인류역사의 행방까지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가깝게는 6·25동란과 월남전을 통하여 공군의 역할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깊은 인식을 주게 되었으며 북괴 의 항공력 증강노력으로 더욱 그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공군력은 침공하는 적기를 요격한다거나 적 영토내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독자적인 작전만이 아니라 지상전투와 해상작전을 엄호,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중 장거리 공격 무기로서 항공모함에 탑재된 항공기는 해군의 거함거포주의를 퇴색시키고 전함중심으로부터 함모중심의 기동함대를 낳게 한 이래로 항공력없이 해상에서의 우세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산대륙 국가국의 일각에 돌출한 반도국가로서 삼면의 바다에 의하여 자유세계와 격리된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일단유사시 해상교통로에 국민의 생존을 걸고 있는 우리는 해상 우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군력의 증강을 그 누구보다도 염원해왔습니다. 항공기의 속력과 항속거리면으로 보아 우리 국토자체가 거대한 항공모함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주변해역에서 작전 하고 있는 해군정비함은 이 항모를 호위하는 경계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해군과 공군은 앞으로 항모를 중심으로 결집된 강력한 기동함대와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 통신, 전기면에서 보다 밀접한 합동작전능력과 체제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환언하면 항공력없는 기동함대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기동함대 없는 해상우세권이 존재할 수 없으며 해상 우세권없는 해상교통로의 유지가 또한 불가능할진대, 실로 해공합동 작전능력의 유두는 해군 및 공군의 독자적 존재에 관계없이 국가존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간첩 작전을 계기로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해공합동작전은 그 개념부터가 군함 아닌 간첩선을 탐색 격멸하기 위한 유도, 상봉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앞서 개시된 봉황훈련 역시 그 빈도와 훈련수준면에서 볼 때 낮은 수준에서 담보하고 있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가까운 장래에 해상작전의 여러 국면을 상정한 고도화된 합동작전훈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해군은 공군을 더욱 알고 공군은 해군을 더욱 이해하기 위한 활발한 교환도육도 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해공합동작전 능력의 개발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며 또한 가장 어려운 장기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공군창군 제20주년 기념일을 맞는 본인의 소감의 일단으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공군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참모총장님 이하 전장병의 건투와 행운을 빕니다.

1969년 10월 1일

### 공군창설 제20주년에 제하여



해병대사령관 해병대장  
정광호

오늘 우리공군이 창설 된지 만 스무돌이 되는 뜻 깊은 날을 맞이하여 먼저  
 본인은 해병대 전장병과 더불어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며 앞  
 으로 여러분에게 더욱 빛나는 발전이 있기를 마음 속 깊이 축원하는 바입니다.  
 돌이켜 보건대 19년전 이 날 조국의 하늘을 수호하는 굳건한 자유의 방패  
 가 되기를 기약하면서 고국의 산성을 올린 공군이 그 후 험난한 시련과 고난  
 의 연속이었던 20년의 연륜 속에서 오직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끝  
 에 마침내 오늘날 자유세계 유수의 막강한 성년 공군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  
 게 되네 생각이 이르면 여러분과 함께 깊은 감회를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창설된 지 불과 1년도 안되어 6·25동란기에 접어든 우리공군은



육·해군 및 해병대와 협동하여 각 지구 전선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특  
 히 휴전 후에는 우리 해병대의 상륙전력 강화를 위해 훈련시마다 적극적인 항  
 공지원을 제공한바 있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이와 같은 여러분의 빛나는 공훈과 뜨거운 전우애에 대해서 해  
 병대 전장병을 대표하여 거듭 감사와 경의를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북괴의 전쟁도발행위가 빚어내고 있는 비정  
 규전의 상황 하에서 제공전략의 중요성은 날로 그 비중이 높아 저가고 있으  
 며 따라서 우리 공군에게 부과된 임무는 이제부터 더욱 막중한바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서 바로 얼마 전 새로운 신예전폭기의 도입과 함께 자주 국  
 방을 지향하는 전력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우리 공군은 앞으로 적의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발도 자신 있게 분쇄하여 명실상부하 는 「삼천만의 불  
 침번」으로서 그 임무를 반드시 보람 있게 완수하리라는 것을 본인은 굳게 확  
 신하며 또한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인은 다 같이 건군도상에서 피로 맺어온 공군과 해병대간의 전우  
 애를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 동 속에서 굳게 유지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공  
 군장병 여러분의 앞날에 부디 배전의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축원하여 이만 축  
 사에 대하는 바입니다.

1969년 10월 1일



## 국방과 군인의 사명

건군 21년과 자유수호의 길

양 홍 모  
중앙일보논설위원

국군이 창설 된지 21년이 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건군 21년의 우리 국군은 그야말로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건군 초창기→6·25전쟁→휴전→국군의 월남파병→자주국방의 길을 걸으면서 질과 양에 있어서는 물론 그 사명 또한 확대되었다.

창군과 더불어 생애와 청춘을 바쳐 군에 복무한 군인들이 있는가 하면 수백만 국민이 군을 거쳐 나왔다. 이제 국방이 어떤 것이며 군인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새로운 설명의 필요가 없는 상식에 속한다. 상식이란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식으로 해석 하여 무방하며 대체로 재론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과 군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차원에서만 간접 될 것이 아니다. 항상 발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며 그것은 군인 개개인이나 또는 국민 개개인의 올바른 인식과 열의가 있음으로써만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 국방의 개념

국방과 군인의 사명을 다룸에 있어서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국방의 개념이다. 즉 국방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다. 국방이란 문자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의 위해와 위협에 저항하고 그것을 배제하며 국가를 수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국방과 국가안전보장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국방과 국가안전보장은 동일한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국방은 주로 군사적인 방법으로 외부로부터의 위해와 위협에 저항하고 배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하여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전반적인 안전상태를 염두에 두고 국가의 가치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개발과 안정, 그리고 침략 없는 형태를 확보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으로서서는 비단 군사적인 국방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과학기술, 사회, 문화발전 등 전반적인 개발과 안정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국방은 국가안전보장의 개념에 포함된다고도 말할 수 있으며 국방은 국가안전보장의 한 가지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침략없는 형태를 확보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요컨대 국방이 확보됨으로써만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번영될 수 있고 개개인의 행복 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 국방에 대한 생각

국방이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는 국가안전보장이 국가의 기존 가치와 질서를 유지한다고 할 때 국가는 별반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가라는 것은 우리국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또 헌법전문(前文)에 있어서는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 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라고 명시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의 질문을 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생존과 안전

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국민 각자가 추구하는 인생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보람있는 인생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헌법 전문에 있어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누릴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도록 보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국가는 그 생활양식 그와 같은 신조는 물론 국토와 국민의 생명, 재산, 권익까지도 보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토와 국민의 신조, 국민의 생명, 재산, 권익을 지키고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방과 국가안전보장은 국민생활,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과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국방이나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은 국민 각자가 자기들의 생존, 자기들의 안전문제라고 생각해야만 할 것이며, 그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곧 자기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국방이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 위협의 요소

국방이 외부로부터의 위해나 위협에 저항하고 배제하며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면 그 위협은 어떤 것 인가? 이는 국가마다 그 나라가 직면한 정세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은 중립국가가 직면한 것과는 다르고 자유진영 이라 하더라도 일본이나, 영국 또는 서독이 직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요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심각한 것이 있으며, 이는 세계정세가 어떻게 변동되면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데서

그 특색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 세력은 북한공산괴뢰집단을 비롯해서 소련, 중공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북괴는 대한민국의 적화통일을 위해 광분하고 있다. 북괴의 적화통일 야욕은 해방 후 줄곧 계속되고 있다. 북괴는 무력통일마저 서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난날의 6·25 남침은 물론 현금의 북괴의 도발에서 명백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북괴의 위협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괴의 위협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북괴의 군사력이며 또 하나는 북괴 침략 야욕과 적화통일야욕이다. 북괴는 적화통일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발을 일삼고 있다.

북괴는 대한민국의 적화와 통일문제는 서로 연관된 것이지만 같은 것이 아니라고도 뇌깔이고 있다. 즉 남한을 적화하는데 있어서는 오직 표력적인 방법만이 있을 수 있으며 통일은 남한이 적화되면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통일은 평화적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괴는 대한민국의 적화를 위해 이른바 「3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북괴를 혁명기지」로 강화한다든가, 「남한의 혁명역량」을 강화한다든가, 「남북인민의 관계」를 강화한다든가의 구호 밑에 갖은 도발을 일삼고 있다.

그를 위해 북괴는 김일성을 이상화하며 그 독재 정권의 강화를 위해 급급하며 군사적으로는 이른바 『군대의 간부화, 과학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 지역의 요새화』를 부르짖으며 대외적으로는 온갖 국제법이나 국제관례에 아랑곳이 없이 호전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북괴의 위협은 비단군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정치, 사상, 경제 등 온갖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국방과 안전보장은 당면해서 바로 이와 같은 북괴의 위협을 분쇄하는데 있는 것이다. 한편 중공과 소련의 위협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소련과 중공은 현금, 과거와는 달리 적대관계에 들어갔고 중·소분쟁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분열되어 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 개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타세계의 적화야욕에 있으며 그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중·소분쟁의 경과를 간단히 훑어 볼 때 1956년~1959년의 경쟁적인 대립기, 1930년~1965년의 항쟁적인 대립기, 1966년~1968년의 격렬적인 대립기를 거치면서 금년 1959년에 들어서는 국경분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무력 충돌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중·소분쟁의 격화로 지난날 6·25남침 때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소·중공·북괴의 3자 통일전선은 붕괴됐다 하더라도 그들이 개별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데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 국방의 방침

이와 같은 위협을 배제하기 위한 우리국방의 방침이라는 것은 새로운 설명의 필요가 없다. 철두철미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적의 위협을 제거하고 우리나라를 굳게 지키는 것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를 위한 방침은 한 가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함을 인식해야 하고 어느 것이든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인식해야 할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한다면 첫째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국방은 한 마디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만 그것은 곧 국민의 생존과 안전 즉 우리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로 국방이 외부로부터의 피해와 위협에 저항하고 배제하는 것이라면 우선 위협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하고 특히 현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북괴의 침략야욕은 물론 그들이 감행하는 군사적, 정치적, 사상적, 경제적인 공세 등 모든 도발을 간파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국방의 방침이라는 것은 적의 위협의 성격 또는 병력, 적의 전략 또는 전술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국방은 세계정세의 변화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도 예의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적의 위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항상 강화해야 하며 그러는 데는 우리국력의 증진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나라들과의 관계도 밀접히 해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적의 군사적 공격에 대해 어떻게 방위할 것인가의 의지라 모든 능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국방과 국민

국방과 국민과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지만 국방이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군인만이 아니라 전체국민의 의무가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는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명시했으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누구나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것은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아감으로써 완벽을 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에 있어서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은 국민은 바로 국방이나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국방에는 자원, 병력, 장비, 과학기술, 외국과의 조약, 동맹관계 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국방에 대한 인식과 관심, 그리고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정세를 볼 때 전방과 후방의 구별 없이 북괴는 무장공비를 침투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 교란, 사회 질서의 파괴를 책동하고 있다. 후방에서의 예비군 또는 그 밖의 국민들은 유사시에 현역군인 못지않게 싸우고 있다. 부녀자들이 간첩이나 무장공비를 신고한 예라든가 나이 어린 아동이 어른 못지않게 활약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널리 보도되기도 한 것이다. 우리나라야말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북괴의 위협이 비단 군사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등 다각적인 방면에 걸치고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 군인의 사명

국방의 의무를 국민 전체가 지는 것이라면 군인과 국민은 어떻게 다르며 군인의 사명과 국민의 사명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우리군인도 국민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국군이야말로 국민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군인복무규율(1966년 3월 15일 공포, 대통령령 제2465호) 제 4조에 명시된 「국군의 이념」에는 『대한민국 국군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제로서 이루어진 국민의 군대이다』라고 명시 하고 있다. 또 「군인의 길」 제 7항에는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여,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군인의 신분이나 군인의 사명은 엄격히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할 것 이다. 군인의 신분은 법률적으로 규정되어있고 군인이 이룩해야 할 사명도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대국적으로 군인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국방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다.

우선 국민과 군인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기로 한다.

「국군조직법」제 4 조에 명시된 군인의 신분을 보면 『군인이라 함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군인의 개념을 보면, ① 책임있는 통솔자에 속할 것, ② 제복 또는 표장을 착용할 것, ③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1880년 영국「옥스포드」지에서 개최한 만국국제법학회 전시제요) 등을 말하고 있다. 또 거기에는 그 밖에 군인이라 함은 민병을 포함해서 예비역, 후비역, 군함의 승무원 및 그에 속하는 인원 그리고 적의 점령을 받은 지방의 국민으로서 군대 내습에 대하여 그와 투쟁하기 위해서 공공연히 무기를 가지고 나서던

자도 포함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군인은 일반 국민과 비교해서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다음 군인의 사명은 어떤 것인가? 헌법 제 4조 침략전쟁의 부인, 제6 조 공무원의 본질·책임·신분·정치적 중립성, 제 34조의 국방의 의무 등이 있지만 군인의 사명을 명백히 규정한 것은 「군인 복무규율」 제 4조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이다. 즉 『국군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며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나아가 국제평화 유지에 공헌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했다. 또 「군인의 길」 제 1항에는 『우리는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군에 관한 법률, 각종 수칙 등은 다 같이 군인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생활규범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인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의지와 결의 그리고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부과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정부수립이래 공산적과 대결하면서, 공산 독재체제하에서는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며, 그러기 때문에 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걸고 공산적과 싸웠으며 공산주의 침략을 어떻게 해서라도 저지하고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곧 우리 군인의 의지요 결의인 것이다. 우리 군인은 창군 이래 이 의지와 결의를 굳건히 한바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그 의지와 결의를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인이 군대에 복무하면서 몸을 희생 하고 그 임무를 완수하려는 각오도 이러한 의지와 결의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건군 21주년

이제 국군은 건군 21주년을 맞이한다. 국군이 성장한 발자취는 흔히 가시밭길에 비유되기도 한다. 건군 초창기의 혼란과 보잘 것 없었던 장비로 6·25의 수난 등 국군이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오늘날 국군은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됐으며 그 위용을 세계에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의 노력은 물론 희생 또한 큰 것이 있었다. 못 전 장병은 물론, 그 동안 군의 발전에 기여한 강병의 공훈과 국군의 발전을 위해 기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우방국가의 공헌을 간과할 수 없다.

국군은 1백 55 「마일」 휴전선과 바다와 하늘을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55년부터는 멀리 월남에 파견되어 싸우고 있다.

국군의 파월은 건군사상 처음 보는 해외파견으로서 그것은 국군이 우리나라의 국방에 그치지 않고 월남을 지원하는데 까지 확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군의 파월에 대해서는 처음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없지도 않았으나 미국 및 월남과의 유대강화, 국군의 장비개선, 실전경험, 월남지원, 해외에서의 국군에 대한 재평가 등을 가져오는 여러 가지 성과를 가져왔다.

121 사태 이후 자주국방이 라는 새로운 개념 아래 예비군(68년 4월 1일 정식 발족)이 창설된 것도 주목할 일이다. 국방에 있어서의 자주와 자조정신의 발휘는 매우 중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북괴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길인 동시에 우방의 원조를 적극화 할 수 있는 길이며, 그것은 오늘날의 국제정세를 볼 때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정세를 감안할 때 국방이나 군인의 사명의 중요성은 새로운 설명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열의 있는 참여와 실천은 모든 것에 앞서서 중요한 것 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군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투철히 인식하고 더욱더 발전하도록 분투해야 할 것이다.

영공 방위에 이상없다

작전 사령관 공군소장  
윤응렬

북괴는 소위 70년도 적화 통일의 헛된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침략의 터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121 무장공비 침투사태 이후 다수 혹은 소수의 무장공비들이 휴전선 또는 해안선을 통하여 침투해서 민심을 교란시키고 지하조직을 구축해 보려고 하였지만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무장공비 색출에 서로 서로 앞장을 서서 군경의 섬멸작전을 도왔던 것입니다. 북괴는 「푸에블로」호를 납치하고, 공해상공의 EC-121기를 격추하는 등 더욱 다양하고 악랄한 만행을 감행하여 온 국민의 반공의식을 더욱 굳게 하고 국제적으로 침략자로서의 낙인을 다시 한 번 찍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처해서 조국의 방패로서의 우리 군은 더 한층 국토방위의 소임을 완수하려는 결심을 굳게 하고 전력증가에 박차를 가하여 적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실력을 배양해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의 전사를 통하여 불 때 전세의 우열을 좌우하는데 있어 공군력 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새삼 강조할 여지가 없을 줄 압니다. 즉 현대전에 있어서 승패의 라우는 적의 공군력을 어떻게 빨리 견제 분쇄하고 제공권을 잡느냐 하는데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의 좋은 예로 이스라엘과 아랍공화국의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쟁의 양상이 공군력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리가 맡고 있는 방공임무가 현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를 재확인해야 하겠습니까.

건군 21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국군은 아시아에 있어서 막강의 반공 보루로 대두되어 민주 우방의 신망을 높이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월등하게 능가하는 경제성장으로 이룩되는 국가발전, 국가발전에서 비롯되는 국위선양,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서 오는 국제 유대강화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요소를 토대로 성년이 된 우리군은 삼천만의 불침번을 자부하는. 막강한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군은 창설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모든 분야에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의 대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F-5A 및 F-4D 등 신예기를 도입 하여 명실공히 전천후 요격 및 방어력을 확보하여 훈련이 즉 전투라는 신념으로 실전에 맞는 전술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의 기습공격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경보망이 수년에 걸쳐 면밀히 계획, 검토 끝에 작년에 완성을 보았습니다. 최신 전자 장비를 구비한 ROCK TOP, TOP LEVEL 계획의 완성이 북한의 물론 중국 본토에까지 이르는 완벽한 탐색능력과 신뢰성 높은 관제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ROCK TOP, TOP LEVEL 계획과 동시에 완성을 본 BLUE FORTUNE 계획에 따라 최신 「마이크로 웨이브」 장비를 주축으로 한 통신망의 구성으로 신속 정확한 경보전달은 물론 각 비행기지와의 정보교환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ROCK TOP, TOP LEVEL 및 BLUE FORTUNE 계획이 완성됨으로써 종전의 단일경보체제의 결함을 일신하고 남북 중심으로 나뉜 경보체제를 사 용함으로써 경보체제를 이원화시켜 완벽한 조기경보망으로서의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의 경보체제가 적으로부터 피습을 당하더라도 경 보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성능 전천후 항공기와, 유기적인 경보체제를 보유, 운용하는 우리 군은 훌륭히 훈련된 승무원과 지상 근무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전사령부 산하 각 비행기지에는 하늘에 젊음과 정열을 불태우려는 보라매 들이 불철주 야 출동명령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으며 각 요소

요소에 산재한 RADAR SITE에서는 적의 공중활동을 빠짐없이 항상 감시하고 일단 유사시에는 경보 발령 및 항공기 출동지시를 내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삼천만의 불침번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늘의 전 초병들이 있는 한 적은 이 땅, 하늘에 발붙일 틈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철통같은 반공체제와 아울러 초기 적 침입 시 우리의 영공을 지킬 지 대공 유도탄망의 방어능력은 실로 팔목할만 하다고 하겠습니까. 경보전과 및 공군력의 투입 등 제반 전술조치와 병행하여 육군 유도탄 부대와 긴밀한 협 조 하에 공동 방어진을 구축하여 적의 저고도 대량 침투를 저지할 것입니다.

장거리 경보용 지상 탐색 RADAR, 전투 요격기 및 지대공 유도탄의 방어체제 에 부가하여 세계 최강의 미 공군력이 우리나라에 계속 주둔하여 맹방으로서 의 공동의식을 갖고 적에 대비 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군은 긴밀한 유대 관계 를 유지하면서 공동의 적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 능력을



더욱 높이고 합동훈련을 통하여 적의 전자 방해공작에 대비한 다양한 전투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수한 전술 항공기 및 경보체제를 보유 운영하는 당 군은 현대전이 요구하는 제반 조건, 즉 임무수행에 있어서 계속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경험과 실전에 적합한 훈련으로 얻어지는 적응성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대비태세는 지난 6월에 있었던 흑산도 무장공비 소탕 작전에서 그 실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빈틈없이 전개된 방어 체제로 적의 기술공격을 조기에 탐지하여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약지점에 공중초계를 실시하여 적의 공중 침투를 조기에 발견, 초기에 좌절시킬 것 입니다. 적의 대량 공중 침투에 대비해서 전 작전가능 전술항공기의 출동절차를 마련하여 전면적인 방어능력을 유지하여 적으로 하여금 기습공격의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적침시 적 공격력을 초기에 저지시킨 후 우리의 공격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제공권을 잡는 반면 적기지 및 산업시설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한 우리의 기량을 충분히 높이고 있습니다. 즉 저고도 항법훈련, FISHNET훈련 등을 통하여 적 방공 RADAR 및 유도탄망을 회피

하여 적진에 돌입한 조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귀환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만큼 평시부터 실전과 부합하는 저고도 침투 능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접지원 훈련, 야간 대기 사격 훈련 등을 통하여 보복능력의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현 방어 및 공격 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우리 각자가 주어진 임무에 대한 인습적인 반복을 지양하고 지난 업적을 주도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여러 국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험적이며 반성적인 자세로 항상 창의성을 발휘하여 보다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과감한 실천력으로

실질적인 전력 운용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전 이후 북괴가 광분해 온 군사력 증강 및 무력 적화통일의 집념을 철저히 분쇄하고 다시는 6·25에 겪었던 민족 전쟁의 쓰라린 경험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우리의 실력을 더욱 배양해야 할 것 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전략 강화는 물론 일면 건설, 일면 국방의 자주국방 체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건군 21주년을 맞이하여 성년 된 우리 국군의 성장한 모습에 만족하고만 있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근간 북괴가 노골적인 침략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전 자유세계 국민으로 하여금 울분을 금치 못하게 하였으며 북괴는 시한 폭탄적인 전쟁도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북괴가 재침의 포문을 여는 순간 현 방어선상에서 적을 완전 섬멸하는 만반의 태세만이 우리 겨레를 살리고 조국 강산을 지키는 길임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맑 한 방울이 거름이 되어 결정적인 시기에 붉은 무리를 물리치는 총칼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조국 영공을 지키고 있는 여러 장병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치하를 하는 바이며 앞으로 더욱 맡은바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룩한 우리의 과업이 더욱 빛나도록해야 할 각오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삼천만의 불침번이 끊임없이 북녘 하늘을 지켜보고 있는 한 영공방위에 이상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 공군 독립의 전야



초대 및 3대 공군참모총장  
김정렬(국회의원)

공군창설 20주년을 맞이하여 본인은 먼저 무한한 감격과 기쁨으로 공군이 이룩한 오늘의 성장을 축하하는 바이다.

창설당시 불과 20여대의 구식 경비행기로 출발한 우리공군이 이제는 세계최신에 F4D 팬텀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었음을 눈앞에 볼 때, 공군 창설을 위해 미력하나마 뒤를 거들었던 본인으로서는 지난날을 회고하는 애뜻한 감회와 함께 벽찬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각국에서는 양차대전을 거치는 동안 항공기가 국방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지상군과 해상군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공분야의 개척에 온갖 힘을 경주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그 당시 일제 식민치하에서 나라를 잃었던 관계로 항공분야의 활동은 극히 미미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20년 전 우리공군이 창설될 때의 애로는 너무나 허다하였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고무적인 조건이 몇 가지 구비되어 있었음은 펍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첫째 :공군창설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있었다……

8.15해방과 더불어 국내외에서 항공계에 종사하던 항공인사 약 500명(조종사 약 100명, 항공기정비기술자 약 300명, 무장·통신·기상분야 등의 기술자 약 100명)이 모여들었다.

이들 중에는 특히 제 2차대전 종말기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군에서 부대장급으로 활약했던 6명의 지도자급 인사가 있었다.

만일 당시에 이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들 20년 전의 불비한 여건 속에서 우리공군의 독립이란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한국전쟁이 일어난 몇 년 후에야 비로소 그 창설의 논의가 있었을 것이다.

둘째 : 항공계의 앞날을 미리 내다볼 줄 알았던 유력 한 지도자가 정계에 있었다……

1949년, 창군전후의 형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독립한지 겨우 1년 밖에 되지 않아 국가재정이 여의치 못해 비행기를 구입하고 유지할 예산의 염출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 미국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돕긴 했어도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를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항공부대에 대한 지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우리가 연습기를 몇 대 사려고 해도 미국정부는 우리에게 비행기를 팔지조차 않았다. 다만 1948년 9월에 L-4 10대와 동년 10월에 L-5 10대 등 경비행기만을 군 연락용으로 지원해 주었을 뿐이다.

1949년도에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무상원조 중 국방부문 예산은 총 1천 30만불이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국방경비대 항공대에 할당된 예산은 불과 9만 8천불뿐이었다.

이들은 전기한 경비행기의 정비와 유지에도 빠듯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나마 있는 경비행기 20대중 19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수, 순천 반란

사건과 지리산, 제주도 폭도진압작전의 참가로 5대의 손실을 보았으므로 남은 것은 불과 15대 뿐이다.

시대적인 요청으로 보아서 공군의 독립은 그 필요성이 절실했지만 비행기가 없어 뜻을 둔 우리는 그저 안타까워 할 뿐이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한 본인은 공군독립 및 강화와 필요성을 호소하는 글을 “항공의 경종”이란 책 속에 실어 본인 개인 사비로 5백 권을 발간, 국내 각 요로에 배부하기도 했다.

물론 이 당시의 공군투입의 여건은 대단히 좋지 못했으며 모든 것이 불비했다.

그러나 인적 요소인 조종사나 정비사, 그리고 무장, 기상, 통신 기술자가 충분히 있었고 비행장은 큰 것만도 여의도, 김포, 수원, 대구, 김해, 수영, 군산 등 7개소나 있어 신설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비행기가 없는 것이었다.

이런 딱한 사정을 2차대전을 겪고 항공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상당수의 국내 유지들이 이해하고 도와주려 했다.

그중에서도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범석 국무총리, 신성모 국방장관, 손원일 해군참모총장, 이기붕 서울특별시장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조건하에서도 공군은 독립의 염원을 달성했다.

1949년 10월 1일의 일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국가만년 대계를 위해 내려진 정부요인들의 일대 영단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 전해에 공군을 무리하게나마 독립시킨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던가가 증명됐다.

미 제5공군은 즉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공군을 상대로 하여 직접 작전 지원과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었으며 그 후 극동공군도

우리공군의 작전 수행에 큰 기여를 했다.

당시 우리공군은 규모는 비록 보잘 것 없이 작았으나 그 조직이나 열의는 어느 나라 공군에 비해 추호도 손색이 없었고 따라서 독립한지 1년 만에 전란을 맞았어도 눈부신 활약을 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

셋째 : 국민들이 국방을 위한 절대불가결의 요소인 공군의 육성을 위해 한 마음 한뜻으로 뭉쳐 적극적으로 도운 위대한 역사적 사실이다.

1948년 8월의 일이다.

공군독립을 눈앞에 두고도 연습기 하나 없이 경연락비행기 몇 대 밖에 없는 딱한 실정이었으나 정부에서도 예산이 없어 속수무책이던 중 마침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비상수단으로 전국에다 애국기 헌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모금운동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각 신문사, 남녀 학생들이 발벗고 나서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불과 1개월 만에 목표액 30만불에 상당 하는 한화가 거두어 졌다.

이런 모금의 성과는 실로 한국민족의 단결심과 투철한 애국심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돈으로 곧 비행기를 도입하려 했으나 미국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우리에게 비행기를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제3국에 소개하거나 주선해주지도 않으므로 우리는 하는 수 없이 “캐나다”로부터 일명 “비바”라고 불리던 T-6 연습기 10대를 대당 2만 7천불씩 도합 27만 불을 주고 사들이고 남은 돈으로는 가솔린과 부속품 등을 장만했다.

이때 미국정부는 심지어 이 비행기를 우리가 배편으로 수송하는데도 미국의 “시애틀”항을 이 용하는 것조차 거부하므로 부득이 “캐나다”의 항구에서 직접 인천항까지 수송하여 김포비행장에서 조립을 했다.

우리는 이 비행기를 다시 여의도 비행장으로 옮겨 놓고 1950년 5월 15일에

애국기 헌납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날 식이 끝난 후 시범비행으로 10대가 모두 이륙하여 서울상공을 처녀비행 할 때 시민들의 환성은 충천하였고 본인 역시 감격의 눈물을 감출 길이 없었다.

식전에 참석했던 당시의 이대통령도 감격어려 흐뭇해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때 얼마 전에 작고하신 최용덕 장군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나라 없었던 민족으로서 항공기술을 몸에 지닌 우리가 늘 애타게 염원한 것은 “우리나라의 군복을 입고 우리나라 상관대계 경례를 하고 한국사람이 만든 비행기에 태극기를 달고 우리나라의 상공을 날아보자!”하는 것이었다.

요즘에는 이런 말이 실감이 안날 것이나 당시의 민족적인 감정, 국가적인 감정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회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던 말이다.

당시 생긴 숨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군 창설 당시의 지도자 7명, 즉 과거 외국에서 부대장급의 지휘관을 지내던 최용덕, 장덕창, 박범직, 이근석, 김영환, 이영무와 본인이 1948년 4월 1일 수색에 있는 보병학교에 국방경비대의 2등병 자격으로 입교한 사실이다.

이분들은 지금은 거의 고인이 되고 생존해 있는 사람은 장덕창 장군과 본인뿐이다.

사병으로 들어온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숙연한 동기가 있었다. 당시 국방경비대에는 미고문관 “프라이스” 대령이 있었다. 그는 우리 항공인들이 우리나라에 공군 창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그 모체로서 항공대를 만들겠다고 주장하자 그 끈덕진 열성에 못이겨 항공대 요원의 입교를 허락하면서도 7명의 지도자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다.

즉 7명의 지도자가 과거에는 부대장급에 있었던 신사라 하더라도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지 않으면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없다. 과거의 계급여하를 막론하고 2등병으로 입교하면 수락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교시킬 수 없다고 선언했다.

당시 정부요로 인사와 국민들도 우리들의 거취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 최용덕 장군은 아래와 같은 말씀으로 이를 감수하자고 격려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께서는 온갖 모함을 당하면서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에서 백의종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공군을 창설하겠다는 이 마당에 2등병이면 어땠고 그 이하면 어떠냐. 백의종군의 정신으로 이것을 감수하고 한국공군의 기초를 닦자” 이 말씀에 모두 감명을 받아 수색 보병학교에 2등병으로 입교했다.

그 후 1949년 10월 1일 공군의 독립이 실현되고 헌납기가 들어오고 얼마 안 있어 6·25가 발발했다.

우리공군이 독립할 직전 소련은 이미 1947년부터 이미 북괴의 조종사를 모스크바에서 훈련시켰다.

그때의 북괴의 훈련 상황은 대단하여 하루에 연3백대가 뜨고 내렸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의 방위란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도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다.

6·25당시의 적아 군사력은 다음과 같다.

북괴 : 탱크 300대, 전투기 200대—우리측 : 탱크 없음, 전투기 없음.

전쟁이 발발하자 제일 곤란을 겪은 것은 적의 탱크 공세였다.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적의 탱크부대를 저지하려면 이때 무엇보다도 F-51 “무스탕” 전투기가 있어야겠다고 판단하고 우리는 이를 국방장관과 대통령께 진언했다.

이대통령은 “맥아더”사령관에게 비행기를 달라고 즉시 전보를 쳤으

며 "맥아더" 장군도 이를 즉각 수락하면서 "무스탕"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가 '한국에 얼마나 있느냐고 문의해 왔다.

사실 이 때 우리 공군에는 "무스탕"을 조종해본 조종사는 중국공군에 있다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김신장군(당시 중령)뿐이었으나 나는 즉석에서 "무스탕"을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는 10명이 된다고 회신했다.

합의된 바에 의하여 우리 일행 10명은 6월 26일 일본에 있는 "이다즈게" 미공군기지로 갔다. 그 다음날부터 기상이 나빠 계속 쉬고 있다가 겨우 30분간의 비행훈련을 받고 7월 2일 대구기지로 "무스탕"을 조종해왔다. 30분간의 교육을 받고 미지의 비행기를 조종했다는 사실은 세계항공사상 그 유태가 없는 일이며 기적적인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대구 도착 익일인 7월 3일부터 드디어 "무스탕"을 타고 본격적인 출격을 개시, 적을 맹타하였다. 당시 비행단장이던 이근석 장군은 "무스탕" 수령 2일만인 7월 4일, 남침해오는 적의 탱크부대를 분쇄하다가 시흥상공에서 피탄, 장렬한 전사를 하였고, 또한 박범집 장군도 그해 11월 함흥상공에서 애석하게도 전사하였다.

그 후 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무스탕"이 한두대씩 늘어서 드디어는 강릉에서 독립 작전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창군과 동시에 전쟁을 맞고 훈련할 시간도 없이 전투에 참여한 우리공군의 활약은 눈부신 것이었다.

그 동안 본인은 5년 2개월을 공군총장으로 있었고 그 후 공군을 떠나서 국방부, 주미대사 등 다른 직책에 있으면서도 항상 공군이 발전하는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다.

끝으로 우리공군이 오늘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예는 수많은 고인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며, 오늘날 세계적으로 강력한 우리공군이 앞으로 도 계속하여 "인화단결"로 그 발전과 융성이 무궁하기를 빌어 마지않는다.

### 지휘관의 책임



제 5대 참모총장 김창규

공군을 떠난 지 어언 10년이 흘렀다. 많은 해가 바뀌었으므로 제임 중의 일들을 다는 기억을 할 수 없으며 어렴풋이나마 지난날에 있었던 대소의 일들을 더듬어 여기에 적으려 한다.

첫째, 내가 공군을 지휘했다는 사실은 나 자신 일생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 일 자체는 잘했든 못했든 나 개인으로서는 성과여하를 불문하고 심혈을 다 기울였던 것만은 사실이고 그 공군이 오늘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면 나의 생애의 보람이요, 잊지 못할 추억이며, 이것이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공군의 전부인지도 모른다.

둘째, 일반적으로 말하는 책임-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군에서 나온 뒤에야 비로소 안 것 같았다.

일에 열중하고 쫓기던 나머지 책임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자각할 수도 없었고 인식할 수도 없었다. 군복을 벗고, 자유시민이 되고, 한가한 시간을 보낼 때 비로소 큰 보따리를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꼈다.

책임이 무엇인지는 다시 말해서 걱정과 불안과 압박감에서 벗어났을

때 그 흥분한 기분- 그 후는 신경도 둔화되고 체중도 늘고 잠도 잘 잤다. 이 것이 바로 책임을 벗어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안 것 같았다.

셋째, 1958년 총장으로 취임 하여 얼마 되지 않아 하나의 괴로운 일을 치루어야 했었다.

가장 유능하고 성실한 한 장교를 처벌하게 된 것이 첫 번 겪은 고민이었다. 평소에 근무태도가 대단히 성실했고 아주 유능한 장교가 물론 사육은 아니고 부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장병들의 야식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군수품을 매각하였다. 그 사용 목적이 과

럼 치와는 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군수품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책임자라는 입장에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고민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의 하나이다. 과거에 다른 총장님을 모시고 보좌의 입장에 있을 때도 이처럼 처벌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일이 없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사실, 즉 책임자라는 입장에서만 가지는 고민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일부 의원들이 국방예산의 정책력이 결핍되었다는 이유로 자기네들이 세운 정책을 국방장관에게 받아들일 용의를 중용하자 국방장관은 그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안의 일부를 재조정했던 것이다.

그 정책 의 제 1조가 공군 증강이었다. 공군증강을 위하여 각 군의 예산안에서 약간씩 삭감하여 2억을 총당하는 안을 작성해 나왔을 때에 모 국회의원이 가로되 「국방장관(당시 김정렬씨)이 공군출신이기 때문에 육군 돈을 깎아서 공군에 주기로 하였느냐?」고 욕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자진하여 국방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군의 단결은 전시나 평시나를 막론하고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수일 전에 우리는 해병대로부터 시멘트 약 3억원에 해당하는 양을 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군을 아끼고 기대를 걸고 증강시키려 하시는 뜻에 대하여는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육군 돈을 뜯어서 공군에 다 주어야만 되게끔 문제가 긴박해 있지 않고 또 2억을 가지고 공군확장을 위하여 획기적인 사업을 이룰 수도 없는 형편인 만큼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군 상호간의 불화의 씨를 남겨서까지 필요한 돈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뜻만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육군에서 삭감한 2억은 다시 반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군을 아끼시는 여러분의 뜻에 부합되는 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여러분께 여쭙보고 싶은 말씀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예산안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어떻게 육군 돈이고, 해군 돈이고 꼬집어 규정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껴 주시는 공군은 계속하여 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군의 단결은 천만금과도 바꿀 수 없다는 점이며 혹시 저에게 실언이 있다면 많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발언을 중대한 각오를 하고 여러 가지 닦쳐올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후에 자기네들끼리 월가월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나에게 대한 비난이나 보복같은 것은 없었다.

유엔군사령부 참모장으로 있었던 LEE 중장이었다.

지금은 퇴역 미공군 대장으로 나와 가까운 친구인데 하루는 어떤 파티 석상에서 얘기를 하다가 비행기를 한 5대 정도 팔아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는 깜짝 놀라며 무슨 얘기냐고 정색을 했다. 나는 김포, 수원, 오산 등의 기지는 적의 기습지의 일격목표로서 참 좋은 관계위치를 제공해 주고 있으니 비행기라도 몇 대 팔아서라도 후방의 기지를 한두개 건설해 놓는 것이 반격에 유리하다는 견해를 설명하였더니 그는 깊은 신음과 같은 궁정의 표현을 보였다.

그리고는 그 후 아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1년 후에 기지건설에 대한 사업이 허가가 되었다.

LEE 장군은 나중에 말하기를 자기도 그 전에 고민한 끝에 자기가 잘 아는 미 상원의원에게 편지를 내었으며 그 상원의원이 편지로 미국 방성과 직접 교섭하여 얻어진 결정인 것 이라고 한다.

이것이 오늘의 ○○기지와 관계된 이야기다.

지금도 나는 LEE 장군에 대하여 ○○기지와 관련시켜서 항상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1963년 지금 있는 회사의 일로 미국에 갔을 적에 그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일부러 코로라도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북미 주 방공사령부를 방문하여 LEE 장군을 만난 적이 있다.

다음은 한국인의 능력에 관하여 말하고 싶다.

매년 동남아 각국에서 선발된 공군과 사격 대회에서 한국공군은 항상 자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왔다.

또 한국공군에서는 F86, C46 등을 우방 군원 각국 중에서도 보기 드문 좋은 성 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미공군의 고급장성들이 시찰할 때 마다 군으로 하여금 한국공군에 와서 여러 가지 배우게 해야 되겠다는 찬사를 여러 사람이 남겼다. 나는 우리자신을 항상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의 최고의 재산이요 영광된 존재이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뒤지고 있으나 그에 못지 않는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든든히 생각한다. 항상 양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중한 인간을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잘 키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바라고 싶은 것을 군이 말한다면.....

첫째, 군은 국가에서 필요해서 설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은 개인

것도 아니고 어느 기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의식 중에 착각을 느낀다.

진급이라든가, 보직, 처벌 등을 논할 때에 있어서 때때로 자기중심이고 군의 이익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또는 자기가 생색을 내려고 노력하는 나머지 부지중에 많은 과오를 범한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다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관계되는 일이다. 문제는 각자가 항상 반성하고 그런 과오를 되풀이해서 범하지 않도록 꾸준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강조하고 싶다.

둘째는 여하한 직책이나 그 능력에 불구하고 전심전력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상사나 동료 그리고 부하를 막론하고 존경하여 사랑함은 물론 각자가 맡은 장비나 물자를 소중히 여겨서 알뜰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 호랑이가 백수(온갖 짐승)중의 왕이라고 일컫는 것도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도 전심전력을 다하여 실패하는 일이 없는데서 온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던 간에 모든 정력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싶다.



## 전통과 기풍



제 7대 공군참모총장 장성환

벌써 공군을 떠난 지 5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 이러한 것을 쓴다는 것도 한 추억에 지나지 않으며 시대적인 차이와 군에 있을 때와 지금은 여러 가지 입장도 달라서 생각하는 점도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창군이념이라든가 근본 문제들도 많이 있다. 퇴역 직후 여가를 이용하여 쓴 「나의 항공생활」의 일절에 참모총장시절이라는 게 있어 그 당시를 회상하며 지금은 많은 발전을 한 공군과 대조해가면서 사건을 말해보겠다.

지난 7월 21일 미국에 우주인이 달에 착륙하여 답사를 마치고 지구에 무사히 귀환하는데 성공하였다. 인간이 66년 전에 처음으로 비행을 한 이래 다시금 전 인류의 자랑으로 기록할 수 있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이러한 우주여행과 달 정복은 우리가 비행하던 기술이나 그 영역을 달리하고 있으며 격세의 감을 주기는 하나 생각하면 우주인의 대부분이 군의 조종사 출신이었고 지상과 공중 우주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연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 공군과도 많은 관련성이 있을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우리 공군은 경비행기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세계 인류의 전투기로서 장비되며 우리 국토방위와 필요시에는 적에 대한 공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수행되는 것이며 공군의 특수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 1. 전통확립을 위하여

국가민족에 국민성 민족성이 있는 것과 같이 군에는 빛나는 전통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우리 공군에도 우리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전통이 있다. 이러한 빛나는 전통을 뒷받침 해온 것은 군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기질이었다고 생각한다. 항공부대의 시초에 있어서는 우리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늘의 용사이며 우리는 다 같이 단결하고 임무를 위해서는 아무리 위험한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늘과 같이 담담하고 아름답게 산다는 기풍이 농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기풍이나 기질은 군의 발전과 시대와 더불어 더욱 향상되고 각 분야로 분할돼 있는 기술과 힘을 통합하기 위해서 협조와 단결을 해야 했다. 특히 공지간에 긴밀한 협동, 용기에 앞서 강력한 의지와 냉정한 이성,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신뢰감, 긴밀한 활동성 등이 요구되었으며 생활면에 있어서는 기계를 상대로 하는 냉정한 이성적인 태도와는 대조적인 신사적이고도 낭만적인 기풍도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군대도 전시와 평시에는 그 정신면에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군대를 평시에 잘 지휘통솔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이것에 군의 전통과 기풍이 필요한 것이며 평소에 이 점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공군은 창군 이래 역대총장들에 위해서 많은 미풍과 좋은 전통이 수립되어 왔다. 그 중에서 특히 공군



에서만 강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결이 군의 힘을 합치고 전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전통이 되어 왔다. 이것은 확실히 성공적이었으며 군을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공군의 전장병은 모두 참모총장의 지휘통솔 하에 또 책임 하에 있는 부하로서 출신별, 지방별, 개성, 취미 등에 의해서 특별히 고려할 수는 없으며 오로지 각자의 특기와 숙련도, 전투경험과 경력, 책임감, 발전성 그리고 군의 계급에 의해서만 적절히 보임\*되고 대우를 받으며 자기 책임을 다하게 된다. 군에 대한 또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군인으로서 더 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군의 전통이며 참모총장으로부터 부하사병에 이르기까지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수공은 하나 복잡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힘이 많이 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6·25동란시에 되도록 많은 조종사를 단시 일 내에 양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놓아 있었다. 그 결과로 우리 조종장교에 두 출신이 있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와 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경쟁이 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이것은 군 발전을 위한 좋은 의미의 경쟁 보다는 공군조종사의 단결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본인도 한 때는 이것의 해소를 위해 주의를 환기 시켰다. 각자는 이러한 것이 하등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 같이 대한민국 공군의 비행기를 조종하는 대한민국 공군의 조종사이며, 우리의 적은 공산군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으므로 결전의 대공에서 서로 적을 공격 하는데 협력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서로 커버하며, 또 전 우애를 발휘 하고 승리를 가져 와야 한다. 또 우리 의 전투용 항공기는 우리 공군 조종사면 어느 누가 조종을 하던 적과 싸우는데 손색이 없도록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조종사들이 참다운

전우애와 프라이드를 가지고 굳게 단결하여 우리의 힘을 크게 발휘해주길 바라며 소위 「빨간 머플러」의 정신도 이러한 방향으로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단 전우애로써 단결하고 서로 임무완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협동정신의 발휘는 조종사뿐만 아니고 전 분야에 걸쳐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또 하나의 공군의 전통은 언제나 성실하고 용감하게 전투하는 것인데 부하와 같이 생사를 같이하며 임무를 관수한다는 정신적인 요소가 필요한 것이다. 공군은 전투에서 지휘관은 언제나 선두에 서야한다. 전투기나 폭격기를 막론하고 공군에서는 지휘관은 편대의 선두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비행을 해야 한다. 물론 직책에 따라서는 언제나 비행지피를 한다든가 일선에서만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그만한 정신적 요소와 모든 것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지식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까지 공군의 지휘관들이 이러한 전통 아래 임무를 수행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것의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군을 위해서는 고급지휘관들은 개인생활을 적지 않게 희생시키는 일도 많은 것이다. 결코 지내고 보니 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여념없이 자기 전력을 다하던 그 시절이 역시 행복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 2. 군의 발전과 전력강화

공군은 기계와 과학기술과 정신의 삼요소에 조화, 협동으로써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첫째가 사람이지만 우리 공군에서는 하루도 비행기와 관련없이 지낼 수가 없을 정도로 비행기와 지원 장비는 중요한 것이다.

군의 전력 강화는 장비현대화로서 화력을 강화하는 방법과 군의 전반적인 발전으로서 단계적으로 종합적 전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다. 참모총장의 최대 관심사는 군의 계속적인 발전과 전력강화에 귀결된다. 이 모든 것 이 국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 이다. 본인이 임무를 맡기 전만 해도 국군은 국토방위의 책임을 지상에다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해 상은 미 7함대, 공중은 미 5공군의 힘에 많이 의존해 왔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간에 있었던 일면의 한국정세의 변화와 미국의 새 아시아 정책 등은 과거의 정책과 사고를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한국군의 실력, 특히 그 중 공군력과 해군력은 조만간 북괴가 단독으로 자행하는 어떠한 침략행위도 저지할 수 있는 정도로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게 되고 실천에 옮겨져 가고 있다.

우리가 임무를 맡고 있을 시절만 해도 국방을 위한 각군의 전력균형을 유지 못하고 있었으며 하루 속히 각 군의 전력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국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당시에 공군의 중요 과제로서 는 F-86 주력 전투기를 신예기로 대체하는 것과 방공망의 현대화 및 확장이었다. 그 당시 고려되었던 것은 F-100 과 F-104 전투기였다.

북괴는 MIG-21을 도입했다는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F-104를 한·미공동으로 추진하였다. 전투기는 F-104로 일단 결정되었다가 그 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F-5A로 변경되었고 방공망의 현대화계획은 잘 진행되었다. 당시 본인은 F-104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시하여왔으며 F-5가 결정된데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도 하였다. 그러나 F5로 대치가 되고 다 강력한 F4(팬텀)가 1969년도에 도입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예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던 우세한 신예 전투기가 도입 되고 전력이 대폭 강화된 것이

니 본인이 원하던 목표는 달성이 된 것이다.

F4나 F-104는 속도 성능에 있어서는 비등하나 화력과 기타 성능에 있어서는 F4가 훨씬 우세하며 현재 미국에서 개발중인 F-111 을 제외하고는 월남전에서 그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는 일선기이다.

이러한 우수한 전투기가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제일 먼저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특기 할 만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군의 전력강화와 발전은 군의 지휘계통에도 좋은 변화를 가져왔다. 공군의 참모총장은 타군의 총장과 같이 현역군인 최고의 계급으로서 임명되고 합동참모회의의 일원으로서 군을 대표하여 작전 및 운영책임을 질 수 있게 된 것과 임무의 과중에 비추어서 그 임기가 3년까지 연장된 것은 군의 영광과 발전, 사기를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고 각 군 간에 긴밀한 협조와 균형을 위해서도 좋은 결과가 되었다. 최고 회의의 당시도 이러한 안이 있었으나 실행을 보지 못하다가 시기를 보아서 국군발전을 위해서 고매하신 박대통령각하의 영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원하고 생각했던 것이 5년이 지난 이 시기에 달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신예 전투기의 도입과 같이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 하나 달성이 되어 가고 있다. 공군의 전력과 역량이 확정돼가고 군의 기구와 편성도 이제는 국내외적으로 그 위신과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시대에 책임자 되는 사람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이러한 뒷받침을 가지고 힘차게 빛나는 공군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전폭적인 후원과 신뢰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 3. 비행 안전

공군에서 사고라 하면 우선 비행사고를 생각하게 된다. 군의 어려운 임무를 수행 중에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서 사고도 발생한다. 공군의 책임자는

누구나 비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것은 금일까지 공군의 희생자중 전시에 전사한 사람 보다 비행사고에 의한 순직자가 더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원과 장비의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군에 큰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F86 전천후요격 기의 추락사고가 있는 후도 크게 신문에 보도되고 비행기의 노후화가 문제시되었다. 군과 국민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군으로서는 신예기로 대체될 때까지 우리의 국방병기를 그대로 지상에서 놀릴 수는 없는 것이다. 비행기종이 바뀔 그 시절에는 역대 총장과 참모지휘관들이 여기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지내왔던 것이다.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있었던 시절에도 비행사고는 있었다. 초창기에는 용이 하게 예방할 수 있는 비행사고도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에는 규정위반 비행도 포함이 되었는데 지금은 비행안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거듭되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독, 지도, 통제함으로써 우리 힘으로써 막을 수 있는 사고는 거의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비행안전을 제목으로 한 웅변대회에서 한 공군사병은 아폴로 11호는 달을 정복하는데 성공을 하였다. 이와 같이 어려운 일도 완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는 비행기를 가지고 사고를 낸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일개 병사까지도 비행안전에 대해서 이만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비행안전이란 지휘 감독을 하는 사람이나 조종을 하는 사람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공군장병의 공동 목표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같이 단결하고 협조, 노력함으로써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비행사고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힌다.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비행사고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항상 머릿간 구석에서 생각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4. 대외활동

군이 정부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군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중요한 일인 것이다. 군의 참모총장은 군을 대표하여 여러 가지 면으로 대외적인 활동도 하게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우리 국민에게 잘 알리고 국방임무수행상에 있어서 불안감을 주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부나 국회에 대해서 우리의 활동사항을 알리고 계획을 반영시키고 행정적, 정치적 뒷받침도 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우방국가의 군사외교도 필요하며 때로는 우리전력과 전비태세를 공보하여 적의 야장을 억압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모든 대외적 활동이 군 운영상에 필요하지만 물론 여기에는 그 활동 범위와 방법, 그리고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상당한 연구 노력과 성의가 필요한 것이다. 반면에 군운영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밀의 유지, 그리고 부당한 외부의 영향은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임무와 책임완수를 위해서 성의와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국군 중에서도 모범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공군은 아직 사회에서 비난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며 매년 실시되는 Air-show에서도 국내 외인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것을 보더라도 국군의 일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흔히 공군은 신사적이다 하는 말을 듣는데 신사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군인과 신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용감하지만 또 반면에 지적이고 원만하다는 그러한 좋은 뜻으로만 생각이 든다.

공군은 우방국 공군이나 군사고문단과는 국군 중에서도 비교적 잘 협조해 나왔다. 국적은 다르나 다 같이 하늘을 나는 동지라고 할까, 친구와 같은 기분으로 교계를 해왔다. 결코 그것은 불리하지 않았으며 더 많은 이익을 가져왔다. 집단안전보장의 이념이나 그 필요성을 생각할 때

상호간의 이해와 정의감은 이것이 동지의식을 가져 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6·25동란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같이 싸워온 우리 우방국과의 친밀한 관계는 지금도 잘 유지되고 있으며 한·월정치 군사관계는 월남전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정의를 위해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서 안으로 단결하고 대외적으로 잘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눈의 역량이며 강점 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 점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근에 공군강화와 이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는 것을 볼 때 모든 것이 잘돼가고 있는 것을 느끼며 흐뭇한 생각이 든다.

### 5. 새로운 시대에 공군을 책임져야

과학기술은 일진월보한다. 우주인이 달에 착륙하여 일보를 내디뎠으니 이것도 월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과 정신과 기계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은 시대나 기술에 뒤 떨어지지 않도록 연구와 훈련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책임자가 할 일이다. 우리 공군은 자체로 많은 연구개발을 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전에 비교하면 교육 및 시험 연구실, 장비, 기술도서 등이 많이 보유되고 향상돼가고 있다. 그 동안에 많은 기술경험과 전문지식을 앞으로 연구개발 분야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공군의 임무수행에도 언제나 적보다 앞서서 기술과 지식이 선행되어야하며 새 시대에 공군의 책임자는 기술 분야를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소공군력을 비교해 볼 때 미국이 단연 우세한 것은 경제력에도 있지만 공군교리 발전에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단연코 북괴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절 그 반평생을 공군에서 지내고 퇴역 전 2년간은 공군의 책임자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보니 개인적으로 본 공군에서 임무를 완수하고 나온 저 이 된다. 그간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부하들에 기대한 일도 많았다. 결코 그러한 모든 것이 재임기간 중에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어느 것은 달성도 하고 그 어느 것은 지금에 와서 달성된 것을 볼 때 공군에서 반평생을 지내온 본인은 만족하게 생각하며 흐뭇하게 느껴진다. 처음 제트시대로 들어날 때 F84 정도를 생각했던 것이 F86으로 되고 다음 단계에는 F104를 생각했던 것이 F5와 F4로 되 고보니 우리공군은 참으로 행운아였다고 생각한다. 남과 사전을 달리 공군책임자는 작전지휘관 출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우리 공군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공군에 모든 기술수준은 세계의 수준에 오르고 있으며 그간 양쪽으로 부족하였던 전력장비도 점차적으로 증강되고 있으며 국방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공군 책임자들이 노력해줄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역대 참모총장들에 의해서 쌓아올려진 공적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않는 바이며 그간 우리공군을 후원해준 모든 사람들과 공군발전을 위해서 직접 수고가 많았던 장병 여러분과 이미 공군의 임무를 마치고 사회로 발전해 나간 여러분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청춘의 전부를 공군에서 지낸 것을 결코 후회하지는 않으며 나의 인생을 빛나게 장식해주는 공군시절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공군에 많은 성공과 영광을 비는 마음 간절하다.

## 군과 단결



제 8대 공군참모총장 박원석  
(대한 석유공사 사장)

오늘 성년공군 창설 제20주년을 맞는다.

도형의 「경비행기」에서 마하2의 현대 공군을 이룩하여 조국의 영광을 철통같이 수호하고 있는 공군장병 들의 노고를 깊이 치하하면서 지금 내가 또한 현역책임중의 느끼던 바를 몇 자 적어 보려고 한다.

창군 시절을 돌이켜 보면 감개무량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니다. 나의 군대생활 근 20년이란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뜻 깊었다고 자부하고 싶다.

정든 공군을 떠나 푸른 제복을 벗고 민간사회에 나와보니 무엇보다도 군대에 서와 같이 아늑한 정신적인 울타리가 없어 허전한 감을 느끼게 한다.

각기가 이질적인 사고방식과 생존경쟁에서 이해타산에 급급한 사회는 확실히 군대사회두 같이 통일성 있고 목적의식이 뚜렷하지는 못하며 참으로 우애가 없는 것 같다.

군대란 한 마디로 말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생명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데서 인생의 호뜻함을 느끼는 세계이며 순수하고 물질적인 이해 상관없이 뭉쳐있는 조직체라고 본다.

우리 군은 사회의 그 모든 것에 비하여 협동정신이 보다 더 강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매 짝이 강하다.

개인으로 말하면 국토방위라는 일념 아래 이바지하고 있고, 자기나름의 군인 된 자부심, 긍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사회인과 다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나도 모르게 지난날의 군대에 애착이라고 할까 향수를 느끼게 되고, 확실히 군대란 곳은 좋았고 나의 일생에 있어서 사심 없이

반평생을 순수하게 바칠 수 있었던 잊지 못할 고장이었음을 느낀다.

여기서 나는 우리나라의 유구 찬란한 역사를 고찰할 때 민족적으로 다소의 파벌, 갈등의식이 있었으며 경제적인 빈곤에서 온 상호 불신임, 그리고 거짓과 모함이 많았었다고 생각하나 군대사회는 그야말로 질서정연하고 그러한 복잡한 감정의 얼김과 거짓이 없음을 볼 때 일반사회도 하루 속히 군대에 가까운 참신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평소의 바램이다.

그럼으로써만 우리 국민도 한결같이 선진국과 같은 근대화된 국민이 된다고 보며 사회질서가 정연해질 것으로 보여 진다.

군대는 공동의 광장이다.

군대는 대학을 나왔거나,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있고 없고 간에 모두가 한결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를 신성한 자색에서 수행하자는 것이며, 바른 국민을 길러내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된다.

복무기간 3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짧다고 할 수 없으며, 지휘관들이나 상급자들은 이 동안에 젊은 병사들을 잘 지도하여 바르고 훌륭한 국민으로 육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지휘관들은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의 보다 알찬 역군들을 창조해내는 창조자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책임은 무거운 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설상, 즉 도로를 만든다든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국가 발전의 기저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정신자세인 것이다.

정신자세의 기틀은 한국 현실에 있어서 실천력이 가장 강한 군대가 앞서야 하며, 이 이상의 바람직한 기관은 없는 것이다. 조국 현대화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 군대에서 지휘관이나 상급자들의 다소 틀린 오류는 국가발전에 큰 저해요소임을 절감해야 할 것이다!

군대는 복무의욕이 고조되어야 한다.

복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급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창의적인 정신개발이 필요하다.

자기 개인만 편하면 된다라든가 또는 안일무사주의에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뒤에 들어오는 젊은이들에게 보다 고무적인 환경과 강직한 군인정신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휘관들의 실천만이 전제된다.

나는 과거 현역시절에도 자문자답했고, 예비역이 된 현재에 있어서도 질문을 해보고 싶다. 군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여건을 만들었느냐? 단 여건이란 꼭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아늑하고 인화된 정신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목적의식을 갖고 「가치」있는 생활을 하느냐가 묻고 싶은 것이며 또한 바라는 것이다.

상급자는 부하로부터 대우받길 바라기 전에 부하를 자기의 자식이나 동생과 같이 공군의 커다란 테두리 속의 가족관념에서 먼저 사랑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면 부하는 자연히 그 상관을 존경하고 명령에 복종하고, 상급자로서의 대우는 저절로 따르게 마련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바라는 군대의 상하의 단결은 도모되고 강력한 힘이 움트게 되는 것이다.

내가 군대생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뭐니 뭐니해도 사관학교생도대장 시절이라고 하겠다. 그 당시 내 나이는 30인가 31살 때였다.

생도들에게 나의 정열을 아낌없이 다 바치고 같이 뛰고 행동할 때의 그 정열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며 아름다운 나의 생애의 추억이 되고 있다. 그 당시의 생도들이 지금 어엿한 공군의 고급장교가 되어 훌륭하게 공군을 지휘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흐뭇한 나의 심정은 그 어느 것에도 비할 바가 없다. 허물없이 바라고 싶은 것을 말한다면 간혹 거리에서 푸른 제복의 군인을 보면 눈길이 쏠리고 공군에 대한 향수가 더해진다. 그러나 욕심을 부린다면 젊은 공군다운, 좀 더 뚝뚝하고 씩씩한 패기에 찬 청년장교다운 몸가짐과 생기 그런 것들이 아쉬울 때가 있다.

또 하나는 대통령각하께서도 말씀하신바 있지만 군인은 「국방과 건설」의 역군이 되어야 된다는 것, 국가의식과 민족의식을 하나의 궁지로 하여야 될 것이고, 간혹 이런 것에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한다.

그리고 군대생활을 국민의 의무이니까 할 수 없이 한다 하는 피동적인 생각, 적당히 편안하게 살아가면 된다, 군대는 자기 이익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따위의 퇴폐한 생각을 일소하고, 군대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국민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능동적인 충성의 기틀을 잡아주며, 이를 실천케 하고, 바른 국민정신을 일깨워주는 건전한 정신교육을 담당하고 학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도 있지만 군대는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키는 기본요소이고 중추기관이다.

군인은 군인답게 언제나 국기와 민족을 위하여 처신하여 줄 것이며 자기만의 입신과 출세 또 치부를 위해서 처신하는 일이 없기 바라며 군인에게 만의 일이라도 나태한 기풍이 있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을 좀먹고 해치는 것이 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으로 뜻 깊은 공군 창설 20주년을 충심으로 축하하면서 장병들의 건투와 공군의 무한한 발전을 빌어마지 않는다.

## 「인화단결」이 필승의 요체



전 공군참모차장 오점석  
(한국 광업개발공사 사장)

뜻하지 않았던 원고청탁을 받았다. 성년공군 20년 특집호를 발간함에 있어서 공군 재임중에 인상적인 것, 공군장병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들을 수록해 달라는 것이다. 세월이 빠름을 가리켜 옛 사람들은 마치 유시(流矢)와 같다고 비유하였거니와, 정말 시간의 흐름이 얼마만큼 빠른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해방 후 해외에 산재해 있던 하늘의 선각자들이 모여들어 조국의 공군을 창건하겠다는 일념에서 적수공권, 동분서주 온갖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고 정열을 기울인 것이 드디어는 오늘의 보람된 공군을 탄생.

그들의 고귀한 뜻을 높이 찬양하고 오늘이 있기까지의 도정에서 6·25 비참한 전쟁을 치루는 가운데 각 전선에서 산화한 고인들의 명복을 여기 빌면서 지난날의 기억을 더듬어 볼까 한다.

한국전쟁 이 막바지에 달했을 때였다. 북한 괴뢰군의 공세는 치열했고, 우리는 단숨으로 이를 쳐부셔야만 하겠다는 의분에 찼다. 그러나 전쟁 이란 결코 성급한 것으로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왕성한 사기, 강력한 무장,

## ★「인화단결」이 필승의 요체★

고도화 된 전기가 적보다 한층 더할 때 전쟁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1951년 적 괴뢰군과의 공방전이 절정에 달했다. 공군의 지원이 시급했다.

일본에 있는 마공군기지에서 F-51 10대를 인수해온 것으로서 적 지상군을 맹타해야 했다. 지속적인 전쟁수행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일면으로 전쟁과 또 한 면으로 조종사 양성이란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가야 했다.

사실상 조종사가 부족해서 제일 걱정이었고, 이 조종사문제가 가장 시급했다. 그 당시에 있던 조종사란 거의가 일본군대 경험자뿐이었고, 일본군대에서의 비행훈련은 그저 육감과 오랫동안의 숙련된 조종기술로서 다루어졌으나 그런데 비하여 미국사람들은 모두가 규정으로 처리되어 있고 해서 일본군대에서 적당히 하던 것으로는 통하지 않았다.

모든 규정 이 고도화 되어 있으나 그 때의 우리에게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것이었으며, 이 규정을 몰라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았다.

미군들은 규정이란 것이 하나의 엄격한 법같이 다스려지고 있으나 우리는 이 규정을 외면한데서 40-50명의 희생자를 냈던 일이 있다.

이때의 억울한 희생은 내 평생에 잊지 못하는 쓰라린 일 중의 하나이다. 당시 나는 사천기지에서 훈련 비행전대장 이었다. 지금의 장성급으로 있는 기성 조종사들이 1기 사관을 훈련하였는데 그 훈련 광경, 그 열성은 필설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바가 있었다.

훈련 일과는 동녘이 트자마자 시작된다. 아침 6시경부터 시작하여 밤늦게까지 비행훈련이 계속된다. 눈코 뜰 사이가 없을 정도로 출격과 훈련.

1인 2역, 3역을 하다보면 기진맥진.

그러나 교관들은 추호의 불평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전쟁수행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출격과 조종사 양성만이 그들에게 부하된 사명으로 알고 전력을 기울였다.

물론 고생이란 형용할 수 없었다. 당시의 교관들은 그것을 조금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의 보람으로 알고 있었다. 몇 사람 되지 않는 교관을 가지고 단시일 내에 많은 조종사를 양성하자니 가히 짐작이 갈 일이고, 아침에 기상을 하면 간부 교관들은 코피가 터지곤 했다. 그 당시의 우리들의 심정은 오로지 국가와 민족이었고 나(私)란 것은 전연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산군을 분쇄해야만 된다는 신념은 특히 강했다.

가족과 관계된 일이 또 하나의 잊지 못하는 일이다.

1951년 6월 25일, 나는 그때 비행반에 있었다. 당시 비행반은 여의도에 있었고, 반장에 장성한 장군, 내가 선임장교였다.

26일, 27일을 지나 28일이 되었다. 그때 거의가 가족과 함께 김포에서 살고 있었다. 6월 26일 우리 조종사 10명이 일본으로 F51을 수령하러 떠났다. 6월 28일 신유협 대위(당시 계급)하고 나하고 둘이 머물러 남아 있었다.

AT6는 10대가 있었으나 조종사들이 일본으로 감으로 해서 이 비행기를 움직일 조종사들이 없었다. 그 당시 김포에 있었던 다른 전우들의 가족은 다 남쪽으로 피난을 갔었는데 나만은 적정 정찰을 나가기 분주하다 보니까 가족의 일은 전혀 잊고 생각하질 못했다.

수원에 가서야 아차! 서울에 있는 가족들이 어찌 되었는지 했지만 그때는 이미 공산 괴뢰군이 서울에 들어 온 후였으니 어찌하랴.

그 당시 공군에서는 20만원씩을 비상금으로 지급했지만, 난 그것조차도 가족에게 전해주지 못한 채 가족하고 영영 헤어지고 말았다. 그리 하여 3개월 후에야 비로소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동안 우리집에서는 서울역에서 남행기차를 타려고 무던히도 애썼으며, 그것도 공산군의 서울침입으로 가능하게 되자 뜻밖으로 피난, 어린자식들을 데리고 갖은 악조건 하에서 공산 괴뢰군들을 피해가며 숨어 살아왔다.

그 후 다행히 가족하고 만나게

되었으니 말이지 만일 여의치 못했던들 나의 군대생활 중에서의 가장 쓰라린 비애사였을 것이며, 또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의 하나이다.

그 의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공중에서의 위험, 죽음을 면했던 일들이야 군인으로서 당연하고 너무나도 많았기에 생략한다.

공군을 보는 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공군이라면 길에서도 유달리 클로즈업 된다. 내 자신이 20년간의 젊음을 바친 곳이고 보면 정이 들었고, 자연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역 공군장병 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인화단결을 강력히 부르짖고 싶다. 우리는 지금 목전에 호시 탐탐히 남침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공산 괴뢰군과 대치하고 있다.

일단 유사시에 우리의 기수는 적의 심장부를 강타해야 한다. 이 마당에 군내에서의 평소의 인화단결은 필승의 요체이며, 사기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군대에서 파벌의식이 있다든가, 향토의식이 있다면 추후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만의 일이라도 이런 의식으로 군내 대소 일들이 처리된다면 그 군은 위험천만한 것이다. 그리고 위계질서는 군무를 수행하는데 엄격히 지켜지되 상급자는 하급자를 동생이나 조카같이, 또 하급자는 상급자를 형님과 같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상경하애의 기풍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엄한 군기와 강한 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무슨 파벌과 출신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오로지 한 목표를 정해 일사불란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참다운 군대이며 본연의 자세인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군대의 지휘관의 지휘능력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영향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최 용덕 장군은 공군을 가장 훌륭하게 지휘한 분이며, 「공군의 단결」을 최초로 주창한 분이다. 참으로 청령결백



하신 분이었으며 애국자이셨다.

그분은 장병들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셨다.

우린 이분의 「단결정신」을 잘 이어나가야만 하겠다.

그리고 공군의 지휘관은 부하를 통솔함에 있어서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지휘관은 양양한 해상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과 같은 것이다. 지휘관의 생각 하나에 따라 전 병력의 사기가 좌우된다.

인사는 공명정대해야 하며 사리가 개입된다면 이는 군대를 저해하는 해군 행위이다.

지휘관은 물론 군인이라면 국가관과 민족관을 확립하고 사리를 멀리하여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항시 반성해 보는 습성을 키워야 한다.

현역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는 후배장병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 까하여 적는다.

나는 사회에 나와서 2년에 불과하다. 흔히들 말하기를 「사회는 바른말을 해서 안 된다. 군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어렵도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문적인 경영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부하를 자기 몸과 같이 아낄 줄 알아야 한다. 부하 없이 자기 존재가 있을 수 없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군대나 일반 민간사회나 인간이 사는 사회이며 모두가 마찬가지이다.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면 된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 어디 가나 공신력이 앞선다. 군대에서 불성실했던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성실하다. 그 사람 자신이 들의 인격과 행동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나 개인의 신용이 반드시 보증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만이 사회생활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뜻 깊은 공군 20들을 축하하며 우리의 영공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분전하고 있는 공군 장병들의 건투를 진심으로 빈다.

## 우리 공군의 어제와 오늘

공군 준장 장성태  
(공군작전참모부장)

오늘날 우리공군은 세계만방에 자랑하는 현대화 제트공군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6·25 북괴 남침 시 보잘 것 없는 장비와 병력으로 적을 무찔러 싸우던 당시를 회고하면 격세지감이 없지 않다.

지금과 같은 우리공군이 육성되기까지는 이제는 가고 없는 여러 선배 및 동료 조종사들의 젊음을 산화한 고귀한 희생과 온 국민들의 아낌없는 적극적인 성원 그리고 불철주야 오로지 공군의 발전만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정진하여 온 공군 전 구성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정이 그 토대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단결과 전투태세완비 등의 전통적 통솔방침 등이 공군의 정신적 기저가 되었으며 이 위에서 전상병이 적극적이며 헌신적으로 전력을 경주하여 왔기에 금일의 정예공군의 위용을 갖추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불과 20여대의 L4 등의 연락용 경비행기와 1100여명에 지나지 않는 병력을 가지고 내일을 꿈꾸며 발족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동란이 발발하자 L형 정찰기에 국산제 30파운드짜리 폭탄 2개씩을 후석의 정찰자가 가슴에 안고서 남하하는 적 전차대를 목측으로 폭격 하던 일, 그리고 국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사들인 T6훈련기에 로켓포를 장비하여 물밀듯 내려오는 적군을 공격하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1950년 7월 3일부터는 10대의 F51전투기로 불과 4일간에 걸친 조종교육만을 받은 채 출격 을 개시함으로써 항공사상 유례가 없는 피나는 전투를 오직 국국의 일념으로 감행했으며 그런 한편으로 처음에는 제주기지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사천기지에서 전투조종사 양성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그 결과 전투조종사의 확보와 더불어 추가로 도입 한 F51전투기로 전투비행 전대를 편성함으로써 1951년 10월 11일부터는 마침내 강릉전진기지에서

순전히 우리공군 조종사만으로 구성된 편대가 역사적인 단독 북한출격 작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날부터 한국공군은 참전 UN각국의 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근접지원, 후방차단 및 무장정찰 등의 임무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출격을 하여 평양지구에 대한 공습과 동해안 육군 제 1군단 전면에 대한 직정지원을 비롯하여 철원 평강 금화를 연하는 철의 삼각지대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림으로써 문자 그대로 싸우며 발전하는 우리공군의 변모를 과시 하였던 것이다.

당시 우리 측은 이미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완강한 저항을 시도하는 적 지상군에 대하여 영일없는 공격을 계속하던 때이니 그즈음 적진출격 100회를 돌파하는 용사가 속출하기 시작하였고 1953년 5월 30일에는 마침내 고 유치곤장군(당시 대위)이 우리공군에서는 최초로 200회 기록을 세움으로써 세인의 찬사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분투와 노력도 아랑곳없이 전 민족의 염원인 모처럼의 국토통일의 기회도 헛되이 7월 27일의 휴전이 결정적인 단계로 들어감에 따라 우리공군은 지상군을 도와 휴전직전까지 전 능력을 발휘하여 출격함으로써 침입하는 적을 궤멸시켰던 것이다.

3년여의 동안기간 중 우리공군은 8,000여회에 달하는 적진출격을 감행함으로써 헤아릴 수 없는 작전과 빛나는 전과를 거두어 내외에 그 위용과 우수성을 널리 떨치었다.

비록 휴전은 성립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 휴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우리 공군도 다시 적의 재침에 대비하기 위한 맹훈련에 돌입하였다.

사변 중에는 우리공군은 UN공군에 의해 확립된 공중우세하에서 주로 지상군에 대한 직접간접의 지원만을 담당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우리들 스스로의 손으로 이와 같은 제공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이 그 당시에 절실히 요구되는 급선무였다.

그래서 북괴가 가지고 있는 MIG에 대결할 수 있는 우수한 제트기의 보유를 위하여 정부와 군은 대 미교섭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동조종사의 확보를 위한 미 본토와 국내에서의 제트기 조종교육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제트화에 따르는 정비시설 등의 직접 지원분야는 물론 그때까지 미공군이

운영해 오던 한국방공경보기구의 인수를 위한 교육훈련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우리공군의 미래상을 내다보며 벽찬 희망에 가슴이 부풀었다.

그로부터 오늘까지 우리공군은 현대화된 장비와 새로운 전술전기를 가지는 정예공군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조국의 영공수호자라는 지고의 사명을 완수하기에 방공관제정보망에 의한 24시간 영공감시, 일선비행 기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전투조종사들의 비상대기 등으로 적극 방공을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명실공히 삼천만의 불침번으로서의 전투태세를 완비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그동안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계속적인 확장을 거듭해온 군운용기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작전사령 부와 군수사령 부의 중간사령부를 창설하여 효율적인 전술공군의 운용을 기하는 한편 공군사관학교를 확충하고 공군대학을 창설함으로써 간부의 양성을 위한 교육체제를 완비했다.

그리하여 육·해군 및 해병대와 우방 UN군과의 협동작전에서 우리공군의 지위를 확고히 했으며 오키나와 비올빈 등지에서 수차에 걸친 우방공군과의 사격대회에서는 탁월한 전술과 전기로써 당당한 국제 공군으로서의 실력을 입증한 바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1·21사태 이후의 최근에는 대간첩 작전에서 공군이 가지는 신축성 있는 효율적인 공중지원이 모든 작전수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비중을 차지하기에 이르렀으니 작년 서해안 덕적도 부근에서 침투하는 간첩선을 해군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일격에 격침시킨 데에 이어서 금년의 흑산도. 무장간첩선 침입 때에는 초유의 야간 로켓포 공격을 가하여 격침시키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제 우리는 멀지않은 내일이면 세계에서 그 성능을 자랑하는 최우수 초음속전투기인 F4팬텀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지난날 우리들은 시속 80마일의 안타까운 차원에서 일어나 마하 5를 거쳐 이제는 마하 2.5의 비약적 차원에 이르렀으며 5만~8만피이트의 고공을 장악할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종래의 주간에만 활동하던 공군으로부터 주야간을 막론한 여하한 기상조건에도 활약할 수 있는 전천후공군으로 발전하여 북괴전역을 제압할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과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재침을 노리고 있는 북괴의 호전적 위협 하에서 우리는

조국의 번영과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침략에 대해서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는 동시에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건설의 힘찬 새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시기에 끊임없는 국력신장을 위하여 철통같은 국방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니 현대전의 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공군으로서 항상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의 현대화, 전력증강, 교육훈련의 실천화 등 새로운 과제와 산적되어 있는 많은 문제들을 부단히 해결함으로써 시시각각으로 변천하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전일의 이스라엘과 아랍간의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공군의 승리로 오로지 뜨거운 애국심과 개량된 무기체계의 적용 그리고 끊임없는 훈련에 기인한 것임을 볼 때 선인들의 고귀한 희생 위에서 모든 역경과 악조건을 극복하고 성장한 우리공군은 역사의 계승자인 동시에 오늘을 후대에 전승할 창조자임을 자각하여 발전하는 공군으로서 자신과 긍지와 용기를 가지고 일치단결 하여 전진해야 되겠다. <1969. 8. 10>

**명언**

- …사전에 아는 것과 사후에 아는 것은 단순한 시간적 차이만은 아니다. 그 결과에는 천양지차가 생긴다. 즉 사전에 알면 이기고 사후에 알게 되면 사후 약방문격이 되어 아무런 소용도 없다. **-손자-**
-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 사람은 자기의 탓이 아닌 외부에서 일어난 죄악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크게 분개하면서 자기의 책임 하에 있는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나 잘못에 대해서는 분개하지도 않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파스칼-**
- …우리는 행복이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와 그 힘을 우리 자신 속에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돌보지 않고 제품으로 된 행복만을 찾고 있다. 그러나 행복이란 상품이 아니라 제품으로 되어있는 것은 어디를 찾아도 없기 때문이다. **-알랭-**

**<공동제목>**

**나의 공군시절**  
-예비역 인사칼럼-



**고결 살고 죽어**

초대공군 정훈감  
김기완(예비역 공군대령)

지난 일들은 무적 대고 그리운 것이라고 합니다.  
하물며 30대에서 40대에 걸친 10년이란 세월을 공군의 군복을 입고 지냈으니 까 평생을 두고 잊혀 지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라고는 타보지도 못한 내가 비행기를 제대로 갖지 못한 공군에 들어 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초창기였다는 것은 입증 됩니다.  
게다가 「정훈」이라는 거창한 사업에 착수를 한다고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 했으니 까 꼭 춘담 면사무소 마당에 놓인 격이었습니 다.  
그래도 내 땀에는 창조예의 참여의식이 제법 있었고 몹시도 서둘러했습니 다.  
살벌할 것만 같은 군대 안에 오손 도손 대화를 나누며 나라의 일, 군인의 인 생관, 생활관, 사생관 나아가서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는 일 등 어 느 모로 보아도 씩씩한 냄새는 나지 않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일 가운데 용기와 강한 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작업이 정훈의 또 한 면이기도 했었습니다.

## •나의 공군시절•

때때로 남이 알아주기 힘든 일을 이해해주신 김정렬장군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무척 고맙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거 봐 서서히 해. 로마는 하루에 이룩하지 않았으니까』달래는 듯이 말씀하실 때 나는 『각하 로마는 하루에 망했습니다』하고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과 대답은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신념의 터전이 되기도 한 일이었습니다.

오래 걸린 위대한 로마의 건설 그리고 하루에 불타고 망한 로마, 무엇인가 깊은 것을 함축한 짧은 말들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잠시 일반 참모부 비서장을 할 때입니다. 비행기가 없으니까 국민헌납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당시 부산에 있는 정부, 국회로 청원을 하러 간 일이 있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지이프에 유명을 달리하신 고 마해송 선생, 영문학자 정재선 선생이 동승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셈인지 밀양고개에서 대여섯길 되는 언덕에서 차가 굴러 떨어져 죽을 경을 쳤습니다.

마선생, 정선생, 나는 모두 냇가에 동맹이쳐지고 운전병은 언덕 중턱에서 지이프에 눌러 숨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부상으로 피투성이가 된 우리는 기어 올라가니까 운전병 입에서 엄지손가락 같은 피 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도 황혼이었고 우리는 비참한 심경 이었습니다. 이때 눈물을 흘리던 마해송 선생께서 『망할 놈 고걸 살고 죽어. 에이 고오현』여운도 없는 꾸지람 같은 말소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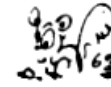
그 힐책같은 말씀이 살아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알아지는 것 같습니다.

고걸 살고 죽어 하시던 마선생도 짧고 깨끗한 유서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공군에서 10년 그리고 얻은 두 가지의 귀중한 삽화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강렬한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 레디스 엔 · 젠르맨! 댕큐



제 3대 공군정훈장  
이종승(예비 공군대령)

지난날 공군시절 특히 정훈감으로 재직시에 겪은 잊혀지지 않는 추억담이나 에피소우드 같은 것을 들려 달라는 요청이고 보면 얼핏 몇 가지 기억이 되살아오며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거의 5년이나 계속 정훈감으로 재직하였고, 최용덕·김정렬·장덕창장군 세 분이 총장제임시 삼대의 정훈감을 치렀으니 이제 와서 생각하면 유능했던 것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냥 눌러 앉혀놓았던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어떻든 당시 국군, UN군은 파죽의 기세로 북진하고 있었고, 공군의 강릉전진 기지에선 연일 출격을 감행하여 사기충전, 공군으로서 매우활기에 차고 다사다난하였던 그 시기에 정훈감으로 재직기록을 켜 셈이고 보면 이 기간이야말로 나의 공군시절에 있어 가장 보람찬 경험과 추억을 안겨준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다. 전역 한지도 어언 1년, 몇 가지 추억담을 생각나는대로 늘어놓겠는데 다소 기억에 명확하지 않은 점을 양해있기 바란다.

1956년 5월경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김정렬장군이 총장으로 재임시(두번째) 미 공군 참모총장「트와이닝」대장의 공식 초청으로 방미여정에 오르게 되었고 나는 수행원의 한 사람으로 동행케 되었다.

의례적인 영접이 번거러웠으나「트와이닝」대장은 김정렬총장과 개인적인 친분도 두터웠던지라 「마이크」 김(김정렬장군 애칭)을 연발하면서 극진한 배려를 베풀었다. 미 공군 각기지를 방문하는 중 우리 일행을 위해서 「와일랜드」대장의 초청연이 마련되었는데 그날 정시의 연회장은 우리 일행을 중심으로 하여 성장한 미 공군장성급과 동석한 부인들이 위계서열에 따라 기라성과 같이 배석하였다. 먼저 「와일랜드」장군이 격식에 따라 기립, 김정렬총장의 방미를 중심으로 환영한다는 인사가 있었다.「와일랜드」장군은 미 공군에서도 몇몇이 장군으로 정평이 있는

풍모의 소유자이나 또한 그 세련된 「스피치」와 「제수휴어」는 과연 능수능란 하였다.

「와일랜드」장군의 바로 앞에 자리를 한 나는 장군의 인사가 끝나자 점잖게 박수를 치면서 장군의 온화한 눈과 마주치자 미소로서 답하여 주었다.

다음은 의당 김정렬장군의 답례가 있을 차례이고, 장내엔 잠시 공간이 흐르게 되자 이 공간을 채치 있게 메꿀 생각이었는지 「와일랜드」장군은 약간 장난기가 섞인 표정으로 나를 넘겨다 보면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당신 직책이 한국 공군의 "스포크스맨"이 아니요』나는 전연 예측치 않던 일이라 얼떨김에 『에스』하였다. 그러자 「와일랜드」장군은 좌증을 한 바퀴 훑어보면서 『우리 한군 공군 「스포크스맨」의 말을 들어봅시다』하지 않는가. 순간 솔직히 나는 아찔하였다. 미리 준비된 것이 있었을 리 없고 전연 예측조차 못했던 일이니 말이다. 그러자 장내의 전시선은 온통 나에게 총집중되고 장내가 떠나갈듯 박수가 일어났다. 영어실력이 월등하다면 입기응변으로 「조크」나 섞어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 장소가 장소이고 당시 필자의 영어실력은 뻔한 것이어서 곧잘 궁지에 몰려도 배짱으로 한뼘보는 필자이긴 하지만 사실 등에 식은땀이 흘러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어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궁지에 빠진 나는 어쩔든 우리와 같은 박수 속에 일생일대의 배짱을 다집하면서 늠름하게 기립하였다. 그리곤 태연하게 만장의 신사, 숙녀들을 한 바퀴 쪽 훑어보았다.

과연 이 한국공군의 「스포크스맨」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 나올 것인가 해서 자못 흥미진진하게 기대에 찬? 눈들이 나를 총 주목하는 판인데 좌중에서 유독 김정렬장군과 우리 일행의 얼굴만은 실례의 표현이나 바로 죽을상 그것이였다. 하기가 그 순간의 심사는 당사자보다도 오히려 그분들이 더 다급했었을는지 모른다. 「저 친구 일어서긴 했는데 무엇을 지껄이지 제발 실례나 없어도 오 하는 바로 애원조의 안색이었다. 물론 끼얹은 듯 조용해진 장내, 순간 나의 입에서 아주 태연하게 그리고 유창하게 흘러나왔다. 「레디스 엔·젠트맨」 줌 여유가 생겼다. 또 한 바퀴 장내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어느 새 긴장이 풀리고 더욱 태연해졌다. 그러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웃어온 생각이 스쳐갔다. 씩 한번 웃어주었다. 그리곤 아주 장엄할 정도의

음성으로 『댕큐』 한 마디 딱 던지곤 점잖게 착석해 버렸다.

잠시 여음이 그대로 흐르면서 조용하기만 하였다. 만장의 신사숙녀들 어안이 병병한 모양이었다. 나는 곧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해서 주석을 달아 주었다. 『댕큐』 이 한 마디에는 모든 감사하다는 표시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 한국국민은 특히 우방미국이 한국을 피로서 도와준데 대하여 감사하고 있으며, 또 오늘 우리 요행을 초청해주었고 성대한 환영연까지 베풀어 준데 대하여 무한히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이 자리에서 댕큐! 라는 말 이외에 무슨 「스피치」가 또 필요있겠는가』하였다.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 가 터져나왔다. 「와일랜드」장군은 유쾌하다는 듯 호탕하게 웃으며 큰 소리로 추켜세웠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스피치」 「레이크오드」를 세웠다』 『당신은 과연 명 「스포크스맨」이다』

얼핏 열의 마이크장군과 우리 일행의 기색을 살피니 활짝 개인 안도의 안색으로 같이 웃고 있었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렇지 그 당시 당하는 사람의 심경을 한 번 짐작이나 해보시라. 이 일을 겪은 후 나는 외국사람 대하는 배장이 한결 더 늘었다. 국제급 배짱이 된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하오공군으로서 뜻하지 않은 수확이었다. 북한으로부터 야크기 일대가 여의도 비행장에 귀순하여 온 것이다. 6·25동란 이후 MIG-15로 탈출 귀순한 노근석대위의 거사가 있기 전 일이라 전공군장병은 한결같이 환영하고 이들의 성공을 기뻐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항공기로 탈출 귀순한다는 것은(공산권서 자유진영으로 탈출이다. 그러하지만) 사생결단을 수반하는 거사로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므로 일단 보도만 되면 전자유진영의 이목을 집중케 할 충분한 국제 「뉴스」의 소재가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재빨리 야아크기의 귀순이 알려지자 저명한 외신기자들이서로 몰려들었고 제각기 치열한 취재활동을 전개하였다.

물론 외신기자 국내기자들이 공동명의로 기자회견을 요청해 오기도 했으나 일단 정보부처의 조사도 끝내야 했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기 위하여 적당히 끌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침 국회 국방 분과위원회에서 될 수 있는 한 속히 귀순자와 접견 면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날 이미 대체적인 윤곽취재가 끝난 외신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닥쳐 당장 기자회견 주선을 요청하며 일보도 물러서지를 않는다. 결국 이들의 간청에 못 이겼고 또 일부러 한국까지 취재하러 온 친구들 이라 생각할 적에 그만한 편의쯤은 보여주는 것이 국제신의상 좋겠다고 판단, 바로 회의실에 준비를 시켜가지고 기자회견을 해버렸다. 물론 그 다음날 외신 보도로 기자회견내용까지 대서특필되었다.

결국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국방분과위원회 에서 불호령이 내려왔다. 큰 사건이라면 크다고 볼 수 있는 항공기귀순사건을 국회 국방위에 사전 보고도 없이 국내외에 크게 보도케 한 것은 언어도단이며, 더욱이 귀순자와 면 접을 마련하도록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즉 각 이행치 않고서 먼저 외 신기자들과의 회견을 주선한 것은 국회 국방분과위원회를 전적으로 무시 해 버린 처사이며 특히 군으로서 감히 취할 수 없는 소행이라는 매우 추상과 같 은 추궁이었다. 즉각 책임자가 위원회에 출두하여 경위사실을 진술 보고하라는 엄시가 내려왔다.

이날 나는 국방분과위원회 공식 석상에 호출되어 당시 각 국방위원들이 돌아 가며 퍼붓는 준열한 추궁을 감수하였다. 책임문제 까지 대두되었으나 정 훈감 단독으로 취한 행동이며, 모든 책임소재는 정훈감에게 있음을 진술하 면서 결국 이 문제로 군복을 벗게 되나 보다하고 내심 단단히 각오까지 했 던 것이다. 항공기 귀순으로 다소 기분이 들떠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 던 것이 의외의 결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정훈감 재직 중 잊혀 지지 않는 기억 중의 하나이다.

공군본부가 대구에 주둔하고 있을 때 공군의 정훈활동은 제법 광범하였고 활 발하였다. 전쟁 중에는 우선 장병의 정신무장과 사기진작은 더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전 국민의 사기양양과 공군으로서 항공에 관한 국민계몽 등은 결코 단념할 수 없는 정훈과제 이었다. 이때에 대구서 정훈감 직속으로 창설된 것이 당시 쟁쟁한 문인명사들로 구성된 창공구락부였다 .

고인이 된 마해송씨를 단장으로 최정희 조지훈씨 등 여러분이 주야를 가리 지 않고

피난보따리 틈에서 원고를 쓰고 잡지를 편집하고 공군이 주둔하는 전지역을 역방하여 장병을 고무케 하였다. 이분들과 막걸리를 퍼마시며, 밤새는 줄 모 르고 정담을 나누던 전시 대구의 이구석 저구석이 잊혀 지지 않으며, 이미 유명을 달리한 몇 분의 그 소탈하고 다정한 풍모를 되새기며 흠모의 정을 금 치 못하는 바이다.

이무렵 극단「신협」도 공군 전속으로

있었고 피난역경 속에서도 여러 차례의 공연을 갖었으며, 신작발표공연의 첫 회는 으레 공군장병만으로 초만원을 이루고 하였다. 당시 「신협」의 노고에 다 소나마 보답하고자 공군에서 「콘서트」건물로 소극장을 마련, 「신협」에 제공하 고자 설계도까지 작성하여 서둘렀으나 공교롭게도 신협 대표 이해랑씨가 김 정렬총장의 처삼촌이 되는 관계로 김총장께서 일언지하에 각하해버린 기억 이 남아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장병이 많겠지만.

○년 ○월에 대구기지를 이륙, 훈련 중이던 P51 무스탕기 1대가 돌연한 공중 사고로 경주국민학교교사에 추락 무고한 어린생명을 희생케 한 사고는 내가 정훈감 책임중 가장 쓰라리고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전공군이 참회 하고 사죄 하는 심경이었고 사고수습에 군으로서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언론기관에서도 매우 동정적인 입장에서 협조하여 주었다.

언론기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당시의 국방부출입기자단의 「멤버」들은 정 말로 쟁쟁한 「엑스파아트」들이었다. 하기가 전시니만큼 일류기자들이 국방부 에 집결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분들과는 군의 정훈감과 출입기자라는 관 계를 떠나 많은 교훈을 나누었는데 어울리지만 하면 장소를 가리 지 않고 두 주불사하며 기업을 토하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당시 서로 안색만 봐도 무엇 을 생각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분들 중의 태반은 지금도 언론계의 중진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때로 만나게 되면 으레 이때의 추억담으 로 꽃을 피우곤 한다. 끝으로 기억나는 한 가지. 김정렬장군이 다시 총장으로 취임하자 전례에 따라 총장사진을 새로 촬영, 각 부대에 끌고루 배포코자 분 망한 「스케줄」을 틈타서 무려 일곱 번을 찍었는데도

그때마다 기술부족, 불합격 선언이 내렸다. 사진반원(일류기술자)들도 송구하 여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한 나머지 정훈감에게 선후책을 지시받으러 갔다.

정훈감도 할일이 많은데 여러장 찍은 총장사진을 걸어놓고 심사판정을 할 수 도 없고 슬며시 화가 동하기까지 했다. 어라! 모르겠다! 여덟번째 찍은 사진을 들고 총장실에 들어갔다. 들어서자마자 『총장님!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 제각 기 미남자로 알고 있는데 남이 보면 그렇지도 않을 때가 많습시다』 김총장은 돌연한 난립자의 똥만지같은 말에 어리둥절한 것 같았다. 『「로버트 테일러는

누워서 옆으로 찍어도 미남은 역시 미남입니다만 나오는 사진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눈 딱 감고 실례의 말씀을 올렸다. 그때 비로소 뜻을 알아채린 김총장 『그래? 내가 로버트 테일러』만 못하냐』하며 빙그레 웃는 것이었다.

내가 공군에서 전역한지도 근 10년이 다가오는데도 소중한 나의 공군시절 추억의 몇 토막만은 잊혀지기는 커녕 갈수록 기억에서 새로워 지곤 한다.

1968년 5월 보라매회를 창립함에 있어 그 발기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지금 6,000여 공군전역장교의 보라매회 간사장으로 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추억을 길이 보존하고 서로 같은 추억 속에서 친목을 찾고자 하는 불의중의 그러한 속셈이 작용할 것이라고도 하겠다. 내가 정훈감으로 재직 시의 공군과 오늘의 막강공군을 볼 때 금석의 감을 느끼게 한다. 더우기 공군은 곧 자유진영의 하늘의 총아 F4팬티기를 도입 보유케 된다고 한다.

잠시도 머물지 않고 약진을 거듭하는 공군의 면목은 실로 약여하다 할 것이다.

온 국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전 장병은 더욱 정신무장을 견고히 하여 분발 정진 조국창공의 수호라는 신성한 임무를 완수해주시기 바랄 뿐이다.

어디까지나 순서 없는 추억담을 생각나는 그대로 적어 보았다. 읽는 분이 옛 추억을 되살리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요행이겠다.



1961년 여름 어느 무더운 날, 두 분의 동료와 같이 세스나에 실려 순회강연차 군산으로 향했다. 여의도 테이크오프 오전 열시 경 여름 날씨라 믿을 수 없지만 기상은 양호한 편이다. 수원, 평택, 천안을 지나 유유히

호르는 금강을 굽어보며 , 백마강 줄기를 타고 부여를 찾았다. 낙화암과 고란사가 한 눈에 뛰었지만 비통한 과거를 실은 채 강물은 말없이 흐른다.

이윽고 기수를 군산으로 돌리자 짙은 먹구름이 앞을 가리우고 폭우가 퍼붓기 시작, 지척을 분간하기 어렵다. 더우기 계기까지 고장이니 앞이 캄캄할 수밖에. 강물 위를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착륙할 수 있는 강변을 찾았지만 마땅한 곳이 없다. 상공군이어서 묘책이 있을리 없다. 부여의 옛 정서는 순식간에 압담한 현실로 돌아 왔다. 구름이 점점 땅에 접근하니 비행도 지면을 스치게 마련이다. 이대로 가다간 얼마 안 가서 장애물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비속에서 약 3,40분 암중모색하다 조그마한 시가를 발견하고 군산이나 아닌가 살펴보았지만 큰 굴뚝 옆에 넓은 공터가 하나 있는 알지 못할 곳이다. 우중이라서인지 비바람에 나부끼는 수목의 괴로운 울동만이 눈에 뜨인다.

설상가상으로 굴뚝 옆은 수림이 우거지고 진입할 수 있음직한 간격에는 가시철망이 5, 6미터나 높이 쳐져 있어 착륙거리를 맞추려면 철망이 걸리고 철망을 피하려면 착륙거리가 짧아 말하기를 진퇴유곡이 아닐 수 없다.

여하튼 인제는 착륙하여야 했다. 조종사는 착륙할 결심을 한다.

이마에선 구슬 같은 땀이 흐른다. 철망 위를 스쳤으나 결행을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 조종사의 얼굴엔 당황한 빛이 보인다. 다시 철망 위를 향하여 진입 하였으나 역시 실패작이다. 세 번째다! 조종사는 있는 힘을 다하여 조종간을 다시 잡더니 이윽고 철망 위로 난다 철망이 우리를 엄습한다. 가느다란 가시 철망이 공용의 이빨과 같이 우리들을 삼킬 것만 같고 격류에 휩쓸려 말려들어 가는 것만 같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힘으로서 스스로 도울 아무런 힘도 없다. 나는 모든 것을 단념 하고 의자뒤턱을 꼭 잡았다. 뒤에 앉은 동료들은 조용히 기도에 여념이 없다.

스스로 돕는 자만이 하나님 이 돕는다면 나는 단념 외에 택할 길이 없다. 「기도는 스스로 돕게 하는 것인가? 스스로 돕는 것인가? 아니 기도는 스스로 돕게 하고 또 스스로를 돕는 것인가?」

우리는 살고 존재하는 것만이 모든 사고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순간은 불가피하다. 있는 것이 진리라면 없는 것도 진리 일 수 있다.

기도는 이러한 이질의 세계와 세계간의 영적통행을 가능케 하는 것인가? 순간 철망은 무사히 넘었다. 그러나 착륙하자니 벌써 공터 끝이 눈앞에 다가 온다. 한 치의 여유를 두고 고인의 신세를 면했다.

무의 세계로 가다 도중 유의 세계로 귀환 하차한 곳은 바로 전주(全州) 헬리콥터장이었다. 비행기와 관련된 나의 10여년간 공군생활의 한 토막이다.

그때 조종사는 차소위로 기억한다. 끝까지 이성을 잃지 않은 차소위의 믿음은 과학과 인간의 지혜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굳은 의지다.

이런 생활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조국의 공역을 지켜보던 조종사들의 모습 또한 잊을 수 없다.

당시 기도드린 동료 L씨 N씨 지금은 모두 유니폼을 벗고 공군을 떠난 분들이다.

이질의 세계와 세계 사이에서 기억에 사라지지 않는 이 두 분들의 기도!

두 분에게 그때와 같은 기도를 언제나 부탁하고 싶다.

12년의 공군과 아울러 이 분들의 건투를 빌어 맞이 않는다.



6·25 적침시 우리 공군은 무스탕 10대로 싸웠다는 용감하고도 처량했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다. 내가 1\*4후퇴 후 입대했을 때만 해도 당시 공군은 1개 비행단을 가졌을 뿐이었으며, 사천에 자리 잡은 이 비행단은 파일럿 양성 등 장차의 최강에 대비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사천은 말하자면 일선지구였고 또 파일럿 기질(?)도 작용하고 해서 규율도 엄하기로 이름나 있어서 당시 공본에서 이곳으로 출장가는 행정계장교들은 가기를 무서워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었다.

공보장교이며 공군 대위인 나는 어느 날 보도자료 수집차 사천에 갔었다. 때 마침 참모회의가 끝났다가에 동회의실로 들어서면서 참모장 김영환대령에게 『·

취재차 왔읍니다』라고 내단의 뜻을 전했다. 듣고 있던 그는 『이놈아! 너 미쳤니? 왔읍니다가 무어야』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어리둥절하는 참모들에게 『이 친구는 중학 동기야』하고 내게 의자를 권하였다. 호탕하고 팔팔한 성격을 가졌던 그는 대령과 대위라는 차이를 이렇게 넘어서 친밀감을 표시해 주었고 덕분에 나는 여러 참모들로부터도 계급에 광분한 대우를 받고 돌아왔다.

그 후 언제인가 대구 영남일보사가 동비행단을 취재하여 좌담회 기사를 2~3일간 연재한 일이 있었다.

당시 신문활자는「아」자 가 「이」자로 보일 정도로 낡아져 있었는데 이것이 대소동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이다. 즉 참모장을 위시해서 참모들, 조종사, 정비사들이 등장하는 이 좌담회 기사에서 참모장 김대령의 발언 끝에 그가 웃었던 그대로 표시하려고 「하하하하…」라고 해두었던 것이 「히히히…」로 되었다는 일이다. 이것을 본 그는 격분했다. 곧 대구에 있는 정훈감을 전화로 불러내어 내가 언제 「히히히」 웃었느냐고 따지면서 좌담회에 참석한 가운데 발언내용이나 웃는 꼴이 내가 제일 못난 자로 되어 있으니 이제부터 즉각 만족할만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정훈감실을 기총소사하겠다고 야단야단이었다. 김대령의 성품을 이는 정훈감은 당황하고 겁도 났다. 책임자인 공보과장에게 경위를 듣고 곧 조치하겠다는 정훈감의 응답에 그는 『도대체 공보과장이란 놈은 누구냐』고 호통을 쳤다. 이 공보과장은 그의 성격이나 전례(본부참모도 그에게 얻어맞은 일이 있었다)로 보아 무사할 수 없는 운명에 있었다.

바로 그 공보과장이 나라는 것을 정훈감으로부터 듣고 난 그는 『당신은 그 친구 때문에 살았소. 살았서』하고 전화를 끊더라는 것이다. 후일 그와 만났을 때 전에 기사관계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하자 그는 양해를 하면서도 나에게 자네 때문에 나는 부하통솔이 안되게 되었네.

히히히히 웃는 자의 명령을 누가 듣겠나. 하고 엄살을 피기도 했다.

그는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옛 친구로 되어 버렸다.





### 후보생 어깨에 소령 계급장이



유홍렬(영남대학 교수)

내가 공군에 입대하게 된 것은 뜻하지 않았던 6·25의 전란을 맞아 피난하지 못하고 지옥같은 괴뢰공산치하에서 간신히 살아나 대구로 피 난하게 된 1950년 12월 30일의 일이었다.

그해 9 28 이후부터 대학의 정비를 위하여 문학부장대리의 일을 맡아보던 나는 학장대리이던 고 방중현교수의 지시로 대학공급의 절반을 가지고 그보다 1주일 앞서 대구로 피난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끝에 동료교수의 소개로 그곳 효성여자중학교에 본부를 두었던 공군참모부장 김창규 대령을 만나 이 분의 권고로 장교후보생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미 40고개를 넘은 나는 대구 칠성국민학교에 자리 잡고 있던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와 같이 입대한 제 4구대 100여명 후보생 중에는 우리 대학의 젊은 교수 10 여명과 나와 비슷한 연배의 몇 사회명사와 많은 대학출신의 후배들이 있어서 마치 피난대학같은 느낌이였다. 여기서 교육대대장 박원석 중령과 구대장 김홍수 소위의 지휘 하에 1주일간 정도의 훈련을 받는 사이에 전세는 악화되어 우리 공사교는 다음 해 1월 12일 그곳을 떠나 제주도 모슬포국민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이곳에서의 훈련 중 가장 괴로웠던 것은 거의 1주일 동안이나 세수를 할 수 없었을 정도로 물이 귀하여 아침저녁이면 달음질을 쳐서 2킬로 썸 떨어진 바닷가에 갔다 와야 하는 일과 배고픔이었다.

이러는 사이에 우리의 훈련과정도 이럭저럭 마치고 그해 2월 15일에 베풀어진 수료식에서는 나와 같은 연배의 몇 후보생의 어깨에는 일약 소령의 계급장이 달려지고 그 밖의 후보생들에게도 경력에 따라 각각 대위 중위 , 소위와 계급장이 달려지게 되었는데 이들은 곧 대구로 돌아와 흠어졌던 공군제건의 중임을 맡게 되었다. 공사교의 교관이 되기를 바라고 있던 나도 뜻밖에도 2대 장훈감의 일을 맡게 되었으므로 날마다 참모회의에 출석하여 작전수행의 일약을 담당하는 한편 군의 지휘교육을 위한 강화를 비롯하여 정훈감실의 조직 강화, 공군순보의 창간, 문인을, 중심으로한

창공구락부의 결성, 음악·미술인들 중심으로 한 정훈음악대, 미술대의 조직, 타군 및 보도기관과의 연락, 공군전사자료의 수집 등에 미력을 받쳐 일한 바가 있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 있어서도 나는 대학교수의 직책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대구에 설치된 전시연합대학에서도 출강하지 않을 수 가 없었고, 부산에 본부를 둔 서울대학교와도 자주 연락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힘에 벅찬 정훈업무보다는 나의 전공분야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공군 사를 처음으로 편찬하는 일을 몇 달 동안 맞아보다가 대학 측의 거듭한 요청으로 1952년 3월 31일에 예비역에 편입됨과 아울러 대학으로 돌아가 의예과부장의 일을 맡게 되었다. 이렇듯이 나의 공군복무시절은 겨우 2년 3개월에 지나지 않았으나 전란에 시달리던 괴로운 가운데 있어서도 보람이 있고 즐거웠던 잊을 수 없는 시절이었다. 그 보람은 나에게 중령의 계급장을 달고 한 달 동안 복무한 기회까지 마련하여 주었다.

### 행복한 조직생활이 그리워



국회의원 박두식  
(예비역 공군중장)

친애하는 공군장병 여러분과 지상을 통하여 대할 기회를 가지고 보니 다시금 지난 20개성상의 공군복무시절이 아련히 추억됩니다.

여러분과 고별한지도 어느덧 몇 해가 가까와집니다마는 아직도 공군 유니폼을 입고 있는 착각을 일으킬 때가 왕왕 있습니다.

내가 처음 입관되어 군복무를 시작한 것은 1948년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적수공권으로 공군을 창설할 때였으므로 오늘의 공군력을 이룩하기까지의 기초가 될 터전을 닦기까지 실로 수 많은 애로와 난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후방 분야(군수)에서 복무한 관계로 장병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예피소드」는 별로 갖지 못했으나 오로지 신념과 용기로서 매사에 열성적으로 복무했다고 자부합니다.


지금도 기억에 새로운 것은 현재의 항공본창의 모체 인 공 군 제40보급창을 창설할 때 '공군의 전통인 화목단결정신으로 장병 이 혼연일체가 되어 고락을 같이하며 임무를 완수했던 일이 눈앞에 선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젊은 정열을 불사른 공군장병의 노고를 회상하니 얼마나 보람차고 뜻있는 생활이었는가 하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더그라스·맥아더」장군이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져 갈 뿐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본 인도 군 생활을 떠나 일반사회의 새로운 경지에 서고 보니 화목 단결된 조직생활이 다시금 그리워지며 아쉬워지는 것 입니다.

공군장병 여러분! 공군은 대한민국 이라는 국가적 조직의 한 축도인 시야에서 우리의 자랑인 공군을 보다 현대적이고 보다 강대한 공군으로 육성 발전 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지면관계로 복무시절의 면모를 상세 하게 기술할 수 없으므로 두서 없는 소감의 편상을 나열한데 지나지 않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군문을 떠난 선배로서 한 마디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공군을 육성 발전 하기 위해서는 군수물자를 선용하고 군인의 본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바쳐야 할 것을 성심으로 부탁하는 바이며 , 끝으로 호국의 신으로 산화하신 전몰영현의 명복을 증심으로 빌며, 불철주야 공군의 발전을 위해서 분투하는 공군장병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 노인장교 파티도 열고

초대 공군병원 영양소장  
박병래(예비역 공군대령, 현 누가 병원장)

내가 공군에 입대하게 된 동기는 입대하기 1년 전에 이미 육군군의 학교(당시 부평)에서 3주일간 훈련을 받고 육군 예비역 소령의 임명을 받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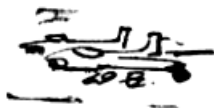
6·25동란 이후 공군병원이 성모병원 바로 곁으로 옮기게 되어 당시 성모병원에 근무하던 나는 공군병원에도 위치상 진료에 종사하기가 편리할 것이라는 공군 군의관의 권고를 듣고 공군에 입대하기를 결심, 육군 의무감에게 승낙을 받았다. 그러던 중 천주교회의 의사로 진료 받을 편성하여 경향신문의 후원 과천주교회의 후원으로 평양에서 무료 진료 중 공군입대 통지 발령을 받았다. 그래서 평양서 서울로 돌아와 공군병원에 근무하게 되고 몇 달이 안 되어 공군병원이 동래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불행히도 나는 「장티프스」를 앓았기에 당시 내과 과장인 김종인박사 덕에 내려가서 치료를 받았다.

완치 후, 1951년 2월경에 동래로 가서 근무하고 5월에 마산으로 이전할 공군 병원 선발대로서 마산에 부임하여 병원 이전 준비를 착수하게 되었다.

원래 나는 서울 대학병원에 있다가 성모병원이 1936년 천주교회에서 창설되는 것을 도읍고자 성모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대하는 사람들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었으며, 교인들뿐이었기에 자연히 내 시야는 좁을 수밖에 없었다. 입대하고 나서는 육군, 해군, 해병대 등 병자가 아니더라도 대할 수 있는 사람들 속의 세계에서 서로 친교를 맺을 수 있었기에 지금은 많은 친구를 사귀고 있다. 이것은 오로지 내가 군 복무에 5년여 복무한 결과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해방 전부터 동란 때 까지 담배는 무척 많이 피웠으나 술은 조금도 입에 대지 못했다. 그러나 동란이 끝 날 무렵엔 담배가 배급제가 되어서 사려면 일렬로 서고 아이들을 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절연을 하기로 했었다. 그 후 담배는 상경 한 후에 피 우겠다고 결심하고 시간이 있을 때 마다 담뱃대 (마도로스 파이프)의 수집을 하였고 그것으로 위안을 하며 지냈다. 담배는 절연 했고, 술도 마시지 못하니 젊은 장교 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지지 않고 딱딱한 분위기가 조성되므로 약간의 술을 배우기로 했다. 그래서 회식이나 축하연이 있을 때는 술을 조금 마신 후 젊은 장교들의 사기도 올려 주고 함께 즐길 수 있었다. 또 공군의 결핵 환자를 치료 하기 위해서 마산서 진해가는 초입 구에 공군병원 영양소를 창설하고 초대 소장으로 취임했을 때 외출한 환자들의 남은 주식으로서 면을 만들어 단오 또는 추석 등과 같은 명절에 장교 및 사병들과 동심으로 돌아가 유쾌하게 지낸 것

은 잊을 수 없는 군대생활 중의 하나였으며, 오십을 넘은 장교가 공군에 전 부 7명 이 있어서 1개월에 한 번씩 장소를 바꾸어 노인 장교 파티도 하고 재미있는 회고담도 마련하였다. 진급도 남보다 잘된 것 같이 생각되고 직위 도 순조롭게 의무감까지 되어 공군 의무행정에 관여하고 국제항공 의학 회에 참석하고자 미국, 일본, 비올빈 등 해외 출장도 잦았다. 이런 호화로운 출 장은 민간 사회에서 내 힘으로는 하기 어렵고 다만, 내가 공군에 근무하면서 얻은 특별한 수익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1956년에 제대, 전에 있던 성모병원 으로 다시 돌아와 의학부장을 하다가 1977년에 개인 사설 성누가병원을 개 원해서 역시 결핵 병동을 세웠다. 군대의 결핵 병동 창설, 성누가병원의 결핵 병동 개설, 이와 같이 결핵에 관한 열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1964년, 4 월에는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문화 훈장을 받게 된 것도 공군병원 당시 결핵 요양소를 창설 하고 환자를 치료했다는 것이 훈장을 얻 게 된 근원적인 핵심이었다.

제대를 한 후에도 공군장교 또는 예비역 장교 혹은 공군의 가족을 만나면 한 집안 식구들 대하는 그런 감이 있다. 혹 어떤 장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에도 공군이라면 어딘지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생긴다. 전역을 하고 보니 같 이 근무하던 사람 중에서 훌륭히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을 보면 기쁘고 극 히 곤란하게 된 사람을 보면 동정하고 싶어진다. 군대에 있을 때는 생활이 단 순해서 군 복무에 관계 되는 일 이외에는 별다른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하루 하루 명랑하게 지냈으나 사회에 나와서 개인 병원을 설립하고 보니 상상 이 외의 복잡한 일, 걱정스러운 일이 이리저리 고개를 치켜든다. 이런 것이 사회 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 나의 즐거웠던 지난날의 군대생활이 더 간절하게 그 리워진다. 이같이 복잡한 현재의 내 생활을 행복스럽게 지내기 위해 신앙심을 굳게 하여 남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해 주려고 힘쓰며, 때때로 과거 군 대생활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위안을 삼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공군 현역 들의 건강을 위하고 예비역들의 사회에서의 성공을 기구하는 마음 간절하다.



## 형제 그림뱅이

김철호  
(예비역 공군대위·광통사역원)

지독한 더위가 계속되었던 삼복지 중이었다. 완전무장한 채로 선착순 집합에 제일 늦은 것이 공교롭게도 나와 가형이었다(형제가 동기로 입대하였기 때문). 호랑이 구대장의 얼굴도 하고 어이가 없는지 이 「형제 그림뱅이」에게 토끼 집을 못시키고 직 웃지 않을 수 없었고 열중의 동료들은 폭소를 금치 못하고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임관시의 항병교 성적이 내가 훨씬 위이고 가형은 밑바닥을 맴돌았기 때문 에 임관서 열과 군번차이가 많이 나서 선임자 구실을 해야만 되었고, 순서가 엇바뀌게 되어 주위의 화제 거리로 심심치 않게 되니 나의 공군생활은 처음부 터 「유모어」속에서 「스타트」하게 되었다. 처음 배속을 받은 곳이 공군 정훈감 실이었고 당시 사진반장자리가 공석이 되어 일약 말단 「소위」가 「반장」감투 를 쓰게 되었다. 정훈감으로 계셨던 표대령도 사진 분야에 평장한 조예가 계 션고, 전공군의 사진 분야의 참모업무까지 수행하러니 매일 꾸지람과 칭찬이 엇갈리는 속에서 초년 장교 시절을 보냈다.

당시 정훈감실 사진반의 암실 작업장이 시내 분실에 있어 오전엔 대방동 청사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시내에 나가서 작업을 감독했었다. C46 납북사건 이 발생되어 공군 내 뿐만 아니라 국내외가 발각 뒤집힐 무렵이었다. 각 신문사와 통신사 외신의 기자들이 몰려 와서 납북기도의 장본이었던 C 대위의 사 진을 내놓으라고 분실에 몰려들었다.

H 일보의 Y 출입기자 (현 H일보 국장)는 참모총장께 다 허락을 받고 왔으니 원관이 있다는데 일매만 인쇄해 달라고 반 명령조로 나에게 대드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소속과장과 정훈감의 지시 없이는 내줄 수 없노라 고 잡아떼면서 승강이를 벌이면서 진땀을 벌이고 있으니 국방부 출입기자단 에서도 오랜 베테랑이며 특종취재의 제 일인자인 Y 기자의 판록 앞이라 나의 「방어전선」은 금새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살금살금 미소를 머금으면서 암실구경이나 하자고 들어오는 Y 기자의 앞을 막고 계속 「방어전선」을 띠고 있는데 안에서 인화작업을 하던 사진하사관이 눈치도 모르고

『반장님, C 대위 사진 다 뽑았습니다.』하고 한 장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산통은 다 깨지고 말았다. 이빨사! 다 틀렸구나. 희색이 먼먼한 H 기자 왈 『참모총장의 양해를 구했으니 내가 우선 가져 갑니다』 일로 줄행랑이다.

다음날 조간을 본 공본에서 나에게 불호령이 떨어졌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도 L4나 L5가 공군에 있는지 모르겠다. 임관한지 얼마 안 지나서 난생 처음으로 탄 비행기가 L4였다.

무슨 문서를 급히 진해의 공사에 전하기 위해서 타게 된 것이다. 비행기에 타 보니 도무지 믿음직하지 않았다.

발이 닿고 있는 바닥은 베니아판으로 보였고 좌우는 형겁으로 둘러 싸여 있으니 말이다.

암만해도 목이 쑥 빠져서 떨어질 것만 같았다. 게다가 조종사라고 해서 타는 사람이 아주 어려워 보이는 하사관이니 더욱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못 타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래도 제법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활주를 해서 하늘에 떠올랐다.

기류에 따라 흔들흔들 흔들리는 비행기 속에서 그냥 앙상하게 비행기 속에서 그냥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활로의 쇠파이프를 단단히 붙잡고 바짝 긴장해서 진해까지 갔다. 그러나 조종사가 워낙 안전하게 비행기를 몰아서 점차 안심이 가고 돌아올 때에는 오히려 유쾌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 후 얼마 있다가 다시 형겁과 베니아로 된 L형을 타고 진해에 가게 되었다. 조종사는 S대위였다.

S대위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친밀감을 주는 명량한 장교였다.

친절한 성격 때문에 그는 기상에서 자주 뒤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폭음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한번은 아주 완전히 조종판에서 손을 떼고 몸을 뒤로 비틀면서 한 손으로는 지도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지도와 지상을 번갈아 가리키는 것이었다.

지도의 이 지점이 바로 여기라는 것이다. 나는 질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비행기는 조종간을 놓아도 제대로 수평비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어렵풋이 들은 기억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가 이상한 기류에 빠지면 뒤집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나는 알았다. 알았다고 무턱 대고 머리를 끄덕거리면서 제발 앞을 보고 조종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는 또 마산 상공에서는 몇 번씩 선회를 하였고, 진해에는 형님이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여 어느 집이 형님 댁이냐고 물은 뒤 그 집을 찾아내어 여러 번 픽케를 하였다. 그렇게 시위를 하여 보는 것도 유쾌한 일이긴 하겠지만 덕분에 나는 아주 녹초가 되고 말았다. 조종사도 성격에 따라 비행 중에 하는 동작이 다르다.

언젠가는 S 소위가 조종하는 AT-6을 타고 사천에 간 일이 있는데 그는 사천에 직행하지 않고 군데군데 떠있는 구름을 이리저리 쫓아서 그 속을 뚫고 가는 것이었다. 그 뿐 아니라 잠시도 가만있지 않고 손을 창밖으로 살짝 내밀었다가 다시 걷우는 동작을 되풀이 하는가 하면, 때로는 머리를 창으로 내밀고 마치 흘러가는 바람에 머리를 씻는 듯이 머리털을 부비고 있었다. 착륙 한 뒤에 왜 그런 동작을 했는가고 물으니까 덩고 심심해서 그랬다는 것이다. S 대위나 S 소위는 모두 사람은 좋았으나 결국 비행사고를 일으켜 조종사로서 성공하지는 못했다. 역시 아무리 평범하고 쉬운 조종이라도 원칙에 충실하여 조심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고가 나게 마련일 것이다.

공군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일의 하나는 엉뚱하게 기합을 받은 일이다. 사천에 용무가 있어서 갔다가 돌아올 때 비행기를 내주어서 탔었는데 그세 조종사가 O중위였다. 그런데 비행코오스를 보니 대구쪽으로 가지 않고 더 남쪽으로 가는 모양이었다. 드디어 낮설은 비행장에 착륙했다. 내리고 나서 여기가 어디냐고 O중위에게 물으니까 김해라는 것이었다. 오늘로 돌아가야 한다니까 걱정 말고 자기에게 맡기라는 것이었다. 우리의 부대가 없으니 본부에 연락도 취할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그의 말대로 안내 해주는

집에서 추탕을 맛있게 먹고(그때가 추탕을 먹어본 최초의 역사적인 날이다) 1박(一泊)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은 O중위의 약혼자의 집이었다.

다음 날 대구에 무사히 돌아가서 본부에 들어가니 야단법석이었다. 사천에서는 내가 떠났다는 비행통보가 있었는데 도착하지를 않아 밤새도록 각 기지에 조회해 보았는데 도착통보가 없어 무슨 사고가 난 줄만 알았다는 것이다. 작전국장도 간밤에 한잠도 자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호되게 당할 것이라는 동료들의 예고다.

아니나 다를까 작전국장이 들어서면서 『좀 똑똑히 연락하고 다니시오』라고 눈을 흘겼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격한 어조였다. 억울하게 받은 기합이긴 했지만 매력적인 성격을 가진 O중위가 약혼자와 즐겁게 만나려는 심정에서 한 말이다. 오히려 흐뭇한 마음이 앞섰다.

지금도 O를 만나면 그때의 얘기를 하면서 젊었을 때 의 악의 없는 과오를 웃음으로 되새긴다. 그런 과오를 같이 저질렀기 때문에 O는 특별히 나에게서 잊을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다.

### 불만을 군배



전 경제기원장관겸 부총리  
박충훈(예비역 공군준장)

먼저 공군장병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리고 싶다.

따사로운 체온을 느낄 수 있는 가족적인 분위기라든가 모든 면에서 치밀하고 조직적인 공군생활은 제복을 벗고 사회에 나선 나에게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일종의 향수를 느끼게 한다.

나는 10년하고 3개월이 되는 공군생활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으며, 또 배울 수 있었다.

그럭저럭 만 4년이 된 상공부장·차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에 부딪혔고 때로는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공군에 있으면서 체득한 귀중한 경험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데 여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싶다.

또 나는 공군에서 배운 통솔과 관리방식 이라든가 권한위임에 관한 문제 등을 행정에 적용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며,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 공군에 복무하는 동안 가장 인상적인 것을 말하라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내가 공군 준장으로 국방부경리국장으로 있었을 때 일이 머리에 떠올라 그때 일을 되새겨 보기도 한다.

그때 미8군사령관이었던 「매그루더」장군과 우리 S군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한 일이 있었는데 「매그루더」장군 말이 자기는 예산편성에 있어 「불만을 군배」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 말은 여러 번 음미할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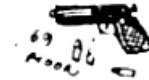
그 후 나는 국방부경리국장으로서 넉넉지 못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원칙 아래 3군 예산요구에 대하여 불만을 군배하는데 머리를 썼다.

예산이 착정된 후 3군은 저마다 불만을 토로해 왔으나 그 불만은 며칠 사이고,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모든 불만은 씻은 듯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만을 군배」했기 때문이며, 도리어 3군으로부터 공평하게 다루어 주었다는 치사를 받았다.

나는 「불만을 군배」한 것이 잘한 것이구나 생각했다.

### 3분 내로 선착순 집합



한인섭(예비역 공군중위)

나는 1959년 4월 9일 기술교육 단에서 입대 신고를 하고 1963년 8월 31일 공군본부 정훈감실에서 제대 신고를 할 때까지 만 4년 5개월을 공군에서 복무하였다.

그 기간에 국가적으로는 4·19 의거와 5·16혁명 등 역사적 대사건들이 잇달았고 개인적으로는 대학 교문을 막 나선 사회 초년병으로서 24세부터 28세까지의

청춘의 황금기 의 일부를 공군에서 보낸 셈이다.

그리고 공군에 있어서는 F86D 전천후 요격기의 도입과 작전 사령부의 창설, 광주 기지의 착공 등이 이 기간에 이루어졌다. 내가 공군에 입 대 하려 마음 먹었던 것은 대학교 4학년 초였다. 그때의 친구들의 대부분은 1년반만 복무하면 제대할 수 있는 학보 병을 지원하고 있었다. 따지고 보면 학도병을 택하는 것이 3년(그것도 우리에게 4년으로 연장되었지만)이라는 복무연한을 마쳐야 제대할 수 있는 공군장교에의 지원보다 소위 출세하는 면에서 빠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공군에 가야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나를 사로잡고 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공군장교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공군-이것은 동서양을 물론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매력을 지니는 것 같다. 현재 나는 직업상 외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편인데, 공군출신이라고 하면 으레 그들은 『오! 에어 포오스!』하고 일단 감탄사를 발하는 것이다.

20 :1 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기술교육 단에서 입대 서약을 한 것은 1959년 4월 9일 오전이었다.

『지금부터 헤치면 내무반에 들어가서 동내의 동내복에 넥타이 매고, 오바입고 철모쓰고 배낭매고 메트레스를 머리에 얹고 3분 내로 선착순 집합!』 이것은 찌는 듯이 무더운 7월 어느 날의 대낮, 일그러진 구대장의 입에서 떨어진 추상 같은 명령, 20주의 이와 같은 고된 훈련 중에는 「학과」가 있고 그중의 하나가 「의사전달법」-소위 「5분간 스피치」로사 후보생들이 차례로 교단에 서서 5분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시간 이 「5분 스피치」에는 처음에 청춘의 관심을 끌 동기여부가 있어야 되고 또 정연한 이론, 적절한 시선배치, 제스처어, 음성, 보조재료, 「철판이나 차아트」의 사용, 결론 등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 「5분 스피치」에서 훈련기간 중에 달성한 세 가지 목표를 지시하였다. 그때 나의 체 중은 50kg이었는데 우선 55kg으로 늘리자는 것, 둘째 나의 물장수 같은 찌그덕거리는 걸음걸이를 고쳐보자는 것 (후보생의 걸음걸이는 특히 엄격히 다스려졌으니) 그리고 끝으로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이 되자는 것.

그때 나의 이 「스피치」가 최고의 점수를 맞은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입관 후 나의 체중은 53킬로로 늘었고 물장수 걸음도 많이 개선되었으나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

이 되었는지는 아직도 의심이 간다.

입관 후 만 4년 동안 나는 정훈장교로서 공군본부 정훈감실에서 일하였다. 처음 8주 동안의 OJT를 받으면서 정훈의 중요성에 우선 놀라왔다.

아무리 최신의 장비를 갖추고 우수한 기술을 도입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인간들의 정신이 풀려 있고 또 그들의 사상이 그릇 인도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 이것은 극히 상식 적인 이야기이지만 결코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본다.

정훈감실에서 나는 처음에 「코메트」(지금의 공군지 )와 공군 위클리 (지금의 주간공군)를 편집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정훈교육 업무를 맡게 되었다. 지금도 계속되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당시에는 「지휘관 직접교육」이라는 것을 실시하였다. 매월 참모총장이 각 참모 및 부대 지휘관에게 「참모총장 직접 교육문서」를 하달하면 그 지휘관 참모들은 그 문서를 토대로 휘하 장병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사닥다리 식으로 실시되는 정훈교육의 한 방식 이었다.

나는 매월 말경에 이 「참모총장 직접 교육문서」를 작성하였는데 한번은 외지에서 중공군이 압록강 변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짚막하게 지나치는 기사를 읽고 이를 그 문서에 인용하였다. 참모총장님의 결재를 받으러 올라가던 정훈차감님이 허겁지겁 내려 오셨다. 『어히, 한 중위 중공군이 압록강 연변에 집결하고 있다는 것, 어디서 알았나?』 『네, 외지에서 읽었습니다.』 『어디 찾아봐!』 그때부터 타임, 뉴스위크, 뉴요크타임즈 등을 들추기 시작하였으나 좀처럼 그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 옆의 이 중위, 민 중위도 동원되어서 수색하였으나 끝끝내 발견하지 못하였다. 결국 그 문구는 「사실무근으로서 삭제되어 버렸다. 그 후에도 중공군 집결설은 영영 사실화되지 못하였다. 나는 제대 후 역시 공보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나의 경우 군과 사회가 직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군대에서의 산 경험이 아주 귀중하게 응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를 가나 공군의 선배 혹은 후배들이 요소에서 참 훌륭히 활약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한다. 나는 이러한 공군가족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한 소위」「한 중위」의 그 멋있던 시절은 벌써 추억의 장막 속으로 살아져 가는가?

## 인사참모는 오래 살 거야 . . . .



유경린(예비역 공군대령)

일생의 노란자위라고 할 수 있는 30대의 황금시절을 송두리 채 공군에서 보낸 나로서는 언제나 공군재직중의 추억에 사로잡힌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1950년 12월 공군중위로 임관하여 1960년 8월 전역할 때 까지 5대 참모총장 아래서 인사국차장으로 근무한 나로서는 지금 생각하면 구복폭소를 자아낼 이야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며 여기에 생각나는대로 몇 가지만 적어 보려고 한다.

### 1. 중위로서 각하존대

1950년 9.28 수복 후 임시 군속의 신분증을 가지고 고향인 평양시가를 거닐 때는 순경이나 헌병들한테서 기막힐 정도로 팔세를 많이 받아 보았건만 불과 3개월인 1951년 초 친구들과 어울려 술에 만취되어 계엄령 하에 대구의 거리를 누비며 횡보하다가 경찰, 헌병에 신분증제시를 받자 취중이라 보인다는 게 계엄고등군법회의의 검찰관 공군중위 ○○○이라 쓰여 있는 신분증을 내밀었더니 그만 헌병아저씨 차례자세로 『각하! 어서 숙소로 가셔야지요』하며 연행 아닌 프로토콜까지 하여 주니 그때의 기분은?

### 2. 법무관은 낮잠을 자야해

지금은 예비역장군이며 당시는 공군의 특급호랑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무서웠던 공사부교장 김○○대령 아래서 공사법무관으로 근무하던 때의 일-

봄철의 따스한 진해 공사 법무관실의 양지바른 창가에서 오수를 즐기고 있는데 순시중인 김대령께서 발견.... 잠시 후 교장실로 불려간 나는 이 위기를 모면할 묘안을 궁리하던 끝에 나로서는 별 수 없다.

호랑이 부교장과 대결할 이런 때 는 나도 배짱을 보일 수밖에....

『부교장님! 부대의 법무관이 낮잠을 즐길 수 있는 한 그 부대지휘관은 안심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구요? 그 부대의 군기가 확립되어 있어서 사고가 없으니까 할 일 없는 법무관은 낮잠이라도 잘 수 있지 않습니까? 법무관이 바빠서 야근까지 하게 되면 그야말로 사고지요...』가만히 듣고 있던 김대령께서 파안대소하면서 『유중위의 뱃심도 전시

하라 쓸모 있을지도 모르겠군...』무사히 그 자리를 빠져 나왔다. 그 후 김대령께서 공본인사국장으로 부임하시자 공군소령인 나를 과거적으로 공본인사국차장으로 발탁하여 주시는 걸 보니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고는 혼자 웃음이 터질 지경-

### 3. 전화위복 만선량을 만든 장본인

공군창설역 처음으로 수백명의 대학출신 각종장교 후보생이 대면기술교육단에 입교하게 되어 일제시 학병출신이며 대학에서 훈장질을 한 경험이 있다 해서 나는 교육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때 공사 ○기생도 혼란차 이 교육단에 파견되어 왔다. 각종상교 후보생들이 일요일 외출에서 한잔 들이킨 기분에 내무반에서 방가하며, 대학생 기분을 발산한 모양인데 이에 화가 난 공사생 들은 군기를 확립 한다고 목총 등을 들고 각종 장교 후보생 내무반에 뛰어 닥치는 대로 때려 눕혀 상당수의 부상자를 냈다.

이 사고가 공본에 보고되자 참모부장께서 일행을 인솔하여 조사차 대전에 오셔서 처리 방침 에 대해 의견을 물으시기에 나로서는 공사 ○기생이 군기를 확립한다는 동기가 아무리 가목하다고 해도 군대 내에서 사관생도가 이토록 집단폭행을 한 이상 그 주동적 역할을 한 학생은 회생을 시켜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굽히지 않은 결과 그 주동학생은 퇴교처분을 받았다.

사관생도의 퇴교 처분한 보는 당시 공사 1기생 및 2기생한테서 상당한 비난을 받았으며 항상 그 퇴교당한 생도에게 미안한 감 불금지심경-

그런데 세월은 흘러 그 생도가 지금은 ○○당의 일류급 국회의원으로서 맹활약하고 있는 이○○의원 이라고 보니 이 의원에게 선량의 길을 터준 장본인은 누구일까?

### 4. 공군중령이 참모총장된 처세?

국상께서 해외출장중이시라 차장인 내가 인사국장의 직무대행을 할 때였다. 장성급 단대장이 전 부 참모총장실에 모여 있는 자리에 당시의 총장인 김정렬 장군께서 나타나 누가 오라고 하였기에 이렇게 전대장들이 다 왔어.

놀란 표정...

전대장들은 어리둥절하여 각하께서 고급장교 진급심사차 오라고 하시기에 왔다고 하자...

총장실에 호출당한 나에게 참모총장께서 『단대장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총장만이

할 수 있는데 인사국차장인 자네가 이렇게 장성급 전대장을 마음대로 오라 가라 하거야?』

참모총장의 결재도 안 받고 내가 마음대로 단대장에게 타전한 결과 호통은 받았지만... 어쨌든 참모총장의 행세는 해본 셈.

### 5. 인사참모는 오래 살꺼야

우리 공군실정으로서는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미공군인사제도의 도입단계인 그 당시의 인사국장인 나는 두 번이나 미 공군본부에 가서 인사제도의 교육을 받고 돌아와 특기제도, 교육제도, 진급제도, 정년제도 등 기타 종래의 여러 가지 인사방침의 급진적 개혁단행을 우겨댄 결과 여러 선후배 및 동료장교와 사병들의 개인적인 피해가 많았다.

더욱이 진급이 안되는 사람과 타의에 의해서 제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무던히도 비난을 많이 받았다. 일언지폐지하면 인사를 취급하는 사람은 남한테 욕을 많이 먹게 마련.

예부터 「남한테 미움 받으면 오래 산다 고...」

생각나는대로 잡담을 늘어 놓았지만 나로서는 공군하면 늘 친정집 모양 마음속으로 가까운 심정... 거리에서 공군장병을 만나면 알건 모르건 친정집 형제를 만나는 기분인 것은 비단 나뿐이 아니고 공군에 적을 두었던 우리 동료들의 공통되는 심정일 것이다.

역시 「인생은 청춘의 추억에 산다」는 옛말이 되새겨진다.



「나와 공군」이라는 제목을 받고 보니 내게는 너무나 분에 넘치는 느낌을 금할 수 없다. 테마가 너무 막연하거나 거창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공군의 일원으로서 3년 8개월이나 있으면서도 이렇다고 내놓을 만한 일 하나 해놓은 것 없이

공군에 일방적인 신세만 지고 물러났다는 자책지감에서이다.

내가 공군에 적을 둔 것은 1951년의 후반에 들어서 일이다. 창설된 지 얼마 안 되는 공군이 경비행기 몇대로 6·25사변을 맞이하여 고전분투하다가 대구에 내려가 겨우 자리를 잡고 프로펠러 전투기를 얻어서 막 새 출발을 하려는 때였다.

나 보다 6,7개월 앞서서 나와 같이 대학에서 봉직하던 동료들이 공군에 입대하였는데 그네들의 권유에 힘입어 또 선배의 협력에 용기를 얻어 공군의 군복을 입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대개 처음으로 군에 입대하면 민간사회와는 전연 다른 별개의 세상이므로 모든 것이 생소하고 거북하여 때로는 괴로움까지도 느끼게 마련이지만 다행히도, 나는 그것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때 괴로웠었다는 기억이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일정말엽에 일본군대마다 군복무의 경험을 가져 본 일이 있다는 것, 둘째로 그 당시의 사변중이라 군의 생활이 반간에게 많이 알려져 있었다는 것, 셋째로 공군에 민간시절의 동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등등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하나 더 보태야 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군이 지성을 이해하고 지성을 간직한 군대였다는데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당시의 참모총장 김정렬장군을 비롯하여 여러분이 순수한 군인이면서도 지성인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인품의 소유자였다. 따라서 어느 군대에서 보다는 가장 지성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바로 내가 생소함을 느끼지 않았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기억 된다.

지성적인 분위기는 사병들의 사회에서도 가득 차 있었음을 나는 경험하였다. 내가 처음으로 맡게 된 것은 인사국 상전과의 일이었었는데 원래가 민간인으로 있다가 나이 30이 넘어 비로소 군복을 입었으니 군인이 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군인정신이 들어있을리 만무하였다. 또 이른바 기합이라는 것을 넣을 줄 몰랐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상전과의 사병은 어느 과의 사병에 못지 않게 군인의 본분을 다하였으며 열성껏 일하였다. 일이 밀릴 때면 흔히 내 눈을 속여가면서 까지 밤중에 몰래 일어나 사무실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에 힘쓰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자량이 아니라 다들 나를 따랐으며, 그 시절의 상전과 사병으로서 이제는 민간이 되었지만 지금도 찾아다닐 정도로 인격적으로 서로 가까웠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사병들의 지성의 소치라고 알고 있다. 또 그것이 우리 공군의 자량이 아닐까. 사람을 부리는 방법은 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성적이며 인격적인 정축에 있다고 느꼈다.

나의 공군생활은 짧았다. 그러나 소득은 대단히 컸다. 지금 말한 체험도 하나의 소득이지만 또 가장 큰 소득은 사람을 많이 시키고 알았다는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당시의 참모총장의 통솔방침의 하나가 단결로 되어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단결은 인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니와 돌이켜 보면 내가 복무할 때의 공군은 가족적 분위기에서 참으로 인화단결이 잘 되어 있었다. 따라서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가깝게 지냈는데, 그때 공군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은 민간사회에 나와, 각 분야에서 모두들 지도적인 또는 중견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그것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마음의 의지가 되고 큰 힘이 되어 있다. 또 공군에 그냥 남아계신 분들도 모두. 늙름한 장군 또는 고급장교가 되어서 믿음직하며 언제나 내 「마음의 고향」이 되어 있음은 나의 숨김없는 표현이다. 그리고 지금의 공군은 김성룡참모총장을 중심으로 하여 나의 공군시절보다 더욱 단결되어있을 것으로 믿어 맞지 않는다. 하늘을 지키는 용사들의 건투와 무운장구를 빌며 붓을 놓는다.

### 강릉 비행장의 오늘날



노중신(예비역 공군준장)

하루에도 몇 번씩 번덕을 부리는 폭우에 3면기사는 법석을 이루고 있다. 청탁의 붓을 든 머리맡을 지금 쓴살같이 휘말려 드는 생각,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말은바 최선을 다했을 때 불의의 어떠한 사고에도 만반의 대책이 세워질 것이며 더 절실한 개개인의 책임감이 요구된다.

일자는 분명치 않으나 강릉비행장에서의 일이다.

한 사나이의 책임감, 그것은 생명과도 같다. 군인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어떠한 절박한 최후의 순간에도 자기의 임무와 책임을 완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기협대령(당시 대위로 기억된다)은 적지의 공격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비상착륙을 지휘함에 요구해왔다. 당시의 단장은 역시 이미 고인이 된 김영환장군, 부단장엔 전 참모총장인 장지량장군. 필자는 그때 군수참모로 후방의 지원을 맡고 있었다. 비상착륙을 요구하게 된 원인은 착륙상비의 이상으로 한쪽 다리가 펴지지 않았다. 이미 연료는 없어지고 그 이상의 공중비행은 자폭과 마찬가지였다. 위기에 직면한 공중의 이 대위를 쳐다보며 전 장병은 지휘탑 주위에 운집하고 1초를 다투는 긴장 속에 모두가 일제히 숨길마저 죽이고 있었다.

단장의 지시는 비행기수를 해상으로 돌려놓고 낙하산 강하를 하라는 것이었으나 이대위의 얘기에 대한 집착과 책임감은 이미 생사를 초월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 명령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그는 최선을 다해 공중동작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장비는 까닭도 없었다.

더 이상 비행의 불능을 안 이 대위는 단장의 낙하산 강하지시를 거부하고 애기와 더불어 생사를 함께 한다는 무신통화를 하고 한쪽 착륙차륜으로 활주로에 진입자세를 취하였다. 이 순간 확연한 죽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전 장병은 누구의 지시도 없이 일제히 이 대위의 무사착륙과 무운을 빌고 있었다. 이때다. 이대위는 구사일생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활주로 끝에 안착했다. 온 전신 물에 흠뻑 젖은 사람처럼 되어 구급차에 실려 왔다. 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온 장병들은 파도처럼 몰려들어 서로 얼싸안고 기쁨과 감격의 도가니를 이루었다. 이것이 진정 인간의 삶에의 '참된 울음이며 가장 진실한 인간들의 알모습이었을 것임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바라건대 이 대위와 같은 책임감, 어떤 위기에 있어서든 흔들림 없는 침착성, 생명을 애기와 더불어 하는 애족의 정신으로 규합되었을 때 보다 나은 우리의 내일은 약속돼 있지 않을까. 한 번 주어진 생명의 고귀한 사명을 헛되지 않게, 그리고 좀 더 밝게 우리의 원대한 포부를 다시 다짐해 본다.



### 사천 출장기

이동기  
(예비역 공군중령·현 의사)

1·4후퇴 후 공군군의 관으로 거의 4년간 근무하는 동안 인상에 남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내가 처음 부산 동래에서 소령으로 공군병원에 현지 입대하여 몇 달 못되어 대구에 있는 기지단 사령부 의무처장으로 전속되었다. 이 때의 나의 임무는 기지단 사령부 및 모든 비행장에 배치되어 있는 기지대 장병의 건강관리였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었다. 기지대 장병의 건강관리라 하여도 그 많은 기지를 내가 어떻게 사령부에 앉아서 관리할 수 있던 말인가?

우선 각 기지대를 순찰하여 보기로 하였다. 한 번은 나와 잠시 함께 일하기로 된 군의관 이수중대위(현재 예비역 대령으로 개업중)와 같이 스리쿼터를 타고 수영과 사천으로 떠났다. 우리가 출장가는데 사령부에서 스리쿼터를 내었다는 사실은 놀랄만한 사실이어서 사령부 일반장교들은 물론 의무감실 군의관들도 모두 「그건 정말 특별 대우인데」하고 떠들어댔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의 공군 전체로서는 차량이 매우 부족한데 특히 기지단 사령부는 말할 것도 없는 형편이었다. 출장이라면 기차를 타거나 기차가 없는 데는 지나가는 트럭을 애걸하여 타는 수 밖에 없는 시절이다.

우리는 특의만만이었다. 이대위와 나는 그 가마씩 차에 싣고 우선 부산 동래에 있는 우리들의 가족들이 사는 집으로 내려갔다. 집에 가서 오래간만에 가족을 만나고 쌀 한 가마를 내어 놓았다. 아이들이 반가와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데 『아빠 비행기타고 왔어요?』하고 묻는 데는 곤란하였다. 다만 마음속으로 「이 털털이 스리쿼터나마 얻어 타고 온 것만도 영광인데」라고 중얼거리며 웃어 보이기만 했다. 다음날 아침에 수영 비행장에 나가 기지대를 찾아 여러 가지 사정을 조사하고 약간의 퍼스트 에이드(First Aid)용 약품과 위생 재료를 주고 오후에 떠나 사천으로 향했다. 그 당시에는 여기저기서 공비가 잘 나타나는 때였다. 특히 우리가 지나온 울산근처와 또 이제 사천으로 가는 길에

몇 곳에서 공비가 며칠에 한 \_번씩 나와서 군인은 물론이고 민간인까지도 해치고 가곤 했다. 그 후에 떠난 우리의 스리쿼터는 정말 털털이어서 한두시간 달리고 나면 빵꾸다 카브레터 고장이다 등으로 쉬곤 했다. 이렇게 가다 보니 한 절반쯤 가서 벌써 날이 어두워졌다.

공비가 종종 나오는 일을 아는 우리는 점점 겁이 났다. 될 수 있는 대로 헤드라이트를 끄고 갔다. 9시반쯤 되어서 어느 강가에 이르러 또 털털이 차가 고장났다. 약 1시간 손질하는 동안 우리는 참으로 전전공궁이었다. 이와 같이하여 사천 기지대에 도착한 것이 밤 12시 경 이었다. 잠자리가 우리를 맞이한 당시 기지 대장 최한경소위(현재 대령)는 우리 들이 무서운 밤길을 온대 대하여 놀람을 금치 못했다.

동시에 이 벽지 기지대에 군의관이 찾아와 준데 대해 너무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병들이 어린 집에서 간신히 사온 생굴과 해삼 회로 술을 나누며 밤을 지냈다.

지금 공군의 젊은 장병은 사천기지나 벽지라는 것은 상상도 안 될 것이다. 그 당시의 사천은 조그만 어촌으로 짧은 활주로에 풀만이 무성한 비행장이 있어 가끔 L-19가 내리는 정도였다. 이런데나마 비행장 한 모퉁이에 천막치고 있는 기지대는 가끔 공비의 습격으로 밤에 잘 때는 부락 안에 있는 집을 하나 빌리고 자는 형편이었다.

며칠 후에 안 일이지만 우리가 밤 9시반경에 강가에서 자동차를 수리 하던 그 같은 장소에 바로 다음날 저녁에 공비들이 나타나 민간버스를 습격 했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등에 진땀이 다시 한 번 흘렸다.



### 잊혀지지 않는 B대령

민병찬(예비역 공군중령)

「블루 유니폼」, 언제나 보면 반갑고 그리워진다. 인간이랑 역시 자기의 청춘을 맡겼던 시절이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추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양이다.

나는 진짜 나의 온 청춘을 공군과 더불어 지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블루 유니폼」을 보면 그 시절에 즐거웠던 일, 어려웠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간다. 「T6」에서부터 「F86」에까지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이에 뒤따른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등 기억이 새로워진다.

특히 이러한 발전과정은 우리 자신의 독자적인 입장에서 이룩된 것이 아니라 철학 풍속 및 언어를 달리하는 미국인의 협조아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한 것이었다. 나의 공군생활은 불과 10년 남짓한 것이었지만 그 대부분의 시간을 미 공군장교들과 접촉하여 일하였던 나로서는 더욱 그러하게 느껴진다. 지금은 모든 면에서 질서가 확립되고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능력보다는 오히려 단체로서의 단결된 힘이 더욱 위력을 보이고 있으나, 그 때만 해도 호랑이 담배 먹을 때라 개개인의 능력이나 언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상대적 현상이라고나 할까? 미 공군장교들도 개성에 의한 사려가 강하게 영향을 주는 시기였었다. 내가 일반참모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 1956년 말경에 내 자신이 겪은 일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당시의 비서실 업무는 총장님을 모시는 외에 미공군의 고문단 및 주한 미공군사령부의 고위층과의 업무연락 및 뒷바라지를 하는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내 자신은 미 공군장병들을 상대함에 있어서 한 가지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 자신의 언행의 일거일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국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모국에 대한 충성을 외교중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 시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 전략이 잘 들어맞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개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략이 너무나 효력을 발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게 된 사실이다. 내가 비서실에 근무하는 기간 중 교체된 고문단장은 「홀트」대령을 위시해서 6명에 달하는데 그 중 「B」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미 합동참모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한국에 부임하여 고문단장이 된 사람이다. 그러나 「B」대령은 자기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4개월 만에 본국으로 전출된 사람이다. 물론 타의에 의한 전출이었다. 「B」대령은 미국 「인디애나」주 출신으로서 매우 진실하고 열성적인 장교였다.

단본부에서의 일손이 떨어지면 그냥 쉬는 적이 없었다. 시간여유만 생기면 「T33」이고 「T6」이고 간에 닥치는 대로 잡아타고는 예고도 없이 각 기지를 시찰하고 현안문제 해결에 솔선하였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나는 한국공군의 미약한 점과 난처한 많은 문제를 스스로 목격하고 듣고 하였으며 이해하게 되었다. 여기에다가 나의 전술한 바 있는 외교전략이 그의 솔직하고 진실한 성격을 자극하였는지 그의 한국공군에 대한 열성은 대단하였다. 우리가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우리 편이 되어서 자기 동료나 부하들에 대하여 우리를 커버 하고 원조하는데에 적극성을 보였다.

문제는 여기서 발단되었다. 그의 부하참모 중에는 이를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부하인 군의참모는 그를 정신병자로 몰았다. 진단서 한 장으로 전출이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대령은 취임 4개월 만에 단장직에서 해임되었던 것이다. 참모로 허무한 일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분명히 정신병자가 아니었다. 그이와 접촉을 많이 한 나로서는 매우 섭섭한 일이었다. 그 뿐 아니라 원통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한 뒷이야기는 지면관계로 생략하겠으나 하도 섭섭한 일의 하나였기에 소개하는 것이다.

우리 「보라매」에 영원한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새끼야 네가 참모총장야?』 『뭐 뭐야! 이 새끼야 네가 참모총장야?』 『흥! 내가 참모총장이야』 이것은 고급부관 신동우중령(예비역공군준장, 현재=한국 기계주식회사 총무 이사)이 참모총장 김정렬장군께 들이댄

전화의 한도막이다. 이런 번이 없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1951년 겨울이었다고 기억된다. 당시 필자는 일반참모 비서장으로 공군본부에 복무하고 있었다. 필자의 보고사항을 듣고 있던 김장군께서 갑자기 전화를 틀더니 고급부관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화의 내용이 해괴할 정도로 비정상적이었다.

『여보게 고급부관인가? 나 참모총장야. 아 이 사람아 나 참모총장이란 말야... 아니 자네 미 쳤나? 나 참모총장이래두...』

전화는 이것으로 끝났다.

참 괴이한 전화다. 필자의 보고사항을 듣고 있던 참모총장이 전화통에 대고 자기가 참모총장이라고만 연발하다가 수화기를 놓고 만 것이다.

김장군은 약간 고개를 가우뚱했으나 태연하게 수화기를 놓고 말했다.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로 궁금한 노릇이었다. 그러던 차에 문이 요란스럽게 열리더니 고급부관 신동우중령이 들어오며 『각하 죄송합니다. 박두선중령의 장난인줄 알고 속지 않는다는 것이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박두선 (예비역 공군준장. 현재=대한광업제련공사 사장)중령이 가끔 장난을 하나?』

『한두번이 아닙니다. 각하 목소리와 꼭 같은 목소리로- 참모총장실로 좀 오게 해서 뛰어와 보면 각하께서 안 계시거나 계시더라도 그런 내색이 보이지 않을 때는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오늘도 처음 두 마디는 영락없는 박중령의 장난 같았는데 세 째마디에서 진짜 각하인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중령은 홍조된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박중령이 그런 재주가 다 있나?』

김장군의 인자한 물음이었다.

•깨끗하고 씩씩하고

『깨끗하고 씩씩하고』 이것은 최용덕장군께서 참모총장으로 재임하였을 때 제정한 공군표어 의한 귀걸이다. 1954년 2월, 신유협대령(예비역 공군준장 과 강호륜대령(예 비역공군준장·현재=교통부 항공국장)과 필자 세 명이 국공군 대학교 황모대학 유학을 명받음과 동시에 출발 시까지 3개월 동안 영어훈련을 명받았다.

영어훈련이라야 필자가 선생이 되고 신대령, 강대령 두 명이 학생이 되어 공군대학의 교재. Operations를 미리 공부하는 일이었다.

학생과 선생의 출석률은 좋은 편이었으나 딱딱한 공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잡담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했다.

공부장소가 공군 장교구락부였는지라 커피를 가져 오너라, 토스트를 가져 오너라 등으로 차차 호화판으로 변하여갔다. 하루는 공부시간에 노래이야기가 나왔다.

공군표어를 조금 개작하여 가지고 거기다가 곡을 붙이라는 학생의 명령(학생이 선생보다 선임이었으니)이었다.

개작한 가사는 다음과 같다.

우리 공군은

깨끗하고 씩씩하고

깨끗하고 씩씩하고

깨끗하고 씩씩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지만 집에 가서 싸우면

형편없이 지는구나

형편없이 지는구나

형편없이 지는구나 .

두 학생의 의견이 가사가 잘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곡을 붙여야겠는데 이것도 걸작으로 지어 보라는 명령이다. 여기서 필자는 천재적인 자극의 소질을 발휘한 것이다. 필자가 습자라는 데 까지 「우리공군은—」하고 외치고 있는동안 두 학생은 힘차고 빠르게 「깨끗하고 씩씩하고」를 연발하기로 했다. 필자가 목청을 가다듬어 장교구락부가 떠나갈 정도로 「우리공군은—」하고 외쳤더니 두학생은 주먹으로 책상을치며 신바람이 나서 「깨끗하고 씩씩하고」를 연발한다. 이 광경은 지금 생각해도 「비틀즈」가 문제가 아니었다.

이리하여 연주가 최고조에 달하였을 순간 교실 문이 드르륵 열린 것이다. 나타난 것은 참모총장 최장군이였다. 최상군은 노기에 차서 안색은 창백하고 아래턱이 떨리는 것이다.

흔비백산한 학생과 선생은 총 기립부동자세로 딱딱하게 얼어붙었다.

『신대령, 참모총상실로 와 !』

한마디를 남기고 최 장군은 공군본부로 가버리고 말했다.

최상군의 통솔방침은 『군의 행동은 선임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진다』는 철칙을 고수하는 것이다. 우리의 잘못은 선임자인 신유협대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대령을 문책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다. 이 고마운 철칙 때문에 강대령과 필자는 무사하였으나 신대령은 꼬박 네 시간을 혼이 났다.

최장군의 이 사상은 고마운 때가 많았다. 음식점을 가도 음식 값을 꼭 선입자가 내야 된다고 고집을 건지하기 때문에 장군을 모시고 식사대를 내어본 공군장교는 별로 없으리라고 믿어진다. 작년 여름 종로거리에서 최장군을 뵈었다. 차나 한잔 하자고 하여 찻집에를 들어갔다. 한림이 나 환담을 하다가 일어나서 재빨리 카운터로 차값을 내러갔다. 차값을 최장군께서 선금으로 냈다는 것이다.

『지금은 군복을 벗었으니 저도 차값쯤은 낼 자격을 부여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필자의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냐, 사회에 나와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내는 법야!』최장군의 변명이었다.

### 남자에게 지지 않으리



미지항공사  
김경오(예비역 공군대위)

10대에서 자그만큼 6년여를 보냈다면 그 사이에 남긴 추억은 하나 둘이 아니다.

단발의 소녀가 하루아침에 홍안의 공군으로 화하였고 푸른 제복에 매일 아침 김포기지를 떠나 두시간이나 구보를 해야 했고 하루 8시간의 긴장된 학과... 여의도 비행장에서 정비실습교육 등등... 피곤에 피로가 겹칠대로 쌓였건만... 가을밤 달빛 아래 콘서트 뒤 밤나무 밑에서의 호령(일명 구령)연습을 할 때에 제각기 다른 또 때에 따라서는 해괴망측한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때에는 폭소도 터졌었다.

「남자에게 지지 말라」는 당시 여항대장 이정희대위의 절대적인 교육방침으로 어쨌든 우리 15명 여자대원에게 있어서 최후의 목적은 남자보다 우수한 장교가 되는데 있다고나 할까?

한참 뛰어다니다 보면 17세 내지는 18세 또래의 우리들은 자연 규정된 군대 식사가 좋을리 없다.

밤 9시가 넘기도 전에 배가 고프게 마련이지만 그런대로 건강을 유지해 가면

서 살이 통통 졌었으니 이 낮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 한창 자라나는 혈기의 탓이었으리라.....

또 잠도 많은 시절이건만... 잊지 않고 찾아 주는 불침번은 정말 원망스러웠다.

꼭 5분전이면 쏟아지는 잠을 억제 못하고 깜박한 것이 그만 아침 기상 나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비비고...

그러나 어제 밤 불침번을 안 썼다는 동료들에게 생색내고 회생적으로 계속 근무했다고 뽐냈지만 순찰: 주변사령에 게 혼난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5, 6월 별도 되다 말면 섭섭하다」는 속담이 있듯이 장교임관 후에는 자유가 있고 보니 그럴듯한 자극도 없는 듯 때로는 햇병아리 시대대 그림기도 했다. 수만명 가운데 여자장교 단 한 사람인 존재가 되었을 때는 고독과 쓸쓸함이 엄습하기도 했으나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우리의 아주머니는 공군 아주머니」...

나 스스로 작사가가 되어 콧노래라도 부르다 보면 마치 여왕인양 그 우월감 또한 괜찮았다. 하늘은 결코 남성의 것도 여성의 것도 아닐진대 하물며 어떤 특정인의 세계도 아니고 보면 어제든 오늘도 또 내일도 이 나라 여성 항공에 이바지 하는 나로서 비록 오늘날 현역은 아니나 군민이 한계가 없는 저 넓은 창공에 살면서 나의 소녀 그리고 청춘을 보낸 나의 집 공군은 언제나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으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함과 동시에 하늘에서 만나면 윙크하고 땅에서 만나면 다정한 미소를 나는 아낌없이 보내는 것이다.



### 처음의 에어쇼

이태현  
(예비역 공군대령)

매년 10월초 한강 백사장에서 「에어쇼」가 있을 때마다 나는 제만사하고 참관해왔다. 1년에 한 번 자라는 공군의 모습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만장의 박수갈채를 받은 편대 특수비행과 나는 특별한 연고가 있어 늘 감명깊기 때문이다.

우리 공군에서 태극기표지를 단 「제트」기를 내가 제일 먼저 탔고 또 편대공중비행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하면 아마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조종사도 아닌 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의심할 것이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내가 간직하고 있는 자랑거리이며 또 거기에는 많은 증인이 있는 것이다.

휴전이 되고 얼마 후에 우리 F51비행단은 강릉으로부터 수원으로 이동하고 미 제 5공군사령부는 서울에서 오산으로 이동했다. 장시 일 논의 되었던 한국 공군의 「제트」기로의 현대화가 결실되어 우리 조종사에게 조종훈련이 시작되었다. 다수의 조종사가 선발되어 그 일부는 미국으로 파견되었고 또 일부는 오산기지에서 미공군으로부터 각각 TS3의 조종을 직접 훈련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나는 소향으로 미제5공군에 파견되어 이 조종훈련이 시작되면서 그 행정관계 일로 일부 관여하고 있었다. 훈련의 직접 담당부대는 미공군의 T33 부대로서 미5공군부대본부의 행정비행 및 본부인원의 「키퍼·프라이」를 지원 하는 비행대대였다. 이 대대에 미 극동공군 중 유일한 편대특수비행반 즉 「에크로바틱타임」이 있었고 그 반의 지휘관 4소령이하 전반원이 우리 조종사의 교관이였다.


훈련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F86의 도입도 연내로 결정되고 우리공군은 수일 후의 국군의 날을 위하여 한강 백사장에서 처음 「에어쇼」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A소령은 그 행사에 모든 공명심과 명예심을 발휘하여 TS3 4대편대의 특수비행을 하기로 하고 관중을 위해 그 4대에는 태극 표지를 하고 그 당시 우리 공군 본부가 있던 대구에 2일 전에 비행하여 행사 전에 참모총장 이하 수뇌부를 시승시키기로 하였다.

모든 준비가 다되고 대구와 연락이 되어 마침내 태극표지 4대가 대구를 향하여 오산을 출발 하는 시간에 A소령은 비행복과 낙하산을 가지고 와서 날보고 4번기 후석에 타라고 요청 하였다. 대구에 도착하면 총장께 우리 조종사의 우수성을 설명해드릴테니 통역해 달라고 하였으나 심중은 자기가 한국조종사를 훈련시키고 있는 직접 책임자였고 또 태극표지를 할 장도로 지성이라는 것을 전해달라는 눈치였다. 이리하여 역사적 비행은 시작되었다.

경비행기나 C47의 탑승경험 밖에 없는 나로서는 약간 불안하였으나 다시 기대할 수 없는 기회라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용기가 났다. 오산을 이륙한 편대 일행은 곧 포항4국에 이르러 예행연습을 하고 다시 동춘상공에서 실연을 하고 착륙하여 당시 참모총장 최용덕장군 이하의 영접을 받았다.

나는 이때 벌써 완전히 기진맥진하였다. 산소「마스크」를 써본 것도 처음이고 비행기가 공중에서 회전하면 탄 사람에게는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도 처음이고 G가 걸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왜 편대장이 4번기에 타는지도 알았고 4대가 동일한 비행을 하는데 호흡을 어떻게 하는 지도 알았다. 참 한 번에 다 알기에는 너무나 벅찼다.

총장이하 4명을 후석에 모시고 그들은 타시 이륙하여 시승비행에 들어갔고 나는 지상에서 휴식 하면서 내가 지금 막 끝낸 비행은 내 눈으로 타장병과 더불어 보고 있었다. 시승비행행은 다 끝났다. 4번기 후석에 다시 타고 나는 오산으로의 귀로에 올랐다. 미 조종사 4명은 4명의 고급장성을 모시고 곡예비행을. 무사히 끝낸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도중 편대는 신이 나서 부산상공에서 재연하고 우선 각 기지는 완전히 「에어쇼」 「무우드」로 만들고 늦게 오산에 도착하여 그대들은 대만족하였다. 그러나 그때 나의 피로한 풀이란 말이 아니었다. 그대로 숙소에 기어들어가 잔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 다시 해보래도 불가능한 이야기며 꿈같은 이야기이다. 매년 「에어쇼」에서 T33 아닌 F86, F5 등을 가지고 시승이 아니라 직접 조종하며 고등편대비행을 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당시가 생각되며 또 자라난 우리 공군이 무한히 대견스럽고 믿음직하다.



### 별표와 배신자

김재현  
(중앙교육원 공무원)

나의 공군생활 15년 중 10년 이상을 공군대학과 공군사관학교에서 복무하고 보니 이 두 교육기간은

나를 키워준 모교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도 공군대학의 교단에 서게 될 때에는 모교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게 작용한다. 강의를 맞는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성인교육이고 보니 여러 가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문제의 출제는 신중을 요할 뿐 만 아니라 요령 있게 해야지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칫하면 큰 말썽을 남기게 된다.

언제부터 별표가 공군대학에서 사용되어 왔는지 그 연대와 창안자는 알 길이 없으나 공군대학이 존속하는 한은 불가분하게 그 전통을 이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또한 공군대학을 이수하지 않고는 그 별표의 진미를 맛볼 수도 없다. 소위 별표란 학습내용중의 장점에 체한 표지를 의미 하는데, 교관은 강의 도중이나 강외가 끝난 후에 이 중요점을 강조하거나 힌트를 주게 되며 또한 학생장교들은 그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를 기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노트나 책자에 수없이 빨간색의 별표를 표시 하게 된다.

공군대학을 수료한지도 수년이 지난 오늘날 더구나 피차가 예비역 편입을 한 지금에 와서까지 나하고 별표에 관한 시비를 계속하는 한 동료가 있다. 그는 나를 만나기만 하면 배신자라고 부른다.

그 까닭인즉 공군대학시절에 내가 약속을 어기고 별표 이외에서 출제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 시절의 시험문제를 아직 기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는 학구에 열중하였던 우등생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여하간 배신자는 배신자대로의 다음과 같은 주장과 논법이 있다. 아무리 동료적 입장이라는 하지만 교단 위에서 사제지간의 인연이 맺어진 이상한 쪽은 제자일진대 사사에 대한 지나친 결에는 허용 할 수 없다고 반박을 한다. 그를 만날 때 마다 별표가 남겨준 배신자 대 제자의 언쟁은 옥신각신 입씨름을 벌이게 되며 동시에 이 공박전을 시발로 하여 옛 공군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는 화제는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온다. 우리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바쁜 거름 바쁜 용무가 있을 수 없으며 최소한 차 한잔을 나누며 반복되는 언쟁을 계속하게 마련이다.

공군시절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언쟁도 별표와 더불어 길이 계속되며 두터운 우정의 열매로 간직될 것이다.

## 6 · 25 동란과 공군의 용전분투

공군준장 박재호  
(공대·총장)



북괴군의 대거남침 소식을 들은 것은 6월 25일 아침 10시 경이었다.

집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여의도 기지로 귀대했다.

그날 오후에 적기로부터 공중공격을 받았으나 피해는 없었고, 다음날에도 적 YAK 전투기와 IL-10 복좌전투기가 기총공격을 가해왔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우리에게 전투기가 없음을 모두들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우리는 보잘 것 없는 항공기였지만 L4, L5 그리고 T6기로서 15kg의 '폭탄을 무릎에 안고 의정부, 문산지구에 가서 적 전차대의 남하를 필사적으로 막았다.

6월 26일에는 선배 조종사 10명이 F51 무스탕전투기를 인수하러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어 우리들도 한편으로는 마음 든든히 여기게 되었다. 이날 저녁 여의도에서 수원으로 이동

하였으며 28일 아침 수원에 남았던 7,8명의 조종사는 L4과 L5 대를 갖고 그날 하루를 꼬박 굶으며 정찰 및 연락임무를 수행했다.

이날 아침 고 정주량중령과 같이 L5를 타고 서울시 내와 김포방면으로 정찰을 나갔는데 한강인도교 입구에서 적전차에 피뢰군깃발이 날리고 있었고 서울역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역 안에 있는 피뢰군들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으며 서대문에서 아현동으로 가는 길에는 피난가는 사람들이 우리비행기를 보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김포비행장으로 가보니 아직 피뢰군은 침입 하지 않고 외국인들이 두고 간 수 십대의 고급차들만이 남아있었다. 이날 또 다시 고 이기혁대령(미국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F86훈련 중 순직)과 같이 원주로 해서 홍천까지 적 지상군 현황을 정찰하고 기지에 돌아왔으나 연료 부족으로 인하여 다시 뜰 수가 없었다. 때마침 비행장에는 엔진에 이상이 있는 L5기 1대가 남아있었는데 고 정중령과 같이 무리한 비행을 결심하고 생사를 천운에 맡긴 채 비행기를 탔다. 그런데 이륙한 후 「후라프」를 올리자 엔진이 갑자기 꺼짐으로 그 순간 『이제는...』, 하고서 의식불명이 되어 버렸다.

그 후 안 일이지만 수원비행장 서쪽 논두렁에 떨어져 전방석에 뒹군 나는 머리, 얼굴 등에 심한 부상을 입고 뒤에 뒹군 정중령은 약간의 부상만을 입었다. 다음날 대전으로 옮겨져 의무실에 약 10일간 입원해 있다가 아직 완쾌되지 않았지만 전세의 악화를 누워서 볼 수가 없어서 말림을 뿌리치고 퇴원해 버렸다.

그래서 퇴원한 다음날부터 비행기를 탔다.

7월 13일 L5기로 정찰을 나갔다가 공주 북방 원덕리에서 온양쪽으로 들어가는 지점인 원덕리 뒷산에서 적이 쏘아대는 기관포에 맞았다. 뒤를 돌아보니 고 박문기소위가 총탄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엔진에 이상이 없어 금강쪽으로 기수를 돌려 대전비행장으로 돌아와 착륙을 하려고 강하하는데 조종계통이 말을 듣지 않아 겨우 착륙을 하였으나 결국 방향유지가 안되어 그만 비행기가 뒤집혀 버린 위기를 맞았다. 그 후 조사에서 포탄에 의해 조종케이블이 다 끊어졌음이 판명되었다.

7월 14일 김천으로 이동한 후 구성진소위(대령으로 예편)와 같이 청주 방면에 정찰을 갔다 돌아오는 도중 보은부근 학교에 주둔하고 있는 수도 사단사령부(혹은 1군단사령부)상공을 돌면서 통신통(通信筒)연락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 뒤(대전쪽)에서 총탄이 날아오므로 쳐다

보니 YAK전투기 두 대가 공격함으로 기수를 동남쪽으로 돌려 하천을 따라 저공으로 피한 적이 있었다.

전선이 정리됨에 따라 7월 하순 의성으로 이동하여 육군 제 2군단 전면을 그리고 영천으로 이동하여서는 제 1군단 전면의 정찰도 담당하였다.

낙동강 방어작전에서는 대구에서 T6기의 정찰이나 F51의 폭격에 못지않게 우리의 L4 L5의 활약도 크게 기여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때 대구기지에서 영천, 신령, 다부동 등 전선의 거리가 가까와 우리의 F51은 1회의 연료보급으로 4~5 회씩 무장을 하고 출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공격으로 미 공군과 더 붙어 혁혁한 전과를 수립 하였을 뿐 아니라 전세를 만회하여 복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수복시에는 육군 제 2군단의 진격을 따라 포천, 평강, 곡산, 삼등, 성천, 개천까지 복진하였다. 개천에서는 회천, 온천리 일대의 정찰임무를 수행했다. 이부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게 되었는데 중공군을 처음 목격하기는 10월 하순 구장동(개천북방 청천강상류)에 정찰나갔을 때였다.

1·4 후퇴 후 제주도로 가서 대망의 F51무스탕전투기를 타게 되었다. 그동안 에도 대전에 있던 백구부대에서는 계속 서울북방과 중부산악의 적목표물에 대한 출격작전을 수행 하고 있었다. 우리는 제주기지에서 6월말 사천기지로 이동하여 U N 공군 내에서 정식 전투단위부대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부대의 준비를 하는 한편 8,9 월에는 지리산 공비토벌 공중지원작전을 하였다.

또한 강릉기지의 정비가 끝남과 동시에 10월초 이동을 완료하고 11일 드디어 우리 공군에 의 한 단독출격 작전을 개시하게 되었다.

### <역사적인 한국공군 단독 출격 작전>

우리의 이 역사적인 출격은 인제 동북방 계곡의 교량폭파에서 시작되었으며 수일 후는 원산 남방의 안변에서 신고산에 이르는 철도를 파괴하고 남대천 계곡을 따라 세포리, 검불량, 평강까지 철도 및 도로의 무장정찰과 보급품집적소와 차량 등을 폭파하였다.

또한 신고산에서 회양으로 가는 동남방 산악지대 보급로와 세포리에서 현리를 지나 동쪽으로 계곡을 따라 회양남방에 이르는 보급로가 있었다.

4·5회째 출격 한 때 권성근대위(소장)를 편대장으로 1차 공격을 끝내고 신



고산에서 회양으로 무장정찰을 하던 중 까치 재 (회양서 북방 5~6킬로)지점에서 4,5대의 적 트럭을 발견했다. 우리는 즉시 공격을 시작했는데 권장군은 선두의 차량부터 공격을 했는데 어느 틈에 후미에 있던 차량 한대가 도주하고 말았다. 이어서 귀환 후에 『우선 선두와 후미를 공격해놓고 그 다음 중간을 공격 해야만 된다』고 주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우리는 한동안 1차 공격은 철도격파, 2차 공격은 보급로에 대한 무장정찰을 했는데 그 후에는 2차 공격 목표가 주로 창도리 및 금성을 중심으로 한 병참지대가 되었다. 화천북방에 위치한 이곳은 일선지구에 근접해 있는 중요한 보급 집적소로서 특히 그 어느 곳보다 대공포화가 치열했고, 지형 자체도 공격하기 힘든 곳이어서 북방계 곡을 따라 남쪽으로 창도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 서쪽계곡도 협소하여 빠질 수가 없어 기습공격을 감행하고 2차 3차의 공격진입방향과 이탈, 그리고 회피 동작을 매일같이 연구하여 공격 하였다. 이곳에서 공격이 끝나면 태극기를 보라는 뜻에 괴뢰군진지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하여 아군 진지쪽으로 넘어오고는 하였다.

×                          ×                          ×

그해 12월에는 사천 및 진해기지에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서남지구 공비 소탕작전에 참가하였는데 지상군이 산봉우리에 공비를 포위해 놓고 우리에게 폭격을 요청하였다.

이때 아군과 공비와의 접전거리가 불과 50~100미터 정도 밖에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서 공격에 진땀을 흘릴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어찌다가 낮은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하게 되면 폭탄이 산봉우리에서 밀로 굴러내리 다가 폭발하게 되므로 굴러내려오는 폭탄을 보고 지상군이 놀라는 일이 가끔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작전에서 아군에게 한번도 오폭을 한 일이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우리는 52년도에 들어서서 동부와 중부지역의 작전에서 서부지역으로 옮겨가서 평양까지 접근하게 되었다.

1월 상순부터 우리는 황주부근의 철도와 개성 북방 시변리 및 토산의 병참지대를 공격했는데 이곳 역시 창도리와 같이 일선에 가깝고 대공포화가 치열한 곳이었다. 이때 특히 잇을 수 없던 것은 1차 공격을 마치고 남하하는 동안 사리원, 신막, 남천지장에 이르는 도로의 무장정찰로서 주로 휴전회담장을 평래하는 괴뢰군의 차량을 감시하는 것이다.

비행도중 적트럭의 행렬을 발견하면 저공으로 내려가 물자적재여부와 표지를 확인하였다.

대부분이 복사하는 빈 차량이었으며 우리가 그 괴뢰의 머리 위를 유유히 비

행하는 기분은 정 말 통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

### <전사에 빛날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

그동안 우리의 성과에 대한 찬양이 높아져 가고 우리의 공격 임무도 다양해졌는데 특히 우리공군의 탁월한 전기를 과시하여 찬사를 받은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은 공군사에 길이 남을 빛나는 전과의 하나이다.

이 철교는 적의 중요한 보급로의 하나로서 평양 동방 약 15킬로, 승호리에서 서 북방 3~4킬로 되는 대동강 지류인 남강에 있었다.

이 철교를 폭파하기 위해 52년 1월 12일 오전에 김두만소령 (현 참모차장)을 편대장으로 한 6대의 항공기가 출격했으나 기상불량으로 승호리서 방기림리까지 진입하였다가 목표를 변경 하여 이천지역을 공격했다. 오후에 출격한 윤응렬대위(현 소장)편대와 옥만호대위(현 소장) 편대가 역시 기상불량으로 공격을 하지 못했다.

13일과 14일은 이천, 평강, 금성, 동북방의 산악보급로 차단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철교폭파작전을 못하게 되지 않나 안타깝게 여기던 중 15일 철교폭파작전 참가의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날 오전 제 1차 공격에 나선 제 1편대에는 윤응렬대위 장성태대위, 제 2편대에는 옥만호대위 유치근중위 (고준장) 그리고 본인이 그 후미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공격에서 철교 3개소와 철로 1개소를 파괴 시키는 큰 성과를 올렸다. 이때 철교를 보니 폭파된 교각을 모래가마니로 교묘히 쌓아 복구시킨 흔적이 목격되었고 철교부근 바로 밑 모래사장에 포탄이 투하되어 폭발한 흔적이 철교와 평행하게 파져 있었다. 이것이 폭격기에 의하여 폭파된 것임을 알 수가 있었다.

우리의 성과는 오후에 제 2차 공격을 간 이기협대위의 5대 편대가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제 1차의 공격에서 예상외로 큰 성과를 얻었으나 누구 한사람도 자기의 폭탄이 명중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또 하나 우리들의 자랑스런 미담이 되기도 했다. 그 후 우리는 항공기의 정비의 가일층 전기연마에 힘쓰기 위해 일시 작전을 중지했다.

×                          ×                          ×

다시 2월초부터 시작된 출격은 제 1차 목표가 주로 신천지역의 보급로차단이며 제 2목표는 토산, 시변리, 신계지역의 보급품집결소에 대한 공격이었는데 대공포화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었다. 이때 지도로서 알기 힘든 목표는 그곳에서 월남한 장병에게 상세한 사항을 듣고 도표를 작성해서 출격한 일도 있었다.

또 한 가지 특기할만한 것은 겸 이포제련소의 공격이다. 대관령너머 서해안까지 7~8 천피이 트 상공에 구름이 일면으로 퍼져 있는 위를 비행하여 목표 상공에 이르러서는 강하할 곳을 찾는다. 그러다가 얇은 구름 밑에 지상이 보이면 한 대씩 강하하여 제련소의 굴뚝을 목표로 정하고 저공비행하여 무모한 공격을 수차 감행했다. 그 후 기총카메라로 촬영한 필름을 영사해 보고서 웃음을 금치 못한 일이 있었다.

<100회 출격 조종사 배출>

한편 우리공군에서 최초로 김두만소령이 1월 11일 100회 출격기록을 수립한 이래 4월과 5월 사이에 새로 8명의 조종사가 기록을 수립했다.

5월 하순부터 7월 말까지는 주로 검불량지역의 철도와 화차 및 그 연변의 보급품집결소에 대한 공격을 냈다.

우리 공군의 작전지역이 8월부터 10월말까지는 동부로 이동되어 현리와 금성지구를 중심으로 보급품집결소와 보급로 차단작전 및 동해안을 따라 장전·고저·원산지구의 공격, 때로는 해주·재령·웅진지구·이천·곡산·수안지구 등에도 출격이 있었다. 이때 가장 큰 작전으로 8월 29일의 평양대폭격 작전을 들 수 있다.

이날 UN 공군의 전 항공기가 동원되어 1300여회의 출격을 했는데 우리공군도 12대 편대군으로서 3회에 걸쳐 평양시가의 일각을 공격하여 우리공군의 위용을 떨쳤다. 9월부터는 우리의 항공기가 증가됨에 따라 출격 회수도 증가되어 종전의 배나 되었다.

<공지 협동 작전수행과 10전 비단 창설>

우리가 하나의 전투단위 부대로서 작전을 개시하여 만 1년이 지난 10월말부터는 동부전선에 있는 우리 육군 제 1군단 전면의 공지협동작전을 수행하게 되었고 평강지구 및 세포리, 현리동에서는 적보급로 차단작전이 수차 계속되었다.

한편으로는 우리공군의 확장과 전력향상을 위한 상부의 노력으로 항공기가 대폭 증가되어 53년 2월에는 10전투비행단이 창설되어 더욱 효과적인 작전수행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공군의 지상군에 대한 공지협동작전은 그 지역이 확대되어 1군단 지역에서부터 중부전선의 2군단까지 지원을 담당하게 되었고 나는 53년 1월부터 5 월말까지 전술항공기의 통제임무를 띠고 1군단에 나가 있었다.

이때는 올바르게 전과를 확인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다. 당시 1군단 11사단 전면에서 적진지에 대한 항공기 공격이 치열했는데 적의 동굴이 파괴됐다는 것만 전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더 상세한 전과를 확인할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피차의 공방전이 격심한 상황 하에서 마침 생포한 피뢰군 한명으로부터의 진술로 전과가 확인되었는데. 그 동굴 속에 1개 소대가 들어가 있다가 몰살했다는 것이다. 그 포로는 그때 용변을 보러 나왔다가 혼자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진술을 통해 우리공군의 폭격이 얼마나 정확했으며 예상외로 전과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하나, 이때의 치열한 작전으로 고성 남쪽 35고지 고수작전을 들 수 있다.

이때는 휴전회담을 유리 하게 이끌려고 하는 괴뢰군의 최대 발악의 공격이 한참이었을 때다. 서로 한 치의 땅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때며 괴뢰군이 산봉우리까지 굴을 파고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맹폭격을 가해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끝까지 지켰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통쾌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휴전성립과 그간의 전과>

이렇게 우리공군은 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될 때 까지 UN 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적후방보급로 차단작전에 5천여회와 공지 협동작전에 2천 8백여회의 유효출격을 감행하여 조국을 수호하는데 혁혁한 전과를 수립했다.

그간 100회 이상 출격 조종사가 39명이나 배출되고 수많은 조종사가 출격 경험을 가지게 되고 또한 눈부신 활약을 보였다.

× × ×

세월은 흘러 6·25동란이 일어난지도 어느덧 19년이 지났다.

그때 같이 싸우던 선배 동료들도 한분 두분씩 공군을 떠나고 남은 우리들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들에게 북괴의 노골적인 침략기도에 대

비 한 확고한 전비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다.

6·25당시에 보여주었던 그 희생적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용기를 되살려 오늘도 내일도 영공방위와 전기연마에 충실히 최선을 다해야만 되겠다.

## 필승의 신념

-어느 날의 출격 수기에서-

공군준장 배상호

1932년 10월

아직도 적과의 공방전은 계속되고 있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침대를 흔들기에 눈을 뜨고 보니 브리이핑 30분전이라는 당번병의 연락이다. 새벽의 단잠에서 깨어 난 우리들은 잠시 후 브리이핑실에 모였다.

정보장교가 준비한 귀환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난데없이 흑판지우개가 상황판을 내리쳤다.

정보 장교가 브리이핑을 잘못하였는가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 우리는 곧 그 지우개가 우리의 긴장과 정신을 집중시키도록 하기위한 전대 장의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정보장교로부터 적정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들었다. 아마도 정보장교는 우리 조종사들의 출격 준비를 위하여 한잠도 못잔 것 같다.

나는 우리 조종사를 위하여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는 관계관들을 위해서라도 오늘의 출격은 보다 많은 성과를 올려야지 하는 마음의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오늘의 출격목표는 평강 부근에 위치한 적의 후방 보급소를 폭파하는 임무였다. 이날따라 동해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우리의 전의를 더욱 고취시켜 주었다.

장구반에서 장구를 갖춘 우리는 대기차량에 몸을 실었다.

모래로 된 도로가 끝나고 PSP. 위로 차가 몰라가니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요즈음은 태양을 등지고 출격이 많군, 그렇지 태양을 등에 두고 공격하면 아무래도 적 지상사격을 피하기에는 용이하거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동안 어느덧 우리를 태운 차는 애기가 기다리고 있는 곳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우리 편대원들은 저마다의 애기로 달려가 출격준비를 서둘렀다. 김중사 준비는 다 되었나?

이상없다는 정비사 김중사의 대답이다.

무거운 낙하산을 메고 좌석에 들어가 앉으니 김 중사는 내가 안전대 메는 것을 도와주면서 나의 귓전에다 오늘의 성공을 빈다면서 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본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고 돌아오겠다는 무언의 악수를 하고 동시 S/W 를 올렸다.

나의 애기의 프로펠러는 폭음을 일으키며 작동을 시작했다.

편대장기는 우리의 준비를 확인하고 활주를 시작하였으며 이어 우리 편대기는 모두가 힘찬 엔진 소리를 일으키며 고요한 아침 의 적막을 깨뜨리고 이륙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유도로 끝에서 이륙을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을 때 2번기가 편대장에게 엔진에 약간의 진동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편대장은 2번기는 오늘의 임무를 취소하고 원위치에 돌아가 있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나는 2번기를 피하여 나가는 순간 관제탑에서 우리편대는 이륙해도 좋다는 연락이다.

그때 다시 2번기에서 편대장에게 다시 보고가 왔다. 엔진에 약간의 진동은 있으나 비행에는 큰 지장이 없겠다는 것이다.

사실 그때만 하여도 우리는 하루라도 출격을 하지 않으면 식성이 풀리지 않을 정도였으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편대장의 지시에도 굳이 출격하겠다는 2번기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편대장은 수시로 항공기에 대한 점검을 하라는 지시를 한 다음 폭음을 일으키며 활주하기 시작했다.

이어 2번기, 3번기, 4번기의 순으로 이륙한 우리편대는 모기지 상공을 크게 선회한 다음 어느새 대관령 상공을 날고 있었다.

이제 막 동해의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며 솟아오르는 둥근 태양은 인로

복진하는 우리 편대의 은익을 더욱 눈부시게 하였고 희망을 안겨 주는 듯 하였다. 지상 몇 천피트의 상공을 맑고 고요하며 상쾌하고 잠시 후엔 적진을 맹타한다는 생각을 할 때 마다 통쾌하기만 하였다.

편대장은 지상 전선을 통과할 때마다 항공기의 재점검과 무장 S/W의 점검을 다시 실시하라는 명령이다.

어느덧 INITIAL POINT에서 목표지는 기수 전환이 시작되었다.

곧 이어 목표상공에 도착한 우리 편대는 공격 목표를 확인한 후 편대장을 선두로 공격 할 것을 연상하면서 공격준비를 하려는 순간 적의 대공사격은 작열하기 시작하였고 우리의 진로와 주변 일대의 하늘은 적 고사포의 과열되는 검은 연기로 하늘을 뒤덮었다.

그때 편대장기는 갑자기 좌우로 회피 기동을 하였고 뒤따르고 있던 모든 편대기는 편대 장기를 따라 적의 대공포화를 피하면서 회피 기동을 실시하였다. 출격전 브리핑 때 오늘의 목표지점은 보급선의 요새로서 적의 대공포화가 많을 것이며 지난번 무장 정찰임무 수행 때보다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막상 목표지점에 다다르니 적의 포화는 예상보다 더욱 심하였다.

우리는 적의 대공포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적의 요충임을 알 수 있었고 그럴수록 우리는 폭파하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찼다.

우리는 이런 상황 하에서도 조금도 당황한다든가 공포감을 갖기보다도 오직 부여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생각에 전진만이 있을 뿐이었다. 드디어 편대장기로부터 공격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출격을 통하여 그때처럼 공격개시 신호가 기다려질 때도 없었다. 편대장기에 이어 2번기를 따르는 나의 대기가 6,000, 5,000피트 점차 내려가고 있었으며 나의 손가락이 TRIGGER를 당길 순간 지상 목표물 주위 일대는 검은 연기와 더불어 불바다를 이루었다.

오늘 우리 편대는 모두 목표물을 명중시켜 적의 보급소를 완전 폭파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무엇에다 비길 데 없는 통쾌감을 맛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광경을 김일성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폭격은 끝나고 우리는 귀환을 서두르고 있었다.

적의 대공포화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우리는 즉시 목표물 부근을 이탈하여 다시 집합하는 장소를 향해 비행하였다. 다시 집합과 동시에 편대장계 이상 유무보고를 끝내고 일로 모 기지를 향해 기수를 돌렸다.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어 주위를 바라보니 모기지를 떠나올 때 동해의 수평선에 떠오르던 태양은 평 장히 솟아올라 우리를 반겨주고 있는 듯하였다.

우리의 무사고 귀환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는 전우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엔진」을 끄고 내려와 정비사와 굳은 악수를 하면서도 서로는 아무 말이 없다. 언제나 출격에서 돌아오면 오직 비행기는 이상 없고 Condition이 좋다는 말 한마디 뿐 굳은 악수로서 서로의 의사는 완전히 상통되는 것이 습성화되어 버렸다.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었으나 나는 그날 우리 편대의 공격으로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적의 중요 보급원이 마비되었을 것을 생각할 때 조종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흐뭇하던 생각이 오래도록 잊혀 지지 않는다. 우리가 계속되는 출격과 빗발치는 적의 대공포화 속에서도 불사 조 마냥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조국의 내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전쟁에는 오직 이겨야 한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지친 줄도 모르고 두려움도 없었다.

영광된 조국통일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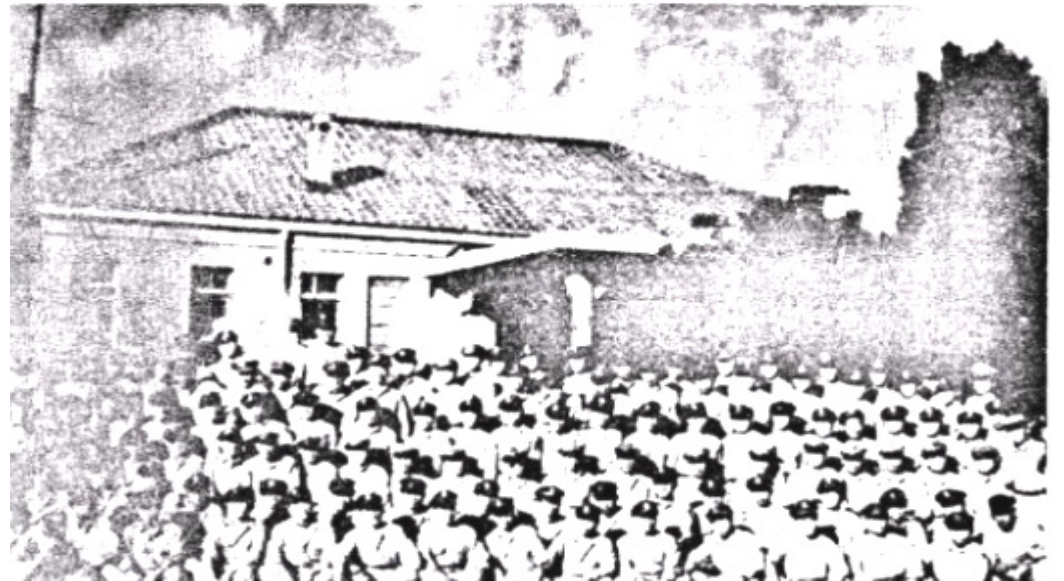
## 개선의 편대

기지로 돌아오는  
찬란한 저 편대를 보아라.  
저녁 햇살을 받으며  
조종간을 잡은 저 젊은 얼굴은  
성자의 얼굴이다  
대공의 포화사이로  
번개처럼 재빠르게 날아다니며  
붉은 무리를 여지없이 부셔버리고  
기지로 돌아오는  
저 사나이들을 보아라.  
태극의 은익을 번쩍이며  
모기지로 돌아오는 저 편대는  
조국의 빛난 열이다  
죽음과 삶이 더불어 공존하는  
적의 상공에서도  
저 자랑스런 편대는  
불사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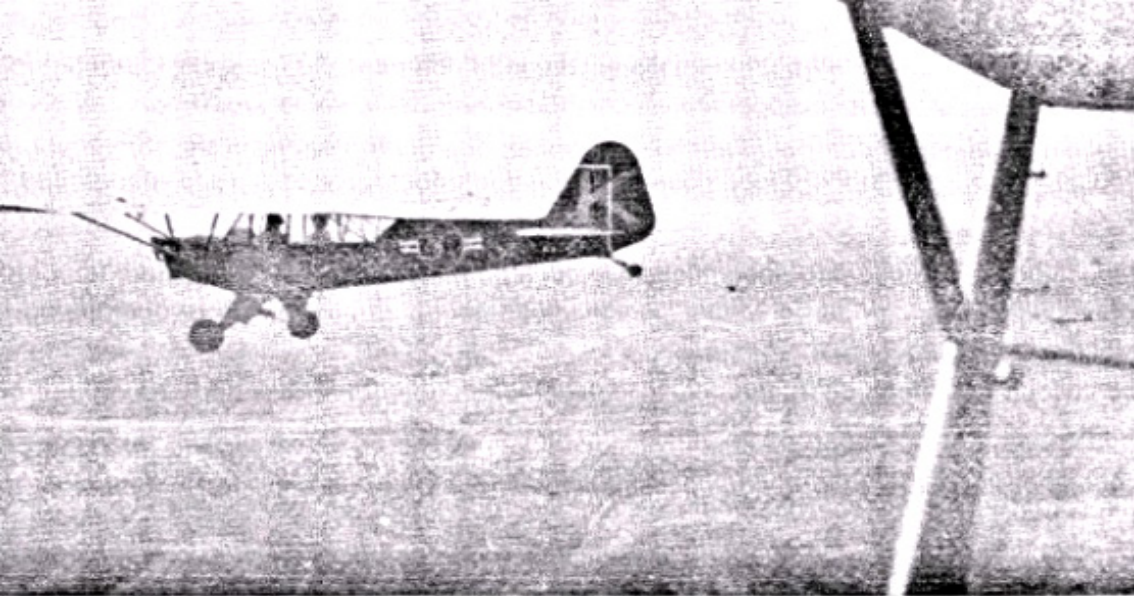
포탄을 퍼붓고 폭격을 하고  
하강하여 또 상승하며  
원수의 놈들을 때려 부수는  
무적의 용사들이  
기지로 돌아온다.  
하나같이 그들을 맞이하자.  
믿음직한 공군들이 돌아온다.  
가슴을 열어젖히고  
그들을 맞이하자.  
하늘의 의지를 닮아  
하늘에서 살면서  
붉은 야욕을 부서뜨리는  
용사들이 기지로 돌아온다.  
그들의 의지를 닮자  
개선의 용사들이 돌아온다.

1952년 10월

1948.5.15 항공기  
부대 창설 당시의 요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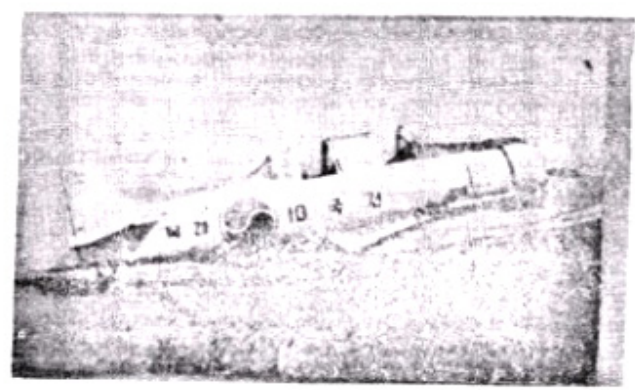


항공기 지부 대장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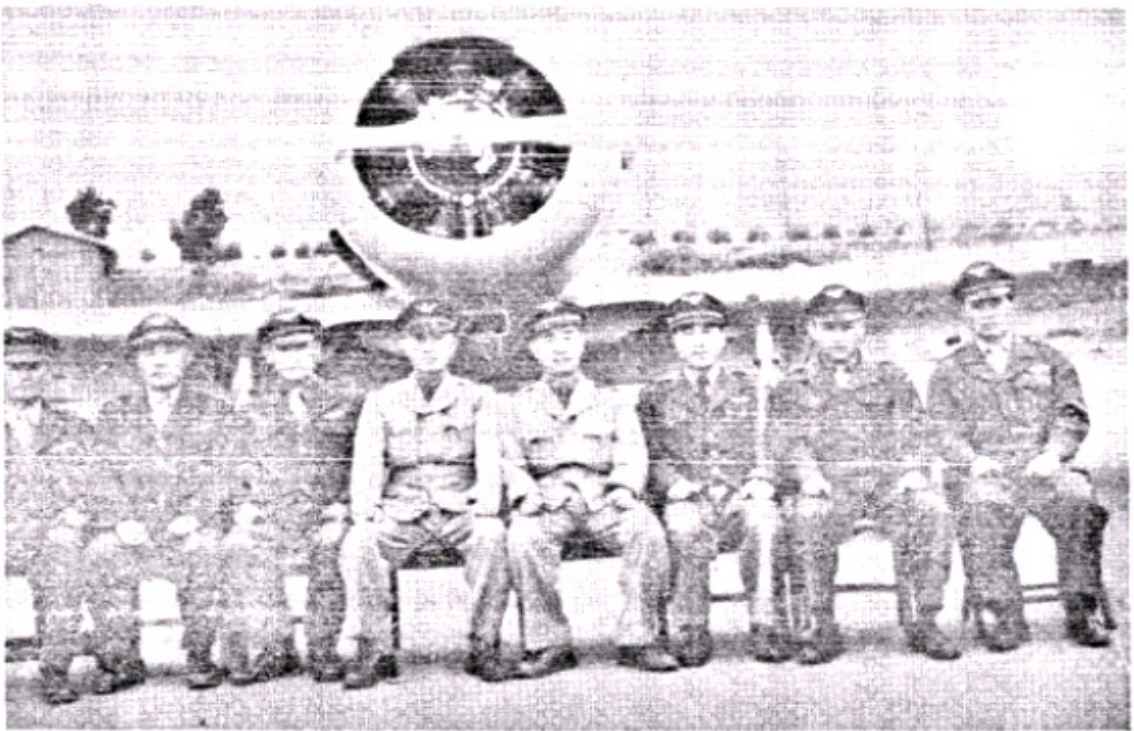


건국기로 6·25동란이 발발하자 국산  
연습용 폭탄을 손으로 제작하여 투하, 응전  
분투.

1948. 4. 한국공군은 미공군으로부터 인수한 L-4 및 L-5형 경비행기에 태극표지 달고, 창공에의 꿈을 키우며 조국 하늘의 초계비행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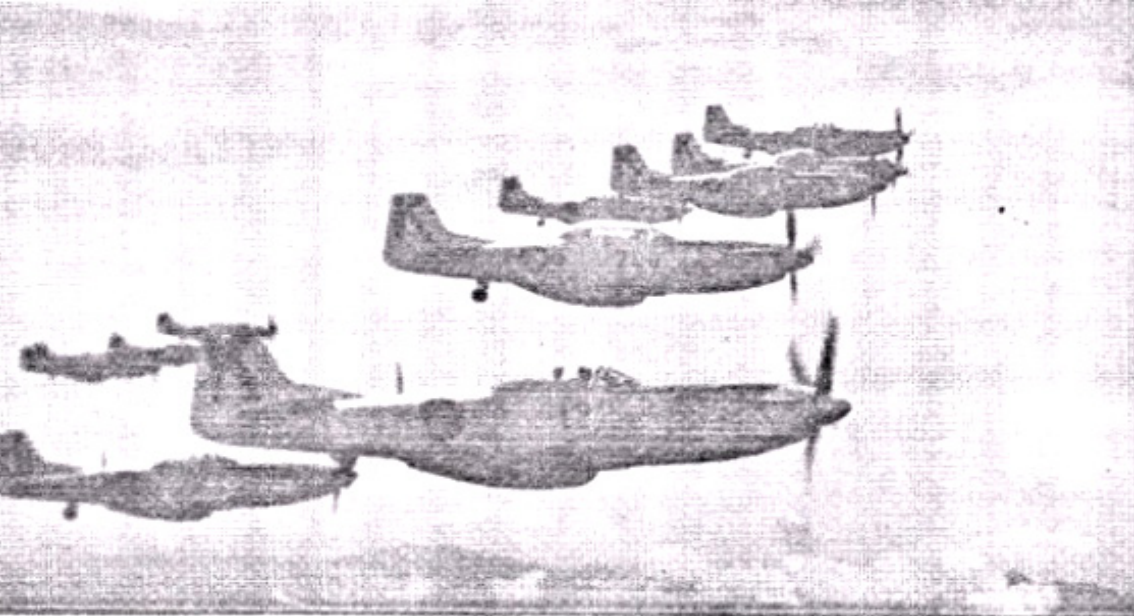
1950. 5. 14 국민들의 정성어린 헌납금으로써 T-16 10대를 캐나다로부터 구입, 명명식 거행



1949. 10. 1 공군독립 당시의 비행단 기본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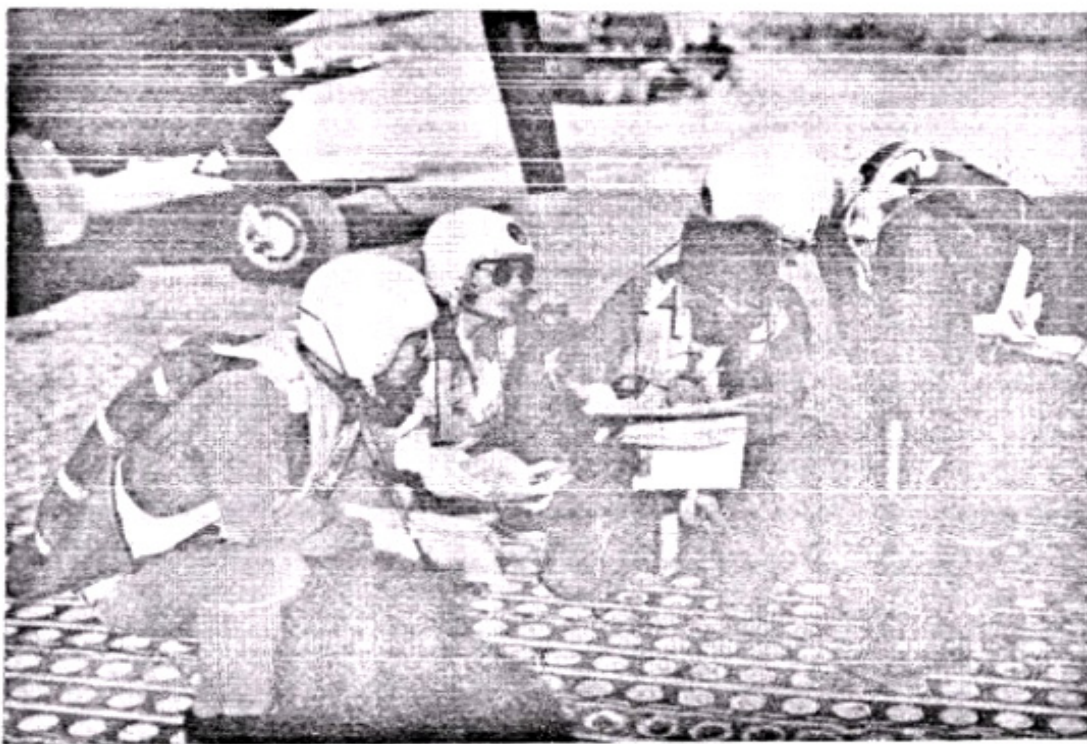
1960. 6. 26 .  
일본에서 급파된 한국국민군 조종사들은 F-5 110대를 인수하여 7월 2일 대구기도착



1950. 7. 2. F-51 10대 드디어 작전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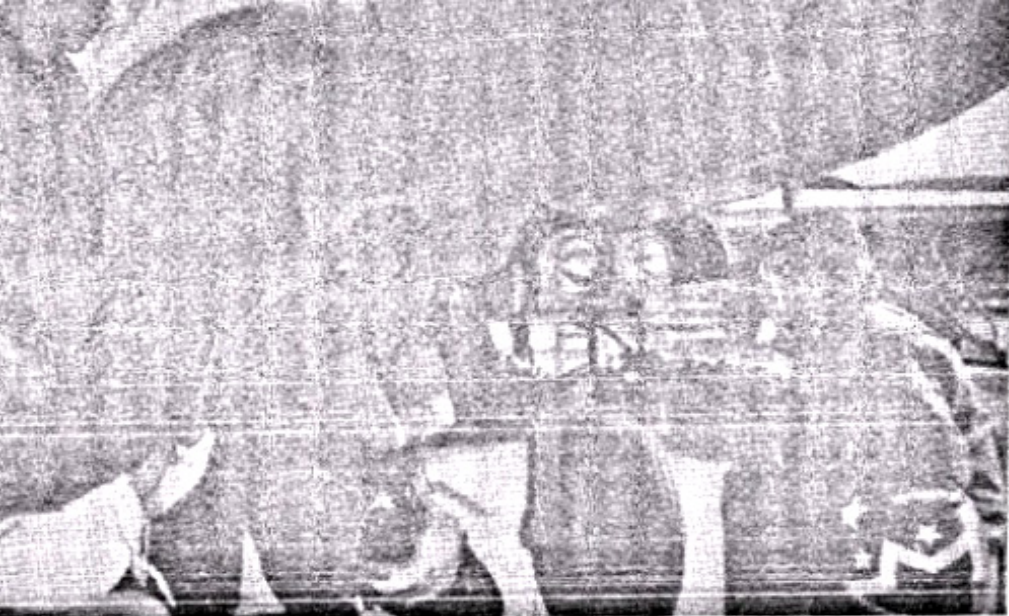
1952. 1. 11. 한국공군사상 최초로 백희 출격기록을 수립한 소령 김두만 <현 참모차장>.



1951, 12. 강릉기지에서 출격전에

1952. 2. 출격에서 돌아와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조종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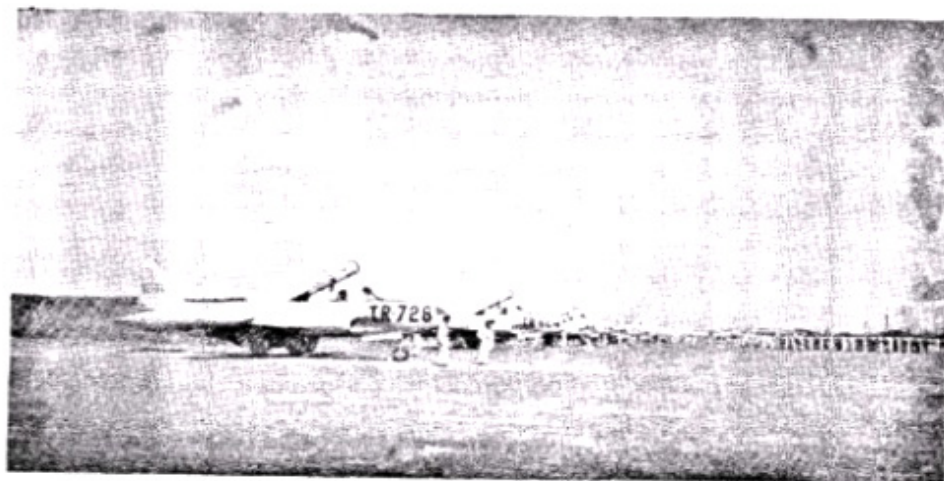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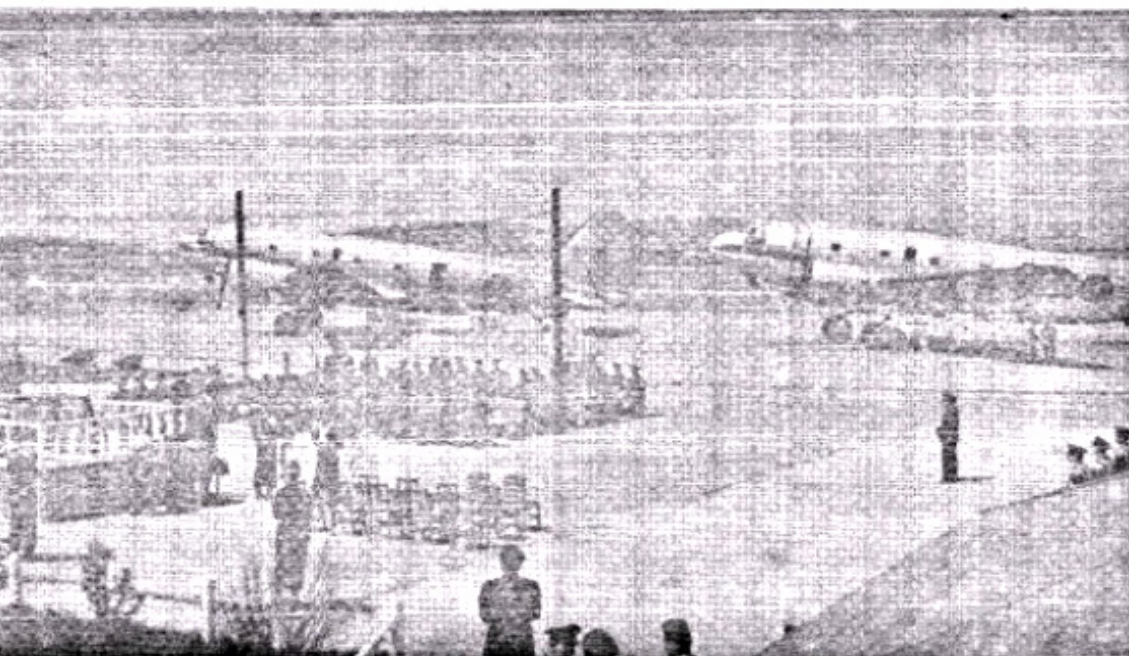
1954. 12. 9. 최초로 국내기지에서 제트훈련 개시.



1955. 6. 20.  
F-86F 1차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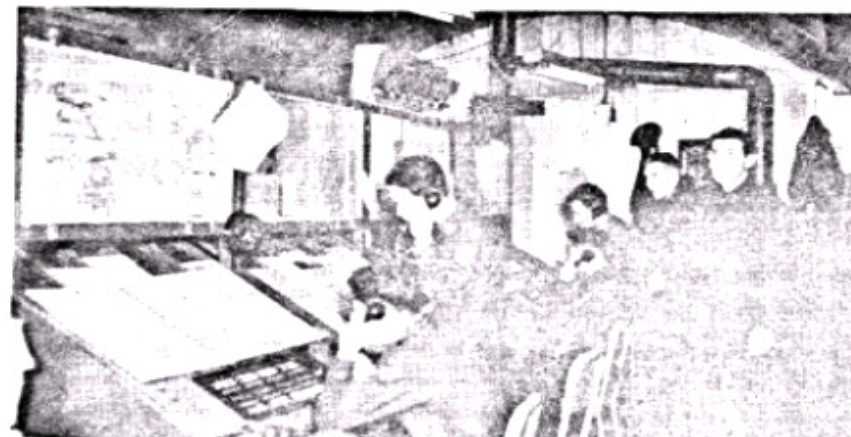


1955. 8. 17. T-33 1차 인수.



1955. 4. 29. C-46 1차 인수.

1958. 1. 17. 항공통신 통제업무  
완전 인수 운영.







1958. 7. 16. H-19 헬리콥터 최초 인수.



1960. 4. 15. F-86D 전천후  
요격기 최초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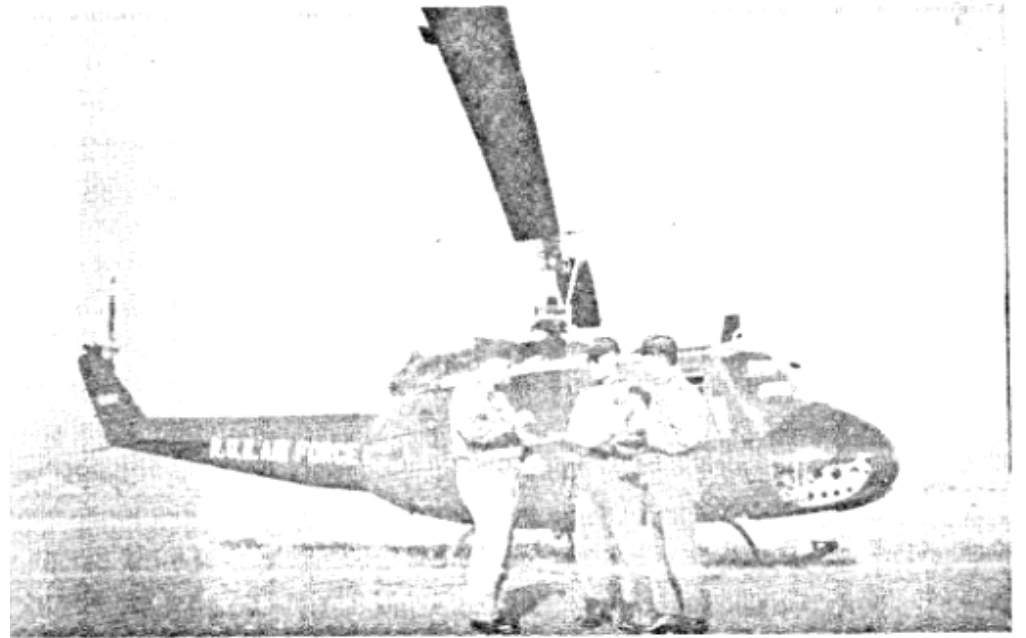
1959. 7. 15. 대공관제경보기구 인수.



1962. 5. 동양 최대의 항공창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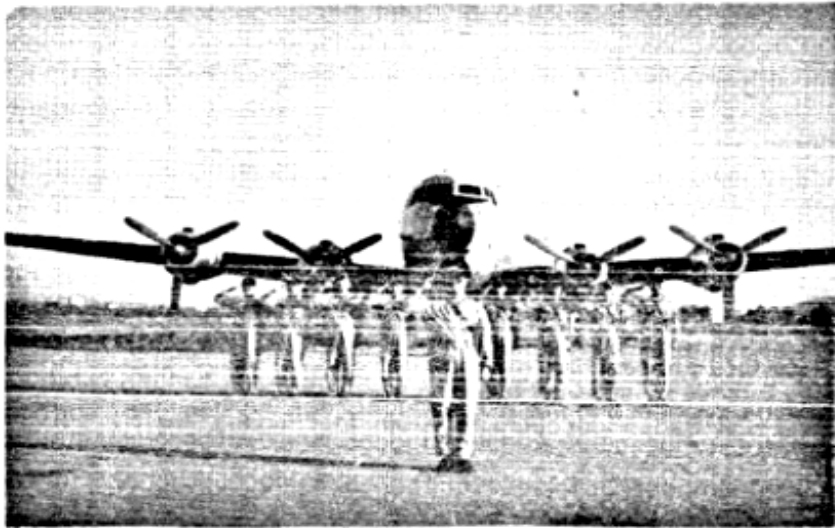


1965. 4. 30 F-5 초음속 제트  
전복기 최초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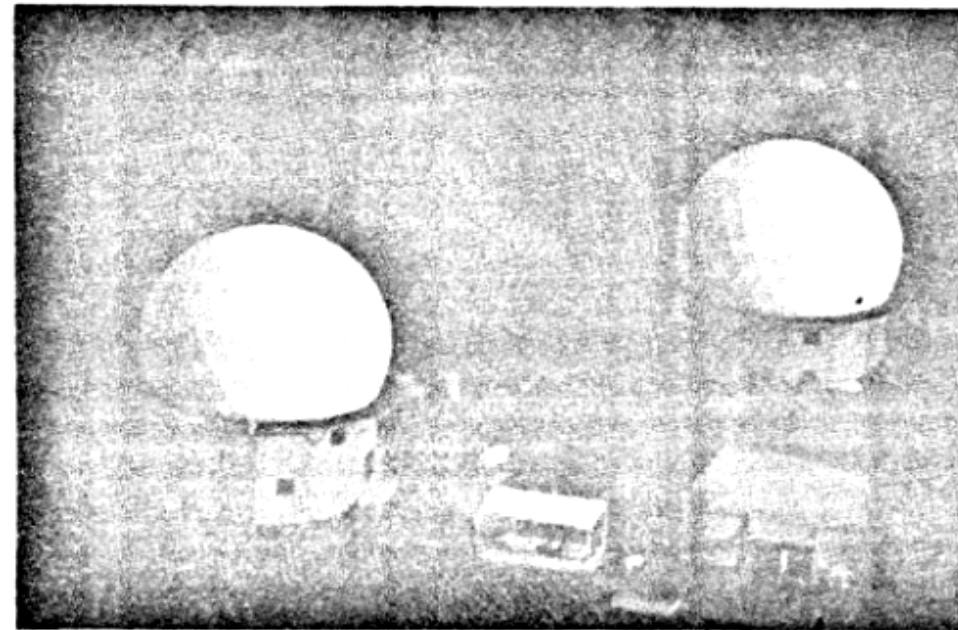


1967. 10. 23. UH/H  
헬리콥터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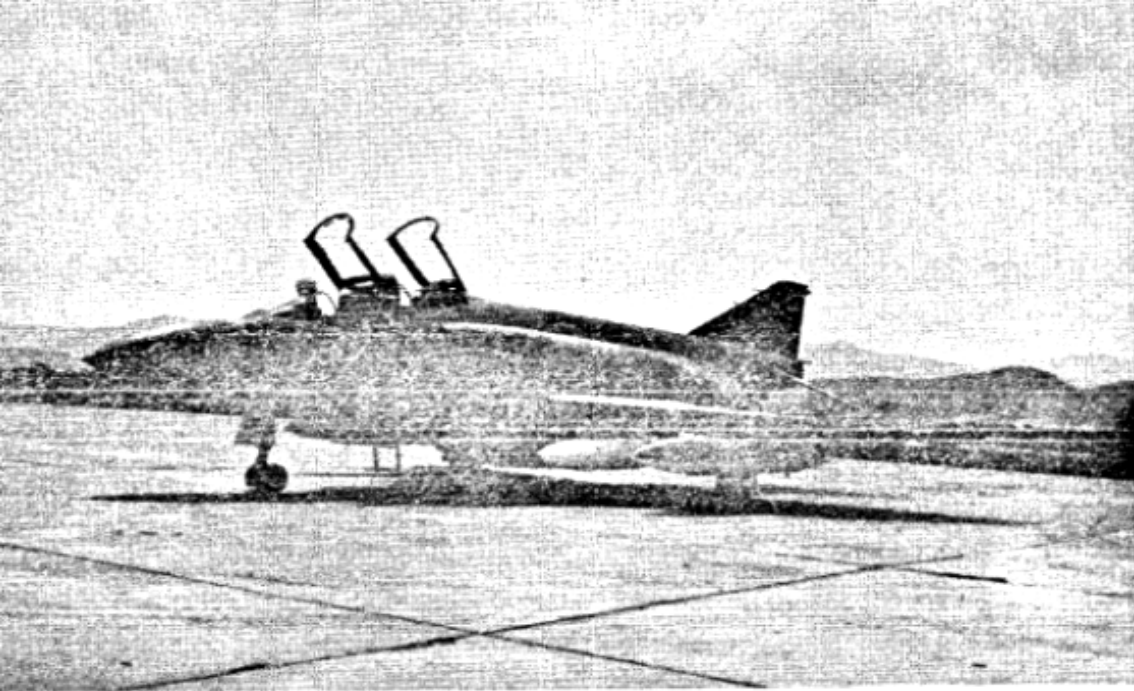
1966. 6. 30 C-54 수송기 최  
초 인수.



1967. 5. 27. 레이더기지 중  
화 야간관제



1968. 6. 13. 레이더기지 종합준공.



1969. 8. 29. 「팬텀」기 최초 인수 <상하>.



공군 후배들에게 바라는 것  
전승의 요인은 정신무장

<서울신문사 전무이사>  
윤일균(예비역 공군준장)



원고 청탁을 받고 보니 망설여진다. 별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이 현역공군장병에게 바라고 싶은 것을 말하자니 말이다. 그러나 필자가 군문을 떠난 후 오늘날까지 언론기관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상 정훈감실과는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라 사양치 못하고 평소에 느낀바 몇 가지를 쓰기로 한다.

우선 우리 공군이 복귀의 재침에, 항상 대비하여 이를 격파할 수 있는 보다 막강한 공군이 되기를 염원할 뿐이다.

복귀는 1970년대를 앞두고 무력으로 적화 통일코자하는 흥계에 소련으로부터 각종 신예장비의 도입을 서두르는가 하면 대내적으로는 소위 전 인민의 무장화, 전 국토의 요새화라는 표어 아래 국민 학교 아동까지 전투훈련을 실시한다하며 무고한 백성들을 동원하여 전방으로부터 후방에 이르기까지 군사훈련과 지하요새화 구축에 혈안이 되는 등 한반도에 있어서의 긴박한 전쟁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복귀는 항공기 도입에 광분하고 있는데 이는 6·25 당시 「유엔」군에게 제공권을 장악 당함으로써 받은 쓰디쓴 경험에 입각하여 다시는 이러한 신산은 겪지 않겠다는 뜻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현대전의 양상이 기습과 집중 그리고 기동성에 더욱 치중함으로써 더욱 신예 항공기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기에 의한 기습과 기동성으로 성공한 최근의 예는 1967년 6월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공군이 숫적으로 훨씬 열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선을 제압

함으로써 6일간의 전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는 교훈은 새삼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생각되나, 여기서 우리는 항공기에 의한 기습공격의 효과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겨둘 필요를 느낀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항시 적정을 상세히 수집, 판단, 파악하고 우리 군사력의 취약점을 계속 보완함에 주의를 기울리 하지 말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월남전의 양상은 항공기의 기습효과는 아니나 항공기가 재래식 무기에 의한 현대 국부전에 얼마나 기여해주는가를 여실히 입증해 주고 있는 바, 월맹지역에 지대공 유도탄이 약 200 내지 300개 기지에 발사대 약 1,800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설에도 불구하고 미공군이 별로 구매 받지 않고 월맹 쪽 주요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계속 강타한다는 것은 항공기의 역할이 아니고는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임무이다.

특히 적측의 지대공 유도탄 약 1,800기가 계속 발사될 때에 일어나는 피해는 출격한 전항공기가 받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의 추측이겠으나 미공군의 손실율이 3-4%에 불과하다는 것은 항공기의 기동성의 향상, 조종사의 고도의 기술 숙련도 그리고 현대 항공기에 필요불가결의 요소인 전자상비의, 탁월한 우수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항공기는 현대과학의 총화를 이루는 종합 과학으로써 현대장비로 이를 취급함에는 여러분의 선배들이 다루던 시대의 항공기와 판이하게 많이 발전되고 달라졌음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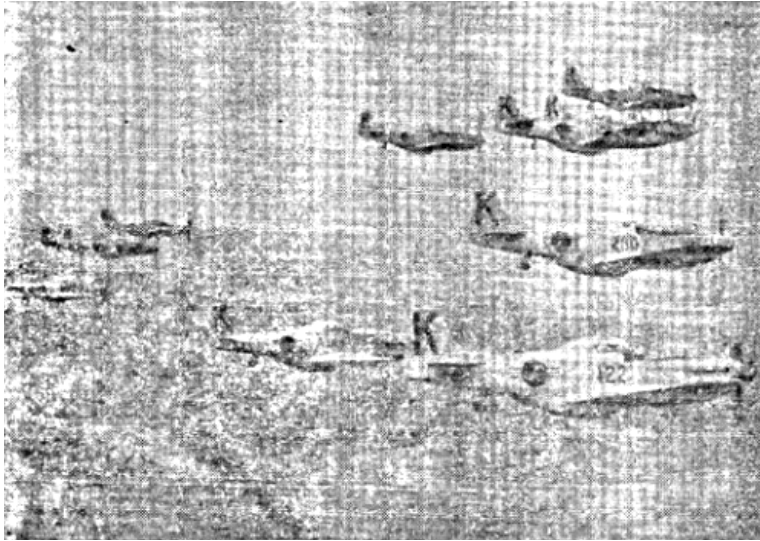
과학기술분야가 급속도로 발달하여 1969년 7월 21일 5시 17분 인간이 달에 첫 발을 디딘고 착륙하는 이 시점에서 항공기의 급진적 발달이 병행할진대, 최고 기술수준을 유지하여야 할 우리 공군의 임무는 막중하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극히 기형적인 현상으로 공군의 과학기술면 만이 유독 정상을 달리고 있을 뿐 기타 일반 분야에서는 아직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할 여지가 있는 이 마당에서 조국 하늘의 방위를 담당할 여러분의 노고와 고충도 크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그럴수록 공군상병 각자의 맡은바 임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명심하는 한편 최고수준의 종합과학을 다룬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공군의 각종 과학무기운용기술의 발전은 곧 이 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사회에

시 공군출신들이 한국의 최고기술이라고 자처 하는 분야에서 주축을 이루며 지도적 위치에서 종사하고 있음을 볼 때 공군의 일원이었던 필자는 마음속으로 흐뭇한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음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서 공군은 군에서만 아니고 군에서 배우고 연마하고 실천한 기술이 바로 우리 한국과학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볼 때, 공군이 이 나라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군에 있을 때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 진출하여 더욱 크다는 것을 자각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종합과학을 다루는 자부심에 앞서 현대전에 있어서의 공군의 역할이 특히 한국에서의 그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북괴공군보다 숫적으로 약간 열세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폭격기인 F-4(PHANTOM)의 도입의 소망을 이루어 우리 공군도 열강국의 공군에 뒤지지 않는 강력한 공군으로서 육성되게 되었음은 공군 대기족의 일원으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든든한 마크며 이것이 또한 우리 공군에 대한 국민의 무한한 신뢰감으로 뻗어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임무는 더욱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 대대의 F-4(PHANTOM)와 F-4를 비롯한 우리의 보유기와 북괴공군의 항공기 MIG-21 60여대를 비롯하여 IL-28 70~80대 등 약 500여 대의 제일선기 (THE WORLD AIRCRAFT ANNUAL 「69」 P.225)를 비교하면 우리 공군이 더욱 증강되어야만 할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이나,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혹시나 장비의 숫적 부족만으로 열등감이나 위축된 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며 이러한 관념은 단연 일소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우리 공군도 현재 북괴공군보다 숫적으로는 약간 열세이나 「이스라엘」의 전훈을 되새기며 「하늘에 살고 하늘에 죽는 보라매의 숭고한 긍지를 갖고 「일격 필살 필파」의 굳은 신념하에 전장병이 일치단결하여 다시는 북괴로 하여금 재침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평소 꾸준히 노력하여 실력을 쌓아 올리고 기술과 전기를 연마하여 국가와 민족의 방패로서 끝까지 공헌하여 줄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굳게 다짐함과 동시에 지상명령이 하달될 때 분단된 이 국토를 통일하여 조국의 하늘을 빛나는 태극기로 뒤덮어야 할 것이다.

참모총장 이하 전공군장병의 건승과 무운 길이 있으시기를 하나님께 축원하며 이만 끝을 맺는다.



## 한국전쟁 출격회고

공군준장 임순혁

전투 출격훈련하면 평소 비행훈련에  
서는 실감이 안나는 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치열하고 긴박한 전쟁 중에서는 실감이 나 는 말이다. 왜냐하면 훈련  
이 곧 전투요 전 투가 곧 다음 임무를 위한 훈련이기 때문인 것이다. 6·25전  
란 당시 우리들은 총 비행시간이 겨우 200여 시간인데 F51 전투기 훈련은 60  
시간이란 초속성 전투조종사 양성의 절박한 상황 아래서 “어서 가자 강릉으  
로, 그리고 나가 싸우자”란 구호를 외치며 저물어가는 1951년도의 흑한을 이  
겨내려고 새벽에는 활주로를 뛰고 오전에는 T6의 후배 양성을 위한 교관을  
겸하고 오후에는 우리들 자"산이 F51전투훈련으로 그야말로 필사적인 맹훈련  
을 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계획된 자기 과목마저 깊이 연구할 사  
이도 없이 어물어물 지나가다 일쑤였다. 그러나 과목마다의 평가와 도태에는  
용서가 없었다. 따라서 훈련중 도태자가 많았던 전무후무의 「크라스」가 되  
어 버렸다.

우리 「크라스」는 소위 국산품 조종사 양성의 1기로서 1949년도 총 응시인원  
이 US명이었고 신체검사에 합격한 인원은 불과 50명, 그 중 학과시험에 합격  
한 인원이 23명으로 비행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비행훈련중 순직하거나 신체결함 또는 비행적성불량으로 약 80%가  
도태되고 전쟁중 강릉기지로 출격 나간 동료는 겨우 7명, 그 중 2명이 전사  
하고 5명이 생존하였다. 이 중 박용만대령과 권중화대령은 예편하였고, 백정  
현준장과 배상호준장 그리고 나만이 현직에 남아 있는 가운데 본인이 마음  
껏 후배 조종사 양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직제에 있는데 대 해서는 큰 보람  
과 중책을 느끼고 있다.

F51 전투훈련을 마친 우리들은 1951년 12월에 대망의 강릉(K-18)기지로 출발  
하였다.

마치 민물에서 질식사상태에 있던 바다고기가 관물에 되돌아온 기분이었다. 우  
선 무한정하게 보이는 동 해 바다가 시원하고 공산군의 접근을 용서치 않는  
듯한 성벽과 같은 웅장한 대관령이 마음에 들었다.

이곳이라면 싸우다 죽어도 신선이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만족스러운 쾌감뿐  
이었다. 도착한 날은 여러 가지 설명과 기지견학을 하고.....

오늘부터 일선비행이다.

상태가 나쁜 첩관 유도도로 활주로를 다시보고 모두 머리를 가우뚱한다. 게다가  
가 눈이 산더미 같다. 만일에 조금이라도 이륙 중 활주로를 벗어난다면 여지  
없이 뒤집혀서 첩관 안에 생매장 당하는 판이기 때문이다.

역시 1,765 마력을 자랑하는 F51 전투기의 「톨크」작용은 이륙시의 활주로 이  
탈사고가 제일 많은 고삐 없는 황소처럼 다루기가 힘든 비행기다.

그러나 우리들은 실력의 인정과 자부심으로서 한 번 해볼만한 충동으로 가  
슴이 벅찼다.

더욱이 중무장을 한 전투기를 세발자전거와 같이 다루는 선배들의 출격광경  
을 바라볼 때는 나도 모르게 담이 커져감을 느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이 고귀한 것이고 값진 희생과 참된 경험 없이는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오늘날의 우리는 아름답고 강한 전투조종사의 전통을 이어 받아 이를 복돋  
우어서 후배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

그리하여 첫번 비행은 강릉기지의 관속비행으로 끝났다.

다음은 첫 출격이다.

무장으로 「로켓트」8발과 기총탄 2천발, 세번째 출격부터는 「파운드」폭탄 2개 썩이 추가된 완전무장이었다. 본인도 이력저력 116회 출격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몇 고비를 넘겼지만 지나고 보니 어디까지나 명령대로 출격 임무를 수행하였고, 훈련 시 교관이나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비행상의 조직이나 주의 를 몸소 익히고 그대로 연구 실천해 왔으며 단 한 번도 비겁한 불군기 비행이 나 명령 위반을 하지 않은 덕분일지도 모른다.

혹시 후배들에 게 참고가 될까 싶어 나 자신이 참가했던 임무중 기억에 남는 몇 가지를 회상하여 본다.

1952년 4월 20일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임무는 황해도 서 북쪽에 위치한 겸 이포 도시에 있는 제련공장 폭격이었다.

당시 이 공장에서는 「디젤·엔진」을 만들고 소련서 가져온 「탱크」를 조립한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평화를 짓밟고 아름다웠던 조국강토를 무참히 만든 것이 바로 이 「탱크」였기에 우리들은 한결같이 분노에 찬 적개심을 참을 수가 없었다. 오늘은 그 소굴을 분쇄한다고 생각하니 흥분이 되는 것이었고 이번 출격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이 동료들에게는 미안했지만 나로서는 어렸을 때 중 학입시에 합격 한 기분이었다.

16대로 짜여진 4개 편대는 윤응렬소장(당시 소령)과 옥만호소장(당시 소령)을 각기 편대군장으로하여 적지 깊숙이 들어가는 비교적 원거리 출격이었다. 지루한 비행 끝에 드디어 목표상부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웬일인지 편대군장 들은 공격준비명령 이 없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편대는 “단중 진”으로 붙어서 좌측을 선회하며 7,000 「피이트」상공에 대기하라는 명령이었 다. 비행을 안정시키고 지도와 목표지역을 대조해 보니 서쪽 멀리 진남포가 보였고 동남쪽으로 뻗혀진 재룡강과 이어진 대동강 하류에서 북상하여 얼마 되지 않는 동쪽 지점이 겸이포가 틀림없고 우리는 바로 그 상공을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황주를 지난 중앙선에서 서쪽으로 뻗친 경이포까 지 의 철로를 따라 온 것이 무엇 보다 정확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자옥한 안 개는 목표는 커녕 꽤 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겸이포 시내조차 감싸고 있고 좁 처럼 안개가 풀리질 않는다.

이때 북괴놈들은 의기양양하여 콧대를 높이고 「무스탕」폭음소리를 들어가며 아침식사를 하였을 것이다.

선회비행을 시작한지 벌써 15분이 지나고

목표 접근 때부터 쓰아대던 적 대공포화는 점점 치열해져 갔다. 보통 출격 때는 제 1목표 공격이 여의치 않을 때는 다음 예비목표를 공격하는 것이 순서였지만 편대군장들은 “연료「체크」”만 할 뿐 명령이 없다. 그동안 군장기들은 고도를 낮추고 초저공비행으로 목표물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

“굴뚝이다!”

하는 누군가의 절묘한 환호성이 「레시버」를 타고 들려왔다.

귀가 찢어질 것 같아 목소리를 분간 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저마다 한마디 켜 “저기 장대같은 굴뚝이 보인다.”

“굴뚝, 굴뚝, 굴뚝”……

그러나 내가 내려다 볼 때는 걷혀지기 시작하는 안개 속으로 희미한 굴뚝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난 소낙비라도 가지고 공장주변을 썩- 썩- 씻어 버리고 싶었다.

쾌감과 긴장이 엇갈리는 찰라다.

이 「찬스」를 놓치면 만사는 “나무아미타불”

이미 우군기의 엄호시간 20분은 지났다. 목표 상공에서 전례없이 긴 체류시 간이다.

노련한 편대군장들인지라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목표를 향하여 수직 강하로 돌진한다. 서로 꼬리를 물고 계속 폭탄을 퍼부었다.

폭탄 2개, 「로켓트」8발 그리 고 기총사격을 한참 하다 보니 총탄 2,000발이 전 부 동이 나버렸다.

기체는 가볍고 마음은 후련하였다. 그러나 연기와 같은 안개 때문에 누구하 나 전과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무사히 기지로 돌아온 후 정비사의 말이 “오늘은 늘씬하게 하셨군요! 다음에 는 총알은 좀 더 넣어드려야겠습니다.” 하고 농담을 건다.

다음날 목표의 80% 파괴라는 전달을 받고 한 번 더 환호성을 올렸다. 며칠 동안 “굴뚝”이라는 잠꼬대까지 계속했다.

역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며 반드시 정의는 악을 이긴다는 신 념과 인내와 침착으로 노력하는 “임무” 제일주의의 전투조종사 정신이 요구 됨을 새삼 느꼈다.

**1952년 8월 29일**

「유엔」공군이 연 1,400대의 각종 전투기 및 폭격기를 동원하여 지상 및 해상 에서 이북 6개도시에다 대폭격을 감행하던 날 우리 공군은 평양지구를 36회

나 출격하였으며 나는 평양 남쪽 중앙선 역도시인 중화에 위치한 옛 유산공장 공격에 참가하였다. 당시 목표설명에 의하면 이 공상은 적의 중요한 보급물을 집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때에도 4개 편대로 짜인 2개 편대군의 한 편대장으로 출격 하였다.

항로는 사리원을 좌측으로 확인하고 황주에서 중앙선을 따라 목표를 향하여 본격적인 접근 비행을 시작하였다.

거리는 불과 8십리 정도로 보였다. 멀리 보이는 평양 시내와 그 주변에는 불꽃과 검은 연기가 한없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사이로 번쩍이는 것은 『유엔』공군기들의 치 열한 공격 광경이었다. 동쪽 하늘을 보니 바둑판 갑이 새까맣다,

나는 놈들이 쏘아대는 대공포화로구나 하고 짐작하였으나 도서와는 거리가 먼 것이 이상하여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평양으로 접근하고 있는 검정색 아군 함재기 편대군이었다.

순간, 갑자기 비행기가 동요했다.

얼핏 좌우를 보니 검은 연기가 작열한다. 속으로 “고사포”구나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전속력 을 내어 요기들에게 회피신호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목표는 바로 목전에 있었다.

공격명령이 내렸다.

동북쪽에서 단 한 「패스」로 전무장을 공격 한 후 서남쪽으로 이탈하여 검이포 동쪽 상공 7,000「피트」에 집합하였다.

다시 목표상공에 공격태세로 접근하였을 때 벌써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군기들의 스쳐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우리 옆을 지나갔다. 다음 공격은 우리다 할 여유도 없이 「알파·넘버원·인」하는 통보와 함께 6,000「피트」상공에서 기수를 좌측으로 치켜 올린 채 1번기는 땅 속으로 말려가듯 수직으로 급강하해 내려갔다. 순간 양쪽 날개에서 흰 연기가 솟았다. 나는 벌써 폭탄 투하를 하고 「로켓」을 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기총소사하는 흰 연기가 보였다.

목표는 명중이다!

붉은 폭발과 함께 회색연기가 나는 것을 보니 화약폭 폭발이 틀림없었다.

꼬리를 문 우리들의 공격은 설 새 없이 정확한 간격으로 폭탄을 터뜨렸으며 멋있게 기총소사를 걸었다.

물론, 난 이번에는 기총탄을 좀 남겨두었지만...

공격 후 평양과 그 주변을 보니 온통 불바다였으며, 지옥의 아비유환을 연상케 하는 치열한 전투였다. 시간과 삶의 존재 조차 완전히 상실케 하는 이

대격전에서 우리 공군들 즉 “성난 독수리”들은 아니 “성난 산돼지”들은 쑥밭으로 만든 목표를 뒤로 한 채 전속력으로 기지로 돌아왔다.

기지에 안착한 후에 알았지만 우리들이 공격할 때 평양 철교 근처에서 공격중이던 「유엔」 기의 희생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평양서는 그 후 수주일 동안 화염이 계속되었고, 도청건물 지하실에서는 놈들의 대위급 60명이 즉사했다는 소문도 들렸다.

싸우면서 적을 치려면 맞을 각오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귀한 희생이 있기에 참다운 자유가 쟁취된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 조종사들은 당시 고귀한 희생의 선봉에 서서 민족을 보호하며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각오 아래 전투에 임하였던 것이다.

### 1952년 10월 8일 새벽

별안간 “평양지리를 잘 아는 조종사 있나?”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눈이 번쩍 뜨인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물었다. 평양은 내가 자란 고향이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전원 「브리핑」실에 집합”

설명을 듣고 보니 납득이 갔다.

왜냐하면 이번 목표는 이미 미 해병대 항공기로 100여회 출격을 감행했지만 요새화되어 있는 적 대공포화에 희생만 늘고 아직까지 성공치 못한 곳으로 전략상 꼭 격파하여야 되기 때문에 한국공군의 우수성을 인정한 공중 합동작전 사령부에서는 임무를 우리에게 부여하였던 것이다.

목표는 평양 동쪽 약 12「마일」떨어진 승호리지역.

정확히 말해서 평양과 사동탄광 사이의 대동강 지류인 남강을 건너는 교량이었다. 이 교량은 이미 한 번 파괴 하였으나 강을 건너기 위한 「시멘트」 다리를 다시 수중에 건설하였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매우 힘들며 설사 명중하여도 좀처럼 파괴되지 않았고 약간 파괴되었다 하더라도 야간에 즉각 보수하여 전선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 출격의 성공의 요결은 우선 이 고장지리에 능통한 편조라야 하겠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드디어 16대의 4개 편대조로 구성되었다.

평양 출신 윤용렬소장과 출격의 명수인 옥만호소장을 편대군장으로 하고

고 유치곤 준장과 나는 편대장으로 선출되었다.

나는 세 번째나 중요한 출격에 참가하게 된 벼찬 가슴을 안무 곧장 편대군장기를 따랐다. 미군 조종사들이 100여회나 출격을 하였어도 폭파하지 못한 이 고장을 단 16대로서 임무를 완 수 한다는 것은 일종의 절박한 희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꼭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결사의 특공정신으로 적지 깊숙이 승호리를 향하여 들어갔다.

목표지역이 가까워진 모양이다.

고사 폭탄이 배 밑에서 터지고 있었다.

잠시 후 굴곡진 대 동강이 보이자 모두 긴장하기 시작한 모양이다.

서로 저마다 목을 좌우로 설새 없이 돌리고들 있었다.

과연 무적 요새를 자랑하는듯이 승호리 「시멘트」공장 부근에서는 비교적 정확한 고사포탄이 여기저기서 터져 올라왔다.

막상 목표 상공에 도달하자 발불일 틈도 주지 않을 정도로 일제히 쏘아 올려댄다.

그렇다고 대공포화를 상대로 공방전을 할 때가 아니었다.

적개심에 불탄 우리들은 수중교량이 어디쯤인가 하고 바라보는 순간 “공격준비” 하는 날카로운 명령이 터져 나왔다.

동시 편대 군장 1번기는 이미 급강하를 시작했고 이어 2, 3, 4번기……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의 공격이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요기를 따라 나도 급강하하기 시작하여 고도계를 바라보니 2,500「피트」다.

유리판 같이 맑은 강물은 가로질러 시커먼 다리줄기가 보이고 여전히 강들은 그 위를 흐르고 있었다.

조준기에 들어온 중심부에 기수를 안정시키고 「보튼」을 눌렀다.

순간 비행기가 가벼워진 약간의 동요를 느꼈다.

틀림없이 폭탄은 투하된 것이다.

정상 평균기준고보다 1,000「피트」나 낮은 2,000「피트」에서 폭격 한 것이다.

기수를 끌어 올리고 상승하다보니 우측 저 멀리 대동강 입구 모란봉 위에 놈들의 해방탑이 보였다.

“에라! 맛 좀 봐라!”

하고 기충을 내리갈겼다.

아마 우리 요기들은 모두 같겠으리라. 이 목표 역시 단 한번 「패스」의 공격이었고 폭격 후 전후로 솟구쳐 오르는 물기둥과 안개처럼 덮인 물보라로 시정을 판별할 수 없어 전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수를 돌렸다.

그러나 우리 전원 모두가 기지로 무사히 돌아온데 대하여 서로 축하의 기쁨을 나누었다.

동료가 “어이! 고향 구경했나? 이제 한이 없겠구먼?”

하는 물음에 나는 대답하기보다 전과에 대한 소식이 더 궁금하였다.

다음날 목표는 완전히 끊어 졌다는 소식이 들어왔다.

두 말 할 필요 없이 우리 숙소일대에는 갑자기 축제의 분위기가.

미 공군사령부에서는 감탄의 찬사가 계속되었다.

며칠 후 미해병항공대에서 승전무용의 「파아티」를 베풀겠다는 소식이 왔다.

이유인 즉 한국공군이 있는 한 자기들은 그 무시무시한 곳에 출격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깡통맥주를 큰 벽처럼 세워놓은 장소로 우릴 안내했다.

키 큰 양반들과 한미 간의 맥주우정을 나누면서 이날 저녁 “우리 산뎨지들”은 맥주의 벽을 무너뜨리는 영광스러운 고역을 치루기도 하였다.

이상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전투출격은 나 혼자만이 경험한 사실도 아니며 그렇다고 누구만이 추억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당시 맑은 편대원으로 출격한 조종사라면 누구나 다 간직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추억인 것이다.

또한 동시 영예와 수양을 위한 지표로도 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공군의 발전이 오늘날처럼 급속도로 이룩되고 있는 이 면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시 전투 조종사들의 노력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수리 공군의 장래와 전력발휘는 오로지 참되고 알찬 전투조종사들의 양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선배들이 경험한 허식 없는 전투출격기를 참고하여 조국수호의 불사조가 될 수 있는 확고한 정신자세를 확립시켜 유사시를 대비한 전투출격을 위하여 사고 없는 맹훈련을 계속해줄 길 바란다.

×

×



## 애기(愛機)에 대한 경례

제 3784 부대장  
김 영 환 (공군 준장)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최초 비행훈련을 받으러 입관하기 전인 1951년 4월 사천기지에서 L4로써 약 10시간의 비행훈련을 받을 때이다.

장병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영보대령님이 우리들의 교육대장으로 계셨으며 그분의 강직한 군인정신과 군인자세 등은 그분을 아시는 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분을 모르시는 분에게는 한 마디로 말해서 참대와 같은 분이라고 묘사하여드려도 좋을 것이다.

그 당시 6.25사변 직후의 우리들 공군사관

후보생에 대한 훈육적인 면을 강조하여 당시 공군참모총장이신 김정렬 장군께서 특히 고영보대령님을 우리의 교육대장으로 임명하여 언제라도 사관후보생에게 비행훈련의 기회가 생기게 된 훌륭한 전투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군인 기본정신과 전투조종사의 소질과 기질을 함양하는데 애써주셨던 것이다.

고영보대장(隊長)께서는 정신덕목으로서 인간개조를 내놓고 강조하시었으며 이 인간개조란 말이 5.16전에 나온 것으로 보아 얼마나 선견지명이 계신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본체로 돌려서 우리가 비행훈련을 시작하면서 고영보 교육대장께서도 교관 및 훈련평가관으로서 우리의 비행훈련을 담당하셨는데 이 분이 항공기에 대하여 부동자세를 하고 항공기에 거수경례를 하시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항공기에 경례를 한다는 것은 일본군대에서는 실시하고 있었으며 그렇게 경례를 하여도 별로 어색하거나 거북한 것이 없었으리라고 생각되었지만 최근에는 형이상학적 개념보다 물질적 관념이 더 강하게 작용되어 왔기 때문에 고대령님이 항공기에 경례를 한다고

하여서 즉각 나도 이를 따라서 항공기에 경례를 하여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나의 신분이 사관후보생이었고 나의 위치가 연령 관계 등등으로 우리 동료 간에 앞장서야 될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고영보 교육대장님으로부터 받은 항공기에 대한 경례라는 관점에서, 오늘 또한 여기에서 받은 감명을 나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다른 동료들에게 무언중 실천해서 애기에 대한 경례가 주는 어떠한 주된 관념은 해석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항공기 자체를 볼 때는 일개의 기계의 집합체이며 엔진, 날개, 무전기 그리고 조종 장치 등등으로 보여질 수도있다. 그러나 이것을 정신적인 면에서 자기(조종사)에 대한 느낌을 열거하면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요, 또한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주입된 정비사의 노력과 정성의 결정이 될 것이며 이것이 나아가서는 국가 방위, 영공수호에 얼마만큼 온 겨레의 정성과 귀중한 자원이 투입 된 것이냐를 생각할 때 다만 하나의 날들이라든가 또는 좀 더 확대하여 자기 일개체의 생명 보존의 그것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판단의 기준이 우리 조종사로서는 보통 이상의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개의 경우 우리가 탑승하는 항공기를 직접 정비하는 정비사 특히 항공기의 기장 계급이 조종사의 계급보다 낮은 장교와 하사관이라는 점에서 장교가 하사관에 대하여 말로서는 항공기를 잘 정비하여 주어서 고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 군인이 가장 단정하게 자기의 충성과 경의의 뜻을 표현하는 거수경례로서 「애기에 대한 경례」를 좀 더 경건하게 한다면, 이것은 바로 그 애기를 통하여 이것을 정비하여 주는 정비사들에게 최대의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고 이 경례를 애기를 통하여 받는 정비사들은 아마 이 조종사는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우리의 정성은 알아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그 자리에서 줄 수 있고 그 정비사들은 좀 더 정비를 잘 하여 내가 정비하는 애기를 탑승하는 조종사와 항공기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원하게 될 것으로 믿는 것이다.

한편 신념이라는 면에서 고찰할 때 애기에 올라서기 전에 엄숙한 자세로서 경례를 한다는 것이 그 항공기를 타는 조종사도 사람이고 이를 정비하는 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애기와 더불어 비행하는데 있어서의 임무완수와 무사한 비행

을 기원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종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보는 기회도 될 것이고 부처님을 찾아보게도 될 것이고, 혹시 종교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애기에게 직접 나의 임무완수와 무사한 비행을 바라는 기원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부터 만사 완전무결을 이룩할 수 있는 신념을 갖게도 된다고 본다.

여기서 신념이라는 것과 자신 행동의 제어라는 것을 말하여 보기로 한다.

우리 공군의 각종 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한 가지로서 공중군기(비행군기) 위반이라는 항목을 들어야 할 것이다. 자기에인 집에다 대고 저공비행을 하다가 추락한 사람도 있고, 애인이 학교선생인 그 학교상공에서 저공패스를 하다가 「포들러」나무에 걸린 사람도 있고 임무수행 중 방향을 바꾸어서 고향에 가서 기분을 내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항법도중에 고도를 바꾸어 또한 저공 비행으로서 사람의 머리를 날개로 쳐서 죽게 한 사람 등등, 처음 항공기에 올라갈 때와는 달리 마음이 변동하여 괴상한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여기서 애기에 대한 경례를 진심으로 하였다면 도중에서 마음의 변동이 있을 수도 없고 변동을 하려 하여도 항공기 탑승 당시의 자신을 찾아 볼 수 있는 동기가 이미 부여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 다른 각도에서 비행도중에 어떠한 난관에 조우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애기에 대한 경례를 하였을 때 갖은 애기에 대한 믿은 마음과 이 난관을 돌파하는데 있어서 신념을 갖고 처리하는 것과 이 것을 믿지 못하고 덤비다가 야기되는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데도 크게 작용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다.

23일 전에 여자농구 해외파견 선발시험에서 「파울」에 대한 「후리·드로우」를 하는데 한국과 일본의 농구 선수는 심판으로부터 볼을 받을 때 심판에게 인사를 한다고 해설하는 것을 들었다. 그 선수가 공을 받을 때 심판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 심판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 즉, 서구 선수들은 하지 않는 것을 동양에서 한국과 일본선수만이 경의를 표하는 것은 심판으로부터 호감을 사려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나 나의 의견으로서는 그 선수가 「후리·드로우」를 하여야 할 심각한 순간에 심판에 대한 인사가 바로 그 공에 대한 기원이 되고 여기에서 그 공이 꼭 「골인」되기를 바라며 또한 되도록 노력하는 경건한 마음의 표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라디오」에서 마산 어느 생산공장의 여직공들이 매일 국기에 경례하고는 일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개 여직공이지만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조그마한 일이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느끼며 처음에는 어색하였지만 이제는 전원이 하니까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임한다고 한다. 또한 우리 35 비행대장 황백선 중령은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비행을 할 때 황중령은 먼저 기도를 드리고 비행한다고 한다. 이는 국가원수인 대통령각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실 수 있게끔 기원하는 것이며 아마 지난 번 위기를 모면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조종사) 애기에 경례하는 것을 국가에 대한 봉사로 느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애기에 대한 경례라는 것을 사관후보생 때, 비행훈련 초기에는 실시하던 것을 지금은 별로 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

이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것이 좀 썩스럽고,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실시하지 않고 있는지 모른다. 이것은 역시 벌써 마음속에서 좋다고 생각하나 실천하지 못하는 극기의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도 느껴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느끼면서 못하는 것은 바로 실천력과 과감한 추진력이 또한 결여된 것이 아닌가하고 자성하게도 된다.

임관되어 일선 전투 조종사가 되면서부터 애기에 대한 경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항상 항공기를 탑승할 때마다 왜 내가 경례를 안하고 있을까 하고 망설이면서도 못한다.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그렇고 그러나 애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대신에 항공기 탑승전 점검시에 항공기 기수에 손을 대고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여 짧은 순간이나마 애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와 같은 심정으로 묵념을 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는 동안에 첫째, 이 항공기가 이륙될 때까지 정비사가 베풀어준 노력에 대하여 감사하고 둘째, 아무쪼록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무사할 것을 기원하고 셋째, 당신(항공기)과 나와 기인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다. 생명이 없는 항공기에 대하여 경례를

한다는 것이 정상으로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못하고 있기는 하나 내가 바라고 있기는 모든 조종사가 그렇게 하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앞으로 자라나는 후배조종사들에게 실시하도록 하여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애기에 대한 경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감회 이상의 것을 우리들 후배가 더 생각하여주고 또 여기서 우러나오는 정신이 바로 비행임무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항공기를 정비하여준 정비사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함으로써 공지 일체를 성취하고 항공기에 대한 신뢰를 더욱 크게 가짐으로써 기인동체를 인식하는 동시에 산에게 기원하여 임무완수에 대한 신의 가호를 빌어 자신 있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비행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현재 또는 장래 초등 비행훈련에 입관하는 조종학생은 물론 이를 담당하는 비행교관 여러분이 여기에 줄열이 늘어놓은 글 속에서 「애기에 대한 경례」라는 참 뜻을 본인이 표현 못하는 점을 보완하여 그 정신을 살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어록 중에서**

○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민족의 큰 이익을 외면하는 몰지각한 행위나 또는 말로는 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한다고 떠들면서도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진실로 나라를 위하는 큰일을 외면하거나 헐뜯는 독선과 아집이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 크고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민은 법을 중히 여기고 엄히 지키려는 정신적 자세를 확립하여야 하겠으며 질서와 안정적 자주 국방과 경제건설이 전제조건이 된다는 시대요청에 부응하여 준법 정신함양에 더욱 분발 노력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군의 성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공군의 성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팬텀」기 소리 듣고파요!**

공군장병님들 안녕하세요?

윤정희예요.

스크린에서는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왔지만 이렇게 지면을 통한 데이트는 처음이군요.

저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작려에 힘입어 오늘도 이렇게 오직 연기에만 열중하고 있답니다.

참, 그러구 보니까 오늘이 10월 1일 여러분의 생일날이군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한강 백사장 상공에서 벌어지는 은익의 퍼레이드를 가슴 벅찬 감격으로 바라보곤 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주 연약한 유아기에서 사춘기를 지나 성년에 이르는 오늘까지 끈질긴 인내와 노력으로 자신을 성숙시켜온 공군장병님들에게 깊이 머리 숙여 오늘을 축하해 드리고 싶군요.

한 치의 영광 라도 붉은 이리떼들에게 더럽힐세라 온밤 온낮을 꼬박 레이더 앞에서 긴장하고 있는 레이더 관제사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대할 때.

악천후 속에서도 우렁찬 기계음을 내며 비행연습에 몰두, 내조국 동포들에게 하늘에 대한 믿음과 안심을 작게 해주는 조종사들을 볼 때.

기름 때 걸은 작업복에 물흐르듯 흐르는 땀을 씻을 사이도 없이 항공기 정비에 열중하는 정비사 을 생각할 때.

혹은 하늘을 지키다는 임무의 수행을 위해 각 분야에서 남모르게 수고하고 있는 푸른 제복의 공군을 생각할 때 정말 제 가슴은 숙연해 집니다.

보잘것 없는 경비행기 몇 대로 시작, 가시밭길을 헤치며 오직 인내와 노력으로 오늘의 공군을 튼튼한 반석 위로 올려 놓은 의지를 조국의 형제들은 과연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눈길은 따사롭고 정답습니다. 그들의 눈은 존경과 신뢰로 반짝 반짝 빛납니다.

그들의 눈은 경이와 찬사 때문에 커다랗게 열려 있습니다.

또 그들의 눈은 격려와 아낌 때문에 부드럽게 웃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공군장병님들은 그들의 존경과 신뢰와 경이와 찬사, 그리고 격려와 아낌의 눈길 앞에 조용한 눈 맞춤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조국이 아픈 상처를 입지 않게,

다시는 내 조국이 붉은 이리떼들에게

멍들지 않게-,

그들의 탐욕스런 눈초리에 자신있게 맞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공군 장병님들,

올해엔 우리 공군도 「팬텀」이란 멋진 비행기를 갖게 된다죠?

이젠 정말 세계 어느 나라 공군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힘을 가진 대한의 공군이라는 것을 더욱 실감있게 느끼게 될 것 같군요.

우리 공군의 탁월한 기술과 실력에 힘입어 대한의 창공을 누빌 「팬텀」의 우렁찬 소리를 어서 빨리 듣고 싶군요.

그 믿음직한 소리에 기쁨을 느끼며 저는 더욱 좋은 연기를 위해 열심히 카메라 앞에 서겠지요.

공군장병님들, 건투를 빌겠습니다.

공군 장병님들에게 행운이 깃들 것을 기도드립니다. 안녕.

## 하늘의 파수꾼이여 힘차게 성장하라!

이순재(텔런트)



우리 보라매가 벌써 스무살을 먹었구나 생각하니 여간 마음 든든한바 아닙니다. 이제는 스무고개에 들어선 팔팔한 젊음이 날개 에는 우주를 가로지를 힘이 용솨음치고 부리에는 붉은 도적떼를 한 놈도 놓치지 않을 매서운 결심이 어리어있고 쪽뽕은 발톱은 이 강산을 넘보려는 놈들의 눈알을 세차게 파헤쳐버릴 단단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무지하고 흉악한 도적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타고 이 강산을 쳐들어올 생각은 못 할 것이며 혹 욱심에 미친놈들이 넘어오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 날카로운 보라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예리한 발톱과 부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창군시절, 몇 대의 연습기 정도로 시작한 우리 공군이 이제는 최신형기로 체제를 갖추고 뛰어난 기술과 우수한 전투정신으로 거의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듯 세계적인 공군의 위치로 올라섰다는 것은 그만큼 피흘리고 뼈를 찌는 노력의 결정이고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강인하게 밀고 나가는 의지의 결실인 것입니다.

정말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면 든든합니다.

6·25동란 직후, 모든 군사력 면에서 우리는 북괴 놈들에게 뒤졌었지만 공군력에 있어서도, 놈들의 전투기에 우리의 연습기가 대항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마치 억센 독수리에게 나약한 병아리가 대항하는 거와 같은 애처롭고 눈물겨운 장면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병아리 같은 공군이 아니고 침술이 툭툭튀는 날렵하고 힘센 매와 같은 공군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즈음 육지에서 바다에서 북괴 도적들이 붉은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저기 도적질한 곳을 넘보려고 별의 별 짓을 다 하려하고 있지만 하늘에서만 감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무리 잔꾀를 부린다 하더라도 우리 보라매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보라매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6·25 때 겪었던 그런 가련한 보라매로는 보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제는 하늘을 보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란 것은 우리만이 아닐 것입니다. 북괴 놈들도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평화와 자유를 지키려는 입장에서 우리의 실력을 기른 것이지만, 놈들은 순전히 남에게 싸움을 걸기 위해서 힘을 기른 것이기에 결코 만만하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여신은 언제나 정의와 신사(紳士)의 편에 계신 것입니다. 제 아무리 도적놈 심보를 가지고 힘을 길렀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눈을 감지 않는 한 감히 한 치의 영광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는 대로 모조리 잡아 없앤다는 태세만 갖추어 놓으면 감히 넘어올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요즈음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자각하고 정신을 차려 놈들의 야욕을 알고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그리 쉽게 넘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보라매도 그럴수록 국민의 신임에 어긋나지 않게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는 아니지만, 우리도 앞으로 부자가 되어 우리의 우수한 비행기를 만들 때까지 이라도 잘 닦고, 죄이고 기름치고, 더 아끼고 더 다듬어서 일당백(一當百)의 능력을 길러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군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그마한 실수라도 국민에게 실망과 비난 받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그만큼 공군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창군 스무돌을 맞은 우리의 공군, 그 자랑스런 기품, 그 매력적인 자세, 그 당당한 체격.

영원한 우리의 하늘의 파수꾼으로서 힘차고 힘차게 발전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 「우주 공군」 되길

박 종 세  
〈 동양방송 아나운서부장〉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다는 소식은 새삼 비행사와 공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더구나 이번에 달에 발을 딛은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한 암스트롱과 올드린 두 우주비행사는 6·25당시 우리나라에도 왔었고 북한 상공을 누비면서 북괴 비행기를 격추시킨 용사라는 데서 그와 함께 싸웠고 그와 함께 웃은 우리공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후 암스트롱과 올드린은 우주비행사가 되기 위해 연습에 연습,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마침내 달에서는 최초의 인간이 되고 전 인류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 길에 공헌했다. 우리 국군도 그들

국민에게 비친 공군의 인상

안 몰라보리만큼 성장을 했다. 6·25 당시에는 연습기 밖에 없어 비행기의 창문을 열고 수류탄을 던졌다는 얘기는 옛말이 되고 태극표지도 선명한 신에 제트기들이 믿음직스럽게 창공을 누비며 적의 제침을 경계하는 모습은 든든함을 안겨 준다. 더구나 비행기기술은 세계에서도 첫손가락을 꼽는다는 말을 들을 때면 저절로 어깨가 올라간다.

작년에 「멕시코」에 갈 기회가 있어 몇 나라 비행기를 타볼 기회가 있었다. 확실히 믿어온 비행기여행과 불안한 비행기여행의 피로의 도는 큰 차이가 있었다. 「멕시코」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시에서 미국 「로스앤젤리스」로 향했는데 도중 「과달라하라」와 「마잘란」을 들러서 「로스앤젤리스」로 갔다. 그런데 영화에서 총이나 쏘고 말이나 달리는 잔인한 「멕시코」사람이 떠올라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비행기 조종을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니 공연히 불안감이 엄습하고 도중 내렸다 뜰 때마다 귀가 아프고 더 흔들리는 것 같아 진땀이 송글 송글 났다.

그래서 그런지 「로스앤젤리스」에 도착한 다음날에는 설사가 나고 입술이 터져서 고생을 했다. 그런가하면 「뉴욕」이나 「로스앤젤리스」에서 일이분이 멀다 하고 뜨고 내리는 수많은 비행기를 타 보면서도 불안한 생각은 커녕 마음이 가라앉고 든든한 것은 웬일일까?

더욱이 우리 비행기를 탔을 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머칠 전 중전 공군장교한 사람을 만난 일이 있었다. 내 앞에 와서 거수례를 하는데 낮이 많이 익어 우물쭈물하면서 악수를 청했다. 알고 보니 8년 전 공군사관학교에 강의를 나갈 때 나에게 배운 사관생도의 한사람이었다. 몰라보리만큼 달라졌다. 지금은 중견 장교로서, 하늘의 보라매로서 든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당시 초롱초롱한 눈, 딱 벌어진 어깨를 자신있게 제긴 채 강의를 받던 사관생도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딱딱하기 쉬운 교실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신경을 써야했고 마음이 통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어떤 때보다 애를 써야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처해도 일사불란한 행동은 변함이 없고 질서 있는 생활은 눈을 시원하게 해줬다. 지금은 공군하면 그때 그 모습이 떠올라 마음을 흐뭇이 해준다.

이제 우리 공군의 나이도 20살은 먹었다.

국민에게 비친 공군의 인상

그동안 6·25 때의 쓰라린 상처도 안아왔고 전쟁에의 몸부림도 쳐왔다.  
이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막강한 국군의 첩병, 삼천만의 불침번으로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우리의 공군으로 자랐다. 거리를 활보하는 공군장병의 모습에서도 든든한 한국의 장래를 보는 듯하다. 그러나 세계가 우주를 향해 달리는 지금 우리 공군도 우주를 생각하는 날이 하루 속히 왔으면 하고 바라게 된다. 아폴로 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다시 한번 성년 20년의 우리 공군을 생각한다.

### 잠자리가 달나라로

최영희  
(가수)



국민에게 비친 공군의 인상

골목을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 나는 개구장이 사내애들과 잠자리체를 손에 쥐고 하늘을 쳐다보며 달리곤 했다.

넓은 공간이 모두 자기 것 인양 날아다니는 잠자리는 마냥 즐겁게만 보였다. 아차! 실수로 내 잠자리 체에 걸려든 한 마리의 잠자리, 퍼드득 몸부림을 쳤다. 조심스럽게 꺼내서 본 그 잠자리는 불쌍히도 보였지만 투명한 네 날개의 모습이며 분주히 움직이는 둥근 머리는 신기해 보이기만 했다 .

그 후 자라 20세, 그러니까 작년의 일이다. M.R.A. 한국학생 대표로 미국을 갈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난생 처음으로 나는 잠자리 비행기를 타게 된 것이다. 그 기쁨 내가 탄 큰 잠자리는 육중한 유체에 쪽 뺨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웅웅웅.....하며, 발동이 걸렸다. 잠시 후 활주로로 미끄러져갔다.

앞발이 들렸다. 심이 공중에 뜨기 시작했다. 더 높이 더 높이 몸이 올라갔다. 더 높이 더 높이 구름을 뚫고 올라 갔다. 이제 보이는 것은 오직 구름.

몽게 몽게 떠 있는 구름, 간혹 그사이로 조그마한 산과 또 섬들이 보였다. 햇살은 더욱 눈부시게 비쳤다.

하늘을 마음껏 나는 사람의 마음은 누구보다 넓고 대담해 진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우리의 공군은 내 나이보다 1살 어린긴 하지만 나보다 훨씬 성장했으며 활약도 눈부시다,

자기가 생각한대로 자기가 뜻한 대로 나는 비행사와 같은 의지로 쌓아가고 싶다.

지금은 조용히 나는 것을 지나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우주시대에 접어들었다. 신비에 가득 쌓인 달의 모든 베일을 활짝 벗겨버리고 우주공간을 산책하며 마음껏 날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모두 공군의 발전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의 공군이 아직 여기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붉은 무리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또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가. 그럼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고 노래부를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20돌을 맞이하는 공군은 21세의 나를 완전히 보호해 주고 있다.

앞으로도 굳건한 체제와 완전한 장비를 갖춘 공군이 계속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 주리라 믿으며 끝으로 공군 20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국민에게 비친 공군의 인상

## 공군엔 무조건 호감

김민자(동양방송 아나운서)



우리 집은 세칭 딸부자다. 남성의 세계는 호기심으로만 처리했던 우리 집은 병역의 의무와는 조금 먼 거리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거기다가 난 군인이라면 위문편지를 쓸 경우에 온통 아저씨라고 칭해지는 인물로만 간주하고 있었다. 극히 피상적인 군인의 개념, 그리고 지극히 무식했던 군대계율난 아직도 계급을 들을 때는 어리둥절해서 한참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선지 Classmate가 군대에 간다면 먼먼 다른 세계로 뛰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측은한 생각으로 심각하게 위로의 말까지 곁들였던 것 같다.

국민에게 비친 공군의 인상

그랬던 내가, 한 때는 공군의 열렬한 옹호자의 입장에 섰던 기억이 있다. 열띤 논쟁에서 난, 공군이 얼마나 멋쟁이며 신사인가를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면서,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것은 실제이기 바란다고 토론에 참가한 친구들에게 주입시키고 말았었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하늘을 가로 지르는 비행기를 메어 놓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생각으로 공군에 깊은 기대를 가졌기 때문인 것 같았다.

내가 주장한대로 군대라는 억센 단어를 융화시켜줄 수 있는 꿈이 있고 신사고 멋쟁이라는. 아직도 난 이런 내 생각이 정확한지는 확실한 결론을 못 얻고 있지만 「하늘의 공기를 침해하고 또 높아서 고귀하고, 정막한, 꼭 누군가 도사리고 있을 것 같은 하늘의 신비한 멋을 모조리 파괴해버리는 것은 비행기가 아니겠느냐고, 그래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공군에 대한 감정이 무척 나쁘다」는 퇴폐적인 친후를, 또 「넓고 망막한, 예상을 불허하는 거대한 바다를 향해하는 매력과 모자와 파이프가 어울리는 멋이 있어 해군이 무조건 좋다」는 열정과 친구들을,

그리고 「단단하고 체계적이고 직선적이고 군인다운 군인의 개념을 한꺼번에 지니고, 또 오빠가 육군이어서 좋다」는 현실과 친구를,

「그 중에서 결핍된 모든 매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공군」이라는 역행으로 내 설득력이 효력을 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공군의 매력을 일깨워주고 앞에 한 역할을 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그토록 군인을 생소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실은 공군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으면서, 공군편에 서서 그토록 열심이었는데, 사실은 나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 ★

흔히 우린 사람을 구하는 조건중에 「용모단정」이라는 말을 발견하곤 한다. 이 「용모단정」이라는 의미는 각자의 개성에 의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도 있겠다.

아름다움이기 이전에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

빈틈이 없으면서도 흔히 결핍이 되는 부드러움을 지니는 것.

호화로움 보다는 담백함과 정결함.

국민에게 비친 공군의 인상



이런 상황들이 바로 「용모단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필요한 조건,  
 무조건의 호감과 따뜻한 시선의 대상인 「용모단정」.  
 이것은 감히 어느 군대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인가?  
 공군에서 만 느낄 수 있고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군에서 제대했다는 사람에겐 무조건의 호감을 지니고 다시 한번 확  
 인을 해보는 관심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 ×

『공군으로 제대 하셨다구요?』  
 『그렇습니다. X X 년도에 제대했습니다.』  
 『비행사 였었겠네요. 그렇죠?』  
 『.....허 허』

이런 무례를 요새는 저지르지 않지만 공군이라면 모든 사람이 조종사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마치 내가 방송국에 입사하기 전에 방송국에 다닌다면 다 아나운서이리라  
고 생각했던 것처럼  
무엇인가에 깊은 관심과 지식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에 정비례해  
서 보이지 않는 면에서 땀과. 열성을 쏟는 거대한 힘이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아뿔튼, 난 그런 무례를 범 하면서 조종사라면 눈을 반짝였던 것 같다.  
 「삶은 사치」라 는 생떼쥐빠리(Saint Exupery)가 「감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  
쁨」이란 짧은 말로 비행을 표현했던 것이 날 감동시켰고 야간비행 (Vol du  
Xlit)에서 보여줬던 그의 섬세하고 아름다웠던 문장에 매혹돼 느낌과 감동을  
가졌던 실행자의 아름다운 문체에 뉘를 잃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아직도 공군을 나약함을 지닌 그 의미의 거칠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 모른다.

★ ★

「패배는 어쩌면 참된 승리를 더 가까이 가져 오는 약속인지도 모른다.」고 말  
했던 1944년에 사망한 생떼쥐빠리 시대에서 현대의 항공기술은 상상할 수 없  
을 정도로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대한 발전과 흐름에 편성한 우리 공군은 벌써 20년의 세월을 보냈다  
고 한다.

그것은 역사의 한 부분일 때 너무나

국민에게 비친 공군의 인상

짧은 햇수다. 허나 그 세월은 자체 확립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노쇠 하지  
않았음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우리 공군이라고 생각한다.

짧은 역사 속에서도 멋과 슬기를 찾아 볼 수 있는 우리 공군에게 완성의 길  
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스무들은 값진 것이리라.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울러 보다 더 눈부신 발전을 기대한다.

그리고 우주비행사 명단에 김X X, 박X X, 이X X도 끼일 수 있는 기대도 자  
그마하게 가져본다.

### 비행기와 파일럿을 동경

김민자(텔런트)



국민에게 비친 공군의 인상

소년시절에 한번쯤은 은빛 찬란하게 창공을 누비는 비행기와 파일롯을 동경하는 것은 여자의 상징인듯 싶다. 내가 어린 꼬마였을 때 민족의 비애 6·25가 터졌다. 검은 표연의 구름을 헤치고 번개같이 나는 UN기를 보고 과학적인 추진력에 의하여 쇠붙이가 늘고 있다는 것보다 신비와 경이로써 환호성을 올리던 기억이 난다. 어린 꼬마의 눈으로는 새보다도 빨리 평장한 폭음을 내고 나는 비행기가 무척이나 신기했던가 보다. 창공을 누비며 어떤 전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의 비행기라는 것도 모르고 공산군을 무찌르는 공군이라는 것도 모르고 무작정 환호성을 올린 것이다. 이제 내가 군이라는 것을 알고 공군을 알게 된 이후의 공군, 단순히 소녀시절에 아름다운 꿈의 동경 이던 공군은 이제 나의 머리속에는 조국과 민족을 보위하기 위한 공군으로 변하여 왔다.

미지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예지, 탐구, 노력, 새와 같이 하늘을 날고 싶은 욕망은 “날뿔”을 발명하고 육군과 해군이 주군이던 전쟁에 해상과 같이 공군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 틀림없을 것 같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탄생한 우리 공군은 빈약한 장비로 가진 채 인내와 투지를 시험하는 첫 시련이 곧 왔으며 오직 조국애와 민족애의 정열을 갖고 연습기에서 밀려오는 북괴공산군의 붉은 탱크를 부수기 위하여 맨손으로 폭탄을 던졌다는 우리공군, 그런 시련을 겪으며 20세의 성년이 되어 우리 국민이 갖는 믿음 또한 큰 것이다. 조국이 양단되어 있으며 북쪽에는 “이리”와도 같이 침략의 야욕에 눈을 밝히고 있는 공산당이 있는 우리의 형편이기에 타국국민보다도 더욱 군을 믿고 의지하려는 도는 자못 큰 것이리라.

몇해 전에 나는 3천만의 불침번이라는 공군을 주제로 한 문화영화를 본적이 있는데 밤낮 없이 적기의 침입을 순간적으로 포착하려는 레이더와 그것을 지켜보시는 공군요원, 24시간 대 기하여 적신호가 나면은 1~2초를 다투어 애기에 탑승, 적을 분쇄 하려는 빨간 머플러의 파일롯, 그리고 빨간 머플러의 애기를 잘 보살피 항시 임전태세를 갖추게끔 하여주시는 공군 기술 장병, 나는 그분들의 긴장상태를 보고 얼마나 마음 든든했으며 고마웠는지 모른다. 만일 그들이 없고 우리공군이 없다면 적은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서울의 고층건물을 심심하면

그들의 소련제 MIG기를 타고 와서 폭탄 세례를 퍼부을 것이 아닌가 하고 어린애와 같이 공포감을 졌었다. 휴전협정을 위반하여 공비를 남파하여 살인과 파괴를 밥 먹듯이 쉽게 하는 북한괴뢰이고 보니 나의 걱정이란 얼마나 당연했으랴.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년이 되어 억세고 큰 주먹을 가진 공군이 있으니 그런 걱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노파심이라!

나는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는데 4년 전에 촬영관계로 수색 항공대학에를 간 적이 있다. 서울 촌택인 나에게 우연히 그날 이튿도 잘 알 수 없는 조그마한 비행기의 탑승 기회가 주어져 나는 그 비행기를 타고 금곡상공을 날던 기억이 있다. 금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고도, 알 수 없는 정복의 통쾌감을 맛볼 수가 있었다. 창공을 새와 같이 난다는 것. 즉 이 희열이라고 나대로의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제 20세를 맞이하는 한국공군은 일개 평범한 나같은 여자의 희열과는 전연 성질이 다른 좀 더 성스럽고 차원 높은 사명감을 지닌 채 자라왔으리라.

모든 과학분야가 그렇듯이 공군력을 지원하는 과학의 힘이 사람의 상상만의 영역이며 달을 현실의 영역으로 변화시켰으며 그 신비의 “에일”을 차츰 빼기고 있는 형편이니 내가 말하고 싶은 음속 몇 배의 전투기라는 것이 어찌면은 몹시도 격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닐까? 무엇이 있어서나 정신력이 으뜸이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상식이다. 말은 일에 대한 투철한 정신력은 어떤 것에든지 비교를 불허하리라.

허나 한 국민으로서 음속 몇 배의 최신 비행기가 우리 집 앞마당 모래알만큼이나 우리공군에 있었으면 하는 소망,

모든 국민이 믿어 왔던 공군, 공군의 나이가 20이 되었으니 국민의 신임도 20세가 되어 더 욱 두텁다. 축하하고 싶다.

조국의 통일과 평화 아니 세계의 평화의 날까지 강하게 자랄 것이다. 만세를 부르고 싶은 마음이다.

## 지성적인 미모의 대표 “공군”

조영남(가수)



하늘은 높고 푸르고 맑은 살찐다는 계절이지만 내 머리 속은 먹다 남긴 비빔밥 그릇 언저리처럼 너저분한데 나하고 무슨 상관인 그리 있으리요만 해방 25년 만에 공군 창설 20년이란다.

「국민에게 비친 공군의 인생」을 얘기해주십사는 부탁을 받긴 했어도 주민등록증을 소유한 어엿한 국민의 한사람이거늘 여기 공군에 대해 할로 이는 것이 없는 것을 진작 죄스럽게 생각해야겠다,

원래 내 고향은 황해도 산골이다. 내가 이북에 있을 네살지음은 한참 전쟁 때였으리라 생각한다.

그때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었지만 하늘을 나는 반짝반짝하는 물체를 처음

국민에게 비친 공군의 인상

보았던 기억이 난다.

아무도 저것이 비행기라고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나의 아버지는 원래 손기술이 좋아서(나의 손재주를 봐서 가히 짐작할 수 있음) 뒷산 언덕바지에 돌을 까서 온 집안 식구가 바위 속에 들어가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방공호를 만드셨다.

아마 지금쯤 그렇게 만들었다면 멋진 별장이 됐을지도 모른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끔 집을 들여다보러 낮에는 마을로 내려가셨고 누나와 동생과 나는 하루 종일을 거의 방공호에서 지내야 했다.

내 동생은 갓난 젖먹이였고 작은누나는 겁쟁이었으므로 하루 종일 방공호 속에서 꿈쩍을 안했지만 어렵지만 호기심이 많았을 성싶은 나는(나는 최근에도 어떤 종류의 호기심이든 열을 올리는 버릇이 있다. 하루 종일을 방공호 문턱에서 보냈다.

하루 종일 나를 즐겁게 하고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은 도대체 되지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온종일 뻘뻘뻘거리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체였다.

어른들은 그것을 몹시 무서워했으나 웬지 나는 그것이 좋았던 것 같다. 차츰 나는 어느 것이 썩 썩 이고 어느 것이 사닥다리 비행기라는 것을 희미하게 구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그것들이 왜 하루 종일 하늘을 날고 어른들은 왜 그것을 무서워하는지 몰랐다.

허나 그것 이 내 머리 에 든 최초의 공군의 모습이었고 그 공군이 나에게 민족의 비극을 배우게 했고 나의 운명을 너무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은 의미였다는 것은 지금이야 깨닫는 사실이 아닌가?

사실이지 그때 공군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북한 어느 탄광에 라도 가있을지 그 누가 알리요. 육군은 구수한 멋이 있고 해군은 잘 닦아놓은 구두모양 깨끗한 멋이 있고 공군은?

공군은? (뭘 나올거라두 있겠지! 하다못해 건빵 한 봉지라두)

역시 지성적인 멋이 배여있는 것 같다.

조영남이라는 세기적인 사나이가 워낙 지성으로 뭉쳐진 탓인지 는 몰라도 나는 지성적인 멋을 여러 멋 중에서 앞으로 찾는다. 다림질 안한 허름한 바지에 양말 안 신고 운동화 가리를 꺾어신고 되도록 수염을 기르고(수염이 큰 말쑥이다. 비도 제대로 왔는데 농사가 형편없다.

국민에게 비친 공군의 인상

•공군의 성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머리엔 기름같은 것은 금물이고 되도록 빠칠대로 내버려둔다(별고생두 안했는데 머리가 희어서 한달에 한번은 염색을 해야 하는데 한참 있으면 머리칼 색깔이 누리끼리해져서 보기에 안좋다.)

얼굴 표정은 항상 배가 고과 같비탕 한 그릇 먹었으면 하는 구질구질한 표정인데 남들 특히 여자들은 그 표정을 내가 무슨 사색을 하거나 우수네 잠긴 표정으로 알고 좋아한다.

약간 웃기는 여자들이지만 남자의 멋을 다소나마 알아주는 기특함이 있겠다. 걸음걸이는 귀찮지만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변소를 행한 맥없고 목적 없는 걸음걸이가 좋다.

별것 아닌 사람이 보면은 관심 밖의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뭐가 좀 있다(?)는 사람이 내 스타일을 본다면 틀림없이 왔구나 하면서 허벅지를 칠 것이다. 지성적인 미모의 대표, 지성적인, 내면적인 멋의 대표 조영남, 지성적인 미모의 대표, 지성적인 멋의 대표 “공군”, 지성적인 멋의 공군은, 이 조영남을 가까이 사귀고 싶지 않은가?

**-철의 장막 안에서 새어나온 이야기-**

◇ 한번은 호구 조사를 온 공산정부 직원이 늙은 촌사람에게 몇 살 이라고 물었다. “35세입니다”고 대답하였다.

깜짝 놀라는 직원을 향하여 “사실은 65세입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은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하였다.

◇ 불가리아에서는 어떤 때 공산당 두목 체르벤코의 사진이 있는 우표를 발행한 일이 있다.

그런데 이 우표가 이상하게도 도무지 갈리지 않는다는 불평이 들어왔다. 체신부 장관이 불려가서 우표의 풀이 붙지 않아서 사가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체르벤코는 그 우표 한 장을 뜯어 침칠을 하여가지고 봉투에 붙여 보았다. 썩 잘 붙었다. 그는 크게 노하여 “자 이렇게 잘 붙지 않아?” 하며 꾸짖었다. 당황한 장관은 “사실은 사람들이 각하의 사진있는 쪽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라고 실토하였다고 한다.

국민에게 비친 공군의 인상

•진중기  
**관제사의 멋**  
소령 최홍선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맑은 날씨다.

오늘은 역사적인 1969년 7월 21일, 35억의 인류가 인류의 영웅 「날·암스트롱」등이 걸치는 장관에 갈채를 보내는 날, 세계가 온통 경이로 하나 가득 흥분한 날, 좀처럼 그칠 것 같지 않던 지겹게 계속되던 장마가 거짓말 같이 멈추고 쾌청이다, 태양신 「아폴로」도 이날만은 그냥 비구름 속에서 외면한 채 그의 인내를 계속할 수만은 없었던 것일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폴로」신은 자

비롭다는 뜻인가.

이곳은 글자 그대로 산간벽지라 라디오만으로 이 인류의 장거에 참여할 도리밖에 없었던 나는 못 다 달랜 흥분을 좋아하는 낚시로나 대신해볼 요량으로 낚시 도구를 챙겨 관사를 나왔다. 조금만 걸어가면 낚시질로 한동안 시름을 잊을 만한 한 산간호수가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호수 쪽을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시선을 팔공산 쪽으로 주어 우리 사이트를 찾아본다. 아직 이곳 지리에 익숙해 있지 못 한 나는 팔공산 여기저기를 한참동안 가늠해보았으나, 그러나 마치 옛 산성을 연상시키며 산뜻하게 정립해 있는 레이다의 형상을 결국 찾아내지 못하고 말았다. 구름 속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산밑세계는 이렇게 쾌청인데도 팔공산 산정은 구름 속에 묻혀 있다. 지금까지 계속 보름넘어를 구름이 걷힌 적이 없는 팔공산이다. 늘 끈적끈적한 습기와 물안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구름위에서 구름 속에서 사는 사나이 운운하고. 외출 때 도시에 나가 아가씨를 만나면 자기를 소개한다는 젊은 부하장교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던 언젠가의 일이 생각난다.

오늘은 자비의 「아폴로」 신이 선사해준 공휴일이다. 오늘날은 만인이 일손을 멈추고 인류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달을 정복해 나가는 장엄하기 짝이 없는 순간순간을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증언하는 날이다. 그런데, 우리 레이더 관제사는, 삼천만의 불침번인 나의 동료 관제사는 저 하늘 높이 치솟은 고봉 위에서, 짙은 비구름 속에서, 그것도 밀폐된 암실 속에서, 맡겨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고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나는 우리 레이더 관제사가 국토방위의 여러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분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만일 내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독자에게서 도가 지나친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는 빈축을 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아니, 그런 빈축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그 전설의 시대와는 달라 「나르시시즘」의 뒤를 따라다니던 「에코우」의 형체도 이미 찾아 볼 수 없지 않는가. 나는 다만 이 글에서 관제사로서 내 자신이 겪은 몇 가지의 일을 생각나는 대로 사실대로 적어보려고 할 따름이다.

관제사 생활하면 우선 벽고지 생활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도회지의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으며(단적인 예로 오늘 TV를 볼 수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결혼한 사람의 가정생활이 불규칙하게 되고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의 전속으로 인하여 일정한 장소에서의 안정된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레이더의 원리가 가시거리의 비행물체를 포착하도록 되어 있어 자연 레이더 사이트는 내륙에서는 ○○○피트 이상의 ○○과 시야가 활짝 트인 ○○이나 ○○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1년 9개월 동안에 있어서 ○○으로부터 제주도, ○○○를 거쳐 지금은 ○○○에 와있는 것이다. 물론 매년 가족을 동반하고 이사를 했다.

그러나, 변화무궁한 생에서 비롯하는 새로운 지방마다의 특이한 풍토와 풍습과 그리고 인정에 익숙하려고 하다보면 단조로운 서울생활에서면 있을지도 모르는 생활의 권태감을 느낄 겨를이 없다. 그리고 가는 곳이 바닷가 아니면 고산이라 언제나 맛보는 그 놀라운 절경을 들 수 있다.

제주도와 ○○○에 있을 때다. 나는 생선회를 아주 좋아 한다. 나에게 회가 주어지는 한 어느 무인도에서의 근무도 외면하지 않을 정도로 회를 좋아한다면 좀 과장된 표현일까. 사이트의 관제 중대장은 공군편제상 유독 그 부하를 많이 거느리게 된다. 특히 다수의 관제사를 밑에 두고 있다. 중·소위급 관제사의 대부분은 아직 미혼으로 발랄한 젊은

혈기를 근무 이외에 식힐 곳은 아마 이 외로운 외지에서는 동료간에 어울려 선창가의 선술집에서 생선회를 안주로 막걸리잔이나 소주잔을 기울이는 것뿐이다. 그런 장소에 나는 종종 끼이곤 한다. 초상에 찍어 먹던 회가 왜 그렇게 맛이 있었던지 아마 젊은 부하 장교들에게서 물씬물씬 풍겨나던 그 고독의 체취가 맛을 돋우지 않았을까?

제주도는 전북, 해삼 말고도 도미, 북바리, 다금바리, 빅게 및 자리 등의 여러 가지 생선회 가 푸짐 한 곳이다. 독자들이여, 다행히 제주도에 갈 기회가 있거던 꼭 한번 맛보기를 바란다. 나는 상위에 밥하고 생선회가 있으면 우선 생선회만으로 배를 거의 다 채우고 나중에 밥을 좀 들고 말 정도로 회를 좋아한다. 나는 평시에 술을 많이 못 들지만 저녁 밥상 위에, 회가 오른 것을 보면 소주 한 잔 생각이 간절해진다. 그럴 때면 집에서 상점까지는 좀 먼 거리였지만 내 직접 갔다 온다. 한번은 역시 술을 사가지고 바빠 골목길을 돌아드는데 일당의 관제사들과 부닥쳤다. 평소에 술을 잘 못하는 나를 알고 있는 이들은 은근히 웬 술을 직접 사가느냐고 물으며 벌써부터 나를 따라 붙일 기색들이다. 나는 기어이 나의 저녁 밥상위에서 잔뜩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생선회를 그들에게 고백하고 동행을 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일이 있다. 그날: 저녁 의외의 불청객 일당을 맞아 그러나 별 닢과 없이 생선회를 장만해 내온 아내에게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머니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도 나의 기호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관제사가 된, 벽고지 생활의 덕분이 아닐 수 없겠다.

그러나, 이런 낭만적인 생활의 일면도 있긴 하지만 관제사에게는 밤 근무를 해야만 하는 올빼미 생활의 숙명을 감수해야만 하는 외로움이 있다. 생밤을 뜯눈으로 새 운다는 말이 그렇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본래부터 잠이 별스레 많은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더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밤들이었다. 당장 내일이 시험이라도 오늘은 초저녁부터 잠을 자고 나아하던 내가 어떻게 그 힘든 밤근무를 해낼 수 있었던가를, 밤근무를 하지 않는 지금 생각하면 스스로도 의아해진다. 그러나 그것은 삼천만의 불침번이라는 책임감 때문이었을 것만은 분명하다.

내가 강릉에서 선임 4제사로서 근무할 때다. 밤에는 별로 상황이 없으니 더욱 지루하고 졸음을 쫓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담배도 피우고 동료 관제사 혹은 미군 관제사와 이야기도 하고 참기 어려울 정도로 졸리면 바깥바람도 쏘일겸 순찰을 돌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것을 곧 깨닫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그해 한번은 동료 관제사와 의논해서 둘이 교대로 두어시간씩 눈을 붙이기로 했다. 선임 관제사란 막중한 책임감 때문이었는지 두 시간 약속이었으나 한 시간도 채 못돼 나는 깨어났다. 곧 근무 위치로 돌아온 나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다. 동료 관제사를 비롯하여 「스코우프·모니터」인 관제병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 하나 자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스코우프에는 하나의 항적도 마침 없었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이런 일이 있는 후부터 나는 밤에 선임관제사의 위치를 단 몇 분도 뜨지 못했다. 심지어는 담배불을 들고 있는 나의 손이 무릎 위에 떨어져 바지에 구멍이 나도록 줄음이 와도 나는 감히 작전실 바깥으로 바람을 쐬려 나가지를 못하는 「소심중」(?)에 걸리고 만 셈이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바늘로 자기 넙적다리를 찔러 잠을 쫓았다는 일화라든가 잠을 자지 않는 고문이 제일 참기 힘든 고문이라는 말이 관제사 생활을 해오는 중에 실감이 갔다. 관제사에게 있어 잠은 그 무엇보다 무섭고 심각한 존재인 것이다.

이렇게 두서없이 써내려오다 보니 벌써 약속된 매수가 다 찼구나. 마무리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낚시터에도 거의 다 왔다. 오늘은 큼직한 놈으로 몇 마리 물려라. 저녁에 회나 쳐서 먹어 보게. 아아, 그러나 민물고기는 생것으로는 위험한 것. 싱싱한 그날의 그 바다의 생선회가 그림구나. 「아폴로 11」의 무사 귀환을 빌며, 동료 레이더 관제사의 건강을 빌며, 그리고 역시 곡예비행이나 하듯 아슬아슬할 내일 아침 출근 때에도 출근차를 몰 운전병은 그 운전술이 가장 우수하고 세심한 운전병이기를 빌며, 이 글은 마치고 낚시질을 시작하자. 그러고 보니 내가 중대장으로 이곳 팔공산에 온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구나.



### 1인 3역의 곡예사

소령 이종욱



공군소위로 임관된 후 11년의 군인 경력이 나에게 무엇을 남겨 주었나 하고 자문하면서 가끔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본다. 나는 레이더 관제사! 외로운 등대지기의 생활도 아니고 화려하고 인기 있는 배우 같은 생활은 더구나 아니며 또한 「나폴레옹」 같은 백만대군을 호령하는 그러한 무사도 아니다. 제일 처음 레이더란 말을 들은 것은 11년 전 본인이 기초 교육차 파견 때였다. 당시 나의 신고를 받고 주 의사항을 주던 사관학교 훈육관의 말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

이제 귀관은 ○○기지에 가서 한미 합동으로 근무하는 「라다」부대로 간다」고. 그 훈육관은 왜 레이더를 라다(후미 비행기 수평판 날개)라고 말했으며 왜 한미 합동이 란 말을 강조했을까? 그때 만해도 레이더 부대 레이더 관제사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여서였을 것이다. 그래서 호기심과 궁금한 마음으로 ○○기지 레이더 기초교육대를 찾아 갔었다. 나의 젊음의 힘과 슬기를 다 바쳐 일하여야 할 나의 일터가 어둡고 컴컴한 암실일줄은 꿈에도 몰랐다. 교관이 안내한 곳은 실습장 겸 사용하는 레이더 작전실이었다. 처음 암실에 들어가니 주위사람도 분간 못하겠고 오직 나에게 보여 지는 것은 끊임없이 돌고 있는 레이더 스코우프의 스위프(SWEEP), 어둠 속에서 선명히 나타나는 상황판, 수 없는 통신 기재였다. 나는 혼자 말했다.

「이거 박쥐의 생활이구나, 큰일났다」고…… 이러한 어두운 암실 속에서 11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덧 암실은 나의 소중한 일터로 변했고 마음에 흡족한 장비들은 귀중한 나의 친구가 되었으며

국방상 중요한 무기로 활용되는 그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 나의 업무가 국가 방공수호에 기여하는바 크며 그 사명이 중차대함을 알게 되었다. 6·25동란이 종결된 후 미군이 사용하던 구장비를 동해안 ○○기지에서 처음 인수받아 파견대로부터 발족한 「레이다」부대는 대대로 전대로 증편 확장되더니 이젠 단으로 규모가 확장되고 우리 한반도 구석구석에 레이다는 들고 있다. 구형장비는 일체 폐쇄되고 신형장비로 대체, 이젠 명실공히 현대화된 방공관제 체제를 이룩하였다. 인원 및 그에 병행된 기술도 이제 세계적 수준으로 지리를 지키고 있고 나의 마음의 자세도 올바르게 영글고 확고해져 보람찬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

준엄한 산계곡을 거치고, 범람하는 강을 건너고 울창한 밀림을 뚫고, 층암절벽을 옆으로 돌고 돌아 산으로 오르면 산봉우리의 최정상에 자리 잡은 우리 레이다 부대 작전실을 볼 수가 있다. 주야, 계절에 관계없이 두 눈을 부릅뜨고 북녘 하늘에 붉은기를 날으는 북괴를 놓치지 않겠다고 이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스코프를 응시 하며 조국을 위해 임무를 완수하는 우리 레이다 관제사 전우들! 서로 돕고 뭉치며 아끼 줄 알며 애국하는 전우들이다.

외롭고 쓸쓸한 등대지기가 그들의 숙명이듯이 심산계곡의 암실 속에 레이다 관제사가 된 것도 숙명이라고 숙명론을 펴던 소극적인 체념의 사나이는 가고, 궁지와 자부를 담복안은 신념과 독수리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 나의 일터를 소개하면 레이다 작전실은 방공작전의 중추적인 장소로서 한반도, 중국 및 북만주 일대의 하늘에 나는 모든 공중 이동 물체를 포착하며, 구름, 새떼, 그리고 선박 등도 포착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물체를 포착하고 하나하나의 특성 및 적(敵我) 등등을 판단 식별한다. 만일 조금이라도 수상적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항적이 발견되면 수분 이내에 지상에 대기하고 있는 전투기, 유도탄 및 함재기 등을 즉각 활용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우리 관제사가 잠시라도 방심하여 공중경계에 소홀히 한다면 격상의 최신요격기도, 위력을 가진 유도탄도, 모두 무가치함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경계에 최선을 다하고 「조기 탐지 최대거리에서 격파」라는 명제에 전력을 다하여 일하고 있다. 한 예를 든다면 중공이 핵실험을 실시했던 어느 날 동해 상공에 낙진 검출차 침입

했던 소련 항공기가 울릉도 북쪽에 출현했을 때 레이다로 즉각 포착하고 수원에 대기 중이었던 ○분 대기 요격기를 긴급출동시켜 유도시켜 소련 항공기로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는데 불과 수분동안을 요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험 이 쌓이는 동안 어떻게 적기를 조기에 탐지하고 정확하고 신속히 우리 전투기를 적기있는 곳에 유도할까 하는 것이 관제사의 공통된 업무의식일 것이다. 나는 「코리언타임」우리나라사람의 시간에 대한 소홀성, 나아가서는 한국 사람들의 불성실, 부정확성 및 비신빙성 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관제사들은 소위 적당주의가 있을 수 없으며 불성실이 있을 수 없다. 24시간 밤낮 구별 없이 추호도 방심하지 않고 근무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관제사 근무 중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 중책에 업무의 하나하나가 모두 초와 분을 닦고 한 가지 오간이 국가 방공에 영향을 주니 이러한 것에 단련된 우리는 적당주의가 있을 수 없다.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잡담을 하면서 일하는 그런 유의 직장이 아니어서 나는 어느덧 고지식하고 융통성없는 인간이 된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자랑하며 다행으로 여긴다. 예를 들면 휴전선 북방에서 넘실거리는 북괴 항공기의 동태를 매○초마다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신을 기울이고 있는데 비상에 걸린 항공기가 자기기지로 유도 요청을 하는가하면 해상에 간첩선 출현 또는 미식별 항적 등 이러한 수십 가지 의 공중상황이 동시에 야기될 때 우선순위의 결정 및 조치 등은 슬기와 오랜 경험에서 체득된 우리 관제사 특유의 기술과 정신이라 하겠다. 그리고 우리 레이다 관제사를 위문차 혹은 시찰차, 검열 등 갖가지 명목으로 우리의 일터-암실을 찾아오는 손님이 많다. 그때마다 브리핑을 한다. 우선 겨울 1-2개월간 눈이 쌓여 교통이 두절되고 영하 35도의 혹한에 지하 2미터 심도가 빙결되며 인접 도시에서 육로 및 공로는 몇 킬로미터 등 상황설명은 청취자에게는 얼마의 감동이 갔을 줄 모르나 자고나면 눈이 쌓여 문이 열리지 않고 눈이 문 앞에 3~4미터 쌓이고 바람이 30~50 너트나 불어서 전주가 넘어지고 건물이 파괴되는 등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가 암실의 궁지가 없었던들 우리는 우리 임무를 수행치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무더운 여름! 도시인들은 「바캉스」다 피서다 하며 무더위를 피하려고 애쓰고 있으나 이 무더운 여름 이곳 고지에는 항시 오일 난로를

피우며 심지어는 파아카를 입는 별개의 생활을 하고 있다.

▲ 자연히 모기 등은 찾아 볼 수가 없다.

▲ 부대 사방 몇 십리까지는 울창한 산림으로 산림속에는 오랫동안 쌓인 낙엽이 썩고 이름 모를 무성한 풀로 정글을 형성하고 있다. 가을이면 붉게 들뜬 단풍 속에서 머무랑 다래를 따는 즐거움과 길옆까지 튀어 나오는 노루며 산돼지, 꿩잡기는 농가에서 새잡기보다 더 쉬우니 자연 여건이 결코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니며 결코 우리 관제사는 인정도 정서도 없이 스코우프만 보는 기계는 더욱 아니다. 우리 레이더부대는 대부분의 타레이다 부대와 마찬가지로 부대에서 3킬로 밀로 하산하면 대개 화전민이 있고 8킬로쯤 내려가면 농가가 나오며 30킬로를 내려가야만 비로소 철도 및 국민학교가 있는 마을에 도착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차를 타고 몇 정거장을 가야만 면소재지니 군소재지가 있다. 그러니 자연 사이트 중심 30킬로 주민들은 우리의 일터를 신비스럽게 보고 있다. ○○산꼭대기에 우뚝 솟은 「레이돔」은 밤에는 불빛으로 찬란하고 그 험준한 산길에 각종 차량이 왕래하니 모두가 신기하게 쳐다보며 가지가지 억측과 추측을 한다.

이러한 산중에 사는 화전민은 봄이면 산에다 불을 질러 밭을 만들고 그곳에 감자나 조를 심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문명의 혜택은 거의 없고 제분기 대응으로 디딜방아를 사용하며, 산에서 토끼 등을 잡아 고기를 먹고 일평생 병원 한번 못 가본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부락민들도 반공의식이 강하여서 수상하고 이상한 자가 나타나면 즉각 신고를 하는 등 우리 관제사와 가까이 지내고 있다. 우리 관제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2일간 휴식하는 동안 이러한 지방의 사회, 경제, 문화 등을 분석도 하는 아마추어 탐험가도 있는가 하면 심산계곡에서 귀한 나물을 채취하여 분재도 만드는 고상한 취미의 원예가도 있다. 관제사는 결코 세상에 때문지 않고 결백하며 순결하다. 나는 나와 같이 고락을 같이하는 장병에게 말한다. 「삼천만의 불침번 애국자 여러분, 자유 우방의 전초병 여러분! 우리는 궁지와 보람을 가집시다!」라고 오늘도 나는 뇌이고 싶다.



### 「검은 머플러」

중위 최도형



○○상공에 미식별 항적 포착.  
○○기지의 요격기 ○○대 긴급 출동.

열띤 관제사와 조종사간의 대화가 오고 간다. 드디어 조종사의 “CONTACT” 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계속 추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추격을 받던 미식별 항공기는 기수를 돌려 복상하기 시작한다. 그 동시에 귀환하라는 명령이 내리고 무사히 기지상공에 도달한 요격기 조종사와 관제사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는다. 산에는 마음이 있어 산 사나이들의 보금자리라는 말이 있듯 확실히 산은 요격 관제사들의 보금자

리인 듯하다.

처음 시해안의 ○○방공관제대로 배속을 받았을 때의 생각은 꼭 유배를 가는 듯 했었지만 멀리 하얀 레이더 도움(RADAR DOME)을 보았을 때는 동화 속에 나오는 궁전 같은 느낌을 주었다. 대전서 임관 후 교육을 3개월 정도 받고서도 사이트(SITE)에서 약 1개월 정도의 학과교육, 그리고 나서는 정식으로 조(CREW) 대 배당되어 요격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밖은 대낮인데 컴컴한 암실에서 근무를 한다는 건 좀 희한한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암실의 올빼미라는 말이 재미있게 표현된 이야기 일지도 모른다. 선배 장교들의 감독 아래 처음 요격을 시도할 때의 모습은 아주 우스꽝스러웠을게다. 막상 말을 해야 할 땐 말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던 모습을 상상만 해봐도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가끔가다 듣는 선배장교의 꾸중엔 고개만 움츠러질 뿐, 별로 달리 할 생각은 통안 나고 그 통에 잘 잡고 있던 스코우프(SCOPE) 상의 요격기를 잃어버려



영웅한 것을 한참 돌리다 보면 그날의 작전(MISSION)은 엉망진창. 그리고 학 교 때의 논문 쓰던 것처럼 요격실패 경위서와 미달 이유서를 쓰는 영광을 갖 게 되는 건 면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밤근무를 곱배기로 해가며 밤엔 기지순 চাল원겸 공중감시요원을 하고, 낮엔 요격 연습을 하여 요구량 100회를 채워 정식 작전가능 관제사가 되었을 때만큼 기쁜 일이 없었던 것 같다. 그때쯤 되 면 관제(?) 도 털 받게 되고 후배 장교들이 도착하기를 손뽕아 기다리는 야릇 한 심정은 무어라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비정상적인 생활을 해서 그런지 하루의 식사는 두 번이 정상, 세끼 먹는 사 람은 오히려 비정상(?) 이라고나 할까? 게다가 하루에 한 끼는 라면으로 때우 니 아마도 라면 소비율이 가장 많

은 곳은 사이트(SITE)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 정도면 분식장려의 술선수법이 되 고도 남음직한데 라면회사에서 표창장 하나 안 주는걸 보면 이 일도 과히 장 한 짓은 아닌 것 같다. 남들이 모두 노는 크리스마스 같은 때도 명동의 취객 들을 위해 불침번 노릇을 한다고 생각될 때는 화도 나지만 숙소(B.O.Q) 로 돌 아가 CREW 요원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시식을 할 땐 그런 생각은 어디로 살 아지고 왕성한 식욕만이 나를 반겨 준다. 그래 그런지 관제사들의 얼굴들은 대부분 라면 색깔과 같아서 아마 서울 거리에서 서로 알아보긴 관제사 흉장 보다 얼굴 색깔로 식별하는 게 빠를 게다.

가끔 호흡이 잘 맞는 조종사와 요격훈련을 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모든 일 이 잘되어나가나,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심한 소리를 들을 때\_ 우리의 애로 를 이해 못해 주는 조종사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서로가 좀 더 이해하여 줄 수 있다면, 완전무결한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가장 좋 은 방법은 서로가 교체교육을 자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되지 않음 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의 사기는 왕성하고 모두가 관제사로서의 긍지와 신념은 뚜렷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웬지 모두가 꺼려하는 요격관제특기, 그러나 우린 우리 대로의 자부심을 갖고 작전수행에 집념한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 거나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이트의 관제사들의 눈은 일 년 사시 무휴로 적 기를 쫓고 있다. 전투 요격 관제사!

지금 이 시각에도 컴컴한 암실 속에

선 젊음의 낭만과 꿈이 불타고 있으리라.....

모든 작전의 선구자가 되는 요격 관제사는 별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어떤 영웅한 친구는 요격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스코우프상에 나 타나는 것이 정말 비행기냐고 머리를 가우뚱하며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항상 조종사의 눈이 되어 주는 관제사들의 위 치가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서 관제사에 대한 P.R을 일부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서 숨은 공로자가 되는 것 이 우리들의 운명 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래도 그런 대로의 기쁨은 맛볼 수가 있으니까 말이다. 한번은 다방에서 우 연히 사관생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질문이 달고 있는 것이 무슨 흥장이냐고 묻는다. 관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으나 그들은 직접 요격기를 타기 전까 지는 아마 관제사의 임무가 무엇인지 확실히는 모를게다. 언제고 비행기를 타 고 작전임 무를 수행했을 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임무가 얼 마나 중요한 것인지 충분히 인식 할 수 있을게다. 우리들과 미공군과의 작전 수행도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다. 가끔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생기는 것 은 아마도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가 모두 우리의 국어가 아닌 영어 탓일게다. 호출부호(CALL SIGN)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수차례에 걸쳐 "SAY AGAIN YOUR CALL SIGN"을 할 때는 축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다. 그러나 아무런 실수도 없이 멋있게 작전수행을 하고 났을 때의 쾌감은 또 이 루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다. 웅~하는 기계소리, 요란한 제트기의 폭음소리, 산 아래 내려다보이는 시해안의 멋없는 해변가, 멀리 보이는 꼬불꼬불한 서울 로 가는 길, 그리고 노을이 물들었을 때의 장관. 무언가 극 과 극이 서로 나란 히 달리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 폭설이 내렸을 때 사이트까지 도보로 올라 갈 때의 심정, 그리고 근무 한번 했을 때의 기쁨(?)은 피차가 피치 못할 심리 적인 오묘함까지도 느낄 수 있게 하여준다.

자칭(?) 검은 머플러의 사나이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적기의 그림자를 쫓아 그들의 눈동자가 빛나고 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지표. 이 지표 위에 조국 의 영공의 운명이 좌우된다.

광대무변한 영공을 한 눈에 바라보며

지키는 우리의 성실함이, 조국의 영광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불러 일으켜주고, 그 자부심은 우리의 충혈 된 눈망울에 위안을 준다. 파란 하늘과 반짝이는 네온사인 비록 우리의 바람이라 할지라도, 노오란 벼이삭을 주으며 만족해하는 성실한 농부와의 같이, 한 줌의 땀방울들을 앞날의 조국의 영광에 바친다.

**나는 일선 정비사**  
상사 하병삼

K군.  
내가 공군에 입대 한지도 어언 17년 그러니까 그때가 1952년이네. 당시 나는 너무나도 젊은 나이의 청년으로 포부와 희망에 벽차있었으며 지금처럼 이렇게 거구의 몸도 아닌 그야말로 팔팔한 젊은이였네. 신병 훈련을 끝내자마자 공군의 산지인 한국의 최남단 사천에서 기술학교를 수료하고 그길로 정비보급전대 부대정비대대에 넘어 갔었지. 정말로 허허 별판에 눈에 먼져 띄우는 것은 CONTROL TOWER와 활주로 위를 오르내리는 비행기와 폭음귀가 따라와서 늘 손가락을 귀에 틀어막고 있어야 할 지경이었네. 정작 우리의 숙소인 병사를 찾아 들어가니 검은 돼지 한 마리를 그려놓고 산돼지의 집이라고 써 붙인 간판이 정문 위에 덩그러니 걸려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확실히 신병을 두렵게 만들었네. 거기다가 DIESEL 냄새가 코를 과 찌르는 반들반들한 바다과 깨끗이 정돈된 침구들은 어지간히 우리를 겁나게 뒀지. K군, 보게나. 고령들의 험상스럽기만 한 눈초리, 기침 소리에도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만하는 우리는 꼭 시골장에 팔려 나온 닭의 눈알처럼 맥이 없었다니까! 다음으로 배속받은 작업장이 AT6정비반이라는 곳이다. 군인의 몸이 되고 정비사라는 자격으로 처음 맡은 비행기는 건국기 301호- 지금은 간데 온데 없는 왜 장닭이 푸드덕거리며 날개를 치는 소리를 내는 매평기처럼 생긴 비행기 말일세- 나는 그때 삼등기부의 무거운 중임(?)을 짊어지게 되었다네.

이 비행기로 말 할 것 같으면 DC12V의 전원을 받기 때문에 고물 자동차처럼 STARTING HANDLE을 돌려서 STARTER MOTER를 회전시킨 후 시동을 걸어야 하네. 당시의 이런 비행기는 사회에서 갓 들어온 낫설은 어린 정비사에게 식사하고 돌아서서 금방 허기증을 느끼도록 만들어 주었네. 텅빈 배를 움켜쥐면서 HANDLE을 돌려야 했던 옛날의 정비사를 상상해 보게. 또 눈송이가 날리는 겨울이 어김없이 찾아오면, 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운 WING TOP부분에 발을 조심스럽게 밟고 STARTING HANDLE을 돌려 할 때도 긴장과 불안을 때놓을 수가 없지. 잘못하여 앞으로 미끄러져 추락한다면 회전하고 있는 프로펠러와 부딪쳐버리고 말테니까, 미끄러운 WING도 돌아가는 프로펠러도 우리들에겐 항상 조심 조심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지. K 군. 군인에게서 필수과목처럼 따라다니는 기합 이야기를 들려줄까? 군은 기합이라면 무조건 때리고 몽둥이(배터)를 휘두르며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으로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정비사의 기합은 좀 남성적이고 고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네. 그때 우리 고병들 대개는 후덥지근한 여름철에는 프로펠러 옆으로 우리를 안내 하여 선풍기 이상의 피서를 선사하여 주곤 했지. 그래서 우리들은 참 인정도 많고 사람 좋은 선배구나 하며 멋대로 해석하고들 있었지. 어느 날인가, 너무 고단해서 그만 늦잠을 자버렸다네. 일선 정비사야 말로 지금이나 예나 기상시간의 한 시간 전에 살며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같은 신병들은 혹이나 고병들의 잠이 깰 세라 취새끼처럼 빠져나와 각종 COVER를 벗기고 기장이 나와서 시운전을 하도록 시동 전 준비를 끝내어야 하는 것을 이렇게 늦어버렸으니 밤 고양이 같은 기장이 가만있겠나? 전통적인 기합이 가해졌지. 항공기 RUDDER 뒷부분에 차렷 자세로 세워 놓고 RUN-UP 하는 거 네. 글썽 그것이 여름이면 시원해서 피서하는 기분으로 받을만하지만, 찬바람이 뽕뽕 몰아치는 겨울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꿈쩍없이 동태신세가 되어 땅으로 떨어질 것만 같은 곡예를 하는 걸세. 그래서 기합을 받으면서도 겨울에 줄 기합을 모아 두었다가 여름에 한꺼번에 주면 오죽 좋을까 하고 괜히 눈을 감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바란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네. 그 당시 만 해도 T-6는 인기 있는 비행기였다고 할 수 있지. 이 비행기를 가지고 비행교육을 받았던 그때

의 학생들은 벌써 우리의 상관이며 각 비행대대의 대대장으로 계신다네. 그리고 그때는 조종학생과 정비사간의 유대와 협조정신이 남달리 두터웠다네(지금도 물론 투철한 상호협동으로서 비행과 정비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지만). 왜냐하면 한 비행기에 교관과 학생과 정비사가 수료시까지 고정 배치가 되어 매일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르는 위험을 사전에 막아주는 보호자올시다라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일했으며 조종학생들도 진실로 우리의 노고와 정비업무를 격려해 주었다네.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지! 우리는 이 비행기에 결합이 생기면 다음 학생이 훈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밤낮으로 어떤 때는 식사시간마저 잊어버리면 서까지 작업에 열중했고 학생도 옆에 와서 진행을 보아주곤 했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루 바빠 성심성의껏 전력을 다하여 결합사항을 수정해서 저 조종 학생의 모자라는 비행시간을 충족시켜줘야겠구나 하는 의분 비슷한 것이 생기곤 했었네. 그런 묵묵하고 꾸준한 마음은 AT-6D를 인수할 때도, 그 후 AT-6F, 그리고 잇달아 AT-6G TYPE까지 인수하여 많은 조종학생을 무사히 수료시켰을 때까지의 말없는 9년 8개월을 오로지 AT-6TYPE와 더 붙어 지내 왔던 것이네. 지금 생각하면 순식간에 지나간 세월이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많은 이야기와 교훈과, 용기를 심어 주었던 날이라고 결론짓고 싶네. 그런데 서럽게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전 T-6항공기의 해체령이 내려 해체 작업에 임하게 되자, 내 가슴은 가을비 맞아 고개속인 들국화처럼 왜 그렇게도 섭섭한지..... 아 이 심정은 나처럼 T-6와 동거동락해 본 동지들은 적잖아 느낄 것 이었네. K군. 그 후 나는 사천과는 정반대의 복단에 자리 잡고 있는 전투비행단으로 지망하지 않을 수 없었네. 프로펠러 비행기와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이제는 좀 더 넓은 발판을 찾고 싶어졌고 그것은 곧 전투기를 만드는 전투정비사가 되는 것이었네. 1962년에 마침내 전투비행단으로 배속되어왔었지. 기종전환교육(MTD교육)을 수료하고 나자 109요격비행대대로 배속되어 갔네.

육중한 비행기 F-86D 전천후요격기를 눈앞에 대하고 보자. 더욱 새로운 각 오가 샘플 솟아나듯이 솟아오르는 게 아닌가? 이제야 말로 진짜 전투기를 상대하게 되고 저 전투기가 솟구쳐 오르는 하늘이 온통 내 가슴만도 못한 넓이에

들어 찰 것 같고, 손 안에 쥐고 흔들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자부심으로 들끓었으며 여하한 적기라도 내 손으로 정비된 전투기가 떠올랐다면 당장 격추시킬 것만 같은 보람에 불타올랐던 것이네. 비가 올 때는 뼈 속까지 젖어오도록 옷을 적시며, 눈이 올 때는 그 모진 추위를 견디어 내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이 정비사들의 든든한 마음가짐. 과히 3천만의 불침번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될 사이 없이 닭고 광을 내야하는 비행길에 파리가 앉아서 미끄러질 정도로 땀을 흘려가며 문지르는 걸세. 그런 후에 햇볕이 비치기만 하면 눈을 못 뜰 정도로 반짝거리며 신부처럼 말끔히 단장해야만이 훌륭한 자량이 될 수 있네. 참 기계치곤 호강하는 비행기일세. 그러니까 닭노라고 수고한 정비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세척경연대회(CLEANING CONTEST)에서도 늘 수위를 차지하지 않는가?

K군. 나는 얼마 후에 정비처럼 최신행 신예기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제 110 비행대대로 옮겨 갔네. AT-6로부터 시작하여 F-86D를 거쳐서 F-5까지 나는 걸어온 걸세. 막상 이 신예기를 접해보니까 수정에 수정을 가하고 향상되는 정비기술 덕분인지, F5 항공기는 참으로 정비사의 수고를 덜게 해주며, 그리고 T-6보다 F-86D 보다는 훨씬 정비하기에 손쉬운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네. 소속 중대의 진행책임 맡고부터는 직접 일선 LINE에 나가서 정비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LINE 일대를 둘러보면 정비사들의 작업사항을 한 눈에 파악해 낼 수가 있는 걸세. 내가 그들이 하는 일을 지금까지 그대로 겪으며 수행해 나왔기 때문에 정비사들의 수고가 어떠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지. 또 정비진행을 맡아보는 것이 작업을 하고 비행지원을 수행하는 것보다 어렵고 골머리가 아플 때는 때때로 느끼는데, 이럴 때는 휘휘 팔을 걷어부치고 거벼운 마음으로 손에 기름을 붙이면 그들과 같이 석여 닭고 문지르고 죄이고, 항공기를 띄우고 LINE바닥을 달리고 싶어짐을 참을 수 없네. K군. 짧은 시간에 나의 반생처럼 되어 온 이야기를 한꺼번에 털어놓으려니 앞뒤가 맞지 않지? 하지만 꼭 내가 군대생활을 해온 동안에 정비사로서 군에게 그간 느낀 몇 가지를 강조해 두고 끝내자고 하네.

첫째, 성심성의껏 일하라는 것일세. 자기가 맡은 책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할 것은 물론이며 작업을 할 때도

몸이 고단하고 피롭다고 흐지부지 얼버무리려고 말고 신경을 써서 똑바르게 끝을 마쳐달라는 것일세.

둘째, 정확한 결함사항과 수정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라는 것일세. 누가 묻더라도 납득이 갈만한 작업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겠네. 무엇이 어떻게 나쁜데, 무엇을 어떻게 고쳐주었다든지, 수정했다는 등의 근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자기의 직책상 욕을 먹지 않을 것이고 고생해가며 일해주고 뒤통리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나?

셋째, 지상사고의 사전방지에 노력해달라는 것일세. 나의 17년 세월동안 발생한 갖가지 지상사고를 손꼽기엔 이 열손가락이 아프도록 헤아려야 할 정도인데, 사고 분석 결과가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를 매놓을 수 없네. 내가 앞에서 에피소드로 얘기한 기합도 실은 위험천만한 사고의 원인이 아닌가? 각자가 자기의 생명을 뿔보다도 소중히 끼듯이,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목숨을 앗아갈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것일세. 타인이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도 아닌 현실에 있어서 더욱 요망되는 일이 지상사고의 안전사항을 꼭 지켰으면 좋겠네. K군, 지루하였는가? 아무쪼록 군의 현명한 정신자세로서 군에서 생활하고 정비사로서 임무에 종사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항상 기억해두었다가 군에게 백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이 글을 쓴 보람이 존재할 것이 아니겠나? 잘 있게! K군이여-

**나의 생활에 만족**  
하사 서영석

맨끝쪽에 누운 김이병이 갑자기 고성을 친다. 몹시 피곤했나 보다 했더니 입맛을 썉썉 다시며 코를 곤다. 어머님께서 대전 신병대까지 데려다 주시고 가신지도 벌써 3년이 넘었다. 아직도 성장한 아들이라기보다 유치원에 입학한 아들 그대ροι인사나 보다. 힐끔 힐끔 어머니를 돌아다보면서 신병대 반장 뒤를 오와 열도 무질서하게 간 내가 이젠 제법 군인티를 몸에 익숙시킨 하나

의 군인이 되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 이왕 병역의 의무를 마칠 바엔 멋과 긍지를 지닌 공군엘 가져고 입대한 것이 공군에 들어온 동기이다. 저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각오와 방향은 다르겠지만 위에 말한 것에 큰 견해차이는 없을 것이다.

물론 병영생활이 멋과 낭만으로 가득 찬 실락원이 될 순 없다. 참으로 용기 있는 자는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향해 뜻을 다는 사람이라는 철인의 말을 생각한다. 폭력적인 형식주의나 고집불통에 비인간적인 규칙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예를 나는 목도하는 때도 있었다. 인간을 위해서 침대라는 것이 있듯이 모든 법칙이나 규격도 인간을 떠나서는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권리가 그렇게 단순히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데 우리의 고민은 있는 것이다. 리트마스 시험지처럼 산에 나 알카리에 닿을 때 마다 변하는 그런 인간자세는 가져선 안 되겠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올바른 자세와 바른 정신으로 올바르게 행동하자라는 우리 공군본부 대 대 장님 의 통솔방침을 세우셨을 것이다. 꼭 이 복무방침을 이행할 수는 없었다. 신이 아닌 이상은 이라는 서두를 달게 마련이지만 무의식중이나 의식적으로 내 자신 그릇됨을 인식하면서도 실행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었으니 말이다. 물론 하나의 완성된 군인이 되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다. 반면 즐겁고 전우애를 느끼며 이런 것들이 뭉치면 애국하는 바로미터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다. 주마등처럼 지나치는 지난 일들을 나는 생소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등병 시절엔 아무리 먹고 자고 해도 그저 배고프고 졸리웁더니 그래도 일등병을 달았을 텐 군대생활에서의 하나 보람됨을 찾아보려고 틈틈이 책도 읽고 하다니 상등병 땀 이 건 전화위복이다. 내무생활의 중견위치에서 번번이 희생되기가 일쑤이니 말이다.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면 병장이 된다. 이때부터 자기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아우성을 치면서도 책과 씨름하며 도서실에 출입이 자자진다. 하사가 되면 제대 날짜를 손꼽으며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로 철학에 입문하기까지 이른다. 또한 이렇듯 심각한 생각의 연속은 아니다. 자기 고 향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연애담, 학창시절에 부르던 즐거운 노래를 머리를 맞대고 파트를 나누어 엉망진창된 하모니나마 불러댄다. 술 한 잔 먹고 배짱 한

번 첫블리 부렸다다가 전원 사전에 집합에 한강철교에 스카이다이빙, L-19 원산 폭격 등에 다채로운 메뉴로 한바탕 특별훈련을 실시하고는 옷을 툭툭 털며 어 느 누구한테 목적과 대상도 없이 욕을 퍼 붓다 말고 군대에선 역시 기합이라는 게 중요한 촉진제란 말이야 하고 제법 성인이 된 듯 점잖게 나온다.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평지라도 늦게 도착되는 날엔 원효대사나 된 듯 눈을 감고 죄없는 담배만 열심히 빨아댄다. 회식 때. 술만 좀 취했다 싶으면 열곡이고 스무곡이고 계속 접속곡으로 핏대를 돋구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팔도 사나이들이 모인 내무반의 진풍경이다. 아쉬움만 남기고 후딱 흘러 가버리는 시절의 마지막 고비에서 세월의 빠름을 되뇌이는 나를 지금 발견한다. 3년 동안의 병영생활은 밤하늘에 반짝이던 별들을 끔찍히 동경하던 소년을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한 평 범한 생활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참으로 미련하고도 질긴 것이 인간에게 있다면 미련인지도 모르겠다.

지난날을 반성하고 즐거웠던 일들을 회상하며 미련 없이 모든 일에 충실하게 살아봐야겠다. 모든 카인의 후예들을 지배해 보겠다고 꿈꾸는 소년의 빛났던 이상은 사라졌지만 나는 지금의 나에게 만족한다. 병영생활에서의 상속은 의지와 신념을 얻었다고 나는 더듬거리며 말할 수 있다. 이것을 밑거름 삼아 사회에서의 발디딤들로 하겠다.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완성된 인간이 되었을 때 나는 지금의 나를 회상할 것이다. 김이병이 또 주기적으로 고성을 친다. 무엇인가를 중얼거리며 옆으로 돌아 놓는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불연속성을 이루는 가운데 또 병영의 밤은 깊어간다.

**청년의 기상은 국가의 위력**  
상병 김진수

얼마 전 대청소 때의 일이다. 나는 변소 청소사역병의 일원으로 차출되어 용감히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몇 명의 동료와 함께 대야에 물을 담아. 바닥에 뿌리다가 한쪽 벽에 붙어있는 스팀과 밀바닥의

좁은 틈 사이로 지저분한 종이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물에 휩쓸려 한응큼 소량의 종이가 빠져나온 것이 빗자루를 가지고 쭈셨더니 웬걸 어떻게 그 좁은 틈에 들어갔는지 의심이 갈 지경으로 많은 양의 종이뭉치가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분명히 단 한 번의 짓이 아니라 청소 때마다 뻥히 알면서도 번번이 계속되어 모인 것이었다.

이 하찮은 일에서 나는 공군 아니 우리나라를 보여 주는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섬찔했다. 걸만을 그럴싸하게 꾸미어 눈가림 하는 식의 우리의 주변, 허위허식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의 사회,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결코 쉽게 넘겨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서글픈 확신을 가지게 했다. 사소한 청소이야기가 너무나 엉뚱하게 딱 방향으로 흐른 것 같지만 이 사소한 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자. 한 사람이 청소 도중에 나온 종이를 더럽고 귀찮아서 스팀 밑에 쑤셔 넣었다. 또 한 사람이 똑같은 짓을 얼마 후 되풀이했다. 그 후 또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종이는 꼭 찰 때까지 늘어난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그들이 스팀 밑에 종이가 든 것을 알고 나서도 귀찮아 같은 짓만을 계속했다는 점이다. 나는 어찌 어찌해서 내무반 변소 스팀 밑에 종이가 꼭 차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쓴 것은 결코 아니다. 만일 청소를 맡아온 동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료가 있었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군대에 충성하려고 들어왔나?”

“말짱 헛거다”

“그 당시만 때우면 되는 거야”

결코 내가 지어낸 이야기들이 아니다. 얼마 되지 않은 나의 군대생활을 통해 수없이 듣는 이야기다.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보자. 우리 젊은이 대부분이 위 이야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공군은? 아니 우리 조국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젊은이가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는 말이 있다. 몇 장의 휴지를 귀찮다고 엉뚱한데 처박은 젊은이가 과연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가의 대우좋은 병영생활이나 그들의 부를 부러워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인간됨을 고쳐야 하겠다. 최소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올바른 사고 밑에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격을 기르라는 말이다. 너 나 우리 . 모두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변소는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되지는 않으리라 도산이 말했다.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를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고대 신화를 읽어 보면 너무나 잘 알려진 「시지프스」의 신화가 나온다. 왕이었던 그는 죽어 지옥에 떨어져 그 죄로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가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 올리면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져 그는 수없이 같은 짓을 되풀이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쓸데없는 짓 쓸 되풀이 하는 것을 비유할 때 종종 쓰인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이 이야기가 신화이건 전설이건 또 그의 행동이 전혀 쓸모없는 짓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단 한 가지 바위를 언덕에 올리기 위해서 노력 한 시지프스의 꾸준함을 이 이야기에서 배우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주위에는 실로 많은 거짓과 악의 요소가 펼쳐 있다. 이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설령 일생을 노력해도 못 이룰지라도 우리는 굽힐 줄 모르는 투지를 배워야겠다.

우리가 밀어 올려야 할 듯한 바위들은 지금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 무수한 바위를 밀어 올리기 위하여 우리는 높은 곳에 서서 지휘하고 호령할 줄 아는 인간보다는 자기 몫을 충실히 수행할 줄 아는 평범한 인간이 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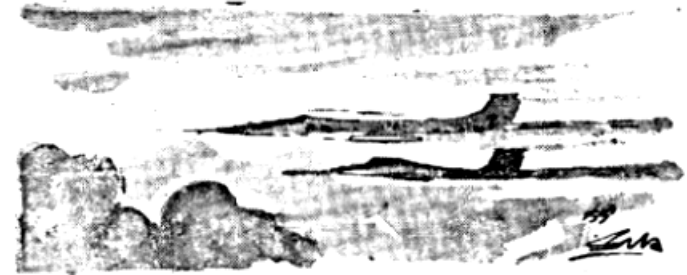
우리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바위가 얹혀질지 모르지만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사람보다 치우는 사람이 많아질 때까지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우리들 자신의 힘을 기르자.

권태와 해이에 힘없이 풀어진 눈빛보다 피로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타는 듯한 빛나는 눈을 서로 마주보며 힘있게 주먹을 쥐어보자.

×

×

## 비행생활유감



### F-86 초 단독비행

소위 박윤교



아침햇살이 눈이 부실 정도로 청명한 날씨가 비행대대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우면서도 조심스럽게 옮겨지면서 그동안의 피땀어린 T-28, T-33A 훈련기의 비행은 오직 오늘부터 시작되는 F86F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으므로 지금까지의 삶은 오늘의 F86F 초 단독비행을 위해 살아왔다는 일념 속에서 하루가 시작되었다.

비행 전에 교관님으로부터 모든 브리이핑과 비상시의 주의사항을 듣고 동기생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장구반으로 향했다. 출렁대는 트럭을 타고 파란하늘만을 쳐다보며 누구에게도 말을 걸거나 웃고 싶지도 않은 심리상태에서 조금 만이라도 정신적인 산란을 갖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느끼며 드디어 아폴로 우주인이 우주복을 입는 기분으로 숨이 가쁠 정도로 몸에 꼭 조이는 GSUIT를 입고 PAPACHUTE를 등에 멘 다음

HELMET를 들고 나와 생사를 같이 할 애기(F-86F)를 향해 걸어가며 과연 이 전투기가 t33연습기와 비행자세라든가 조종간에 오는 힘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며 그 동안의 지상학과에서 배운 비행절차를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애기 앞에 다가서게 되었다.

CHECK LIST를 들고 오늘 비행에 무사해 주기를 간곡히 비는 의미에서 먼저 보고 쓰다듬으면서 모든 외부 점검을 마치고 COCKPIT에 앉아 편안한 자세를 취하려 해도 어쩐지 이상하고 손님이 낮은 집에 가있는 것처럼 차분한 감이 들지 않고 어색하였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혼자 몰고 나간다는 심적인 긴장에서 오는 거친 호흡을 심호흡으로 이겨 가며 시동을 걸고 점검을 한 후 교관님이 TAXI CALL을 하자 나는 선명하지 않은 과감성을 가지고 서서히 TAXING을 시작하였다. 세 살 난 어린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꾸불꾸불 곡선을 그리며 드디어 지금까지 갈망하던 파란 하늘이 활짝 퍼지게 될 활주로 CENTER LINE 에다가 세웠다.

비지땀 같이 흐르는 이마의 땀을 닦을 여지도 없이 거친 호흡을 달래며 모든 계기를 이상없이 CHECK한 다음 수평선처럼 멀고 넓으면서도 좁은 듯한 활주로를 쳐다보고 있으니 드디어 「TAKE-OFF」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BRAKE를 놓고 TAKEOFF ROLL은 시작되었다. 좁다란 흰 CENTER LINE 만을 고수하겠다는 일념 하에 활주하며 옆으로 스쳐가는 속도는 숨가쁘게 가속되면서 교관님의 지시에 따라 「약간 땡겨라! 좀 더 땡겨라! 그대로 HOLD해!」 하는 말씀에 따라 행동하다보니 나의 몸은 점점 지상에서 멀어지며 흐릿한 지상은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하고 앞은 갑갑할 정도로 GUN SIGHT가 가려서 비행자세를 잘 잡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침착하게 상승하여 공역으로 향하면서 과연 나 혼자 조종하고 있는가? 하는 의아심과 긴장상태에서도 일순간 안도의 긴 호흡을 내쉬기도 했다.

들어오던 말대로 T-33A에 비해 STICK의 움직임에 까불지 않고 점잖하고 소리도 더 조용했다. 오직 교관님의 지시에 따라 온 신경이 움직여 앵무새처럼 시늉하며 끝없이 파란 가상 수평선과 비행자세와의 판례를 알려고 안간힘을 다하여 조작에 친근감이 들 무렵 너무나도 빨리 순간의 시간들이 흘러 결국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활주로의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또다시 나는 여기서 잘 내려질 것인가? 하는 긴장과 초조감은 시작되었다. 교관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면서 나는 기계적인 순간적 착각도 하면서 긴장된 마음을 달래며 조종간과 싸우다 보니 좁다란 활주로는 눈앞에 다가서며 싸울 듯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며 전자계산기의 예민한 전자 유도처럼 손, 발, 눈 그리고 모든 중추신경이 움직여 유도하는 순간순간들을 넘기며 잘 안착시켜야겠다는 미구의 의지로 인하여 주로에 세 GEAR가 접지되었다. 사정없이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달리려는 애기를 BRAKE로 달래며 속도를 죽인 후 개방하여 CANOPY를 열어 시원한 외부의 공기가 들어 올 텐 나는 큰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 거친 사나이 F-86 F와 보다 더 친근하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과 땀만이 보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맘속의 다짐을 절실히 감득하며 일곱 살 난 어린이가 처음 국민학교에 입학해서 집에 돌아오는 몽롱한 심정과 같이 앞날의 비행 생활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단독비행이 과연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연속되는 상상 속에 호뭇함을 느끼면서 우리 애기의 집이라 볼 수 있는 PARKING AREA에 조심스럽게 세우고 그동안 수고했으니 쉬고 잠자라는 듯 ENGINE SHUTDOWN 한 후 COCKPIT에서 나와 애기 앞에 서서 오늘 비행에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키스라도 해주고 싶은 친근감과 존경심이 앞섰다.

날개가 시원스럽게 뒤로 쪽 퍼진 것이 주둥이는 MIG기를 잡아먹을 듯이 딱 벌리고 있는 모습이 제법 맘을 끌어주었다.

애기를 뒤로 하면서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호뭇함과 생의 보람을 느끼며 내가 한 시간 동안 멀리 푸르름 속에서 그렸던 항적을 맘속으로 재현하며 걸음을 옮겼다. 이제 아기 PILOT는 한 걸음 두 걸음 걷기 시작하였다.

교관님들은 어머니인 양 불꽃같은 열성과 친근함에 반해 냉정할 때는 화살이 가슴을 찌르듯이..... 모든 것이 나를 자라게 하는데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약이 된다. 단독으로 시작된 비행생활이 신혼여행에서 갓 돌아온 부부처럼 마냥 즐겁고 꿈에 부푼 가슴을 안고 애기를

마음대로 걷고 날리고 하여 이미 펼쳐진 저 푸른 하늘을 주름잡기 위해 초단독의 기쁨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해 거침없이 자기 자신을 키우고 완성 할 때 까지 앞으로 전개되는 비행 생활에 온 심혈을 기울이며 오늘의 비행생활에 충실하자!

## F-86F 첫 단독비행

소위 차옥환



전투조종사가 되겠다는 응지를 안고 공군의 문을 두드린지 4년 만에 남짓... 이제 드디어 그토록 목마르게 바라오던 대망의 비상을 시작함에 있어 두근거리고 흥분해 있는 심장의 고동소리가 온 하늘에 퍼져 올라 갈 것 같은 감격적인 F-86F 첫 SOLO의 순간이다. 새삼스레 길지도 않은 몇 년 동안의 나의 지나간 생도시절과 비행훈련 과정들이 커다랗게 CLOSE UP 되어 오는 건 이 순간이 너무 값지고 벽찬 대망의 첫 출발이란 무의식적인 긴장의 발로라 할까? 아니면 긴 고난과 인내의 연속이었던 4년 동안의 생도시절에서 가끔은 역경과 권태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값진 생도 생활을 엮을 수 있도록 어두운 밤을 비쳐 주는 한줄기 불빛처럼 활활 타는 생명력으로 나를 이끌어온 원천은 이 고난의 길이 다만 내가 전투조종사가 될 수 있는 오작 한 길이라고 가끔은 게을러지려는 나를 격려했던 그 거대한 숙원이 이제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감격때문일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 있으므로 해서 그 고난과 인내의 연속이었던 사관생도 시절과 비행훈련의 과정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애착같은 것 때문이었을까? 아뭏든 주체키 어려울 정도로 험크러진 가슴으로 나는 지금 G-SUIT를 입고 PARACHUTE를 멘 채 그토록 부러워했고 타고 싶어했던 전투기에 기성조종사처럼 의젓이 오르고 있는 낮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지난 일년간의 비행훈련 과정에서 흥분되고 뒤범벅이 된 짜릿함을 안고 몇 차례 T2&A의 단독비행도 하여 보았고 T-33A의 THRILL이 있는 단독도 가져 보았다. 그 새로운 기종들로 단독비행을 나가는 순간순간마다의 험크러진 감격 등이 형언키 어렵게 많았지만 오늘 내가 F-86F로 첫 S 3L9를 나가기 전에 맞이하는 감정들은 그 감격들과는 좀 색다른 것이었다.

나의 이 색다른 감정은 물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낯설은 비행기를 처음부터 혼자서 타고 올라간다는데에도 기인하겠지만 나는 그것과는 또 달리 엉뚱하게도 옛날에 보았던 어떤 서부영화의 마지막 장면들을 연상하고 있는 것이다. 광활한 서부를 어떠한 개척자의 가족이 마차에 짐들을 싣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여행을 시작한다. 길고도 어려운 난관이 많은 서부에서 그들은 수차례 INDIAN들과 싸우고 악한들과 격투도 하며 험로를 넘어 곳곳이 자기들의 갈 길을 나아간다. 그러나 계속되는 영화 속에서는 당시 긴장과 불안이 조그마한 휴식도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는 그 긴 여행을 마치고 시냇물이 소리 높여 흐르고 평화가 고요처럼 깃든 넓은 평원에 안착하여 안도의 기쁨과 환희 속에 지나간 여행동안 무사히 온 가족이 평화스런 땅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준 신에게 감사의 저녁기도를 드리며 영화는 끝난다. 아마 그들은 행복하게 발을 갈며 아늑한 가정을 꾸리리라.

그런데 갑자기 내가 SOLO 비행 전에 영화의 장면들을 생각한 것은 내가 86F로 비상을 시 작함에 앞서 『아 나는 드디어 나의 정착지에 돌아 왔구나』하는 영화의 주인공들의 안정감 같은 것을 이 순간에 느끼고 있는 때문일까? T2SA의 SOLO를 나가고 T-33A를 타고 하늘을 혼자서 날았던 순간들이 영화 속의 한 조그만 전투들에 비유되고 안정이 없고 항시 불안과 기습에 초조해 했던 여행자들이 나머지 먼 길을 염려하고 걱정할 것처럼 나는 지난 훈련과정 등에서 항시 고독같은 것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F-86F로 첫 비행을 나서며 이제 드디어 내 올 길을 다 왔구나 하는 안정같은 것으로 정착지에 돌아온 빛난 여행자들의 눈동자들을 상기하고 있는 것이다.

요란한 폭음을 뒤로 하며 지금 활주로를 미끄러져 가고 있다. 하얀 RUNWAY 심장부로 더 새하얗게 칠해진 CENTER LINE 위로 열성을 다하여 긴 브리핑을 하여 주신 최 대위님의 목소리가 구른다.

잠시 후면 새끼 전투조종사의 두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고 위대한 순간을 알리는 비상의 전령같은 게 가볍게 느껴지겠다.

힘차게 내 뿜어지는 내 애기의 숨소리가 긴 활주로를 뒤로 내 뻗으며 호남벌의 파이란 고요를 가르고 무한한 하늘이 그 다정한 팔을 벌려 내 날개를 얼싸안는다.



무한한 신비와 파아란 아름다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나는 이 순간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감과 희열에 넘쳐 조인이 된 보람을 느끼며 그토록 목이 타게 기다리던 전투조종사가 되겠다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위대한 순간에 끝없는 자연의 창조력과 신의 섭리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다.

고도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무등산이 점점 배 밑에 낮아져 가고 은빛처럼 흘러 내려가는 호남벌의 강줄기들이 희미해져 간다. 파아랳게 저쪽 멀리 한라산이 구름 속에 웅자를 드러내고 지리산이 가깝게 손짓을 한다.

새삼스레 이 훌륭한 전투기가 나 하나만을 심고 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다.

오직 나와 내 얘기가 같이 호흡하고 움직이고 회전하고 춤추는 것이다.

내가 비행기를 밀고 아끼는 만큼 이 비행기도 나를 아끼고 신뢰하며 서로들의 생명을 지지하며 무한한 하늘 속으로 두 날개를 짝 내뻗고 줄달음쳐 올라간다는 진리를 오늘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전투 조종사!

파아란 하늘 속에 그 IMAGE를 읽으며 지금 그 성스럽고 찬란한 전투조종사의 대열에 나도 여기 조그만 틈을 마련하여 고개를 들이밀고 있다. 비록 ○기 조종사라 하지만 내일이라도 국가가 나를 부른다면 폭탄을 안고 적진을 향해 돌격을 할 수 있는 떳떳하고 귀○ 임무가 부여되는 순간순간들 사이를 나는 날아가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애타고 고대 하던 값진 순간들이냐? 하늘에 나서 하늘에 살다 하늘에 죽는 조인의 후예로써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하늘의 여기저기에 심고 뿌리며 우리 조인들의 세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황홀경을 마음껏 누린다. 다른 인간들 보다는 더 많은 신의 섭리와 자연의 진리를 터득하며 살 수 있다는 자신이 무척이나 좋기만 하다. 저 질푸른 하늘 속에 나대로의 진한 전투 조종사의 기상을 실으리라.

“TULIP 204 OVER MOODEUNG LANDING” 이제 서서히 마음껏 누렸던 공간의 자유를 떠나 고요히 날개를 접고 지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하얀 활주로나 GROUND된 비행기들이 더 다정스럽게 느껴지고 나는 이제 고귀한 사명을 마치고 내 HOME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전투 조종사로서의 귀중한

첫발을 내디딘 이 순간부터 영원히 하늘에 내 일생을 심고 고귀하고 장한 조인으로 끊는 피를 저 하늘에 뿌리겠다. 그토록 고대하던 나의 전투조종사 생활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중요한 TURNING POINT에서 냉철하고 명확한 이성으로 내가 심고 뿌려야 할 전투 조종사의 상을 그려본다. 지금은 성스런 마음으로 전투기 앞에 선 것에 불과하다. 내가 전투기로 첫 비상을 시작한 이 순간부터 내가 조종간을 놓는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비행기 속에 내 맥박이 뛰고 혈관이 통한다는 아끼고 검허한 자세로 영원히 애기와 하늘에 함께 살리라. 그리하여 훌륭한 전기를 배우고 익히어 일기 당천하는 국민이 바람직한 전투조종사로서의 자세를 지금 이 시각부터 가장 빠른 미래에 획득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겠다.

이 시간에도 비행훈련에 여념이 없을 북한 조종사들을 생각한다. 아마 그들도 일단 유사시엔 생명을 받쳐 일전을 겨룰 것을 각오하고 연습을 하겠지. 그리고 우리를 떨어뜨려야겠다고 발버둥치며 훈련할 그들의 눈동자를 상기한다. 하늘의 적으로써 언젠가 내가 아니면 내가 죽는 전장에서 그들을 만나 필사의 전투를 전개함을 생각할 때마다 내 심장의 피는 이글이글 타오른다. 전투기로써 첫 SOLO를 나간 오늘의 감격과 각오는 어쩌면 그들과 결전을 할 때가 오면 꼭 일발필추의 실력을 길러야 되겠다는 다짐 때문에 더 크고 야무진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전투 조종사로서의 내 생애를 염두에 있어서 하늘에 뜨는 순간순간마다 나는 북한 조종사와 일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굳은 각오로 임해야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우월한 전투조종사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내 젊음을 바치리라. 그리고 국민들의 뒷편에서 만족한 웃음을 띄우리라. 전투기로 첫 SOLO를 나간 감격스런 이 순간부터 내가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심는 마지막 순간까지 비겁하지 않고 사명감에 가득 찬 진실한 조인으로 하늘에 내 열을 심어야겠다.

활주로가 점점 크게 다가오고 있다. 이 내 활주로가 배밑으로 쭉쭉 지나가고 무사히 하늘에 인사를 드리고 왔다는 신호처럼 두 바퀴가 가만히 활주로를 미끄러져 간다. 감격과 흥분 속에 얽힌 첫 F-86F의 단독비행이 끝난 것이다.

## UH-19 비행생활

중위 김종태



「헬리콥터」그건 어떤 원리에서 날고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비행기인가! 사실 나는 김해에서 T28초급비행훈련 과정을 마치고 구조비행대대로 올 때 까지만 해도 나의 헬리콥터에 대한 지식은 거의 백지에 가까웠다. 단지 아무 곳에서나 앉을 수 있고 뜰 수 있는 비행기, 이 정도의 지식 밖에 없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비행의 역학적 원리와 구조정비학 그리고 조종기술을 배우고 부조종사의 일원으로서 미션에 참가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났다.

UH-19생활, 이제 겨우 3년밖에 안되지만 헬리콥터의 특수성으로 해서 즐거웠던 일도 많았고 슬프고 위험했던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처음 헬리콥터를 탔을 때는 신기해서 웃음이 나왔다. 비행기란 앞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건 좌우 뒤로도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웃음은 잠시 이내 땀을 뻘뻘 흘리는 맹렬한 비행훈련 속에서 거의 반년을 고생해야 했다. 헬리콥터는 다른 비행기처럼 FEED WING이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으며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TRIM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정신적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힘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비행훈련을 받을 때 팔의 힘을 기른다고 매일아침 일어나 아령 체조를 한 적도 있다. 이러한 기계적인 상황 속에서 비행 훈련을 수료하고 부조종사의 자격으로서 미션에 참가하면서부터 헬리콥터의 진미를 조금씩 맛볼 수 있었다. 헬리콥터는 저고도 비행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에서 불과 몇 백피치트르 항법을 계속해야 할 때도 많다. 저고도비행은 고고도 비행에 비하여 항법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도비행에서 맛볼 수 없는 또 다른 멋과 즐거움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더운 여름철에는 집 뒤 조그마한

마당에서 몰래 목욕하는 촌색씨들의 모습도 본의 아니게 실례하는 때도 있으며 겨울엔 하얀 산속에서 노루들이 뛰어가는 그림같은 풍치도 구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슬펐던 일도 많았다. 이제 겨우 3년밖에 되지 않는 나의 비행생활 중에서 가장 슬펐던 일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68년3월 홍성 상공에서 순직한 김귀남대위의 유해를 실고오던 때와 서해바다에서 야간사격 중 순직한 김형철대위의 유해를 찾아갔을 때다. 김귀남대위가 순직한 그날은 아침부터 흐린 날씨였다. 정오가 가까워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가 항공기의 추락사고 이야길 들었는데 조종사는 아직 생사를 잘 모르는데 BAIL OUT 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안병문소령님과 나는 이륙해서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이륙하자마자 질게 흐리던 하늘엔 함박눈이 펄펄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눈이 온다고 비행을 포기할 수 없었다. 지금 조종사는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만일 BAIL OUT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이 추운 날 산골에 신음하고 있다면 하고 생각할 때 촌음을 지체할 수 없었다. 어서 빨리 가서 구출하자는 일념으로 눈 속을 뚫고 사고현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광주에서 아침식사를 하다가 김형철대위의 비보를 듣고 그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고향집 앞마을에 착륙했을 때 행여 아드님이 온줄 알고 반기며 뛰어나오시던 김대위 부모님들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픈 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서해안에서 풍랑으로 죽음직전에 있던 어부들을 구출해 주어 호뭇하던 때도 있었고 위도에 간첩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보다 많은 병력 공수를 위해 바빴던 일들은 또한 잊을 수 없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닥칠 것이나 부디 보람차고 즐거운 일들만 찾아오고 행여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구조비행 대대의 모토를 다시 한 번 외어 보며 헬리콥터의 소리를 듣는다.

Rescue service that others may live.

## 기상예보자의 아내

이화자

(대위 윤목인 부인)

우리 집 그이와 결혼한 지 어언 4년을 접어든다. 못을 드니 처음 그이를 대전 훈련소에 면회가서 만났을 때 모습이 생각난다. 검붉은 얼굴에 흰 테를 두른 모자하며, 어깨의 견장, 모두 그이를 믿음직스럽게 보이게 했다. 그이가 다이아몬드 하나를 달고 결혼을 했다. 지금은 어깨가 무거워 보이는 대위 계급장이지만 그때 처음 소위 계급장을 단 모습은 지금보다 더 인상적이었고 더 자랑스러웠다. 그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리를 걸으면 무언가 보석을 달고 몸치장을 한 것 보다 기웠다. 그리고 이따금 사병들이 손을 올려 인사를 하면 나는 벽찬 기분에 얼굴이 화끈했고 그들이 우리 곁을 지난 다음 그이의 얼굴을 훑쳐보면 그이는 묵묵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걷고 있는 것을 보면 한층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그이는 대전에서 6개월간 특기교육을 받았다. 그이의 특기가 기상이라 했다. 교육을 받을 때만해도 나는 그이의 하는 일을 잘 몰랐다. 아침저녁 출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었기 때문에 다만 남들처럼 그렇게 근무하면서 아마 날씨를 알아 맞히나보다 했다.

교육이 끝나고 그이가 오산으로 전속하고부터 그이의 출퇴근과 생활이 달라졌다. 나홀인가 한 번씩 야근을 하고 어떤 날은 일요일도 출근을 했다. 도시 그이의 출퇴근이 종잡히지 않으며 공휴일도 명절도 따로 없이 근무하는 것이 불만스러웠다. 자연 집안일도 계획이 서지 않고 수련스러웠다.

어떤 날 비가 억수처럼 뿌리는 밤에 그이는 야근을 하러 가고 혼자 밤을 무섭게 지내며 짜증이 났다. 다음날 아침엔 공연히 투정 아닌 투정을 그이에게 하고 나서 후회 하곤 하는 날도 많았다.

부대에서 야근하고 피곤하신 분에게 너무 지나친 것 같았다. 서울 친척집에 그이와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쫓아보니 그이 근무였다. 더구나 일요일이라 출근하는 분에게 도시락을 드리며 『무슨 군인이 일요일도 없어요』하고 특썩주고 나서 하루 종일 언짢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날도 있었다.

하루는 그이가 돌아와서 『밤에 비가 올 것 같으니 준비 하구려』하신다. 나는 나대로 『비는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요, 하늘이 멀쩡한데』하고 혹시나 해서 빨래를 걷어치우고 뜰에 흩어진 신발들을 들여 놓고, 장독을 덮어두고, 준비를 해두었더니 밤사이 비가 흠뻑 왔다. 나는 일어나자마자 무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수선을 피웠다. 『여보, 여보 일어나봐요. 비가 억수로내렸어요. 아흠, 저 마당좀 봐』 그이는 비시시 눈을 비비고 당연한 듯 『응,비가 좀 왔나』하신다. 한번은 그이 말을 믿고 우산을 들고 시내에 나갔다가 날이 쨍쨍한 바람에 서먹한 날도 있었다.

이웃집 사람들은 그이가 매일 집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모양이다. 하긴 하루 근무하고 다음날 야근하러 갈 때 까지 집에 머물고 다음날 야근하고 와서도 그 다음날도 집에 있으니 그런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야근하시는 그이는 더욱 신경을 많이 쓰시는 일이라 처음엔 무척 피로해보이고 과로하시는 것 같았다. 또 야근을 하시는 날, 남이 쉬는 공휴일, 명절날 출근을 하면 괜시리 이웃집 아낙네들이 미워지곤 했다. 차츰 세월이 가면서 질서가 잡혀갔다. 그이가 야근인 날도 쫓아보고 비번인 날을 헤아려 계획을 세우곤 했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그이 의 일에 신경이 쓰이게 됐다. 그이가 집에 와서도 가끔 하늘을 쳐다보시고 하시니 덩달아 나도 하늘과 구름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그이가 오늘은 날씨가 개인다고 예보했는데 하고 찌푸린, 하늘을 보고 걱정하면 나까지 근심에 잠기게 됐다. 전엔 듣는 등 마는 등하던 라디오 날씨 예보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어 『여보, 내일 비올 것 같아요? 관상대선 내일 비온다 하던데요』하고 걱정스레 물으면 『글쎄』하고 묵묵히 하늘을 보시는 분을 지켜보는 버릇도 생겼다.

이제는 그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들며 많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고 더욱 공군의 중추를 이루는 비행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라 생각하니 하시는 일이 자랑스럽게만 느껴지나보다.

퇴근하신 그이가 『여보, 이제 장마가 그친 것 같아』하신다. 그이와 나는 하늘을 쳐다봤다. 뭉게구름이 뭉게 뭉게 하늘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군중코너>

### 양심과 신앙

군목 김두식

서언

- ① 양심의 본질
  - ② 양심의 작용
  - ③ 양심과 군인
  - ④ 양심과 신앙과의 관계
- 결언

서언

“양심대로 살자”, “양심은 속일 수 없다” 등으로 양심에 대한 말을 많이 듣는다. 과연 사람은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양심을 살려 나가는 것은 인간생활의 이상이다.

저 양심에 대하여 생각하고 양심과 신앙과의 관계를 고찰하여보기로 하자.

#### 1. 양심의 본질

양심은 희랍어로 Suneidesis라고 한다. 영어의 Conscience, 라틴어의 Conscientia에서 유래했고, 이 말은 「함께 안다」는 뜻이다. 독일어의 Gewissen도 Ge(함께)와 Wissen(안다)이 합해서 된 말이다. 양심의 영독어는 그저 개인이 알뿐만이 아니라 만인과 함께 아는 지적분별을 표시한다. 양심이란 한어는 맹자의 고자장(告子章)에 있는 구절에서 나왔고 「인의지심」(仁義之心)에 통하여 왔다. 후년에 「왕양명」이 쓴 양지(良知)는 영어, 독어의 양심과 역시 같은 뜻이다. Scholastic 학도는 Synteresis(양지, 양능)이란 말을 쓴다. 양심의 성질에 관해서는 시대와 교양과 환경을 따라 해석이 구구하다. 예를 들면,

(A) 봉건사회에 있어서 군주에 대한 충성은 비단 강자의 압력에 대한 피동적 복종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신하 자신의 양심의 명령이었으며 신하의 자유의지가 선택한 바 있었다. 그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위정자에 대한 존경과는 본질적으로 판이한 심정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충성이라는 양심이 없다.

(B) 철저한 기독교인의 양심은 심중에서 음탕을 상상만 한다고 해서 간음의 가책을 받는다. 한편 사모아섬의 소녀들은 결혼 전에 수명의 애인을 가져도

비난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도 없다.

(C) Australia의 어느 족속은 자기족속 중에서 누가 죽는 것은 인근의 다른 족속이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인근의 족속 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친근자의 사망에 복수하는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양심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음은 구대여 극단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신변 가까이 이를 볼 수 있는 평범한 사실이다.

고대는 양심신성설, 근대는 양심능력 설이 통했으나 현대에는 도덕의식설이 통하고 있다. 이 상 세 가지 중 후자가 제일 타당한 견해라고 본다. 즉 양심은 자기가 한 행위의 적, 부적이나 혹은 정, 부정을 직각하는 의식이다.

다시 말하면 양심의 자기 행위를 스스로 판정하는 일종의 선천적인 즉각의식 입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심은 내적인 판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칸트는 양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하였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거리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덕율이 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갖는다”라고 하였다\* 또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재판관이 있고 그에 의해서 감시 되고 협박받고 일반적으로 경외하는 자기 자신을 찾는다. 내심의 법칙을 감시케하는 이 위력을 자기자신의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위력은 각자의 본질과 합체해 있는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벗어나려고 할 때에 그 양심은 신체의 그림자와 같이 따라 붙는다. 사람은 환락과 안일에 의해서 자기 양심을 마비시키고 졸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서나 자기각성을 피할 수는 없다.

#### 2. 양심의 작용

양심의 작용은 내밀한 작용이다. 외부에서 남이 볼 수 없는 작용이다. 그러나 그것의 위력은 외부적 권력, 재력, 폭력보다도 더욱 무서운 힘을 갖는다. 아 힘 까닭에 자기가 범죄한 악행에 대하여는 자신을 방어하는 힘을 잃고 마음의 기쁨과 안정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경 잠언에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고의 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고 했다.

과연 범죄자는 체포하려는 사람이 없음에도 자신의 구속을 느끼고 호령하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공포에 떠다. 양심의 발동에는 적어도 세 가지 단계가 있어야 한다.

(A) 어떤 「절대적인 길」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절대적인 길은

누구나 마땅히 걸어야 한다.

(B) 그럼에도 자기는 그러한 절대적인 길에서 어긋나서 어떤 특수한 것의 욕했다는 의식이다.

(C) 절대적인 길과 자기의 특수한 것과의 비교하는 계단이다. 이 셋째 계단에서 내심은 자기의 소행을 선과 악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이다. 이상의 설명에서 양심의 작용은 타율적이지 않고 자율적인 것이 알려진다. 범인에게 있어서는 타율적인 강제가 무서운 것이로되 양심적인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율적인 강제가 도리어 가장 무서운 것이요 견디어 낼 수 없는 것이다.

실로 양심은 원고인 동시에 피고이며 증인이며 재판관이며 판결인 것이다. 세계 사상에 일찌기 유례가 없을 만큼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격심한 현실에서 「양심」을 말하면 아무런 반응도 없고 한낱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양심은 약자의 대변이요 비극의 주인공이 라는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옛 철인들은 양심을 가져라. “양심을 따르라. 양심의 가책을 알라”고 했다. 양심은 현대에도 윤리의 최고 가치이며 미덕이다. 인간이 인간다운 가치는 맑은 양심의 소유에 있는 것이다.

### 3. 양심과 군인

군인은 국가의 헌법도 군대의 규율도 지켜야 하지만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자의 양심 의 지상명령을 그 무엇보다도 더 잘 지켜야 한다. 즉 인습적, 전통적, 타성적 행위에 대해서 양심의 법정의 권위에 입각하여 비판적, 회의적, 반성적 태도를 취하여야한다. 여기서 만이 자아의 변화와 혁신과 생활의 쟁화, 순화, 심화가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발전적, 창조적, 진취적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다. 그러면 군인으로서 어떠한 것이 양심적인 행동인가?

(A) 청렴결백해야 한다. 군인은 언제나 악을 멸하는 정의의 상징이요, 민족의 양심이 되어야 한다. 푸른 소나무는 험악한 산봉에서 그 빛이 푸르고 대나무는 북풍 찬바람에 시달려 그대가 굳어지고 매화는 찬 눈 속에서 향기를 진동하고 연꽃은 더러운 시궁창에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듯이 군인은 계급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제한을 받아 어려움이 많은 환경 속에서 양심의 등불을 밝혀야 할 것이다.

(B) 군인은 항상 공명정대해야 한다. 인간은 감정적 동물로서 충동, 정실, 이해, 파당, 억압, 정욕 등으로써 이성과 양심을 잃고 정도를 탈선하기가 쉽다. 양심의 지시는 냉철하고도 항상 공명정대하다. 군인은 대아를 위해서

소아를 희생시켜야 한다.

### 4. 양심과 신앙과의 관계

군인은 애국심이 강해야 하고 국가와 의를 위해서 용감하여야 한다.

군인은 국가와 의를 위하여 죽음을 초월해야 되며 군의 질서와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이러 한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확고한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푸르타크」는 “양심은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다음에 기록된 율법”이라 하였다. 「존 뉴맨」은 “양심은 종교의 창조적 원리”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말들로 비추어 볼 때 양심 과 신앙과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양심은 그 근원을 종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양심은 신의 음성” 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

### 결언

신은 양심의 주인이요 근원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양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양심의 표현을 그리스도에 둔다.

인격의 높은 양심이다.

이 양심이 어두우면 전 인격이 어두워진다. 불의와 부정이 날뛰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양심을 도로 찾고, 신앙을 통하여 양심을 개발하는 운동이 있어야 하겠다.

## 양심과 정의

-우주적 정의에 근거한 양심의 확대-

군목 김현기

1. 사고방식의 변화와 양심 문제
2. 애국심과 순결성의 갈등
3. 양심은 기능적이며 동사적이다.
4. 양심과 정의의 확대

(우주적 정의에 근거한 양심의 확대)

1. 사고방식의 변화와 양심문제

하아비 콕스(Harvey Cox)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인간의 사고방식도 변화한다

고 보았다. 즉 목축시대의 부족사회에 있어서는 신화적이었고 농경시대의 지연적 마을사회에 있어서는 형이상학적(추상적)이었으며 직농시대의 도시화한 금일의 사회에 있어서는 형이하학적(과학적 또는 기능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임시 공휴일인 7월 21일 오전 11시 56분 20초에 암스트롱과 올드린의 두 우주인들이 월면에 착륙하여 산책함으로써 45억년의 달의 신비의 베일을 벗기게 되었다. 놀라운 우주과학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류의 사고방식도 우주적 4차원의 사고방식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인류의 양심도 동사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며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불란서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가부리엘·마루셀은 아폴로 11호의 성공을 앞두고 이제 인류는 공동의식(즉 양심)의 확대 강화가 긴급하다고 역설 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양심 의 확대로 말미암아 인류는 무자비한 계급투쟁의식이나 협소한 민족주의 감정을 해소시키고 대신 일류의 “일체의식”으로 제3차 대전을 지양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윤리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급격히 변천하는 우주시대에 있어서 상황 윤리적 입장께서 볼 때 <양심과 정의>는 마땅히 확대하여야겠다고 느껴진다.

### 2. 애국심과 순결성의 갈등

후레취 (Joseph Fletcher)가 언젠가 뉴욕(New York)으로 가면서 비행기 속에서 “성서적 신앙과 사회윤리”란 책을 읽고 있었다. 바로 옆자리에는 28,9세 정도로 보이는 미묘의 여인이 값진 옷으로 매력적 차림새로 앉아 있었다. 그 여자는 후레취에게 말을 건네었다. <저는 도저히 풀래야 풀 수 없는 문제거리가 있어요. 아마 당신은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말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고 하였다. 그 젊은 여성은 교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일류 대학을 마치고 당시 워싱턴시장에서 여자용 양말 구입계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여자는 또한 말하기를 <저희 정보국에서는 저더러 원수국의 기밀을 빼내기 위하여 내 몸을 이용해서라도 정보 취재를 해보라는 것이예요>라고. 양심의 고민을 토로하는 것이었다. 관리기관에서는 그 여자를 유럽의 어떤 도시에 적국일로 나와 있는 적국의 기혼 남자의 비서로 보내면서 압력으로 강압은 하지 않으면서도 종용하기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에 가서 몸과 생명을 바치는 당신의 오빠들의 모험과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는 수행될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과 같이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는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미모의 여성은 후레취에게 애국심(사회 정의와 관계되는 개념)과 성적 순결성(개인적 신앙, 양심과 관계됨)의 갈등을 느끼고 양심의 결단을 위하여 바른 판단력을 바랬던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현실 사회생활에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사회정의의 견지에서) 본폐폐 목사와 같이 나치의 괴수 히틀러 암살사건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아가페 (Agape)와 정의의 계정에 있어서 그 스케일을 확대시켜 본다면 트루만 대통령과 같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시킬 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보다 나은 정의 편에서 양심의 결단을 과감히 내려야 할 경우가 적지 않다.

### 3. 양심은 기능 작피며 동사적이다.

조셉 후레취(Joseph Fletcher)는 양심을 하나의 기능(Function)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특별 한 성능을 가진 하나의 기관(Faculty) 으로 보지 않았다. 상황윤리에서는 양심도 다만, 그것이 어떠한 작용을 하며 발전을 하고 결정을 하여 가는 때에만 양심으로서 취급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양심에 관하여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원리들이 있는데 상황 윤리학은 그중의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후레취는 말했다. 그 원리중의 첫째는 양심을 기관(Faculty) 으로서 타고 나는 것으로 본다. 즉 양심은 본성적인 것이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능으로 생각하여 그것은 직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둘째 양심은 성령 또는 하나님(기독교의 삼위일체의 신)으로 부터 인간에게 영감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셋째 양심은 사람들이 처한 문화와 사회의 가치 체계에 의한 투사의 현상이 라고 보고 있다. 즉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나 환경 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보았다. 넷째 양심은 토마스 아퀴나스 계열의 학자들이 말한대로 이 성이 내리는 도덕적인 판단 또는 가치 선택 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 윤리학자는 이와 같이 양심의 존재론 기타의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황 윤리학자 조셉 후레취의 말에 의하면 양심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일반적인 오류를 범해 왔다면 그것은 동사적인 데보다도 명사적인 데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하아비 콕스 (Harvey Cox)가 “세속도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인간의 사고방식은 신화적인 것에서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형이상학적인 것에서 형이하학적(과학적 또는 기능적)사고방식으로 변해 왔다. 그렇다면 인간의 양심도 명사적 고정상태에서 동사적으로 결단하는 과정(또는 행위)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닐까.

후레취는 양심에 관하여 새로운 견해를 피력했다. 즉 <양심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양심이란 말은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인간의 시도를 나타내기 위한 어휘일 뿐이다>이러한 견해는 그야말로 창조적이며 혁명적인 선언이다. 현대인은 양심을 선행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을 동원해서 결단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과 같이 다원화하며 급변화하는 혁명시대에 있어서는 양심을 명사적으로 생각지 말고 사랑과 정의에 입각하여 동사적으로 창조적으로 결단하는 과정(또는 행위)이 바로 양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 4. 양선과 정의의 확대

양심은 기능(Function)적이며 창조적으로 건설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인간의 시도를 나타내기 위한 어휘라고 생각한다면 “양심”이란 개념이 무한히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창조성과 혁명성을 지닌 기능으로서의 양심은 <우주적 정의>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후레취는 그의 상황윤리 (Situation Ethics The New Morality)에서 “사랑이 의이고 의가 곧 사랑이다”라고 하였다. 사랑과 의의 관계는 대립도 양자택일도 상호보충의 관계가 아니고 의가 사랑이고 사랑이 곧 의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별집과 같은 다원 사회에서는 연대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가 앞뒤를 가리고 신중하게 이성을 동원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관적, 감상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전체사회 또는 대다수의 이웃의 행복을 계정하여 참된 사랑을 표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레취는 사랑과 의는 동일한 것이라고 보았다.

후레취가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적극적이며 총체적이며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사랑의 개념(또는 정의의 개념)은 비약하였고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지역, 한 시대, 한 사회, 한 환경의 제약받는 "정의"개념에서 탈출했다고 볼 수 있다.

오늘의 우주과학시대에 있어서의 «정의»개념은 우주적이어야 한다. 우리 인류는 무한히 비약 확대된 정의 (또는 사랑)에 입각하여 자연 양심도가 브리엘 마르셀이 피력한 바와 같이 새 통풍을 맞이하는 공동의 식(양심)의 확대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우리 한 국민의 대다수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사만(무당)적 이고 사회적이며 추상적(형이상학적인) 고루한 양심에서 탈피치 못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제 도시화, 과학화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창조적이며 기능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더욱이 아폴로 11호의 달 산책의 승리로 우리의 사고방식은 우주화하는 과정에 있다. 여기에 따라 우리의 "정의와 양심"도 우주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인류는 보다 완전무결한 정의감(또는 사랑)에 따라 인류의 참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쟁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류의 "양심"도 확대된 "정의"에 근거하여 동사적으로 결단하는 기능으로 보아 모든 사건을 창조적으로 해결하자.

### 화인맞은 양심

디모테 전서 4:1-2

군목 최원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므로 거짓말 하는 자들이니라.” (딤후 4 :12)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이 무엇이나 묻는다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생명이라는 말에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떠나간다면 아무리 평정한 황금이나, 명예나 권세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가장 귀중한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보람있는 삶을 창조해내는 것이냐 아니면 수치스런 삶을 빚어내는 것이냐에 따라 생명의 가치가 다시금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거라고 들을 만큼 저주 받을 삶이라면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대로 일찍이 죽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태어나지 않았음이 행복할 존재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찬 생활로써 보람을 느끼며 즐겁게 살 수 있다면 그야말로 그의 삶은 성공이요 그의 생명은 가치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보람있는 삶을 이어가면서 우리의 고귀한 생명으로 하여금 그 고귀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에 관하여 오늘의 본문말씀은 영감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바 대로 신앙생활을 떠나 악마의 사악한 교훈을 좇아가는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므로 거짓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쇠로 만든 도장을 불에 달구어서 찍어 버린 것처럼 결단나고 마비된 양심의 소유자는 이미 악마의 사육을 받은 것이며 그 결과는 표리가 부동하는 거짓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환언하면 선한 듯 하면서 암을 행하고 진실한 듯 하면서 속임수를 쓰고 말은 그럴듯하지만 행동은 기대에 어긋나는 일 등이 모두 외식하므로 거짓말을 하는 화인 맞은 양심의 소행인 것입니다.

이러한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있는 한 삶은 갈수록 괴로워지며 생명은 연장될수록 치욕될 뿐입니다.

가치없는 것이 썩을 때 보다는 가치있는 것이 썩을 때 악취를 더 풍기듯 인간의 가장 고귀한 생의 조종자인 양심이 화인 맞아 추하게 썩어갈 때는 말할 수 없는 악취를 풍으면서 주위를 불리하게 하고 그 사회와 국가를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상을 잠깐 살펴본다면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로 인하여 가짜가 활개칩으로 악취가 풍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박사로 인하여 학문의 권위를 흐리게 하고, 가짜시계로 인하여 시간의 이미지를 몽롱하게 하고 가짜 유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암영을

던져주고 가짜 약품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가져다준 일 등은 모두가 악령의 지령에 따라가는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들의 발악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행들은 바로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이중의 속임수며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이중 살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양심적 소행은 진실과 등진 악마의 소행인 거짓으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위선과 거짓으로 생활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이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가 되었음이니라”(요한복음 8:44)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일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생활전체가 진실로써 가득 찰 때 양심은 살아서 선하게 역사하는 증거이며, 거짓과 속임수로 삶이 얼룩져 있을 때 양심은 화인 맞아서 마비되어 있음을 들어내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외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꿈에라도 맞시다. 혹 꿈에라도 했다면 깨어나 뉘우칩시다. 거짓은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또한 호오모스는 말하기를 “죄악에는 허다한 도구가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한 것입니다.

참으로 고금동서를 통하여 거짓으로 성공한 예는 없으며 거짓은 시간의 심판을 무자비하게 받아왔던 것입니다.

아무리 그레삼(Gresham)법칙(악화)는 양화를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지만 양화는 악화를 몰아낼 수 없다는 원칙이 공인되는 것 같지만 역사의 흐름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살아야만 될 것은 없으나 그러나 반드시 참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바로 양심의 마비를 뜻하는 것이며, 인격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 그것은 거짓으로써 위선을 자행하는 비인격적 생활의 요소이며 바로 악령의 역사적 근거지임을 재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인 맞은 양심은 창조적



역사 속에 들어가서 본래의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창조적 역사가 신앙의 역사인 것입니다.

## 소리 없는 양심

군목 이준학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

기독교 신학의 설립자요,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위대한 선교의 업적으로 세계적인 교회의 기초를 확립한 사도 바울은 총독 릴릭스 앞에서 말하게 되었을 때 그는 위의 성경을 당당히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의 제자 중 가장 대표되는 제자, 베드로도 세례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 을 향하여 찾아 가는 것이라(벧전 3장 21절)」고 말했습니다.

사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교되는 입장에서 그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일본의 가가와 도요 히코씨가 말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양심에 대해 깊이 말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의 종교인 기독교가 세계문화사의 내적 기초가 되었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와 가장 큰 조직을 가지고 현대인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자부할 때 우리는 「세계에서 양심의 건재」를 실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그 점에서 우울한 장래를 예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백을 소목[현대인]이라는 인간상 안에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 「현대인」은 양심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심」이라는 추상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어리석거나, 시대감각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풍조마저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과학은 모든 추상을 배격하고 구체적인 증명을 통해서만 그 진가를 인정하려

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풍조 때문일까요? 양심은 추상명사입니다. 양심은 말하되 소리를 발하지 않습니다. 소위 「현대인」은 귀의 고막을 자극하지 않는 소리없는 말은 인정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물주의」 「과학」이라는 어리석은 소위 「현대인」을 봅니다. 그래서 「유물주의」가 공산주의만의 것이 아닌 소위 「현대인」의 신주인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양심관보다 더 슬픈 소위 「현대인」의 양심의 확대를 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악하게 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양심을 기피하고 부정하는 풍조입니다. 양심은 소리 없어도 루소가 「양심이여! 그대는 선에 대한 그릇됨이 없는 재판관이다. 그대만이 인간을 하나님 닮은 자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 한 것처럼 타락한 인간성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에서 가장 구체적인 신의 계시로서 율법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게 되었을 때 양심의 가냘픈 빛마저 없었다면 그야말로 오늘의 문화를 이룩했겠습니까?

양심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변함없이 인간의 길을 밝혔고, 말하고 있으며 말할 것입니다. 결코 귀의 고막을 자극하지 않아도 양심은 하나님의 속성!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 양심의 소재

<행 7:54-60>

군목 이영렬

###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 . .

복음은 으레 사람들 「양심」에 호소한다. 그러면 양심은 그 사람의 의지를 통하여 어떤 행위의 「결단」을 이룬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다』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나 ‘예수’의 경우에도 실은 그 말씀이 당시 민중의

「양심」에 부딪쳐서 「새 사람」, 「거듭난 생활」을 가져 왔던 것이다. “바울”도 「양심」이야말로 신 앞에서의 심판의 척도임을 시사한 바가 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양심」의 거처가 사람들 「마음 속」에 있었다. 귀로 들어서 가책을 받기도 하고 혹은 귀를 막고 일부러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모두 「자기」마음 속에서 「자기」가 결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양심」의 거처가 「종교집단」속으로 옮겨갔던 경우를 본다.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인 경우를 보면 「개인의 양심」에는 스테반의 말이 타당하나 「종교적 양심」에는 거리끼기 때문에 「귀를 막고」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것이다.

이렇게 「양심」이 「집단의 불모」로 옮겨간 경우는 허다했다. 그리고 또 오늘날도 허다히 있다. 「현실적 상황」 속에도 「양심」에 잡히고 도둑질도 합리화한다. 오늘날 「양심」은 쾌락적 물질」에 함몰되어서 그 기능을 잃었다. 약자의 희생은 「조국 근대화」란 이름아래 깔리고 정치적 신념이 변절되어도 양심의 소리는 없어졌다.

그리고 보면 양심의 거처가 어디 있는지 그 소재가 궁금하다. 사람들 마음 속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여 그 사람을 지배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양심이 「종교집단」에 들어가서 「독선」과 「비타협」의 형태로 변하고 정치집단에 들어가서는 「이권」과 「대세」에 굴종하고 집권층에 들어가서는 「부정」과 「부패」와 결탁하는 형식으로 변절했으니 여기 옛날의 「양심」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 수 없다.

『회개하라』이 말은 애꿎은 「약자」에게나 들릴 수 있을지언정 「양심」을 탄데 잡힌 「회개해야 할 사람」에게는 아마도 「들을 수 없는 귀」일지도 모른다. 『마음에 찢려』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양심 복고」의 운동은 조국 근대화 작업에 앞서 꼭 필요하다.



### 암흑을 뚫고

이상욱  
(시사통신 상무이사)

1946년 1월, 해방되고는 처음 맞이하는 새해였다.

이 1월에 접어들게 무섭게 어제까지도 반대 하던 신탁통치(信託統治)를 후견(後見)이라는 이름아래 공산당은 지지하고 나서는 것이었다.

영문을 모르는 일반시민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다.

거리에는 벽보가 나붙고 직장마다에는 공산당 선전원들이 파견되어 어제까지의 반대를 지지하게 된 이유를 납득시키기 위해 역설하고 있었다.

모스크바 3상회의는 이 나라의 굳건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우리들을 뒤에서 봐 주게 돼 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애와 같은 나라다.

갓난 애기를 세계 강대국에서 돌봐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후의에 감사하여 이를 적극 지지해야 한다.....』

대체로 이러한 엉터리없는 선전이였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나선 그들은 소위 사회단체의 명목으로 군중대회를 열어 이의 지지를 성토했다.

지지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군중들을 끌고 가기에 혈안이였다. 그러나 소위 그들이 부르는 지식인(知識人)들의 머리에는 신탁(信託)이란 두 글자가 몹시 귀에 거슬렀다.

해방되었다는 조국이 다시 일본 아닌 다른 나라에 의해 5년간 신탁통치를 받아야 하는가? 하고자(自問)할 때 어린 가슴에도 지극히 회의심을 품게 했다.

이때부터 북한사회는 민족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완전히 구획을 이루게 되었다.

아니 또 이때부터 은인자중하던 사람들도 자기의 태도를 명백히 하기 시작했다.

정치의 변화가 조변모개하고 보니 주민들은 차츰 공포에 떨게 되었다.

그것은 소위 정권을 만들어 지도자연하고 나선 공산당 몇몇이 국제 정세의 판단 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다.

이리하여 뜻 있는 사람들은 정든 고향을 버리고 남하하기 시작했다. 더 우기 8·15광복의 기쁨과 함께 멀리는 중국 대륙에서 고국 땅이라고 찾아 온 조국이 그렇게 보니 정든 고향에 못할 겨를도 없이 그 붓집 그대로 돌려 메고 38선을 넘어야 했었다.

만주나 중국대륙에서 묶어 맨 못짐을 풀어 볼 겨를도 없이 떠나야 했다. 이러한 때의 민심을 본다면 역시 타향에서 겨내 던 사람들은 고향에 들렀다 가도 서슴지 않고 훌훌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 있었으나 농토와 향수(鄉愁)에 집착된 영세농민은 그러한 용단을 내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으레 찌그러진 오막살이와 여위고 할켄 땅에 매 달려 끝내 살아가야 하는 것을 천명으로 알고 있는 것이 농민들이 지닌 당연 성이었다.

이리하여 북한 땅 이곳저곳에서는 어저께까지도 뵈던 사람이 밤을 새우고보면 행방이 묘연했다.

물을 필요도 없었다.

어떤 집은 온 가족이 몽땅 떠나는가하면 일본 가서 공부했다던 아무개 서울 가 공부했다던 누가, 학교 훈장을 하던 아무개 등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좁 눈을 뜬 청년들은 공산세계의 내일을 점쳐보고 고향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한 땅에 친지나 반겨줄 사람이 고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유」란 두 글자에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민족의 주체성에 감명되었던 것이었다.

**움트기 시작한 학생운동  
「정로동맹」 사건이 계기**

그 어느 세력 보다 집단체의 행동통일이 가능한 것이 학생층이었다. 사실 직장의 집단 체단 생활의 위협 때문에 행동의 위협이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사회이고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왜냐하면 원래 성년(成年)이란 짧디 짧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 행동에는 주저하는 게 보통이다.

직장을 버리면 당장 목구멍에 거미줄이 쓸 걱정 때문에 행동에 자신을 가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우같은 마누라와 토끼같은 자식을 생각할 때 그 과감성을 잃고 만다. 이러한 기성세력에 반해 학생층은 그렇지가 않다.

으레 저돌적이고 또 증치는 힘이 강하다.

또 학생 집단이란 격정(激情)에 감수성이 강하다.

그에 다 20대 전후의 반항의 식 (反抗意識)은 때때로 기성세대를 괴롭히게 마련이다.

이러한데서 북한의 곳곳에서는 민주의 봉화가 울려졌다.

그 대부분이 학생들의 주동세력이었다.

크게는 신의주(新義州) 함흥(咸興)을 들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에 못지않은 학생사건이 함경북도 길주의 길주농림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정로동맹(正路同盟)이었다.

함경북도 내에서는 가장 앞장 선 것이었고 또 주장이 뚜렷했다.

**학생들도 두 파로  
공부를 제 1위로**

학교가 개학됨에서부터 공산당은 학원에 손을 뻗이기 시작했다. 학원 내의 자유주의 경향에 「브레이크」를 걸 심산이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우선 학원 내에 소위 민주청년동맹이란 청년단체를 구성시켰다.

결국 이는 사회단체면서 학원의 자율(自律)을 꾀한다는 것이었다.

말로는 학생의 사회 참여를 표방하고 나섰다.

더욱이 이 청년동맹은 일반사회의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으로 그 간부들의 회합은 사회단체 간부들과 연석회를 가지는 것이 거의 상례(常例)였다.

이름은 「XX학교 민주청년동맹」이라고 내세우는 것이었다.

청년동맹을 조직시킨 공산당은 이 때부터 그 간부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간부가 됐다가 그들의 마수(魔手)에 끌려 끌려 들어갈 참이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학생은 이미 그들의 공작에 걸려들어 간부가 되려고 무진 애를 쓰는 놈도 있었다.

당시 길주에는 중학교(고등학교), 농업학교, 공업학교, 여학교 해서 4개의 고등학교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농업학교가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또 일제 때 감중학교였다.

항일(抗日)에도 앞장 선 학교였지만 해방이 되고 보니 반소(反蘇) 반공(反共)에도 날카로운 학생기풍이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일제 때만 해도 공립중학교에 학교를 보낸다는 것은 농촌에서도 생활이 중류 이상이 아니면 보낼 수 없었다.

또 그에다 입시(入試)경쟁은 대단했다.

최하가 10대1의 경쟁이었다.

때문에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그들이 말하는 중농(中農) 이상이 아니면 관리의 자녀 또 한 상업(商業)하는 사람들의 자녀가 많았다.

이러한 가정은 해방으로 인하여, 대체로 농토를 빼앗겼다.

소위 그들은 토지개혁이라 하여 경작능력이 없는, 다시 말하면 자작(自作)하지 않은 땅은 모조리 빼앗겼다.

득은 소작하던 사람이나 머슴사리를 하던 사람만 보게 됐다.

이렇게 되고 보니 학생들의 대부분의 가정은 땅을 빼앗긴 집안이었다.

으레 있었던 일이지만 부모가 장사를 하면서 마련한 땅을 모조리 잃은 것이다. 또 아버지가 관청이나 회사에 다니면서 겨우 시골에 땅 몇 마지기 사놓은 것을 몽땅 빼앗기는가 하면 짓던 밭농사도 너무 비대하고 머슴꾼을 뒀다는 이유로 절반 내지 그 이상을 빼앗겨야 했다.

이러한 것을 안 20 전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도 불평인데 모이기만 하면 시국에 대한 비평이요 공산당에 대한 욕설이었다.

이렇게 되자 학생들도 자연히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보면 민주진영과 공산「클럽」인데 당시는 그러한 커다란 이념보다 공산당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학생과 찬성하는 두 갈래였다.

찬성 하는 학생이란 가정에 공산당에 물든 사람들의 마수에 걸려 움직인 학생들이었다. 학원 내의 분위기는 이 때부터 차츰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이 당시 길주농림학교 소위 「민청」 간부 10명 중 공산당을 찬성 하는 놈은 꼭 두 사람뿐이었다.

부위장이었던 김XX와 총무를 맡고 있던 권XX이었다.

물론 학급에 내려가서는 그렇지 않았다. 서로 비등한 대세로 선출되었는데 중추 간부진은 반공적인 색채가 농후했다.

이때 위원장이었던 민정한(閔貞漢)군은 안모 마모 입모군들과 규합하여

행동의 통일을 숙의했다.

『우리는 바른 길로 가자. 아니 길을 바르게 걷자. 학생은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을 제 1위로 하자. 그리고 우리는 정 치 와 교육의 분리를 주장하자. 또 한 학원 내의 「민청」을 자치기구

이외에 이용하지 말자.』라는 등 현실 문 제를 내 걸고 학생들의 단결을 꾀했다.

그때 나는 민정한군과 정족했다. 다시 말하면 사회의 한 청년으로 나는 길주 시내에 있는 4개 고등학교 학생간부들을 규합하려는 심산이었다.

당시 나의 주장은 학원 내에서의 정치세력 배제였다.

그것은 결국 공산당이 학원에 백기를 박는 것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 「길농교」 간부를 관전포섭, 식장의 소련깃발 찢다가

과연 농림학교의 학생 간부들은 학교당국과 정치에 대한 불만이 대단했다.

그 첫째가 공산당에서 파견한 김모교사에 대한 반항의 축출이었다.

김은 하급학년의 학급간부들을 총동시리 네 학교 간부에 반항케 하는가 하며 그 세력을 부식시키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

이리하여 농림 학교 학생들은 그들에게 도전해오는 공산당원들과 싸우기 위해 「정로동맹」이란 비밀단체를 꾸었다.

위원장에는 민정한군이였다.

당시 나는 표면에 나서는 것보다 뒤에서 네 학교의 학생간부들을 「코우치」 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해 3월이었다.

소위 「길주군민청」은 「모스크바」3상회의의 「후견제」지지와 그들이 감행한 소위 「토지개혁」지지에 대한 학생 웅변대회를 길주극장에서 가졌다.

네 학교 「민청」은 연사(演士) 두 사람씩 냈다.

「길농」에서도 두 사람을 냈다.

물론 공산당원들이 나간 것이다.

네 학교 학생 5백여 명이 극장 안을 꽉 채웠다.

웅변대회가 시작하기 직전이었다.

그 웅변대회에 는 소위 공산당 군당(郡黨) 간부들은 물론 소련군까지도 참관하고 있었다

군당 간부로 보이는 두 청년이 식장 맞은편에 태극기를 달고 있었다.(당시만 해도 애국가나 국기는 남한과 동일했음.)

모두가 박수를 쳤다.

태극기에 대한 존엄은 일장기(日章旗)를 보고 목례(目禮)를 올리는 일본 사람 이상이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그 태극기를 식장 중앙에 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오른 쪽에 기울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별 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잠시 후 그들은 망치 낫을 그린 소련기를 그 옆에 다는 것이 아닌가.

소련기를 본 학생들은 깜짝 놀라며 소리를 쳤다.

『야야 그 붉은기는 집어 치워라!』

『집어 치워라!』

마치 합창하듯 극장 안의 학생들이 소리를 쳤다.

이때 재빨리 앞줄에 앉았던 농림학교의 이명재(4학년)란 학생이 단상에 뛰어 올라가서,

『야. 이 새끼들이 우리가 지금 소련과의 친선 웅변대회를 하는 줄 아나. 아니 또 그리고 여기가 무슨 정치집회 인줄 아나! 집어 못치워! 못치우면 내가 집어치우지.....』

하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소련기를 끌어 내리고는 짹짹 찢어 버렸다.

학생들은 붉은기를 찢는 게 흠뻑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의 용감성을 격찬했음인지 저절로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렇게 되자 극장 안은 극도로 소란하기 시작했다.

와 .....하는 함성이 그칠 줄 모르고 보일 때 였다.

소란한 공기를 뚫는 두 방의 총 소리.....

『탕! 탕 .....』

탄환은 천정을 뚫었다. 당장엔 누가 쏘았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학생들은 왁하고 입구에 몰렸다

참관하러 왔던 소련군 장교(주둔군사령관)가 쓴 것이다.

웅변대회는 파장이었다.

밖으로 몰려 나간 학생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 소련군관 놈이 쓰앗대.....하는 소리가 퍼지자,

『그 새끼를 잡아라!』

하면서 학생들은 소리 소리 지르면서도 「스크람」을 짜고 거리로 나왔다.

거리에 나선 그들은 「아아치」와 그 「아아치」에 걸린 「스탈린」의 초상화에 돌맹이를 던져 산산 조각을 냈다.

비조직적인 우발적 「데모」였다.

순식간의 충격이 그들의 감정을 자극시킨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들은 극장에서 「길주교」를 건너 영기동(營基洞)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소련군의 만행을 규탄한다.』

『소련군은 학원에 총 부리를 겨누지 말라!』

라는 구호를 부르면서 전진하고 있었다.

긴급히 출동한 것이 소위보안서원(경찰이었다).

그 뒤를 이어 소련군도 출동했다.

그들은 공포(空砲)를 마구 갈졌다.

학생들은 후퇴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어떠한 조직이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데모」가 아니었다 학생들은 그대로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길주에 있는 각급 학교 학생들은 새로운 반항 의식을 갖게 됐다.

무장한 학생들에게 실탄을 장전 하여금 공포를 쓴다는 것은 학생들의 의분을 더욱 사게 했다.

어떻게 고면 이 사건은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단결과 새로운 희망을 안겨 준 것이기도 했다.

### 조직적인 활동으로 공산당이면 무조건반대

일반 시민들도 그러했지만 학원 내에서는 점차 반공과 친공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학교 교사들도 실력 파 는 반공이요 무능한 교사는 공산주의자이기 마련이었다.

이때 길주의 4개 중학교는 농림학교의 「전로동맹」이란 학생 비밀조직이 차츰 뻗어나가기 시작했다.

농림학교는 그 조직이 거의 완전에 가까웠다.

결과적으로 학교 내의 소위 「민청」을 완전히 잡아 쥐고 1학년부부터 4학년까지 학급마다 그 조직이 형성되어 그 힘이 대단했다.

그들은 심지어 역사교재까지 「프린트」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일면 조직, 일면 투쟁 또 일면공 부리는 것을 잊지않았다.

사실 일제에서 해방을 맞이한 10대의 그들에게 아쉬운 것이 이 나라의 역사였다.

성조 단군의 이야기를 처음 들어 보고 이순신이니 을지문덕장군의 이름조차 처음 듣는 판이 었다. 이때 양모 이모 마모 세 학생은 이모교사가 가지고 있던 「민족역사」란 책을 빌려 시대별 인물전 비슷한 「팜플렛」을 내어 학생들의 대인기를 얻었다.

(물론 뒤에 이 「팜플렛」 때문에 말썽이 났지만... 그 내용이 자본주의적

역사관이라고 공산당에서 지탄을 받게 되었다.)  
 「정로동맹」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권하며 일면 반공조직을 굳게 냈다.  
 이네 나는 남한을 다녀온 김모씨를 만났다.  
 당시만 해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때였다.  
 김씨는 그때 나에게  
 『글쎄 생각해 보시오. 지금 이남은 신탁통치를 반대하기 위해 모두가 권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 36년 동안 일본제국주의 사슬에 얽매어 살던 민족이 이제 또 5년 동안 소련의 보호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래 이 민족은 일본놈이 아니면 소련놈 이렇게 상전을 모시고 살아야만 합니까.....』  
 사실 김씨는 식견이 훌륭한 청년이었다.  
 일찍부터 종교계에 방을 담아 그 논리가 정연하고 철학을 가진 의지의 사나이였다.  
 그의 주장은 물론 우리는 신탁통치를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남한처럼 왜 찬반(反)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는가 하는 게 큰 불평이었다.  
 『서울에 가보시오. 서울 거리에는 민족주의자도 공산당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며 자기의 주장을 어디서나 소신껏 내놓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세상이 이렇다는 거요. 아니 그래 공산당만이 사는 사회란말이요. 말도 안되는 소리.....』  
 나는 이렇게 김씨로 부터 해방된 남한의 모습을 거울에 비쳐보듯 살살이 들었다.  
 자유가 고귀함을 그의 체취에서 다시 한 번 느꼈다.  
 그리고 신의주(新義州)학생들이 봉기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신의주학생들의 봉기 소식을 북한에선 물론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경우는 서울서 돌아 온 김씨로부터 들은 것이다.  
 이때부터 나와 김씨는 밤낮 행동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각 학교 간부들을 만나면 이 새로운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며칠을 보냈다.  
 이 무렵이었다.  
 시내에서 약 5킬로 남쪽으로 떨어진 행랑촌(幸浪村)이란 마을에서 정장(正裝)을 한 소련군 한 사람이 타살(打殺)체로 발견되어 치안을 긴장시켰다.  
 부락에 약탈하러 들어갔다가 맞아 죽은 것이었는지 모른다.  
 어쨌든 이 사건이 난 후부터 소위 치안을

맡고 있다는 「보안대」는 미친개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심지어 가두에서 학생들의 책가방까지 검색할 정도였다.

「메데이」시가행진을  
 역이용하려다가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공산당의 소행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보다 더욱 가혹했다.  
 같은 민족 「혈통을 잇은 이웃사람」끼리 너무나 지나쳤다.  
 나는 사회 계급이 이토록 한 계급을 착취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공산당이 민족주의자를 착취해 먹어야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인정(人情)을 모르는 짐승이었다.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보다도 못한 다시 말하면 인면수심(人面獸心) 바로 그것이었다. 어제까지도 끼니조차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던 놈들이 마구 날뛰며 일제의 통제사회를 답습, 더 가혹한 수법으로 수탈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자기 집에서 받는 수모가 학원 내에 응결되었던 것이다.  
 이리 하여 농업학교에서는 공산당에서 파견한 김영봉이라는 교사의 배척운동이 시작했다.  
 김은 일제 때 중학교를 졸업하고 소학교 훈장을 하다가 해방된 공산당 바람에 일약 중학교 선생을 하게 된 것이다.  
 담당과목은 「공민」이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이 그의 주 목적이었다.  
 바탕은 없으면서도 공산주의 선전은 능변이었다.  
 이리하여 학생들은 그의 수장을 거부했다.  
 무자격 교사의 수업을 인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이었다.  
 『여기는 소학교가 아니다. 소학교 교사는 소학교로 돌아가라. 김영봉은 친일파다. 공산당원이기 전에 친일파다. 친일파는 물러가라』  
 라는 벽보가 교실 곳곳에 붙었다.  
 이렇게 되자 학원분위기는 몹시 험악했다.  
 이렇듯 공산당원 교사의 축출을 표방으로 내세운 「정로동맹」간부들은 비밀리에 5월 1일 「메데이」시가 행진을 계기로 반소시위를 벌일 준비를 착착 진행 시키고 있었다.  
 「메데이」대열에서 반소 구호를 불으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열이 흥분하여 호응하면 시내 곳곳에 세워놓은 「아아치」를 모두 부수고

나아가서는 「보안서」(경찰)와 소련 주둔군 사령부까지도 밀어 닥칠 계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은 군내 4개 고등학교 반공 학생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나는 그때 그들에게,  
『... 일제 때 친일파가 잘 먹고 살았다고 하지만 해방된 오늘에 와서 또 공산당만이 잘 먹고 권세를 부려야하겠느냐.....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유독 공산당원이래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소. 어제까지도 공장 직공이나 남의 집 머슴 사리가 아니면 고작해야 소작농에 지나지 않던 그들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또 이 공산당은 내가 알기에는 고등학교만 나오면 「인테리겐차」라고 해서 경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민족을 모조리 무식한 백성으로 만들어 노예로 삼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오.....』

나는 그동안 생각하고 또 듣고 아는 공산당의 죄악사를 모조리 그들에게 역설했다.

그리고 그들의 호응을 재촉했다.

그들은 모두가 불평이 산적했다.

『끝까지 싸웁시다. 싸워 이겨 봅시다. 만약 그들이 무기로 대항한다면 우리도 무기를 들고 싸웁시다.』

『무기?』

『있고 말고.....』

그 중 몇몇 학생들은 권총을 소지 하고 있었다. 일본군이 패망했을 때 얻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모군은 자기 집 뒤뜰에 일제 99식 소총 다섯 자루와 기관총 하나가 있다는 것이었다.

역시 일본군이 무장해제(武裝解除)를 할 때 버리고 간 것을 모아 두었던 것이다.

시기는 5월 1일 시가행진을 계기로 단행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니까 3개의 고등학교에 1개의 여학교 ..... 그러니까 길주에 있는 중학은 모조리 쫓기하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날이 4월 25일. 달 밝은 새벽 1시 15분에 생긴 일이었으니.....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감

그날도 나는 여니때와 같이 친구 몇 사람을 만나 5월 1일 거사(學事)를 숙의(熟議)하고 집에 돌아 온 것이 밤 10시 넘어서였다.

무척이도 인상에 남는 밤이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만월(滿月)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 저녁을 마치고 곧 자리에 들었다.

나의 방은 윗채였다.

당시 나는 아버님과 잠자리는 한방을 쓰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 들자 한 시간여 이 궁리 저 궁리 하느라고 공상에 잠겨 있었다.

눈을 부친 것이 아마 12시 가까이 돼서인 것 같았다.

나편에도 잠이 들었다고 감박하는 사이에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바로 행길가 집 이어서 수레 나 사람이 달려만 가는 인기척을 알 정도이기는 했으나 여러 사람이 쿵 쿵 뛰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 집이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나 다를까. 몇 놈이 자락 자락 총소리를 내면서 대문 앞에 다가와 숨을 죽이며,

『문 좀 따시오!』

나는 듣고도 못 들은 척 가만히 숨을 죽이고 사태를 주시했다.

『문 좀 열란 말이야.』

채차 고향을 지르는 것이다. 온 마을이 찌렁 찌렁하듯 소리치는 것이었다.

아버지께서 일어나시면서,

『거 누구요?』

라고 하시자,

『문 좀 열란 말: 말이요. 귀가 먹었나 빨리 열어요.....』

나는 그때 까지도 잠든 척 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시는 걸 보고 마음이 안 됐으나 좀 더 기다려 보았다.

아버지께서 대문을 열자 몇 사람인가 마당에 들어서면서,

『이 집에 이상옥이라고 있죠?』

『네 내 아들인데.....』

나는 그제서야 일어나 창문을 열고,

『누구요? 내가 이상옥이오.』

『어. 마침 있었군. 보안서에서 왔는데 잠만 같이 갑시다.』

『무엇 때문에?』

『아! 그것은 가보시면 알게 될 것을 같이 가지죠.』

나를 대하자 그들은 어쩐지 온순해진 것 같았다.

처음 떠들 때 보다는 훨씬 자중하는 표정이었다.

『그래 갑시다. 당신들이 왜 오리는지 모르겠오.....』

나는 윗옷을 좇어 입고 농구화를 끌고 밖에 나섰다.

『아버님 염려 마십시오. 저 다녀올테니까.』

라고 인사하자 아버님은,  
『무슨 일이 있었나?』  
『글쎄 몰시다. 가보면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중 한 놈이,  
『반동! 뭐 반소 「데모」를 해?』  
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참았던 화가 치밀어,  
『나는 그런 것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대열이 있으면 나는 서슴치 않고 찬동  
하고 참가 할거야..... 잔소리 말아 어서 가자\*』  
그때 아버지께서는 눈치 차리시고,  
『좋아 몸조심해. 그리고 마음을 크게 먹어야 하는 거야. 어서 가보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문 밖에 나서자 우리 집 주위에는 무려 보안서원 20여명이 집을 완전  
히 포위하고 있는 것이었다.  
정말 달이 밝았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터벅터벅 보안서를 향해 걸었다. 내 뒤에는 착검(着劍)  
한 두 보안서원이 나를 따르고 있었다. 다른 놈들은 또 줄지어 어디론가 뛰  
어 가고 있었다.  
(어느 자식이 밀고 했구나.....밀고. 김, 최.....김..... 그 자식이 위협했는데.....  
과연 그 자식이 그랬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걸었다.  
『동무 뒤 돌아보면 안 돼. 싸요. 이 총으로.....』  
『안 봐. 사나이가 앞으로 가지 뒷걸음 칠 줄 아느냐. 보라고 해도 안 볼 테  
니 그리 알아라.....』  
하고 나는 한참 걷다가 이번에는 내 쪽에서 먼저 말을 걸었다.  
『여보 서원!』  
『왜 그러시오』  
『소변이 마려운데.....』  
『그 자리에 서서뇨』  
라고 했다.  
나는 서슴치 않고 선 자리에서, 아니 그것로 대로에서 오줌을 갈졌다. 휘황찬  
란한 달만이 내 심정을 알아주는 듯 따뜻해 보였다.

어느 길이 애국의 길이나  
우렁찬 대합창에는

그러니까 새벽 2시 좀 넘어서였다나는 두 보안서원의 총 칼 앞에 물리어 보안  
서까지 도착했다. 이 보안서는 일제 때 경찰서 자리였다. 집 구조를 대체로 알  
고 있었으나 유치장(留置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끌려 핏말도 없는 2층의 어떤 방에 들어섰다.  
『김과장동무 여기 이상욱을 대려 왔습니다』  
『어..... 수고했오』  
하고는 약 설흔땀 돼 보이는 덩수룩한 놈이,  
『음 자네가 이상욱인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이 때까지 온화한 표정이던 그는 금방 폭풍우를 몰아  
온 듯이 얼굴의 근육을 실룩거리며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자식. 너 왜 이리 왔는지 알아. 이맛대기의 피도 제대로 마  
르지 않은 자식 이 그래 미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해.....』  
하고 호통치는 것이 아닌가.  
(미제국주의 앞잡이 노릇.....)  
나는 그 말에 화가 발끈 치밀어 올랐다.  
『여보쇼. 말씀 좀 조심하쇼. 지금 당신은 무엇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따위 말투가 해방된 조국의 인민을 위한 인민의 공복인 보안  
서원의 말투요』  
라고 나도 만만치 않게 대하자,  
『자식 까지기는 더럽게 까졌군 그래, 이 자식 너까진 반동분자를 위해 살아  
가는 보안서원인줄 알아. 우리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야, 너까진 반동 놈들 때문에 있는 게 아니야 .....』  
나는 그의 이 말을 듣고 한 번 힐죽 웃어 넘겼다. 나 땀에는 가소롭다는 표  
정이었다.  
『여보. 참 당신도 한심하구려. 보아하니 이 보안서의 간부께나 되는 모양인  
데. 아니 그래 당신이 보호한다는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누구에게서 보호한다  
는 말ियो? 보호한다는 말은 그를 위협하는 세력에서 보호한다는 게 아니요.  
그것이 바로 공산당이란 말이군 그래. 당신은 나같은 사람을 위해서 있지 않  
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까지 끌어왔는거요! 이것  
이 인민을 위한 소행이요. 좀 공부를 하시오. 아침저녁으로 하는 독보회(讀報  
會)와 학습회(學習會)를 해서는 남주는거요. 나는 당신의 그러한 이론을 파서  
는 당신의 당성(黨性)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라고 나는 상대방을 낮추어 가며 점잖게 공박했다.  
토론을 좋아하는 그들이기는 하지만



그 이론이 물리케 되면 화를 내는 것이 무식한 놈들의 소행이다.  
『자식 여기가 자기 집 안방인줄 아니봐. 더럽게 주둥아리는 까지고. 네놈이 그래서 미 제국주의 놈들의 앞잡이가 됐군. 너 좀 혼나 봐야지…』  
술슬 흘켜보다 그는 건너편에 앉아있는 한 놈에게,  
『김동무! 이 자식 집어넣으시오』  
라고 호통 치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니는 수밖에 없었다.  
『이거 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두가 반말투 였다.  
(이것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보안서원들인가… 참 한심 하다.  
더럽게 건방진 놈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그 놈의 뒤를 따라갔다.  
유치장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그 유치장을 교화소(敎化所) 또는 교화장이라고 불렀다.  
이름만 고친 것이지 시설이나 내용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형식(形式)이 내용을 규정한다 그들은 일제(日帝) 잔재를 없앤다고 모든 이름을 적당히 고쳐 국민을 우롱한데 지나지 않았다.  
지하실 교화장에 내려갔다.  
희미한 전등불 빛 아래서 나는 호주머니의 소지품과 혁대(革帶)를 마끼고 열리는 창살문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감방 안은 캄캄해서 누가 누구인지 도시 알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그 감방 안에 사람이 맥맥히 들어 차 있는 것만 사실이었다.  
나는 겨우 남의 어대를 잡다 싶이 해서 빈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여보 서원동무』  
『왜 그러시오』  
『아니 그래 이렇게 어두어서야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있오. 불이나 좀 켜시다』  
『안 돼. 지금은 잠자는 시간요. 빨리 잠이나 자요』  
『여보 그래 잠들 자리를 봐야 자지 설자리 누울 자리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잔단 말이요』  
『누워자. 앉아서나 자시오』  
『여보. 여기 들어온 것도 원통스러운데 앉아가기야 어떻게 앉아야요. 이불과 요를 덮고 깔지는 못할망정 누워서 자야하지 않겠소』  
『아 참 말이 많네. 저 사람이 미 제국주의 앞잡인 모양이야』  
『새끼 입 다쳐. 새끼들은 말끝마다

미 제국주의, 미 제국주의하고 마치 동네집 애들 이름 부르듯 하지 않아. 속알 머리 없는 자식들. 미 제국주의 발꼬락에나 갈 놈 같으면 또 몰라. 보리밥도 없어 콩드베(콩기름을 쥔 꺼리)에 콩떡도 제대로 못 먹는 자식들 남을 헐뜯기는 …… 돼 먹지 못한 자식…』  
나는 무척 흥분한 어조로 또 한 바탕 고향을 쳤다.  
그랬더니 이번에 저 먼 어느 감방에서.  
『아니 그게 이상육 형이 아니요?』  
하고 고향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즉각  
『응. 정한동지이군. 나보다 먼저 왔군 그래』  
또 그런가 하니 또 어느 감방에서,  
『나두 왔어. 결국 이상육 형은 지각이요. 민정한형 이거 아래 윗집에서 살 게 됐어……』  
농담 섞인 안재필군의 말이었다.  
그때(새벽 2시 반경)까지 그 유치장에는 10여명이 잡혀 (우리 동지)와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형제나 만난 듯 더욱 용기를 얻어,  
『자아 민형, 그리고 동지들 오늘 이 시각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다 같이 노래를 부르세.  
『그거 좋지』  
누군가가 호응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독립행진곡을 부르세. 노래 하나, 둘, 셋』  
모두가 고창했다.  
어물고 괴로워라……(이 노래는 당시 북한에서도 불렀음)  
노래가 끝나자 민정한 군이,  
『배움에 굶주린 우리 학도에게 학구의 자유를 달라. 자유를 찾으려는 우리들을 뭇 때문에 감방에 잡아넣느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감방은 이때부터 소란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보안서원 몇 놈이 착검을 한 채 감방 복도에 달려왔다.  
『개새끼들. 조용히 하지 못해. 어느 새끼가 떠드느냐. 이 총으로 쏘버릴까봐.』  
어두운 감방 안은 물을 끼어 엷은 듯 조용했다.  
『다시 한 번 떠들기만 해봐 모조리 죽여 버릴까봐…… 새끼들…』  
나는 곰곰히 생각했다.  
안민을 위한다는, 아니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그들이 말끝마다 「개새끼」, 「개새끼」하는 데는 심히 불쾌했다.

<계속>



&lt;단편&gt;

## 은사(恩師)

김병로

소설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끔 친구나 독자들로부터 소재 제공을 받는 수가 있다. 한데 그 소재들이 진짜 소재구실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저들 땀에는 피기스럽다거나 스티일이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소재로 주는데, 받는 나의 입장에서 보면, 대개의 경우 그것들은 소설의 소재가 될 수 없는, 시골 사랑방 아랫목에서의 한 대목 이야기거리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소설이 될 수 있는 씨알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고 껍데기만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번 P부락의 K로부터 들은 나의 은사 R선생에 관한 이야기는 소설 소재가 될 것 같다. 그도 역시 나에게 소재 하나를 제공한다면서 R선생의 이야기 꺼냈는데 듣는 도중 난 이야기의 주인공이 뜻밖에도 나의 은사임을 알아내고 놀랬다. 놀랬다고 해서 소설의 소재가 된단 이야기 아니고, 이제부터 써내려가는 이야기를 읽으면 독자들도 느끼게 되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소설 스런 요소가 박혀 있는 것 같다. 우리 사회의 한 모서리에 충분히 실재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생활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소설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었다.

또 이 이야기는 R선생에 관한 것이므로 K보다 내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설로 만드는데에 꽤 유리하기도 할 것이다.

사실, 내가 R 선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K의 이야기만론 그걸 소설의 소재에까지 받아들여지지 못했을는지 모른다. 그만큼 K의 이야기엔 어지중간하고 아리송한 데가 많았다.

이번이 내가 K를 만나는 첫 기회였지만, 난 그가 내 글의 한 독자로서 나에게 주곤 하는 편지를 통해 그의 됴됨을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전 대학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일류는 몰라도 그 이하의 대학엔 능히 합격할만한 머리도 있고 또 집안 형편도 닿습니다. 하지만 전 당분간 진학을 않기로 하고 집에서 부모와 형님 들을 도와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K가 편지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대목에 이런 애매한 구절이 있었지만, 그 밖에도 그의 편지에는 어중간하고, 아리송하고, 미적지근한 구석이 많이 있었다. 도시 태도가 애매하고 젊은이로서의 박력이 없어왔다.

대학에 가고프고, 그럴 만한 머리와 재력이 있으면 내쳐 가는 거지, 왜 후퇴하느냐 말이다. 집에서 부모와 형들을 도와 농사일을 할 생각이면 거기엔 또 응분의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젊은 사람의 편지가 그토록 미적지근할 수가 있는가 하였다.

그렇기 땀에 난 K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었다. 작가로 데뷔할 당시에 편지나 전화로 내 작품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는 독자들이 많았고, K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들은 혹 떨어져 나가고 혹 소원해지는 수가 있었는데, K만은 근 삼년 동안을 한결 같았다. 그는 작품이 나갔을 때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한 달에 두세 번씩 꼭 문안편지를 보내오곤 했다. 때론 편지 속에 절기를 알리는 꽃잎이나 풀잎을 넣는 정성까지 보였다. 그러는걸 보면 얼핏 여간 꼼꼼내기가 아닌 것 같은데, 편지 내용은 한결같이 아리송하고 미적지근했다. 한번은 이런 구절이 끼어 있기도 했다.

「.....읍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처녀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가 역시 거기 놀러온 그 처녀와 인사하게 되었는데 가슴이 어떻게 뛰는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에게니까 숨김없이 말씀니다만 전 그 처녀를 좋아합니다. 아직 단둘이서 만난 일은 없습니다만

제 마음은 자꾸만 그리로 쏠립니다. 이게 사랑 이라는 거겠죠, 선생님?」  
K가 일년전부터 자기 집에 꼭 한번 오라는 걸 내가 선 득 나서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도 그의 그렇듯 어지중간한 성미가 싫어서였다. 근데 금년에 들어와서 그는 전보다 더욱 보채기 시작했다.

산수가 두루 좋은 고장이니까 한번 와서 휴양도 하고 또 좋은 작품의 소재도 얻어 갖고 가라 간청 하다가, 때론 남의 간청에 그토록 외면할 수 있겠는 가며 은근히 얼르기도 했다.

난 K의 정성이 그 정도인데 끝까지 응하지 않아선 원수 짓게 될 듯 싶어 드디어 P부락으로 가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마음을 정해 놓고도 난 쉬 떠나질 못하고 두어 달을 꾸물렁거리다가 지난 유월초순에 야 겨우 K에게로 떠났던 것이다.

기차를 타고 달리면서야 난 때를 잘못 택했던 생각을 하게 되었다. 차창 밖에 펼쳐지는 들판엔 모내기가 한창이었다. 어디를 보나 들판엔 원통 농번기의 분위기였다. 서울에 살면서 꽤는 계절에 민감한 척 했었는데, 농촌에 가면서 농번기를 생각 못한 자신을 생각하니 혼자 민망스러웠다.

K는 내 편지를 받고 역까지 마중나와 있었다. 첫 대면이었지만 사진을 봤기 땀에 어리짐작으로 난 사람들 속의 그를 알아낼 수 있었다. 그도 날 대뜸 알아보고 맞달려 왔다. 그도 신문이나 잡지에서 자주 내 사진을 본 탓인 것 같았다. K는 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흔들면서 기뻐했다. 그런데 그의 기뻐하는 태도에도 어딘지 아리송한 데가 있는 것 같았다. 마냥 기뻐하는 건지, 건성으로 그리는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기쁨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마음 폭 적셔서 기뻐해야 할 계제임이 분명한데 그의 태도엔 이따금 그렇지 못한 티가 보였다. 확실히 그랬다.

역에서 십리나 된다는 P부락까지의 거리를 들은 걸기로 했다. 이따금 시골 버스가 다닌다 했지만, 그 통로가 부락을 멀게 우회한다고 듣고 난 굳이 걷자고 우겼다.

시골 신작로를 터덜터덜 걸으면서 난 거기서도 농번기를 느꼈다. 해가 다 저물어가고 외진 물논에서 성급한 개구리들이 벌써 까드득 까드득 울기 시작하는데도, 들판에서 농부들은 허리굽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난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요?」

K가 의아해하며 반문했다.

「이렇게 농번기에 농촌에 쉬러 왔으니 말야.」

난 주변에서 허리 굽혀 일하는 농부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의 하시는 일과 우리 농사군이 하는 일이 다르잖겠어요? 선생님은 우리집에 오셔서도 머리속으로 일하실 거 아닙니까.」

난 K가 꽤 멋진 대답을 했다고 생각했다. 글 쓰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난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머릿속에 뭔가 생각하지 않고는 배기질 못한다. 비록 쉬러 간 곳에서도 앞으로 쓸 소설을 생각하지 않고는 못배긴다. 그건 본능적인 생리작용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난 P부락까지 걸으면서 K의 안팎을 대충 뜯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내가 짐작했던 것과 많이 틀리지 않는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못생긴 얼굴은 아니었는데, 거기 사내스런, 젊은이다운 씩씩함도 싱싱함도 없었다. 농사꾼답지 않게 흰 피부색이긴 했지만 정상이 아닌, 결마른 풀잎 같은 인상을 주어서 싫었다. 키도 보통은 넘는데 미끈치가 못하고 꾸부정했다. 몸피도 지나치게 추레했다.

성미가 어지중간하고 주변머리 없단 건 예측했던 그대로였다.

우린 어둑사리 겹을 무렵에 부락에 닿았다. 둥그스름한 야산 자락에 오십호가량의 농가가 달라붙어서 생긴 마을이었다. 마을 앞은 질편한 논인데, 이미 모가 심긴 물논에선 개구리들이 까드득거리며 시골짜를 떨고 있었다.

마을엔 그때에야 일꾼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난 일꾼들과 섞여서 K의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K가 미리 말끔히 치워놓은 사랑방에서 그와 겸상으로 구수한 시골의 저녁을 먹었다. 저녁 후에 희미한 전등불밑에 앉아 K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R선생의 이야기길 듣게 되었다.

처음 난 모와 조금만 이야기길 나누고 일찍 자려 했었다. K도 그랬겠지만 난 몹시 피곤했었다. 멀게 개구리의 까드득소리가 들리고 간간이 간헐적으로 개짓는 소리가 들리는 농촌의 밤은 차분히 피로를 몰아오는 것 같기도 했다. 근데 이야기길 하다 보니까 R선생이 튀어나와서 우린 밤늦도록 이야기길 나눠야 했다.

K는 나에게 소설의 소재 하나를 준다며 며칠 전에 죽은 요선생의 이야기길 꺼냈다. 처음에 난 그것이 R선생의 이야기인지 알지 못했었다. 그래서 별로 관심

없이 듣고 있었는데, 차차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난 혹시 그 사람이 R선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내 신경은 바짝 곤두서게 되었고, 마음에 R선생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며 K에게 하나씩 요선생의 특징을 들어가며 캐어묻기 시작했다. 해서 끝내는 K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R선생이란 확증을 잡게 되었다.

K의 말에 의하면 R선생은 일사후퇴 때에 단신 남하해서 P부락으로 흘러들어온 모양이었다. 해서 입대껏 이십년이 가까운 세월을 거기 살며 갖은 고생을 다한 모양이었다. 남의 집 사랑방을 전전하며 기식하는 동안 배우지 못한 논밭일과 허드레일을 해야 했다. 근데, 모든 일이 서툰 그에게도 도배질 하는 기술만은 남보다 뛰어 났던 모양이다 육척이나 되는 큰 키와 긴 팔이 그가 도배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R선생은 어느새 마을의 도배질을 도맡는 입장이 되었다. R부락뿐만 아니라 이웃 여러 마을에 출장까지 다니면서 도배질을 하게 되었다. 끼니를 떼우고 몇 푼의 용돈만 받으며 그분은 남의 방을 바르느라 열중했다. 그러나 도배질만으로 그분의 생활의 전부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다. 먹는 것과 용돈 정도라면 그걸로도 이력저력 해결이 되었지만 입는 문제와 병이 났을 때를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분은 그것까지 해결할 힘은 없었다. 늘 추레한 차림새로 풀기 없이 살아야 했다. 등이 꾸부정한 큰 키에 기린의 그것처럼 길다란 목, 그 목은 언제나 밀로 숙여져 있지 않으면 길게 맨 채 멀고 높은 데를 향해 있었다.

북녘 하늘아래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느라 그런다고 마을 사람들이 속덕였다.

그는 도통 말이 없었다. 웃음도 없었다. 무표정 한 얼굴에 가끔 냉소가 스칠 뿐이었다. 말을 잃고, 웃음을 잃고, 삶에 의욕마저 잃은 사람인가 싶었다. 그러나 그는 자살하진 않았다. 왜정하에서 국민학교 교장까지 지낸 사람이 남의 집 허드레일을 하느라 손톱이 닳는데도 삶을 팽개치진 않았다.

한번은 마을의 부자집에서 읍내에 버스를 사놓고, 똑똑한 차장을 구하다가 종래 R선생을 지목하게 되었다. 설익은 아이들에게 맡기기보다 늙긴 했지만 올곧기만 한 R선생에게 차장직을 주는 것이 안전하리라고 그 부자는 생각하게 되었다. 앞차장은 젊은사람에게 주고 뒷차장은 R선생에게 주어 차삿을 계산케 하려 했다.

그 부자한테서 그런 청을 받은 R선생은 월급이 좀 많단 생각해서 일른 차장

직을 수락했다. 해진 옷이지만 이리저리 묶어서 날렵한 차림새를 하고 R선생은 버스에 올랐다. 해서 올곧게 열심으로 일했다. 진종일 시골길 달리는 버스에 흔들리느라 몸이 피곤했지만 그는 열심으로 바르게 일했다. 근데 그분의 그런 태도가 운전수와 앞차장 더꺼머리 총각의 눈에 났다. 그들은 R선생더러 노골적으로 너무 정직하게 굴지말라하였다. 차삿을 조금씩은 슬쩍해안다고 주장했다. 그것이 그분에게 통할 턱이 없었다. 서로 대립이 되었다. 운전수와 앞차장은 나이가 저네 아버지뻘도 더 되는 R선생에게 노골적으로 적의 보이며 그분을 고립시켰다. 고립되면서도 R선생은 굴치않고 올곧게 일처릴했다. 둘은 부아가 났다. 늙은이를 톡톡히 혼살 내주리라 마음먹었다. 기회를 기다렸다. 마침 빈차로 외진 밤길을 달리는 기회가 왔다. 으스스한 고갯길에서 운전수와 앞차장이 눈짓을 교환하다가 차를 세웠다. 그리고 웬일인가 해서 어정쩡해하는 요선생에게 더꺼머리 총각이 쾌악스레 소리 질렀다.

「뒷차장영감 이리 좀 내려와요!」

더꺼머리 먼저 차에서 훌쩍 뛰어내리며 이렇게 외쳤다. R선생은 뒷자리에서 움찔대며 영문을 몰라했다.

「내리라면 빨리 내리지 뭐 하는 거야요, 영감!」

이번엔 건장한 체구의 운전수가 비상구로 내리다가 힐끔 뒤돌아보며 살벌스레 소리쳤다.

그제사 R선생은 가슴이 뜨끔해지는 위기를 의식했다.

<일은 났구나>

R선생은 속으로 이렇게 절망스런 생각을 하며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옮겨 승강구쪽으로 움직였다.

「영감, 죽어야겠어. 우릴 위해서 여기서 좀 죽어 주어야겠어!」

쉬을 꾸들꾸들 떨며 승강구를 내리는 R선생의 멱살을 다짜고짜 난폭스레 거머쥐며 더꺼머리가 나직히 그리고 잔인스레 말했다. 그의 눈에 독기가 있었다. R선생은 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며 숨이 막혀 드는 음성으로 멱살을 놓고 말하자 애원했다.

「멱살 놓을 것두 없어. 그대로 밀어서 저 벼랑밑으로 떨어뜨려 버리란 말야. 그간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는 늙은이 죽었는데 뒷탈이 있을 턱두 없다!」 어느새 차 앞머리 쪽으로 돌아 이쪽으로 나온 험상꾸러기 운전수가 더꺼머리에게 교사했다. 순간 요선생은 불알깨가 찌릿하는 극한의 위기 신호를 느꼈다. 죽었구나 생각하는 사품에 최후수단으로 한껏 저자세가 되어 밀어야겠단 결의가 생겼다. 그분은 빌기 시작했다.

생애를 두고 그렇게 비굴해본 적은 없었다. 다 낚아서 문들어져가는 생명이나  
 마 보존해보겠다고 늙은사람이 자식빨도 채 못되는 더꺼머리와 운전수 앞에  
 었드려 부복하고 빌었다. 그랬더니만 들은 마음을 약간 풀고 이렇게 따졌다.  
 「앞으론 모든 걸 우리에게 맡기는 거죠?」

더꺼머리.

「예. 조금도 간섭 안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벌써 요선생의 마음엔 이번에 돌아가면 차장자릴 내놓  
 겠단 결의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결의는 그대로 실현되었다.

이건 그 운전수와 더꺼머리가 읍내에서 아주 떠나 어디론가 사라진 뒤에 R선  
 생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지만, 그 밖의 여러 에피소드들은 그분이 속에 공  
 진 채 죽었을 거라 K가 말했다.

차장의 자리를 내놓은 뒤에 요선생은 곧 옛장수를 시작했다. 차주였던 부자  
 가 낚은 손수레 하나와 밀천을 좀 추어서 옛 장수를 시켰다. 방도 하나 그 부  
 자가 마련해 주었다.

그 방에 혼자 살며 R선생은 그 후 칠팔년 동안을 줄곧 옛장사를 하다가 얼마  
 전에 S강에서 투신자살을 했다.

그분은 옛장사의 여가에 남의집 도배질을 계속했다. 해서 제법 돈을 모으기  
 도 하여서 마을 사람들은 그분에게 장가들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마뜩한 상  
 대를 구해 놓고 강권하기 까지 했 지만

그분은 그럴 때마다 그저 픽 냉소해버리고 끝내 응하질 않았다. 앓고 혼자서  
 옛수레를 벗삼아P부락을 중심하고 이웃부락을 뱅뱅 돌다가 유서 한 장 안 남  
 기고 S강에 투신하고 말았다. 호주머니마다, 그리고 허리춤에 돈을 그득히 넣  
 어서 심이 떠오르지 못하게 하고 S 강에 깊은 데를 끌라 몸을 던지고 말았다.  
 시체는 고기 잡던 잠수꾼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그토록 강인하게 살던 삶을  
 그분이 왜 그렇게 스스로 버렸는지, 모두들 몰라했다.

K가 한 R선생에 관한 이야기의 줄거리는 대략 이런 것이었는데, 미리도 말했  
 지만 이것이 나 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난 별로 그 이야  
 기에 정신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었다. 한테 R선생이 나의 옛 은사였던 사실  
 이 밝혀지니까 나는 물론, 이야기 하는 K도 바짝 긴장하게 되었다.

참 세상은 넓고도 좁은 것 같다.

비록 죽은 뒤이긴 했지만, 내가 P부락에 가서 R선생의 소식을 듣게 되리라곤  
 꿈에도 상상 못했었다.

R선생은 나의 국민학교 때의 은사였다.

내가 이학년 되던 해 봄에 읍내 큰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전근되어왔다.

당시 우리 학교엔 교장선생외에 선생이 셋뿐이어서 한 사람이 두 학년을 맡  
 고 있었다. R선생이 일학년생을 맡게 되어 난 그분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다.  
 어린 내 눈에 R선생은 썩 무섭게 비쳤다. 키가 큰데 등은 굽고, 얼굴이 길어  
 서 우선 체구적으로 날 위압했다.

몸은 뼈뼉 말랐지만 힘도 무척 세고 뽀박질도 학교 선생 중에서 제일 빨랐다.  
 그런 점도 나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날 무섭게 한 것은 R  
 선생이 도통 말이 없고 웃음이 없단 점이었다. 공부시간에 글을 가르칠 때밖  
 엔 그분은 거의 말을 앓았다. 웃지도 앓았다. 말같이 긴 얼굴에서 크낙한 두  
 눈을 천천히 굴리며 우릴 노려보기만 했다. 그러다가 누가 말썽을 일으키  
 면 마치 소가 기침을 하듯 쿵쿵 헛기침을 몇 번 하곤 입가에 야릇한 냉소의  
 빛을 띄며 흑판 밑에서 참나무 초달을 들어 말썽 일으킨 아이의 종아리를 사  
 정없이 후려치곤 했다.

공부시간에 R선생은 너무 무뚝뚝해서 재미가 없었었다. 가상 재미있어야할  
 노래공부시간마저도 우린 흥겹지가 못했다. 풍금을 교탁 밑에 가져다 놓았는  
 데도 거의 이용하지 않고, R선생은 만년필을 뿔아 오른손끝에 꽂아들고 흔들  
 면서 육성으로만 노래를 가르쳤다. 하도 음부(音符)에 만 충실하다 보니까 노  
 래가 힘들기만 했다.

노래를 부르면서도 R선생은 얼굴에 근엄을 보였다. 기린처럼 목을 쭉 뽑고 노  
 랠 부르는데, 될수록 얼굴을 일그러뜨리지 않으려 드니까 힘들어 보였고, 힘  
 을 넣다보니 이마에 파란 힘줄이 내돋곤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난 R선생이 걸모습처럼 속도 엄한 분이 아니 라는 걸 알  
 게 되었다. 그렇듯 걷은 나무등걸처럼 굳고 뻣뻣했지만 속엔 인정이 있었다.  
 홍수가 저서 학교 앞 냇물이 불었을 때였다. 징검다리가 물에 휘뿔혀버려서  
 우리 몇몇이 냇가에서 망설이는데 마침 R선생이 뒤에서 오셨다. 우리가 하는  
 인사는 받는 등 마는 등 하고 바짓단을 훌훌 말아 올린 뒤 양말을 벗고서 그  
 분은 우리를 한 손에 하나씩 들어서 성큼성큼 냇물을 건너주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R선생은 말 한마디 없었다. 얼굴에 이렇다 할 표정을 보이기  
 조차 앓았다. 우릴 모두 건네놓고 나서 소처럼 썩 냉소를 비치고선 다시 양말  
 을 신고 길을 갔다. 그분은 P부락에서도 그렇게 산 모양이었다.

내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기까지 R선생은 그렇게 꼭 한번만 날 담임 하셨다. 그분은 졸업 일학년만 맡았기 때문에 난 더 담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담임은 않았지만 R선생은 늘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조속했던 탓인지 몰라도 난 초등학교 사학년 때부터 이성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 물론 그저 막연하게였지만 난 같은 반에 다니는 R선생의 딸 요양을 좋아하고 있었다. E양은 전교에서 제일 이뻐다. 얼굴이 반반하기도 했지만, 아이가 때를 벗어서 손아이드끼는 구별되었다. 그래서 오륙학년 남학생들 중에서도 그 애한테 마음을 두는 아이들이 있었다. 난 R양과 가까이 하는데 누구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난 부자집 외아들이었고 먼 유지의 아들이었다. 생김새도 차림새도 깨끗했다. 그래서 요양은 쉬 날 좋아하게 되었다. 난 그녀와 사귀이게 되면서 마음이 황홀해짐을 드문히 맛보았다. 어린것이 싸가지없이 R양과 부부가 되었을 경우를 머리에 그리며 끝없는 공상의 날개를 펴기 일쑤였다. R선생을 장인으로 생각하고 혼자 친근미를 느끼기도 했다. 오학년이 되면서부터 전교에 소문이 파다하니 퍼질 정도로 나와 요양의 사이는 가까워졌다.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애정의 표시같은 것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학교에서 가끔 만나 이야기하고, 서로 조금씩 위해줄 따름인데 짓궂은 친구들이 괴이쩍은 소리를 퍼뜨렸다. 난 그런 소문이 그리 두렵지가 않았다. 집어른들이나 요선생의 태도가 어떻게 염려가 있긴 했지만, 어린 소견에도 둘이 결혼하면 그만 아니나 하는 당돌한 생각이 들어서 소문이 두렵지 않았다. 우리 둘의 관계는 그저 그러간대로 졸업 때까지 계속되었다. 근데 졸업 후에 일이 이상하게 풀렸다. 난 R선생이 딸을 틀림없이 여학교에 진학시킬 줄 알았됐다. 근데 의외에도 그분은 딸의 진학을 완강히 막았다. 해서 난 중학교에 진학하여 도회지로 가고 R양은 학창을 아주 버린 채 시골집에 남아 있었다. 난 혼자만 진학하기가 몹시 서운했다. 중학에 진학한 뒤에도 난 R양을 생각하고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곤 했다. 그게 연애편지란 것도 알게 되었다. 그녀도 나에게 열렬스런 사연을 적은 편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내 마음은 변하기 시작했다. 도회지에 있으면서 세라복 차림의 여학생들을 보게 되니까 내 마음에서 요양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방학에 집에 돌아와 R양을 직접 만나보게 되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빨라졌다. 그녀는 초라했다. 세라복의 여학생을 보던 내 눈에 R 양의 촌스런 모습은 마치 지난날에 요양이 학교에 처음 나타났을 적에 미리부터 있었던 손아이드의 그것처럼 초라했다.

방학이 끝나고 다시 도회지로 돌아왔을 적에 내 마음은 P.양에게서 아주 떠나고 있었다. 편지 쓸 생각이 없고, 그녀에게서 오는 편지가 귀찮아서, 학업에 방해가 되고 또. 선생들이 알게 되면 큰일 나니까 인제 편지를 하지 말라고 타이르는 편지를 보냈다. 그런 내 단교의 편지를 받고 그녀는 크게 실망하여 얼빠진 사람 모양 마을을 포다닌 모양인데, 그녀의 부모들은 곧 그녀를 농사꾼에게 시집 보내고 말았다.

난 아직도 R선생 내외의 딸에 대한 그런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 형편이 안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만한 힘은 충분히 있는데도 R양을 진학 안시켜 실의에 빠지게 했다가 결국은 어린 것을 농사꾼에게 아무렇게나 치워버린 처사를 이해 할 수 없다.

암튼 R 선생은 그런 관계로 해서 남달리 내 머리에 깊이 남아있었다. 그런데 그 R선생을 난 해방 이듬해 여름에 장터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R선생은 내가 중학교 이학년 되던 해 봄에 시골 작은 학교 교장으로 영전되어서 내 고향을 뗏기 때문에 그 후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장터에서 장사꾼이 된 그 분을 만나게 되었다.

사람의 처지가 잘 바뀌는 세상이라곤 하지만 해방 후 몇 해 동안 북한에서처럼 급변하는 걸 난 본 적이 없었다. 정말이지 그 커다란 무표정한 R선생이 장사꾼이 되어 장터에 나타나리라곤 난 상상도 못했었다. 물론 나도 재산을 몽땅 몰수당하고 거지 신세가 되어 장터를 떠돌이 하는 장돌뱅이로 전락되어었지만 그래도 R선생의 그런 변화는 나에게 너무 놀라웠다.

장사라도 일정한 장소에 전을 펴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R선생은 물건을 지고 안고 걸고 쏘다니며 하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주로 학용품을 취급했다. 학습장이랑 연필, 그리고 삼각자며 콤팩스 등을 지고 들고 장사했다. 학용품 외에 고무줄이며 바늘, 머리침 따위도 조금씩 취급했는데 고무줄은 그 기다란 목에 걸고 다녔다.

국방색 당꼬마지에 일본식 국민복 윗도리를 입고 머리에 봉투리가 나간 농립을 둘러쓴 기다리 R선생이 개나리뿔 짐식으로 물건을 지고, 목엔 고무줄을

늘어뜨리고, 손에 학습장, 연필을 들고 흔들며 겁죽겁죽 걷는 모습은 처량함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떠돌이 장를 했지만 R선생은 거닐면서 입으론 아무 소리도 외치지 못했다. 남들은 배락배락 소릴 지르며 쓰다녔지만 그분은 그저 이따금 나직히 헛기침을 쿵쿵거릴 뿐 무얼 사라는 소린 내지 못했다.

이런 R선생이 장터에서 나와 맞닥드렸을 적엔 엔간히 당황했다. 크낙한 눈망울에 야릇한 빛을 피우며 입가에 냉소를 먹음었다.

난 R선생을 가까운 떡집에 모시고 가서 점심 대접을 하면서 저간의 이야기들을 물었다. 해서 그분도 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산당에게 직장도 집도 재산도 모두 빼앗기고 그런 처지가 되었던 걸 알았다.

그 후 나와 두 세면을 만나곤 R선생은 내 눈앞에서 아주 살아져 버렸다. 아마 내가 도는 장마당 코스에서 멀리 떠나간 모양이었다.

난 애써 R선생을 찾지 않았다. 앓은 것이 아니라 못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해결하기에도 바쁜 나에게 그런 정신적인 경황이 없었다. 난 남하하여 처지가 안정되었을 적에 가끔 R선생의 생각을 하고 그 때에 애써 찾지 않았던 내 무성의를 뉘우치곤 했다.

밤늦도록 K에게서 R선생의 저간의 행적을 들은 이튿날 저녁 난고의 안내를 받아가며 R선생이 묻혔던 묘지를 찾아 떠났다. 강가에 있는 나즈막한 야산 기슭에 묻혔다 했다.

「선생님께서 제 청대로 미리 여길 오셨더라면 은사님과 그야말로 극적인 상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들판 오솔길을 앞장서 걸던 K가 뒤 돌아보며 이런 말을 뇌었다.

「글쎄 말이야…….」

난 침통스레 대답했다. 그리고 속으로 K를 나지리 여기지 않고 쉬 그의 청을 수락할 걸 그랬단 후회를 했다.

묘가 있던 야산은 강에 바짝 다가서있었다. 들판의 섬 산답지 않게 제법 오래된 소나무가 맥맥히 들어서 있었다.

R선생의 묘는 P부락 쪽에서 야산을 넘어 S강가로 내려가는 중턱에 있었다. 새로 쓴 묘라서 아직 생흙이 남아 있었다.

「이건 북향이 아닌가?」

난 묘앞에 준비해 갖고 온 술과 과일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생전에 하도 북쪽을 자주 바라보며 고향과 가족을 그리던 분이어서 마을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난 묘의 이야길 듣는 순간 가슴이 찢릿히

자극됨을 느꼈다. 울컥 느껴워지기도 했다. 마을사람들의 배려가 고마와서였다. 묘앞에 술을 따라놓고 K와 나란히 삼배한 후에 난 퇴배를 했다. 그리고도 남은 술을 표와 균배하다시피해서 마저 마셨다. 독한 소주라 주기가 곧 전신에 훈훈히 퍼졌다. 난 약간 감정이 일어섬을 느꼈다. 묘 옆 풀밭에 앉은 채 이윽히 북녘을 바라보았다. 먼 북녘 하늘 아래 내 있을 고향을 생각했다. 그리고 거기서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을 회억했다. 뒷산의 진달래꽃도 앞강의 뚝단 배도 생각하고, 학교에서 뛰 놀던 생각도 했다. 물론 요양의 생각도 했다. 자꾸만 옛일을 생각타보니까 애타게 고향이 그리워졌다. 가슴이 막막히 막히도록 그리워졌다. 설음이 눈으로 눈으로 뜨겁게 무겁게 집중되었다.

「선생님도 북쪽 고향을 생각하시는군요.」

옆에 서성대던 K가 이런 말로 내 공상을 깬다. 난 얼른 설음을 쫓고 이성을 되찾으며 말했다.

「안타깝게 그림군 그래.」

「공산당이 밍쥬?」

「밍구 말구. 놈들은 정말이지 인류에게 너무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 땅위에 이런 실향민의 무덤을 자꾸만 만들고……. 그뿐인가 그보다 몇 배 더 잔학스런 일들을 항다반사로 저지르고 있지.」

난 망향의 설음을 잊고 한참 동안 열을 올려 공산당의 죄악상을 K에게 설명했다. 드는 내 이야기에 참척했다. 뿐만 아니라 간작이 멸공의 굳은 결의도 표시했다.

어느 새 강에 산에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하늘이 해맑은데도 강가여서 그런지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강물이 파도쳤다. 소나무 숲에서 송뢰가 일었다. 몸이 으스스 추웠다.

「가쥬?」

K가 덩두런히 앉았는데 나에게 물었다.

「그럴까?」

난 일어났다.

난 K의 집에서 하루만 묵고 서울로 떠났다. 며칠 더 묵어야 한다고 표가 테를 쓰다시피 했지만, 남들이 모두 분주히 일하는 농번기의 농촌에서 오래 빈둥거릴 수가 없었다. K의 말대로 머리속에서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마는 바른 농촌에서 그걸 핑계로 더 노닥거릴 내 성미가 되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 흔들리며 난 R선생의 이야기를 꼭 소설로 써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소재를 나에게 준 K를 고맙게 생각했다. 아리송하고 미적지근하다고 그의 편지를 아내도 미소하곤 했는데, 앞으로 우리 부부는 그렇듯 사람을 가려서 생각하는 버릇을 고쳐야겠다고도 생각했다.

부록

**공군발전 20년 역사**

**1. 초창기**

**1948.4.1.**

제 2차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해외 항공계에서 활약하던 항공인들이 귀국하여 조선경비대 항공부대가 창설됨.

**1948.9.13.**

미군으로부터 10대의 L4형 연락기의 인수를 계기로 항공사령부로 승격하고 비행부대와 항공기지부대를 창설.

**1948.9.15.**

L4기로 서울상공에서 역사적인 최초비행을 실가.

**1948.10.14.**

미군으로부터 10대의 L5를 인수했으며, 당시 여수 반란사건을 비롯한 제주도 공산 “케릴라” 폭동사건 등의 진압작전에 참가함.

**1949.10.1.**

육군으로부터 분리하여 공군으로 독립.

**1950.5.14.**

전 국민의 헌납금으로 “카나다”에서 고등훈련기인 T-6 10대를 도입하여 여의도 기지에서 건 국호로 명명함.

**2. 전란기**

**1950.6.25.**

창설된지 8개월, 아직 1개군으로서의 면모도 갖추기 전에 불의의 공산침략에 직면한 공군은 즉각 여의도 기지에 작전지휘소를 설치하고

보유중인 경비행기 22대로 한국지상군과 UN군과의 연락임무를 비롯하여 적 정찰과 전단 살포임무수행과 목측에 의한 공중폭탄투하작전으로 남하하는 적의 지상군을 저지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50.7.2.**

미군으로부터 전투기 인수를 위해 제일 미공군기지에 파견되었던 조종사들이 F-51 무스탕 전투기 10대를 인수, 조종하여 대구기지에 도착, 그 다음날인 7월 3일 동.전투기에 의한 역사적인 출격을 개시하였다.

**1950.7월 하순**

진해에 기지를 두고 통영, 영천방면과 낙동강전선 일대의 적을 공격하여 많은 전공을 세움.

**1950.9.16.**

비행단이 평양에 진주했다가 10월 하순부터 대거 침입하기 시작한 중공군으로 인하여 대전기지로 이동하는 한편 잔여 비행단병력을 제주도에 이동하여 차기작전을 위한 비행훈련을 실시했음.

**1951.10.1.**

전투비행부대 강릉기지에서 출격개시 .

**1952.1.11.**

한국공군 역사상 최초로 100회 출격기록 수립.

**1953.7.27.**

휴전협정 성립. 전란 중 한국공군은 적보급로 차단작전에 5003회, 공지협동작전에 2851회, 100회 이상 출격조종사 39명을 배출하였으며 출격회수에 있어서 참전 UN공군 제2위를 차지하였고 업호를 90%라는 우수한 전과를 올렸다.

**3. 공군 현대화기**

휴전성립으로 시간적인 여유를 얻은 적은 휴전협정을 무시하고 재침을 위한 공군력 증강에 광분하였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공군은 전란 중



전투를 위주로 급속도로 확장된 공군을 정비하기 위해 장비의 현대화, 병력의 증강과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1955.4.29.**

C46 수송기를 도입하여 공수능력 확보.

**1955.6.20.**

F86F 전폭기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제트”화에 착수하였다.

**1955.8.17.**

T33 제트훈련기 최초인수.

**1957.7.30.**

한국공군 최초로 “레이다 사이트” 미군으로부터 인수.

#### 4. 전술공군체제 확립기

**1958.1.17.**

당 로 통 신 통제 업무 완전 인 수 운영 .

**1958.2.1.**

한국내 기상업무 관전인수.

**1958.7.16.**

H19 헬리콥터 최초인수.

**1960.11.14.**

F86D 전천후 제트요격기 최초인수.

**1962.5.29.**

현대화된 대규모의 항공창이 준공되어 각종 정비의 창정비 및 보급의 효율화를 도모케 되었음.

#### 5. 초음속 화기

**1965.4.30.**

F5A 초음속 신에 전폭기를 도입함으로써 한국공군은 초음속시대에 돌입하였다.

**1966.9.9.**

전투비행단 3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1966.10.17.**

C54 대형수송기의 도입을 계기로 “은마부대”를 창설하여 추월한 국군에 대한 공수지원업무를 담당함.

**1967.5.25.**

광주기지 종합준공.

**1967.10.20.**

UHHH 신형 헬리콥터 도입.

**1968.4.26.**

「마이크로 웨이브」 방공 통신망 개통.

**1968.6.13.**

레이다 기지 종합준공.

#### 6. 공군력 증강기(마하 2.5시대.)

소위 70년대의 무력남침을 호언하면서 군비확장에 광분하고 있는 북괴에 대처하기 위해 자주 국방력 강화가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장비의 현대화, 그리고 대간첩작전에 대비한 기지요새화 및 비정규전능력 강화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1969.8.29.**

미국으로부터 시계 최강의 “팬텀”기를 도입함으로써 한국공군은 이제 새로운 차원에 돌입하여 세계 막강 공군의 대열에 나서게 되었다.

편집여적



◇ …하늘이 티없이 드높다.

풍성한 가을은 무르익어만 간다. 먼, 먼산의 봉우리가 평화스럽고, 농부의 얼굴엔 웃음이 한가득… 격정(激情)속에 뒤끓던 하이얀 모래위엔 이제 지나간 계절의 여운(餘韻)이 흐른다.

한여름의 열정(熱情)과 번거로움 속에서 성 인내로 안겨진 가슴 가득한 삶의 사연, 환화-

아 정녕 가을인가!

◇ 10월 1일은 우리 공군의 20주년 탄생기념일. 병력 불과 1천여명과 L형기 20대로서 출발한 어린 공군이 그간 흑심한 6·25동란을 겪고, 공군현대 화기(F-86F 도입), 전술공군체제 확립기(F-86 D 도입), 초음속화기(F-5A, UH-1H 도입)를 거쳐서 오늘의 마하-2 「팬텀」도입의 공군으로 어엿한 성년이 되었다.

회고하건대 오늘의 강력한 한국공군

이 있기까지는 각 전선에서. 조국의 영공을 지키다가 산화한 명령들과 선배전우들의 심혈 어린 노고가 깃들었다. 그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여기 우리의 사명 더욱 중차대함을 느낀다. 다 같이 힘 모아 조국수호와 공군의 발전을 위해 전진, 전진하자

◇ …우리가 갈망해오던 「팬텀」기의 인수식이 드디어 지는 8월 29일 ○ ○기지에서 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팬텀」은 전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전폭기로서 연료 총 적재량 무려 3,340갈론(66드럼), 음속 2.5배, 무장, 기타면에 있어서는 물론, 어느 전폭기도 대응할 수 없다는 것. 1대당 약 7억원이라니 그 자체의 귀중성 불문가지야라. 「팬텀」을 다루는 조종사들과 후방요원들의 건투를 각별히 빈다.

◇ …공군창설 20주년기념호로 특집을 꾸몄다. 그래서 공군의 대가족이 참여. 역대 총장으로부터 병(兵)에 이르기까지, 사회인사는 물론… 내용은 공군시절의 회고, 실전수기, 공군을 보는 눈 등으로. 독자들의 많은 손길이 더듬어지길…… <준>



서종철 육군총장 공본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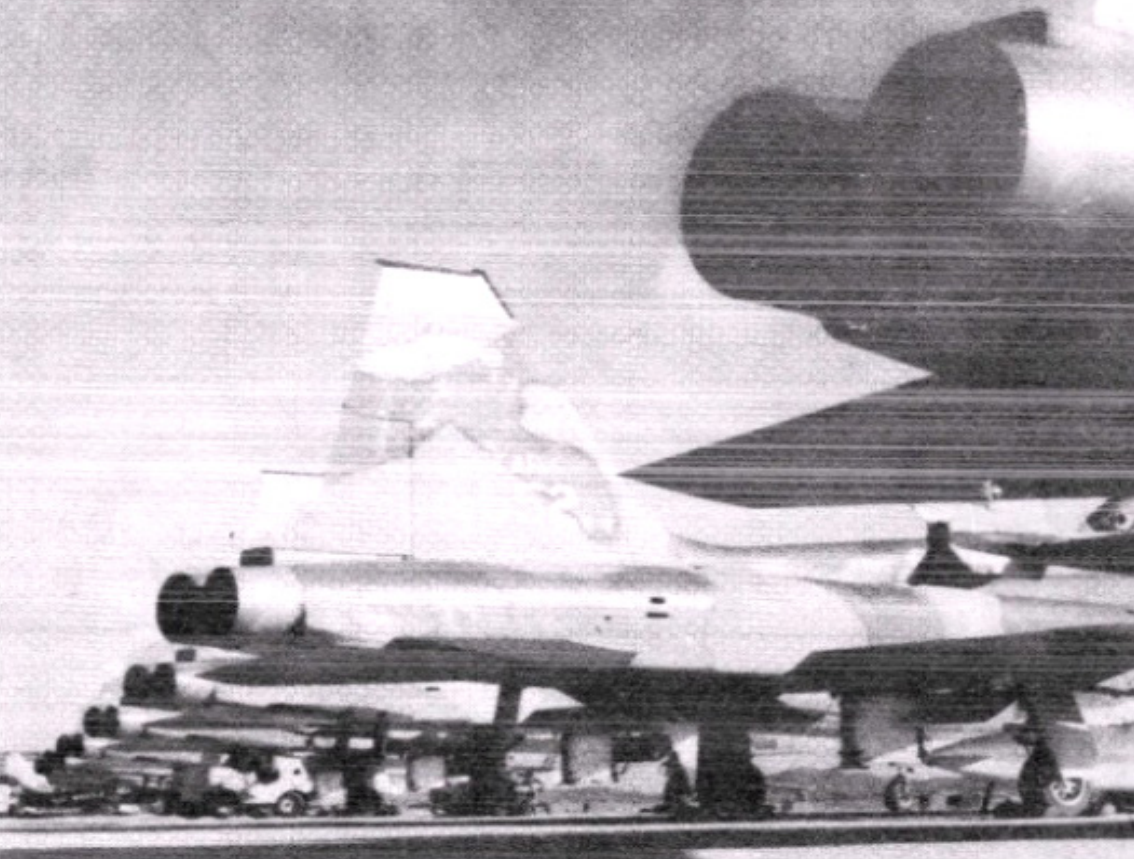
신임 육군참모총장 서종철대장이 9월 3일 인사차 공군본부로 김성룡대장을 예방하였다.



전부대 정훈관회의개최

공군예하 전부대 정훈관회의가 9월 3일 공본 기획상황실에서 김성룡총장 ○○○○○○

우리는  
삼천만의 방패!



전 세 태 세 완 비

인 화 단 결

전 력 증 강  
전 기 증 연  
작 각 반 응

솔 선 실 행  
공 지 일 체  
기 강 확 립



공 권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